

국제학술회의

발해 동경용원부 팔련성의 도성 조영과 역할

일시 2017.4.14(금) 09:00~18:00

장소 동북아역사재단 11층 대회의실

주최 동북아역사재단 · 고구려발해학회

● 학술회의 일정

개회식 09:00~09:20

사회 : 이성제 (동북아역사재단)

개회사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환영사 공석구 (고구려발해학회 회장)

축사 이동섭 (국민의당 국회의원)

제1부 09:30~12:00

사회 : 김진광 (한국학중앙연구원)

발표 1 **동경지역의 역사적 연원과 지역성**

발표 : 구난희 (한국학중앙연구원) 토론 : 권은주 (경북대)

발표 2 **팔련성의 구성요소와 기와 생산체계**

발표 : 윤재운 (대구대) 토론 : 공석구 (한밭대)

발표 3 **9~10세기 발해와 일본 교류의 재검토**

발표 : 임상선 (동북아역사재단) 토론 : 김기섭 (한성백제박물관)

발표 4 **瓦当編年으로 본 河南屯古城·西古城·八連城의 評價**

발표 : 고지마 요시타카 (카나자와대) 토론 : 백종오 (교통대)

중식 12:00~13:30

제2부 13:30~15:50

사회 : 양시은 (충북대)

발표 5 **발해 상경성 외성벽 남쪽문과 북쪽문의 고고 발굴**

발표 : 김태순 (흑룡강성고고연구소) 토론 : 홍형우 (강릉원주대)

발표 6 **발해 도성 발굴보고서로 분석해 본 신라와 발해의 건축기술 동질성**

발표 : 이병건 (동원대) 토론 : 김왕직 (명지대)

발표 7 **발해 동경용원부의 치소와 소속 네 개 주의 위치 고찰**

발표 : 정영진 (연변대) 토론 : 김은국 (동북아역사재단)

발표 8 **발해의 성벽 축조방식에 대해**

발표 : 정석배 (한국전통문화대) 토론 : 안성현 (고려문화재연구원)

종합토론 16:00~18:00

좌장 : 한규철 (경성대)

● 목 차

• 개회사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06
• 환영사	공석구 (고구려발해학회 회장)	08
• 축 사	이동섭 (국민의당 국회의원)	10
• 제1부		
동경지역의 역사적 연원과 지역성		15
구난희 (한국학중앙연구원)		
팔련성의 구성요소와 기와 생산체계		43
윤재운 (대구대)		
9~10세기 발해와 일본 교류의 재검토		61
임상선 (동북아역사재단)		
瓦当編年으로 본 河南屯古城·西古城·八連城의 評價		87
고지마 요시타카 (카나자와대)		
• 제2부		
발해 상경성 외성벽 남쪽문과 북쪽문의 고고 발굴		111
김태순 (흑룡강성고고연구소)		
발해 도성 발굴보고서로 분석해 본 신라와 발해의 건축기술 동질성		119
이병건 (동원대)		
발해 동경옹원부의 치소와 소속 네 개 주의 위치 고찰		147
정영진 (연변대)		
발해의 성벽 축조방식에 대해		167
정석배 (한국전통문화대)		

●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호섭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발해 동경용원부 팔련성의 도성 조영과 역할”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해 주신 흑룡강성고고연구소의 김태순 선생, 연변대학의 정영진 선생, 일본 카나자와대학의 고지마 요시타카 선생, 그리고 함께 발표와 토론, 사회를 맡아주실 국내 학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학술회의를 재단과 함께 개최해 주신 고구려발해학회 공석구 회장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께서 축사를 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재단의 행사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재단은 올해를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주변국과의 다양한 학술적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국제학술회의도 발해가 동아시아사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면서 연구의 국제화를 모색하고 세계 학계와의 소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번 학술회의의 주제는 발해 동경용원부 팔련성의 도성 조영과 역할입니다. 동경성 시기 발해 도성의 축조와 운영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해 보려는 것입니다.

발해사의 영역은 현재 중국, 러시아, 북한의 3국에 걸쳐 있고 발해사 연구자는 이들 영역을 넘어 일본, 몽골 등에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발해사 연구의 국제화가 필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발해사는 이제 동북아를 넘어 다양한 지역의 학자들과 연구 성과가 모아지는 분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재단은 앞으로도 발해사 연구의 진작과 국제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학술회의에 원고를 작성해 주시고 토론과 사회를 맡아 주신 국내외 연구자들과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신 한규철 선생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학술회의를 준비한 재단과 고구려발해학회의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만발한 봄과 함께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 4월 14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 호 섭**

● 환영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고구려백해학회장 공석구입니다.

고구려백해학회는 고구려사, 백해사를 비롯한 북방사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학회입니다. 이제까지 학회지인 『고구려백해연구』를 57집까지 발간했습니다.

오늘 우리 고구려백해학회는 백해시대 東京으로 기능했던 팔련성을 주제로 하여 국제학술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학술대회는 동북아역사재단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백해사의 진실에 대해서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백해의 東京이 있었던 중국 길림성 훈춘지역은 중국·러시아·북한과의 경계지역이기도 하여 당시 백해사의 국제성까지도 연상케 합니다. 백해시대 동경의 입지조건이 일본과의 교류에 유리한 지역이기도 하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학술대회는 백해왕성 팔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오늘의 구체적인 연구발표와 학자들 간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백해사의 진실은 점차 분명해져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학술대회를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이동섭 국회의원님과 동북아역사재단의 김호섭이사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니다. 발해사 연구를 활성화하는데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한 발해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외국학자들도 참석하였습니다. 중국 연변대학의 정영진선생님, 흑룡강성 고고연구소의 김태순선생님, 일본 카나자와대학의 고지마 요시타카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의 발해사 연구자들이 대부분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한국학중앙연구원 구난희 선생님을 비롯한 석학 여러분.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경북대 권은주 박사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 종합토론을 맡아 다양한 의견을 조율해주실 한규철 전 고구려발해학회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의 이 자리가 만들어지기 까지 힘을 기울여주신 동북아역사재단, 고구려발해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의 학술대회를 통해서 발해사의 실체에 대하여 한 걸음 다가섰다고 자부합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여러분의 건강과 평안하심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14일

(사) 고구려발해학회장 **공 석 구**

●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국회의원 이동섭입니다.

존경하는 동북아역사재단 김호섭 이사장님, 고구려발해학회 공석구 회장님과 오늘 학술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국내외 발해사 학자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동북공정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우리나라 역사 왜곡 대응에 초점을 두고 사업과 연구를 진행해 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역사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의정활동 중 여러 자리에서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사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재단에 대해서는 발해사연구를 더 활발히 해 줄 것을 주문해 왔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재단이사장님께 질의하였던 시간이 생각납니다. 발해는 고구려 유장 대조영(大祚榮)이 동모산(東牟山)에 건국하고 이어 상경성, 서고성, 팔련성 등으로 도읍을 옮기면서 해동성국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발해는 그 지배층이 고구려 유민이 중심이고 기록과 유적 유물을 통해서 당연히 한국사에서 신라와 함께 남북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입니다. 발해와 고구려, 고조선의 역사 영역이 현재 중국의 영토 내에 포함된 관계로 이들 한국사의 줄기를 모두 중국의 역사로 둔갑시켜가는 중입니다. 중국은 발해 역시 당시 당나라의 일개 지방정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발해와 그 역사를 아직도 제대로 조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사에서 발해사를 온전히 드러낼 시간이 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오늘 학술회의 주제가 발해 동경 팔련성을 중심으로 설정된 것이어서 본 의원의 기대가 더욱 큼니다. 발해는 한국사 속에서 대륙과 해양을 동시에 경영한 위대한 국가였습니다. 발해는 광활한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5경을 두었는데, 팔련성은 바로 동경으로 현재 길림성 훈춘(琿春)에 있습니다. 팔련성을 중심으로 한 동경 지역은 지금도 지정학적으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중요한 국제 교통로로 자리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입니다. 그 출발은 바로 발해국 해동성국 시기에 놓인 동서대로(大路)였으며, 그 정점이 동경 팔련성이라는 데에서 오늘 학술회의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모쪼록 이번 “발해 동경용원부 팔련성의 도성 조영과 역할” 국제학술회의가 발해사 연구 기풍의 진작과 해동성국 발해의 진면목을 드러내고 중국의 왜곡된 발해사 인식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14일

국회의원 이 동 섭

〈일러두기〉

* 이 자료집은 2017년 동북아역사재단 국제학술회의 발표문을 모은 것입니다. 각 발표문에 제시된 특정 주제에 대한 관점과 연구 결과, 제안 등은 발표자 개인의 견해이며, 재단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제1부

발표 1 **동경지역의 역사적 연원과 지역성**

발표 : 구난희 (한국학중앙연구원)

발표 2 **팔련성의 구성요소와 기와 생산체계**

발표 : 윤재운 (대구대)

발표 3 **9~10세기 발해의 대일본 교류**

발표 : 임상선 (동북아역사재단)

발표 4 **瓦当編年으로 본 河南屯古城·西古城·八連城의 評價**

발표 : 고지마 요시타카 (카나자와대)

〈발표 1〉

동경지역의 역사적 연원과 지역성

구난희 (한국학중앙연구원)

1. 들어가는 말

渤海 東京이 吉林省 琿春市 八連城이라는 데는 거의 이견이 없으므로¹⁾ 이 발표는 琿春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하지만 동경용원부가 어디까지를 포괄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동경용원부 소속 현은 물론이고 주에 대한 위치 비정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다만 慶州는 濛特赫部城, 鹽州는 크라스키노, 살기성을 穆州 혹은 賀州로 비정하는 견해를²⁾ 대신할 이렇다 할 새로운 논거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두만강 하류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훈춘시 일원, 함경북도 그리고 러시아의 동해 연안을 대상으로 다루고자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러시아의 綏芬河 일대로부터 우수리스크에 이르는 率賓府 지역도 다루겠다.

이 지역은 산이 많으며 전체 지형은 東北高 西南低의 형세를 이룬다. 북쪽에는 盤嶺山脈이 동서로 뻗어있고³⁾ 동북쪽에도 서남으로 長嶺子 산맥이 이어진다. 이들 두 산맥 사이 골짜기를 따라 발원한 琿春河가 三家子鄉을 지나 豆滿江으로 합류한다. 盤嶺山脈을 비롯한 북쪽의 산악 지형이 천연의 병풍 역할을 하고 동해 연안과 접하고 있어 동해로 흐르는 난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같은 위도상의 내륙에 비해 기후가 온난하고 강수량도 비교적 풍부하다. 여기에다 특히 훈춘하 양안의 토지는 매우 비옥하여 거주 환경이 비교적 뛰어나다. 또한 내륙 수로와 동해가 연결되면서 대내외 교통이 원활한 이점을 갖고 있다. 이런 탓에 역사 시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문화 유산과 역사적 궤적을 안고 있다.

1) 1990년 채태형의 제기한 이래 북한학계는 함경북도 청진시 청암구역 부거리 일대를 동경으로 비정하였다. 『遼史』 地理志에서 東京龍原府가 20리에 달한다고 했던 점, 『新唐書』에서 바다에 면했다고 기록한 점, 발해 遣日使의 출항시 팔련성 인근의 포시에트만이 동결된다는 점을 들고 청진시 부거리 일대에서는 석성이 확인되고 동남으로 바다와 면해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하지만 팔련성과 같은 공성 유적지가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규모면에서도 부급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2) 이근재, 「훈춘의 발해 옛 성」, 김정배·유재신 편, 『발해국사(1)』, 정음사, 1988, 61쪽.(원자료는 『學習與探索』 1985-6에 수록됨)

3) 이 곳의 盤嶺이 훈춘과 왕청의 경계를 이룬다.

제목에서 밝혔듯이 이 글은 渤海 東京 지역(이하 ‘동경 지역’)의 역사적 연원을 살핌으로써 이 지역이 갖는 특성을 파악하고 동시에 그러한 특성이 각 시대별로 어떤 역할로 귀착되었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이는 이 지역의 한국사적 맥락과 의미를 재검토 해보려는 취지도 있지만, 이 지역의 역할이 변화되는 지점과 그 의미를 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발해 동경’의 의미를 재인식해보려는 의미도 포함한다. 우선 각 시기별로 이 지역의 상황을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하겠다.

2. 沃沮 시대의 동경 지역

이 지역이 문헌에 등장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왕조는 沃沮이다. 沃沮는 『後漢書』와 『三國志』에서 ‘東沃沮’로 입전되고 『三國史記』에서도 신라 및 고구려와 옥저간의 관계를 언급하는 가운데서 등장하고 있다. 관련 사료는 아래와 같다. 삼국사기 기록은 옥저가 고구려에 복속되기 이전까지의 내용만을 포함하고 이후 고구려에서 다루기로 한다.

A-1. 東沃沮在高句驪蓋馬大山之東 東濱大海 北與挹婁夫餘 南與濊貊接 其地東西夾南北長 可折方千里 土肥美 背山向海 宜五穀善田種 (中略) 武帝滅朝鮮 以沃沮地爲玄菟郡 後爲夷貊所侵 徙郡於高句驪西北 更以沃沮爲縣 屬樂浪東部都尉 至光武罷都尉官 後皆以封其渠帥 爲沃沮侯 其土迫小 介於大國之間 遂臣屬高句驪 高句驪復置其中大人 遂爲使者 以相監領 責其租稅貂布魚鹽 海中食物發美女爲婢妾焉 又有北沃沮一名置溝婁 去南沃沮八百餘里 其俗皆與南同 界南接挹婁 (『後漢書』 東夷傳)

A-2. 毋丘儉討句麗 句麗王宮奔沃沮 遂進師擊之 沃沮邑落皆破之 斬獲首虜三千餘級 宮奔北沃沮 北沃沮一名置溝婁 (中略) 挹婁喜乘船寇鈔 (『三國志』 魏書 東夷傳)

A-3. 王命扶尉獸 伐北沃沮 滅之 以其地爲城邑 (『三國史記』 卷13 高句麗本紀1 東明聖王 10年 冬11月條)

A-4. (기원전5년)東沃沮使者來, 獻良馬二十(百?)匹曰 寡君問南韓有聖人出 故遣臣來享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1 赫居世居西干 53年條)

후한서(A-1)에는 옥저의 위치, 생활습속을 기록하고 있는데 삼국지의 서술 내용도 대동소이하다. 다만 삼국지는 여기에 더해 정치 변동 상황과 제도를 첨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옥저는 한서 지리지에 낙랑군조에서 소속현 25개현을 열거하는 가운데 夫租라는 명칭으로 더 이른 시기에 등장한다.⁴⁾ 한서 지리지만이 아니라 평양 정백동 364호 무덤에서 출토된 初元4(기원전 45)년에 작성된 낙랑군 호구부 자료에도 ‘夫租縣’이 기재되어 있다.⁵⁾ 한대에 부조라 했던 것이 삼국지 동이전에 오면서 옥저로 표기가 바뀌었다고 본다.⁶⁾

삼국지에는 옥저의 변동을 기재하고 있다. 옥저가 위만조선에 복속되었다가 한4군이 성립되면서 玄菟郡이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으나 이는 중간 과정을 생략한 채 현도군이 최대 영역이었을 때인 1세기 상황만을 적음으로써 오해를 초래하였다고 지적된다.⁷⁾ 초기 옥저는 臨屯郡에 속하였는데 임둔군이 폐지되어 현도군에 합속되었고 다시 기원전 75년 현도군이 폐지되어 樂浪郡 東部都尉에 속하였다가 동부도위의 폐지로 후군이 되었다. 아울러 고구려의 제도를 언급한 뒤 冊丘儉 침략시 고구려 왕 宮(동천왕)이 이 곳에 은거하였다가 다시 북옥저로도 망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A-2). 그리고 북옥저와 남옥저는 이에 연이어 서술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일반적으로 동옥저로부터 북옥저가 갈라져 나온 것으로 보지만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⁸⁾

서술 내용 중에는 동옥저, 북옥저, 남옥저가 혼용되고 있어 이들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위의 추정과 달리 동옥저는 동예라는 명칭처럼 동쪽에 있는 옥저라는 의미를 담은 표현으로 옥저의 총칭이며 기원전 1세기 이후 세력이 확장됨에 따라 북옥저와 남옥저로 분화되었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⁹⁾ 함흥에서부터 두만강 유역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여러 읍락들이 옥저라는 이름으로 통칭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전의 함흥 일대의 옥저 집단과 구분하기 위해 두만강 이북의 집단을 북옥저로 칭하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¹⁰⁾

이 글에서는 후한서와 삼국지 모두 옥저를 ‘東沃沮傳’이라는 명칭으로 입전하고 있다는 점

4) 『漢書』 卷28下 地理志 8下 樂浪郡條.

5) 윤용구, 『평양출토 ‘낙랑군조원사년별호구부’ 연구』, 『목간과문자』3, 2009.

6) 이현혜, 『옥저의 기원과 문화 성격에 대한 고찰』, 『한국상고사학보』70, 2010, 50쪽

7) 이병도,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194~195쪽.

8) 이 외에도 慕容廆의 침입을 받은 부여 왕자가 옥저로 피신하였다는 『晉書』 기사를 토대로 북옥저 지역에 동부여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설도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논거를 보완할 세부 근거가 미약하므로 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이민수, 『3세기 옥저지역 동부여 건국설에 대한 검토』, 『동아시아 고대학』 41, 2016, 142~144쪽.)

9) 이현혜, 앞의 글, 57~58쪽.

10) 위의 글, 58쪽.

에 무게를 두어 동옥저가 총칭이라는 전제하에 영역이 확장되면서 지역별 구분이 필요했던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옥저의 위치를 설명하면서 ‘蓋馬大山之東 東濱大海 其地東西夾南北長’이라 한 것으로 보아 함경도 지역으로 보는 것이 한국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무엇보다 옥저의 위치를 언급하는 중에 ‘地東西(또는 東北)夾 南北(또는 西南)長’이라든가 ‘背山向海’등의 표현이 함경도의 지세와 맞아 떨어진다.¹¹⁾ 반면 중국학계의 다수 의견은 마천령산맥을 경계로 하여 그 이북을 옥저 지역으로 간주한다. 즉 함경남도는 제외하고 두만강 이북으로부터 수분하에 이르는 지역을 옥저의 주요 역사 무대로 보고, 다시 마천령 산맥으로부터 두만강에 이르는 지역이 남옥저이고 두만강 이북으로부터 興凱湖에 이르는 지역을 북옥저로 구분한다.¹²⁾ 譚其驤은 함경남도 일대를 남옥저로 보고 북옥저를 혼춘 일대로부터 보았다.¹³⁾ 혹자에 따라서는 漢代의 옥저도 두만강 이북에 있었다고 이해한다. 이러한 이해를 가져 온 일차적 원인은 고고성과의 과신으로 지적된다. 즉 團結(혹은 크로우노브카) 문화권의 초기 철기 문화 지역과 정치집단으로서 형성된 옥저를 문화단위의 동일 지역으로 파악하여 문와요소의 분포를 기준으로 구분짓은 것이다. 더 나아가 이같은 주장 이면에는 고고성과를 넘어서 좀 더 예민한 부분이 있다. 두만강 이북의 역사와 이남의 역사를 단절함으로써 동북 지방의 역사적 연원을 중국으로 일원화하려는 취지는 없는지 주의가 필요하다. 옥저만이 아니라 옥저 이후의 역사 이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옥저는 『晉書』이후 더 이상 입전되지 않는데 이는 고구려에 복속된 탓이다. 하지만 중국학계는 이러한 현상보다는 읍루가 성장하여 형성된 속신에 통합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 개설서의 기본 관점이다.¹⁴⁾ 함경북도 이북만을 옥저 영역으로 이해하는 것과 동일한 취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A-3에서 고구려가 일찍이 옥저를 멸하고 성읍을 두었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등장하고 있다. 이 시기 복속하였는가는 다소 의심의 여지가 있지만 고구려가 남옥저를 공략하기 전에 북옥저를 먼저 복속시켰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¹⁵⁾ 이러한 고구려의 선택으로 漢의 소극적인 변방정책을 이용하여 유리한 지점을 선점하였던 것이다.¹⁶⁾ 이 이면에

11) 특히 삼국지에서는 후한서와 다소 달리 ‘東北狹 西南長’이라 하고 있어 함경도의 지세와 더욱 부합하고 있다.(국사편찬위원회, 『조선전』1, 1987, 51쪽.)

12) 정영진, 「옥저 북옥저강역고」, 『한국상고사학보』7, 1992, 87쪽.

13) 譚其驤, 『中國歷史地圖集 釋文匯編』, 中央民族學院出版社, 1988, 100쪽.

14) 吉林省文物志編修委員會主編, 『渾春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修委員會, 1984, 8쪽.

15) 이현혜, 앞의 글, 59쪽.

16) 김미경, 「고구려의 옥저복속과 그 성격」, 『한국사의 구조와 전개』, 하현강교수정년기념논총간행회, 2000, 101쪽; 여효규, 「고구려 국내 천도의 시기와 배경」, 『한국고대사연구』66, 2005, 76쪽.

는 북옥저가 이미 고구려 영향하에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이 있었다.¹⁷⁾ 이 밖에도 이 지역에는 白山靺鞨이 거주하면서 고구려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¹⁸⁾ 발해 성립 이후 사회기반의 한 축을 조성하게 된다.

3. 高句麗 시대의 동경 지역

옥저 지역에 고구려가 진출한 사실은 『三國史記』 곳곳에 기록되어 있다. 관련 기록은 다음과 같다.

B-1. 王命烏伊扶芬奴 伐大白山東南荇人國 取其地為城邑 (『三國史記』 권13 「高句麗本紀」1 東明聖王 6年 冬10月條)

B-2. 王命扶尉馱, 伐北沃沮滅之, 以其地為城邑 (同 東明聖王 10年 冬11月條)

B-3. 王親征蓋馬國 殺其王 慰安百姓 毋虜掠 但以其地為郡縣 (『高句麗本紀』2 大武神王 9年 (32) 冬10月條)

B-4. 伐東沃沮 取其土地為城邑 (『高句麗本紀』3 太祖大王 4年(56) 秋7月條)

B-1의 기사에서 다룬 荇人國의 관련은 그것의 위치 비정에 따라 다소 견해를 달리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는 행인국을 강원도 연변 지역으로 비정하였기 때문이다.¹⁹⁾ 하지만 이는 태백산을 백두산이 아니라 묘향산이라고 잘못 이해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지리 비정의 오류를 낳았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²⁰⁾ 여기에 나오는 태백산이 백두산이라는 전제로 보면²¹⁾ 그 동남에 있는 행인국은 함경북도 무산 내지는 그 일대의 해안 지역이 된다.²²⁾

17) 박경철, 「부여사 전개에 관한 재인식 시론」, 『백산학보』40, 1992, 67쪽; 임기환, 「고구려의 연변 지역 경영 - 책성과 신성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38, 2012, 60-63쪽.

18) 임상선, 「발해 '동경' 지역의 고구려 문화요소」, 『고구려발해연구』25, 2006, 56-57쪽.

19) 『新增東國輿地勝覽』권54 寧邊大都隲府 古跡條.

20) 고려시대에도 태백산을 묘향산으로 보았으며(삼국유사 권1 기이편 고조선조; 고려사 권58 지리지 殷州條.) 조선초에 이를 그대로 이어갔다.

21) 여호규, 「고구려 초기 나부통체제제의 성립과 운영」, 『한국사론』27, 1992, 57쪽.

22) 한편 북한지리정보에서는 행인국이 함경산맥의 서부지역에 있었고 그 외곽에 북옥저가 있다고 보아 각각을 다른 실체로 보고 있다(북한지리정보 함경북도 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91140&cid=44454&categoryId=44465>)

행인국은 고구려가 정복 지역에 성읍을 두어 다스린 첫 사례가 된다.²³⁾ 고구려는 행인국을 차지한 후 이 일대를 북옥저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십분 활용할 수 있었다.²⁴⁾ 과연 다음 기사(B-2)에서 보듯 고구려는 연이어 북옥저를 복속하고 하였다. 북옥저 또한 행인국과 마찬가지로 성읍을 삼았다.

다음에 등장하는 기사는 개마국을 군현으로 삼았다는 내용이다. 후한서에서 옥저가 개마대산의 동쪽에 있다고 언급하였으므로(A-1) 개마국은 이 일대로 추정되므로 북옥저를 장악한 후 다시 고구려의 진출 방향을 서쪽으로 옮겨졌다고 이해된다. 荇人國-北沃沮-蓋馬國-東沃沮로 이어진 고구려의 진출로 보면²⁵⁾ 동북 방향으로 진출하고 다시 방향을 틀어 서쪽으로 옮겨졌다가 동남 방향으로 전환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혼춘 일대의 장악이 쉽지 않았거나 관심 대상 지역이 아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동부여 장악 후에 개마국의 군현 설치와 달리 城邑을 두었다는 사실(B-4) 역시 이러한 정황과도 부합된다. 大武神王 때 好童 왕자가 옥저에 유람 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²⁶⁾ 고구려의 진출 이후에도 양국의 관계는 우호적이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이 곳에는 다시 군현이 아닌 城邑을 두었다고 언급되고 있다. 城邑 설치의 고구려의 이 지역 복속이 정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지배가 아니라 지역민 단위로 지배한 것으로 이해되며, 더욱이 삼국지나 후한서에서 여전히 옥저가 입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3세기까지 정치세력으로 존속하였을 것이라는 지적은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한다. 앞서 제시한 A-1에서 보면 고구려로부터 사자를 파견하지만 동시에 그 지역에 대인을 두어 '相監領'하였다는 것은 이러한 정황을 말한다. 북옥저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 하겠다.²⁷⁾ 사자의 주요 업무가 조세 징수와 노동력 동원이었으며 각종 특산물이 원거리로 운송되었다.

고구려의 책성 진출은 태조왕 때부터 등장하고 있다.

B-5. 王東巡柵城 至柵城西廡山 獲白鹿 及至柵城 與羣臣宴飲 賜柵城守吏物段有差 遂紀 · 於岩乃還 (중략) 王至自柵城 (『高句麗本紀』3 太祖大王 46年(98) 春3月條 및 10月條)

B-6. 遣使安撫柵城 (同 太祖大王 50年 秋8月條)

23) 이전 점령지인 沸流國 등은 諸侯國으로 병하였다.

24) 나하나, 『고구려 태조왕대 이전의 정복활동과 통치방식』, 『전북사학』43, 2013, 35쪽.

25) 고구려의 진출 방향은 長白, 惠山-吉州을 지나 荇人國을 복속한 뒤, 동해안으로 북상하여 북옥저 복속을 이루었다고 본다.(여호규, 1992, 27쪽; 임기환, 『고구려의 연변 지역 경영-柵城과 新城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38, 2012, 55쪽)

26) 王子好童遊於沃沮 樂浪王崔理出行 因見之 (『高句麗本紀』2 大武神王 15年 夏4月條)

27) 임기환, 앞의 글, 56쪽.

B-7. 東海谷守獻朱豹 尾長九尺 (同 55年 10月條)

B-8. 漢平州人夏瑤, 以百姓一千餘家來投, 王納之, 安置柵城 (『高句麗本紀』4 山上王 21年 秋8月條)

B-9. 儉攻·丸都城 屠之 乃遣將軍王頌追王 王奔南沃沮 (『高句麗本紀』5 東川王 20年(246) 冬 10月條)

B-5와 B-6은 고구려의 柵城 진출을 확인하는 잘 알려진 기사이다. 물론 흑자에 따라서는 이 시기 책성 순행이 이후 책성을 장악한 이후 추기한 기사로 실재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광개토대왕 때 동부여를 공략한 이후에 비로소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차지할 수 있었고 그 이전 민중왕이나 태조왕 때 나오는 동해 또는 책성과 관련된 기록은 이 시기의 인식이 추기된 것이라고 지적한다²⁸⁾ 하지만 285년 모용외 침입시 부여 세력이 옥저까지 이주하게 된 데는²⁹⁾ 고구려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며 이는 곧 이미 고구려가 두만강 일대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책성에 '柵城守吏'라는 관직이 보이며 바로 다음 기사 B-7에서 나타나는 '東海谷守'는 이 지역에 대한 지방 조직 편제가 이루어지는 등 보다 진전된 통합이 추진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삼국지에는 고구려의 위치를 서술하는 가운데 '東與沃沮'³⁰⁾로만 서술하였으나 위서 열전 고구려조에서는 '東至柵城'³¹⁾이라고 기술하고 있어 옥저 지역에 대한 고구려 지방 편입을 인지하면서 서술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김락기는 산상왕 때 평주인 1천여명이 투항하자 책성에 안치시킨 사실(B-8)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보았다. 여기에다 관구검 침입시 동천왕이 북옥저로 피신한 기사(B-9)는 앞의 삼국지(A-2)에서도 등장하는 내용으로 고구려가 북옥저 지역을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 이 지역은 이미 다른 나라로 의식하지 않은 정도로 통합이 진전되었음을 보여준다.³²⁾

뿐만 아니라 삼국지에서는 옥저가 30(建武6)년에 후국이 되었고 이후 고구려로의 복속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옥저와 함께 복속된 不耐의 경우는 예조에서 漢末에 복속되었다고 명기되어 있고³³⁾ 후한서에서는 함께 복속된 華麗城을 고구려가 공략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며 삼

28) 田中俊明, 「고구려의 북방진출과 '광개토왕비문」, 『고구려연구』, 1996, 104-105쪽. 그는 책성 지역의 안정화는 장수왕대에 와서야 가능하였다고 보고 있다.

29) 至太康六年 爲慕容廆所襲破 其王依慮自殺 子弟走保沃沮(『晉書』卷97 列傳67 四夷傳 夫餘傳)

30) 『三國志』卷30 魏書 30 東夷傳 高句麗傳.

31) 『三國志』魏書 卷100 列傳88 高句麗條.

32) 김락기, 「고구려의 동북방 영역과 물길 말갈」, 경인문화사, 2013, 21-22쪽.

33) 今不耐濊皆其種也 漢末更屬句麗(『三國志』卷30 魏書 30 東夷傳 濊條)

국사기에서는 동일한 사실을 66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고구려가 옥저를 비롯한 두만강 일대에 진출한 것은 1세기말에서 2세기초에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정합적이다. 초기에는 성읍 설치를 통해 현지의 지배권을 인정하고 중앙에서 사자를 보내 수취하는 느슨한 복속이었으나 점차 관리를 파견하는 형태로 강화되어 갔다. 무엇보다 이러한 지배가 책성 지역에서부터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고구려가 책성을 확보하고 그 곳을 거점으로 동북 지역 지배 안정화를 도모하였다고 볼 만하다.

하지만 정작 柵城이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견해가 병존하고 있다. 크게는 혼춘 지역과 연변 지역으로 대별되며 각각의 경우는 다시 구체적인 위치 비정을 둘러싸고 이설이 병존하고 있다. 먼저 책성의 위치와 관련한 후대 기록과 함께 그간의 논의를 검토하기로 한다.

C-1. 獬豸故地爲東京 日龍原府 亦日柵城府 領慶鹽穆賀四州 (중략) 俗所貴者 日太白山之菟 (중략) 柵城之豉 (『新唐書』卷219 列傳144 北狄 渤海傳)

C-2. 開遠縣 本柵城地 高麗爲龍原縣 渤海因之 遼初廢 (『遼史』卷37 志8 地理志2 東京道 東京龍原府 開州條)

C-3. 賈耽古今郡國志云 渤海國南海鴨綠扶餘柵城四府 (중략) 自新羅泉井郡至柵城府 凡三十九驛 (『三國史記』卷37 雜誌6 地理4 高句麗條)

C-4. 世祖時 (중략) 遣員外散騎侍郎李敖拜璉爲都督遼海諸軍事 征東將軍領護東夷中郎將遼東郡開國公高句麗王 (중략) 遼東南一千餘里 東至柵城 南至小海 北至舊夫餘 民戶參倍於前 (『魏書』卷100 列傳88 高句麗條)

연변설의 대표적인 논자는 朴眞奭으로 土城村土城(하룻고성)과 城子山山城을 책성유지로 비정하였다. 무엇보다 평지성과 산성이 연계된 고구려 성의 축조 방식으로 보면 혼춘일대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이룬 유적이 없다는 것이 착상의 시작이었다. 여기에다 王‘東巡柵城’(B-6)으로부터 본 방위 문제, 그리고 ‘遣使按撫’(B-7)할 정도의 성곽 규모 등을 고려할 때 河龍古城과 城子山山城이 부합한다고 보았다. 또한 성자산산성에서 漢代 유물이 확인된 바 이것이 곧 卞州人이 柵城에 이주했다는 사료를 뒷받침해 준다고 논지를 더했다.³⁴⁾

34) 朴哲·朴敬愛 編『爭碼集 - 朴眞奭文集』, 香港亞洲出版社, 2016, 121-125. 朴眞奭「高句麗柵城遺址考」, 『朝鮮問題研究論叢』3, 연변대학조선문제연구소, 1985에 수록)

이와 달리 방학봉은 혼춘 일대를 제안하였다. 그 근거로 신당서 발해전에서 동경용원부와 책성을 동일 지역으로 서술하고 요사 또한 이를 취용하고 있다는 점(C-1과 C-2), 특히 온특 혁부성 내에서 많은 고구려 유물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³⁵⁾ 덕원으로부터 온특혁부성까지의 거리가 1170리 전후로 가탐의 고금군국지에서 언급한 39개역과(C-3) 부합한다는 점, 요사 지리지에서 개원(즉 발해 동경용원부)이 본래 책성이라 하였다는 것, 여기에 더해 연길 지역은 발해 동경용원부가 아니라 중경현덕부 관내라는 점 등을 들었다.³⁶⁾ 이후 嚴長錄과 鄭永振 등 학자들이 방학봉의 입장에 서면서 주목을 받았다.³⁷⁾

이에 다시 박진석은 신당서 및 이를 취용한 역대 사서에서 동경을 예맥고지라 한 것은 찬자의 오해이며 북옥저 고지가 동경이라 주장하면서 연길지역까지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하였지만³⁸⁾ 혼춘설을 뒤엎지는 못하였다. 양측 논자들이 다룬 기록 외 C-4는 위서 기록에서도 책성의 위치를 확인할 단서를 보이고 있다. 이는 5세기(북위 세종대)의 고구려 상황을 언급하면서 고구려의 동계가 책성이라 말하고 있다. 이로 보아 책성이 두만강 하류 즉 동해연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재삼 확인시켜주고 있다. 여기에다 이종훈은 柵城之‘鼓’에 주목하고 된장을 담그기 위해서는 콩과 소금이 필요하므로 동해 연안에서 생산되는 소금 조달이 원활한 지역의 확보와 연계해야 한다는 흥미로운 주장도 덧붙인 바 있다.³⁹⁾ 더욱이 산성과 평지성의 결합 구도가 1910년대 식민사학이 만들어낸 담론을 과도하게 적용하려는 것이라는 최근의 흥미로운 지적을 감안한다면⁴⁰⁾ 연길책성설을 극복하기 위해 굳이 온특혁부성과 살기성이라는 구도를 끌어들이는 노고를 하지 않더라도 혼춘설을 대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혼춘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굳이 연길설을 다시 상기한 것은 양자의 주장 이면에는 책성의 역할과 의미를 해석하는 시각 차를 반영한 지점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연길책성설은 이 지역의 고구려성을 강조하면서 책성의 고구려적 귀속성(즉 구심력)을 강조하는 반면, 혼춘책성설은 고구려의 외향적 발전성(원심력)을 파악하려는 입장에서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혼춘설로 의견이 모아지면서도 책성이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가를 비정하는 데는 다시 논란이 있다. 신당서 발해전에서 동경용원부를 책성으로 언급하였지만 동경용원부가 있었던 팔련

35) 일찍이 李建才는 살기성을 책성으로 보기도 했으나 이 곳의 지세가 매우 좁은 산악지대라는 점이 책성의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36) 방학봉, 「책성유지가 곧 동경용원부의 유지인가」, 『발해유적과 그에 관한 연구』, 백산자료원, 1992, 91-102쪽.

37) 임장록·박용현, 「연변의 주요한 고성에 대한 고찰-고구려의 책성을 겸하여 논함-」, 『연변대학 조선학국제학술대회 논문집』, 1989.

38) 차철·차용애 編, 앞의 책, 130쪽(원래 朴眞奭, 「高句麗柵城遺址再考」, 『朝鮮學·韓國學論叢』3, 연변대학조선문제연구소, 1985에 수록); 박진석, 「高句麗柵城遺址 三考」, 『동북아역사논총』20, 2008.

39) 이종훈, 「高句麗 柵城遺址 一考」, 『선사와 고대』10, 1998, 157-158쪽.

40) 권순홍, 「고구려 ‘도성제’론의 궤적과 함의」, 『역사와현실』102, 2016.

성을 곧 책성 유지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부정적이다. 팔련성에서는 고구려 관련 유물이 수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온특혁부성이 주목되는 가운데 薩其城도 여전히 하나의 가설로 남아 있다. 살기성을 책성으로 주목한 것은 李建才로, 渾春縣文物志에서 이 곳에서 수습된 기와조각들 중 새끼줄 무늬(繩紋), 샷무늬(繩蓆紋), 격자 무늬 등을 근거로 하였다.⁴¹⁾ 그러나 정영진은 이 곳의 지세가 협소하고 산비탈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행정통치 지역이 아니라 군사적 목적의 성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들어 비판하였다.⁴²⁾

이에 책성 유지로 시선이 쏠리는 것은 온특혁부성이다. 이 지역 또한 살기성과 마찬가지로 발해 기와는 물론 위에서 언급한 고구려 유적의 지표가 되는 기와편이 수습되고 있기 때문이다.⁴³⁾ 온특혁부성과 자매성인 斐優城에서도 또한 고구려 시기 유물이 수습되었다. 『間島省故跡調查報告』에서는 기와 잔편이나 성벽 구축을 토대로 고구려 유적의 하나로 보았다. 이 보고서에서는 문지가 4곳, 남문과 서문에 웅성이 있고 각루터가 4곳에 있으며 치도 14곳, 그리고 밖으로는 해자가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비우성을 책성으로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마도 이는 현재 남은 도성이 금대 이후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데다 원대의 해관만호부로 여겨지면서 책성 비정의 가능성을 차단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혹여 온특혁부성이 훨씬 큰 규모였는데 그 자리에 비우성이 축성되면서 온특혁부성의 규모가 축소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고고 발굴이 추진되면서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되기를 기대할 따름이다.

어쨌든 온특혁부성과 비우성은 배후지가 협소하고 교통이 편리하지 못하다는 살기성의 한계를 배제할 수 있으므로 유력한 책성의 후보지로 여겨지고 있다. 한편 임기환은 온특혁부성 일대에 초기 책을 시설하였다가 후일에 방어력이 뛰어난 살기성을 축조한 것으로 보고 양자가 평지성과 산성으로 서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⁴⁴⁾ 이 밖에도 책성을 비호하는 산성으로 가깝게는 干溝子山城과 桃源洞南山城을 들 수 있다. 干溝子山城은 훈춘시 합달문향 일송정촌 동북쪽 1km 지점의 산 위에 위치하고 있다. 철제 화살촉, 철술, 희녕중보(熙寧重寶), 동경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요, 금대의 성으로 비정되고 있다.⁴⁵⁾ 훈춘하를 사이에 두고 小紅旗河古城堡와 마주하고 동녕으로의 진출 방향과 고려해 볼 때 훈춘하의 경로를 관리하는

41) 반면 『渾春縣文物志』에서는 살기성을 발해성으로 판단하고 있다(吉林省文物志編修委員會主編, 앞의 책, 11쪽.)

42) 정영진, 1990, 298쪽.

43) 하지만 고구려 기와편으로 여겨지는 유물은 대부분 성벽에서 수습되어 엄밀히 보아 현재의 온특혁부성은 발해 시기 개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정영진, 1990, 298-299쪽.)

44) 임기환, 「고구려의 연변 지역 경영-柵城과 新城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38, 2012, 78-79쪽.

45) 譚其驤, 앞의 책, 26쪽.

주요 성곽으로 중요성이 주목되는 바⁴⁶⁾ 고구려 책성의 방어적 전략지로 고려해볼만하다.⁴⁷⁾ 남산성산성은 혼춘시 마적달항 도원동촌 동남 1km에 위치한 성으로 혼춘하 남안의 정상에 자리잡고 있다. 성내에서 수풀이 울창하여 유적이나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곳 역시 동북 3km에 있는 농평산성과 함께 혼춘하의 수로 교통을 관장하는 주요 성보로서 기능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소 거리가 떨어진 지역의 산성으로는 亭砦山城, 城牆砦子山城, 通肯山城을 들 수 있다. 亭砦山城은 왕청에서부터 혼춘으로 넘어오는 盤嶺山脈의 옛 길에 위치하고 있다. 시기를 비정할만한 출토 유물이 나오지 않아 축조 시기를 단정하기 어렵고 성문지나 성벽의 잔존 여부도 불확실하지만 건물지가 확인되고 온돌 유구도 발견된 바 있다. 위치상으로 볼 때 책성의 서북 지역을 호위하는 방어성의 역할을 담당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城牆砦子山城은 혼춘시 동북 100km 떨어진 春化鎮 草坪村 동쪽의 성장립자산 위에 있다. 전체 길이 3,100m의 장방형이다. 산이 험준하며 동쪽과 남쪽으로는 草帽頂子河 그리고 사방은 혼춘하가 흐르고 있다. 서쪽 하곡분지에 혼춘에서 동녕으로 이르는 도로가 있으며 동남쪽 1km 지점에는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는 옛 길이 있다. 지형적으로 보아 동녕지역과 연해주로 나아가는 주요 요충지임을 알 수 있다. 손잡이 옆에 ‘大同六年禮部造’라고 새겨진 청동인 1과가 東夏의 유물로 확인된 것이 유일하다. 하지만 축성 방법이나 특징으로 보아 고구려 시대 축성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⁴⁸⁾

通肯(山)山城은 험준한 혼춘하가 발원하는 통공산의 산세를 따라 형성되어 있다. 이 곳은 혼춘에서 동녕이나 쌍성자 일대로 나아가는 육로 교통로의 요충지이지만 이 시기 활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쪽과 남쪽은 깎아지른 절벽이고 서쪽 산기슭도 비탈로⁴⁹⁾ 오로지 북쪽으로만 평탄하게 연결된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후대 개축에 의한 모습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산성의 형태와 축성법으로 보아 고구려 때 쌓은 것으로 보기도 한다.⁵⁰⁾

이상 혼춘 일대의 산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위치비정을 하기가 어렵지만 고구려의 것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제시된 성만을 대상으로 보면 책성(온특혁부성)을 중심으로 이를 비호하는 산성이 혼춘하와 두만강을 따라 형성되었다고 넓게 추론해 볼만하다.

논리의 선후 관계가 뒤바뀌긴 하였지만 살기성이 아닌 온특혁부성 일대를 책성으로 비정한

46) 동북아역사재단 편, 『고구려성 사진자료집 - 중국 길림성 동부』, 2010, 280-281쪽.

47) 田中俊明, 『高句麗の山城』, 東潮・田中俊明, 『高句麗の歴史と遺跡』, 1995, 390쪽.

48) 王禹浪・王宏北 편저, 『高句麗渤海古城址研究匯編』上編, 哈爾濱出版社, 1994, 71-72쪽.

49) 방학봉에 따르면 이 곳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호랑이가 출몰하는 매우 험준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방학봉, 『발해주요유적을 찾아서』, 연변대학교출판사, 2003, 236-237쪽.

50) 王禹浪・王宏北 편저, 『高句麗渤海古城址研究匯編』上編, 哈爾濱出版社, 1994, 71쪽.

다면, 책성은 치열한 전투 지역이나 정복 거점이 아니라 두만강 일대 고구려의 최동단 지역의 지배 거점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책성 주변에 형성된 산성은 적극적인 확산 거점이라기 보다는 책성을 비호하는 방어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고자 한다.⁵¹⁾ 冊丘儉 침입시 동천왕이 최후 보루지역으로 이 곳을 선택하였고 모용외의 침입을 받은 부여왕가가 이 곳으로 피신한 데는⁵²⁾ 이같이 방어 기능이 안정적으로 작동되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책성 장악 이후 고구려의 진출 방향이 동북이 아니라 서쪽이었다는 점으로 보면 동북 지역으로의 진출 거점으로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색하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고구려가 이 지역을 초기 진출 거점으로 설정한 것은 중원왕조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피해가기 쉬운 지역의 전략적 선택이었다. 하지만 한계도 여전하다. 유적을 소재로 한 중국측 논저의 대부분에서는 혼춘 일대의 성지를 한결같이 발해시대 내지는 요금시대로 비정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본격적인 고고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양한 가설로만 의견을 개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4. 渤海 시대의 동경 지역

발해 東京龍原府에 관한 상황은 『新唐書』와 『遼史』에 소개되고 있는데 관련 기록은 다음과 같다.

D-1. 獺貊故地爲東京曰龍原府亦曰柵城府 領慶鹽穆賀四州

D-2. 永安縣本龍原府慶州縣名 太祖平渤海 破懷州之永安 遷其人置寨於此 建縣 (『遼史』卷38 志8 地理2 上京道 永安縣條)

D-3. 開州鎮國軍節度 本濊貊地高麗爲慶州 渤海爲東京龍原府 有宮殿 都督慶鹽穆賀四州事 故

51) 이 밖에도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조응하는 朝東山城과 雲頭山城의 배치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이 두 산성은 동해안과 두만강을 이어 연결 지역을 연계하는 교통로의 요충지로서 책성 지역의 운용을 위한 기능보다는 외곽과의 연계 기능에 중점이 두어진 사례이다. (이성제, 「고구려와 발해의 성곽운용방식에 대한 기초적 검토」, 『고구려발해연구』34, 2009, 178-179쪽.)

52) A-2 및 주)27 참고.

縣六曰龍原永安烏山壁谷熊山白楊皆廢 唐薛仁貴征高麗 與其大將溫沙門戰熊山 擒善射者於石城 卽此 太祖平渤海 徙其民于大部落城遂廢 聖宗伐高麗還 周覽城基 復加完葺 (중략) 開遠縣本柵城地 高麗爲龍原縣 渤海因之 遼初廢 (『遼史』卷38 志8 地理2 上京道 開州條)

주지하듯 『遼史』地理志는 발해 당대의 지역 연원과 요대의 상황이 혼재되어 있어 항목별로 그것이 어느 시대의 정황을 언급한 것인지 구분하여 다루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동경 용원부가 집단으로 천사되었기 때문에 요대의 동경 지역의 상황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요사의 내용은 다시 명대나 청대의 지리지를 빌어서 확인이 가능하다.

우선 신당서에서는 동경용원부에 慶州, 鹽州, 穆州, 賀州의 4개주가 있었다고 전하며 요사 지리지 개주조(D-3)에 보면 鹽州, 穆州, 賀州도 각각 그 소속 현이 확인된다. 이 중 용원부의 首州는 慶州였으며 慶州의 首縣은 龍原이며 이 밖에도 永安, 烏山, 壁谷, 熊山, 白楊의 5개현이 있었다고 전한다. 특히 용원현이 책성이었으며 용원이라는 명칭은 고구려 때부터 불리워져 발해 때 동경용원부라는 명칭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견해는 흥미롭다. 온특혁부성을 책성으로 보는 경우 용원현 즉 경주의 치소도 이 곳에 있었을 것으로 본다.⁵³⁾

鹽州에는 海陽, 接海, 格川, 龍河의 4개현이 있었고 이 중 용하현만이 요대로 이어졌고 穆州에 會農, 水歧, 順化, 美縣의 4개현이 있었고 이 중 會農만이, 賀州는 洪賀, 送誠, 吉理, 石山의 4개 현 중 吉理만이 이어졌다.

동경용원부는 발해가 멸망된 후, 요에 의해 대부분 요양으로 천사되었는데 이 가운데 경주의 영안현만이 상경임황부 소관의 降聖州로 천사되었다. 바로 뒤에서 ‘太祖平渤海 破懷州之永安’이라고 하고 있어 慶州와 懷州간의 혼란을 보이고 있지만 뒤의 회주가 경주의 오기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1032년 이후 영안현은 다시 요의 경주 부의현으로 개칭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견재는 발해 당시 永安縣을 혼춘 서북의 莢安村으로 비정하기도 한다. 동경용원부의 천사가 전면적인 것이 아니라 선별적,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전제를 가정한다면 어느 정도 주목해볼만한 견해라 하겠다.

하지만 주현의 위치 비정을 두고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왔다. 박시형은 내륙 쪽에 수주인 경주를 두고 그 이동과 이북에 나머지 주들이 배치되었을 것으로 보았으며⁵⁴⁾ 이견재는 염주를 크라스키노성으로 보고 살기성을 목주 혹은 하주로 비정하였다.⁵⁵⁾ 이와 달리 방학봉은

53)李建才, 『東北史地考略』, 吉林文史出版社, 2001, 4쪽.

54) 박시형 지음·송기호 해체, 『발해사』, 이론과실천, 1999, 183쪽.

55) 이견재, 『혼춘의 발해 옛 성』, 김정배·유재신 편, 『발해국사(1)』, 정음사, 1988, 61쪽.(원 學習與探索 1985-6 수록)

목주는 함경북도 경원 일대로 보고 하주는 염주의 서북쪽인 동시에 목주의 북쪽 및 경주의 동북으로 보아 춘화향으로 비정하였다.⁵⁶⁾ 담기양은 목주를 회령 일대로 보았다.⁵⁷⁾

한편 후대에 나온 지리지는 혼란을 더욱 가중시킨다. 『盛京通志』는 경주 관할의 龍原, 永安, 烏山, 壁古, 熊山, 白楊 등이 모두 鳳凰城 경내에 있었다고 서술하였지만 『清一統志』는 요대에 이르러 폐현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東史綱目』 역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경주가 鳳凰城이라고 하고 『渤海考』는 오히려 동경을 봉황성으로 보고 경주는 太保山 黑河의 땅에 있다고 하였다. 이와 아울러 鹽州, 穆州, 賀州에 대해서도 제각각 인식하고 있다. 『清一統志』에서는 鹽州, 穆州, 賀州가 각각 開州 서북쪽으로 140리 떨어진 곳, 서남쪽으로 1리 떨어진 곳, 開州 경내에 있다고 인식하였다. 하지만 『東史綱目』에서는 이 3개의 州가 모두 鳳凰城 경내에 있다고 보았다. 이같은 위치 비정은 한결같이 요사 지리지의 오류를 답습하여 요양으로 천사된 이후의 위치를 발해 당대의 위치와 혼동한 때문이다.

앞서 성장립자산성과 통공산성 등을 고구려 산성으로 비정한다면 하주를 춘화향 일대로 보는 방학봉의 의견이 좀 더 정합적이다. 현의 치소를 세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기존의 고구려 성 체계가 발해대에 이르러 더욱 보강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팔련성과 정암산성 사이에는 英義城이, 팔련성과 살기성 사이에는 小城子古城이, 도원동남산성과 성장립자산성 사이에는 大六道溝古城(堡)과 營城子古城이, 그리고 성장립자산성의 북쪽에는 草帽頂子古城堡 등이 축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英義城은 팔련성으로부터 15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북 311m 동서 258m 규모이다. 이 곳에서는 당의 開元通寶가 출토되어 발해 때 구축된 성임이 확실시되고 있다. 小城子古城은 1964년 조사에 따르면 전체 566m 규모의 장방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滿洲古迹古物名勝天然紀念物匯編에서는 명대의 위소관리를 위해 구축된 것이라 하였으나 성 안에서 연꽃무늬 와당, 지압무늬 기와 등이 발견되어 발해 성으로 보는 것이 확실시된다. 大六道溝古城은 전체 길이 200m 규모로 일명 小平頂山古城堡라고도 한다. 니질토기 잔편 등이 발견되었지만 정확한 시기를 비정하지는 않았다. 발해 때 축성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營城子古城은 혼춘지 춘화진 초평촌에서 서남 1.5km 떨어진 혼춘하 상류 하곡 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곳에서 동북 2.5km 떨어진 지점에 성장립자산성이 있다. 성의 둘레는 930m이며 남문과 서문, 옹성 2좌, 치 12곳 각루가 1곳이 남아 있다. 이 곳은 동경으로부터 연

56) 방학봉, 『발해의 강역과 행정제도에 관한 연구』, 연변대학출판사, 1996, 91-92쪽.

57) 譚其驤, 『中國歷史地圖集 釋文匯編』, 中央民族學院出版社, 1988, 103쪽.

해주 지역으로 나아가는 주요 교통 길목의 요충지로 판단된다. 초모정자고성보는 성장립자산 북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어 성장립자산성의 북쪽을 방어하고 있다. 『琿春縣文物志』를 비롯한 대부분의 중국 논저에서는 요·금대의 군사 유적으로 보고 있지만 성장립자산성과 인근의 초평유적과 관련해 보면 발해시기에 쌓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도 살기성 동북에 위치하여 간구자산성과 마주하는 小紅旗河古城堡 역시도 요·금대의 군사 유적으로 보고 있지만 혼춘하를 타고 형성된 발해의 성곽 체계로 보면 발해 시기 활용되었을 것으로 볼만하다.

결론적으로 보면 발해 시대는 동경을 거점으로 연해주로 향하는 연계망을 확장시키고 광대한 영역을 확보하는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된다. 전 시대 고구려 때는 책성이 서부진출의 최후 보루지로 역할하였던 것과 달리 발해 시대는 이 일대가 동북 연해주로 나아가는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라 하겠다.

5. 遼·金代の 동경 지역

이 지역이 발해 멸망 이후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정황을 파악하는 데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 앞에서 제시했듯(D-3) 요사 지리지에서는 발해의 동경용원부 관련 내용이 開州條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역사적 연원을 설명하는 것과 요대 당시의 상황을 서술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양자를 구분지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시 D-3으로 되돌아가 보면 밑줄친 내용이 요대의 상황을 서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聖宗伐高麗還 周覽城基 復加完葺’ 및 ‘聖宗東討 復置以軍額’이라는 내용으로 보아 요 개주는 동경 요양에서 고려로 가는 주요 교통로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본다. 고고 조사에 의하면 개주 개원현은 요령성 鳳城縣城으로 漢代에는 요동군 東部都尉의 武次縣, 唐代에는 高句麗 西部重鎮인 烏骨城이었다.

그런데 요사의 이러한 서술 혼란은 이후 지리지에서 발해 당시의 상황으로 잘못 기술하고 있다. 예컨대 『遼東志』나 『盛京通志』에서는 봉황성을 서술하는 가운데 당의 안동도호에 속하였고 발해 대씨가 거주하였으며 동경용원부로 삼았다고 언급하고 있다.⁵⁸⁾

58) 『遼東志』卷1 地理志 및 『盛京通志』卷6 鳳凰城注.

한편 혼춘 일대의 정황에 대해서는 관련 기록이 그다지 남아 있지 않다. 요사 기록 중에 이 일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蒲盧毛朵部이다. 蒲盧毛朵部の 위치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함흥평야 일대에 위치하였다는 견해와⁵⁹⁾ 연변의 布爾合通河 및 海蘭江 유역에 위치하였다는 견해로 대별된다.⁶⁰⁾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 E-1. (1026) 蒲盧毛朵部多兀惹戶 詔索之(『遼史』卷 17 本紀 17 聖宗8 太平六年 夏四月 戊申條)
- E-2. (1027) 蒲盧毛朵部遣使來貢(『遼史』卷 17 本紀 17 聖宗8 太平七年 春正月 甲寅條)
- E-3. (1041) 詔蒲盧毛朵部歸曷蘇館戶之沒入者使復業(『遼史』卷 19 本紀 19 興宗2 重熙10年 2月 庚辰朔條)
- E-4. (1043) 斡魯蒲盧毛朵部二使來貢失期 宥而遣還(『遼史』卷 19 本紀 19 興宗2 重熙12年 五月 辛卯條)
- E-5. (1044) 知黃龍府事耶律歐里斯將兵攻蒲盧毛朵部 (『遼史』卷 19 本紀 19 興宗2 重熙13年 夏4月 己酉條)
- E-6. (1046) 蒲盧毛朵界曷懶河戶來附 詔撫之(중략) 蒲盧毛朵曷懶河百八十戶來附 (『遼史』卷 19 本紀19 興宗2 重熙15年 2月 丙寅條 E-5. 및 夏4月 甲戌條)
- E-7. (1048) 蒲盧毛朵部大王蒲輦以造舟人來獻 (『遼史』卷 20 本紀 20 興宗3 重熙17年 夏4月 甲申條)
- E-8. (1050) 蒲盧毛朵部惕隱信篤來貢 (중략) 蒲盧毛朵部各遣使貢馬 (『遼史』卷 20 本紀 20 興宗3 重熙19年 夏4月 壬申條 및 6月 壬申條)
- E-9. (1097) 蒲盧毛朵部長率其民來歸 (중략) 蒲盧毛朵部來貢 (『遼史』卷 26 本紀 26 道宗6 壽隆⁶¹⁾3년 8月 己亥條 및 11月 乙卯條)
- E-10. (996) 爲行軍都部署 伐蒲盧毛朵部 (遼史卷88 列傳18 蕭排押條)
- E-11. (?) 且言蒲盧毛朵界多渤海人 乞取之 (遼史卷88 列傳18 大康义條)
- E-12. (1044) 與知府蕭歐里斯討蒲盧毛朵部有功加兼侍中 (遼史 卷92 列傳22 耶律侯晒條)

遼가 이 곳에 주목하게 된 계기가 兀惹 세력을 색출하는 것이었다는 점은(E-1) 흥미롭다. 발해 부흥운동과 연계되었던 을야 세력이 이 곳에 散在해 있었다고 추정되며 이는 곧 11세기

59) 池内宏,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권9, 경인문화사, 2000, 235-236쪽.(원전은 1916에 간행)

60) 和田清, 『東亞史研究 滿洲篇』, 20, 184쪽 및 『吉林通志』 권11.

61) 요사에서는 성종의 이름이 耶律隆緒이므로 피휘하여 壽昌으로 기록하고 있다.

까지도 발해 부흥 운동의 여파가 미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열전에 나오는 기록은 이러한 정황을 좀 더 확실하게 엿볼 수 있다. E-10에는 蕭排押의 동생인 蕭恒德이 996년에 이 곳을 정벌하였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이 시기는 975년 燕頰의 난과 1029년 大延琳의 난 등 굵직한 발해 부흥운동이 연이어지던 때이다. E-11 또한 동일한 정황을 말하고 있다. 발해사람인 大康父가 蒲盧毛朵部에 발해인들이 많으므로 그들을 취하자고 청하는 내용이다. 대강예는 開泰年間(1012~1021)에 벼슬을 한 인물이므로 그의 주청이 비슷한 시기에 제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일련의 기사들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발해 멸망 이후에도 여전히 이 지역은 반요운동의 배후지로 주목되었다는 것이다. E-3으로부터도 좀 더 진전된 추론을 더해 볼만하다. 曷蘇館는 요양 일대에 있는 속부인데 이 곳 사람들이 포로모타부로 들어왔다는 사실에 해석을 더해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갈소관 사람들이 포로모타부로 들어 온 것은 발해 유민의 부흥운동이 실패하자 자신들의 옛 거주지로 되돌아온 것이 아닐까 한다. 이에 遼朝가 포로모타부로 하여금 이들 이주인들을 돌려보내라고 요구하였던 정황으로 이해된다. 만약 이러한 해석이 정합적이라면 포로모타부는 발해 멸망 이후에도 여전히 이 지역은 발해인의 거점으로 이어지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요의 압력과 침략에도 포로모타부는 요에 복속되지 않고 일정하게 독립성을 유지하였다. E-2, 4, 7, 8등을 통해 확인되 듯 포로모타부는 요조에 연이어 조공하였으며 때때로 기한을 어겼음에도 크게 문제삼지 않았다는 점으로 보아 비교적 순조로운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특별히 1044년 이후 포로모타부는 위기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요조의 군사 침공을 감행되었음이 E-5, 12으로부터 확인된다. E-12에서 耶律侯晒이 포로모타부를 토벌한 공으로 검시중이 더해졌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 E-5와 연계하여 1044년에 일정한 규모를 갖춘 토벌이 단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내부에서는 遼에 內附하는 집단도 발생하는 등(E-6, 9) 위기를 맞지만 포로모타부는 요에 복속되지는 않았다. E7, 8, 9에서 보듯 요조와 조공 관계가 연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발해 멸망 이후 잔여세력으로 남아 있던 이 곳과 달리, 연해주 일대는 발해의 옛 행정 구역이 그대로 명맥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요사 지리지의 동경 용원부 말미에서 率賓府, 定理府, 鐵利府, 安定府⁶²⁾, 長嶺府는 그 명칭만 나열되고 있을 뿐 다른 부주처럼

62) 일반적으로 安定府는 安邊府의 오기로 본다.

소속 군현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이는 이 지역이 요의 지방 행정체제로 적극 재편되지 않았고 형식적으로만 동경용원부 소속으로 편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좀 더 적극적으로는 아예 요에 편입되지 않았으며 이후 탈탈이 지리지를 작성하면서 요조의 행정체제와 발해의 행정체제를 연계 서술하는 가운데 미복속된 이 지역을 남겨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어쨌든 이 지역은 포로모타부 일대보다는 한층 독립성을 유지한 지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금이 강성한 이후에는 금의 행정 체제의 일부로 확인된다. 『金史』에 등장하는 合懶路와 恤品路, 耶懶路 등이 이에 해당된다.

F-1. 合懶路 置總管府 貞元元年 改總管爲尹 仍兼本路兵馬都總管 承安三年 設兵馬副總管 舊貢海蔥 大定二十七年罷之 有移鹿古水 西北至上京一千八百里 東南至高麗界五百里 (『金史』 권 24 志5 地理上 上京路 合懶路條.)

F-2. (1114) 葛懶路軍帥完顏忽刺古等言 往者歲捕海狗海東青鴉鵲於高麗之境 (『金史』太宗紀 天會2年 5月 乙巳條)

F-3. 其地 鴨綠江以東 葛懶路以南 東南皆至于海 (『金史』 권135 列傳 73 外國 下 高麗條.)

F-4. (1121) 命以徒門水以西 渾曠星顯孛蠡三水以北 閑田給葛懶路諸謀克 (『金史』太宗紀 天會 9年 正月 戊申條)

合懶路는 일명 葛懶路라고도 하는데 언제 설치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1153(貞元元)년, 1198(承安3)년을 거치면서 몇차례 개편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上京(會寧府)까지는 서북 1,800리 떨어져 있고 동남 500리에서 고려와 경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F-1).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1114년 葛懶路軍帥完顏忽刺古가 高麗의 경계로부터 海狗, 海東青, 鴉鵲(송골매)을 羅捕했다고 언급하고 있어⁶³⁾ 남으로는 고려와 접경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F-2). 이 밖에도 고려를 언급하는 중에 葛懶路 이남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는 내용 또한 동일한 설명의 다른 표현이라 하겠다.(F-3) 여기에 1121년 葛懶路 諸謀克에게 한전을 지급하였다는 기록 중에 서로는 도문강, 북으로는 혼춘하 및 포이합통하, 알하하로 지표를 삼았다고 하였으므로(F-4) 전체적으로는 연길과 (왕청?) 혼춘 일대를 포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솔빈부에는 이 밖에도 恤品路가 설치되고 耶懶路가 통합되었다.⁶⁴⁾ 恤品路는 우스리스크 일대이며 耶懶路

63) 『金史』卷3 本紀3 太宗紀 天會2年 5月 乙巳條

64) 遼時, 爲率賓府, 置刺史. 本率賓故 太宗天會二年, 以耶懶路都字董所居地瘠, 遂遷于此. 以海陵例罷萬戶, 置節度使, 因名速頻路節度使 (『金史』卷24 志5 地理上 上京路 恤品路條)

는 아르센예브카 강 일대로 추정되고 있다.⁶⁵⁾ 금 말기가 되면 이 일대는 東夏國이 장악하였지만 이후 몽고에 의해 몰락하고 만다.

蒲廬毛朵附를 통해 본 요의 동경지역 정책은 차단과 반독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차단정책은 발해 부흥운동 세력과의 차단이 동경요양부 내지와의 차단으로 연계되었다. 동시에 요는 이 지역의 관리를 위해 조공관계를 통한 반독립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정책은 ‘발해 동경’으로서의 성격을 쇠퇴하는 결과로 귀착되었다고 해석된다. 아울러 연해주 지역은 요의 관심으로부터 벗어난 반독립 상태로 금의 흥기와 함께 금의 통치 체제 속에 재편되었다. 연길, 왕청과 연해주를 잇는 동경 지역의 역할은 고립되고 금에 관심영역으로 편입된 연해주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재편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동경 지역은 연해주의 여진화에 노출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6. 元代의 동경 지역

원대에 이 지역은 奚關總管府가 형성되었다. 奚關總管府는 開元路에 속하였는데 개원로는 遼陽行省 중 발해 영역을 포괄하고 있었다.

G-1. 開元路 古肅慎之地 (중략) 東瀕海 南界高麗 西北與契丹接壤 卽金鼻祖之部落也 (중략) 金末 其將蒲鮮萬奴據遼東 元初癸巳歲 出師伐之 生禽萬奴 師至開元恤品東土悉平 開元之 始見於此 乙未歲 立開元 南京二萬戶府 治黃龍府 至元四年 更遼東路總管府 二十三年 改爲開元路 領咸平府 後割咸平爲散府 俱隸遼東道宣慰司 至順錢糧戶數四千三百六十七 (『元史』卷59 志11 地理2 開元路條)

G-2. (1385) 女直高那日捌秃魯不花三人詣遼東都指揮使司來歸 自言 高那日乃故元奚笑關管府水銀千戶所百戶 捌秃魯不花乃失伶千戶之部人也 皆爲野人獲而奴之 不勝困苦 遼東樂土也 願居之 (『明太祖高皇帝實錄』卷一百七十五 洪武十八年 九月 甲申條)

G-3. 開元東陸路至朝鮮後門 坊州城奚官納丹府城 費兒忽弗出南京 隨州縣海洋秃魯散三通

65) 譚其驥는 耶懶路를 塔烏黑河로 비정하였는데 (譚其驥, 1988, 167쪽.) 러시아의 Арсеньевka 강의 1972년 이전 이름이 daubi-he이므로 이 곳으로 추정된다.

『全遼志』卷6 外志)

G-4. 縣城 自鎮北堡渡會叱家川 大野中有土城 名曰縣城 城內有六井 按龍飛御天歌 奚關城東 距訓春江七里 西距豆滿江五里 疑是 (중략) 會叱家川 在府南一里源出甌山達于江 (『輿地圖書』 下 關北邑誌 咸鏡北道慶源府邑誌 古蹟條 및 山川條)

G-5. 自東林城北去五里許 有所多老營基 其北三十里有會叱家灘 乃豆滿江之下流也 越江十里 大野中 有大城 卽縣城 內有六井 其北九十里 山上有古石城 名曰於羅孫站 (『世宗實錄地理志』 卷155 地理志 咸吉道 吉州目條)

『元史』에서는 開元路의 도입부에서 그 역사적 연원을 설명하였는데 이 곳이 金 선조의 땅이라고 소개하고 浦鮮萬奴의 東夏國 멸망 후 설치되었음을 전하고 있다. 원 초기에는 金의 恤品路를 계승하다가 동하국을 멸망한 후 開元을 설치하였다. 1267(至元4)년에 遼東路가 일시 세워졌으나⁶⁶⁾ 1286(至元23)년에 다시 開元路로 개칭되었다.⁶⁷⁾ 그 산하에 咸平府를 두었고 후에 다시 함평부는 다시 여러부로 나뉘어졌다고만 언급하고 있다.⁶⁸⁾ 하지만 정작 해관총관부는 『元史』에서 명확히 언급되지는 않는다. 해관총관부가 확인되는 것은 후대 기록이다.

G-2에서 女直高那日、捌禿禿、魯不花 등이 요동 거주를 청하는 내용 중에 원대에 해관총관부가 있었으나 야인에 의해 장악되어 곤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 그 연혁을 확인할 수 있다.

해관총관부가 어디에 위치하였는지는 『全遼志』의 내용 중에 언급되고 있다. 개원의 동쪽 육로가 조선 후문에 이른다고 전제하고 역참을 나열하였는데 그 중에 奚官站이 포함되어 있다(G-3). 따라서 해관은 개원으로부터 조선으로 가는 길목으로 좁혀진다.

한편 『輿地圖書』에서는 해관을 縣城으로 추정하고 있다. 용비어천가 중에 奚關이 훈춘강(訓春江)으로부터 7리 떨어져 있고 서로는 두만강으로부터 5리 떨어져 있다는 내용과 縣城이 會叱家川을 건너 큰 들에 있다는 내용이 부합한다고 보았다.(G-4) 여기에 더해 뒤에 이어지는 산천조에서 회질가천은 경원부의 남쪽에 위치하며 완산에서 발원하여 두만강에 이른다고 하고 있으므로 그 강을 건너 지역이 훈춘이라고 보면 해관총관부가 훈춘 지역에 있었다고 보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여지도서의 서술 내용은 세종실록지리지의 내용과도 동일한데⁶⁹⁾ 현

66) 『元史』 卷6 本紀6 世祖24年 12月 甲戌條 및 卷19 志11 地理2 開元路條.

67) 『元史』 卷19 志11 地理2 開元路條.

68) 『元史』 卷59 志19 地理2 遼陽等處行中書省 開元路條.

69) 會叱家灘은 會叱家川의 다른 표현이라고 본다.

성이 회질가천을 건너 10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좀 더 위치를 상세하게 명시하였다.

이 밖에도 개원로에는 合蘭府, 恤品府, 南京萬戶府, 雙城總管府, 開元萬戶府 등이 발해의 옛 지역인 연해주 일대에 설치되었다. 홉품로 또한 금대의 것을 계승한 것임을 알 수 있고 합란부 또한 東國輿地勝覽에서도 함흥 일대에 元이 설치하였던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어⁷⁰⁾ 금대의 合喇府를 계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南京萬戶府는 연길 지역, 雙城總管府는 함경도 지역에 설치되었다.

전반적으로 원대의 지방 체제는 금대의 것을 계승하였는데 그러한 가운데 ‘開元’이라는 명칭을 덧붙인 것은 흥미롭다. 『遼史』地理志에서 東京龍原府를 開州로 편입하고 그 산하 주현으로 開原縣을 두면서 본래 이 곳이 책성 지역이며 고구려의 용원을 연용하였다는 기록을 상기해볼 때(C-2) 開元은 궁극적으로 책성, 용원이라는 명칭에 연원을 둔 것이 아닐까 하는 상상적 추론을 제안해 본다. 후대 사서에서 開元과 鳳(鳳)州의 지명이 혼용되는 것 역시 開州를 鳳凰城으로 비정한 요사의 영향일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으나 좀 더 세밀한 검토는 추후과제로 남기겠다. 좀 더 이를 해명할만한 자료 고증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7. 明代 이후의 동경 지역

명대에 이 지역은 遼東都指揮使司 소속의 奴兒干都指揮使司(이하 奴兒干都司)에 편제되었다. 奴兒干都司 내에는 384衛, 24所 7站이 있었는데⁷¹⁾ 이 중 童寬山衛, 密拉衛, 烏爾渾山衛 등이 훈춘 일대에 세워졌다.⁷²⁾ 하지만 童寬山衛는 기록상에 잠깐 언급이 되고 있지만 나머지 위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진 바가 없다. 오히려 노아간도사 내에서는 建州衛(建州左衛, 建州右衛)가 세력이 확장되면서 동경 일대까지 통할하였던 것이 아닌가 여겨지므로 함께 다루고자 한다. 建州衛를 다룬 중국측 논저는 거의 동경(훈춘) 지역과 관련성에 주목하지 않는다. 건주위의 포괄 범위가 넓어서 상대적으로 외곽지역은 이 지역과의 관련성을 간과하게 된 것이라 생각하더라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뭔가 석연찮은 점을 남긴다. 무엇보다 『朝鮮王朝

70) 元置合蘭府(『新增東國輿地勝覽』 권48 咸境道 咸興府條)

71) 『明史』卷41 志 17 地理2 山東 遼東都指揮使司 後軍都督府條.

72) 吉林省文物志編修委員會主編, 앞의 책, 4쪽.

實錄』에는 건주위와 관련된 많은 기록이 남아 있다. 이는 곧 건주(여진)가 조선과 접경한 지역인 이 지역을 배경으로 활동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童寬山衛와 관련된 기록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H-1. (1431) 童寬山衛女直指揮同知失令等以奏事至賜綵幣及絹 (明宣宗章皇帝實錄 卷81 宣德6年 7月 壬午條)

H-2. 陞童寬山等衛指揮僉事阿哈里禿納河等衛指揮使者因哥等七人俱一級時外夷入貢乞陞職者眾惟阿哈里四人有敕書可憑及者因哥等三人通事武忠等言其有撫諭諸夷功故特陞之 (明憲宗純皇帝實錄 卷51 成化4年 2月 乙酉條)

童寬山衛가 명 실록에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1431년이다(H-1). 그러나 이 기사는 이 衛가 조공하였다는 기록이므로 이미 그 이전에 설치되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 기사를 통해 보면 ‘撫諭諸夷’의 공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통공산위는 이 일대의 방어와 제족의 통합을 담당하는 주요 거점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H-2) 이 지역이 주변 제족을 통합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통근산위는 『盛京標注戰迹圖』나 『乾隆十四排圖』 등에 나오는 通墾山 혹은 通墾阿林과 동일지역으로 보고 『琿春鄉土志』에서는 通寬山衛는 훈춘으로부터 동북으로 250리 떨어진 지점에 있다고 서술하였다. 通肯山山城으로 보는 데는 거의 이견이 없을 것이다.

H-3. (1403) 女直野人頭目阿哈出等來朝 設建州衛軍民指揮使司 阿哈出為指揮使 (明太宗文皇帝實錄 卷25 永樂元年 12月 辛丑條)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지역의 성격과 위상을 결정하는 데 영향력을 미친 것은 建州衛라 할 수 있다. 建州衛는 1403년 여진 야인 阿哈出이 내부(來朝)하자 이를 설치하였음이 확인되지만(H-3) 그 위치를 비정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검토가 필요하다. 建州라는 지명과 해당 지역이 몇차례 변동을 겪었기 때문이다.

우선 建州라는 명칭이 처음 나타나는 것은 『新唐書』 渤海傳으로, 率賓府 소속 주의 하나로 언급된다.⁷³⁾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건주 위치는 率賓府가 있었던 綏芬河 일대로 보고 좀 더 구

73) 率賓故地爲率賓府 領華益建三州 (『新唐書』 卷219 列傳 144 渤海傳)

체적으로는 東寧縣에 있는 大城子古城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 후 이 지역은 金과 元을 거치면서 새롭게 행정 체제가 개편되고 地名도 변화하였다. 앞에서 살폈듯 金の 恤品路 이후 몇차례 변동 후 開元路가 되었다가(G-1) 다시 개원로는 大德年間(1297-1307)에 水達達路가 설치된 후 그 위세가 약화된다.⁷⁴⁾ 率賓府를 포함하여 동경 일대는 水達達路에 편입되고 開元路는 송화강 중하류 일대에 한정되었다. 하지만 明 實錄에서 水達達路라는 명칭은 사라지고 舊開元 혹은 東開元이라고 지칭하고 있으므로 開元이라는 연원이 더욱 오래도록 기억되고 있었다. 더불어 元代 開元路의 치소인 開元城 또한 대성자고성을 연용하였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명대의 建州衛가 (구)開元 지역인가의 여부는 논란이 있다. 建州女眞의 근거지가 牡丹江 지역인데다 건주에 대한 서술 중에 房州(혹은 奉州, 鳳州)라는 언급이 있어 동령설 이외도 黃龍府說, 依蘭縣說, 雙城子(우스리크스)說, 移動說 등이 있다.⁷⁵⁾ 이런 가운데 조선왕조실록 중에 등장하는 女眞에 관한 기록 중에는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미있는 기록이 있다.

H-4. (1395) 東北一道本肇基之地也 畏威懷德久矣 野人酋長至 移闌豆漫皆來服事 (중략) 如女眞則 幹朶里豆漫夾溫猛哥帖木兒 火兒阿豆漫古論阿哈出 (후략) (『朝鮮王朝實錄』太祖實錄 8卷 太祖4年 12月 癸卯條)

H-5. (1414) 東北面吾音會 童猛哥帖木兒 徙于開元路 吾音會兀良哈地名也 猛哥帖木兒嘗侵慶源 畏其見伐 徙于鳳州 鳳州卽開元 金於虛出所居 (후략) (『朝鮮王朝實錄』太宗實錄 21卷 太宗14年 4月 丙辰條)

H-6. (1424) 兀良哈 沈指揮率軍人十三名 將牛馬并十三頭匹來說吾等在前, 於建州衛 奉州古城內居住二十餘年 (『朝鮮王朝實錄』世宗實錄 24卷 世宗6年 4月 辛未條)

H-7. 建州虜營昔居房州 去邊月餘程 (『遼東志』卷7 藝文志 經略 韓斌遼東防守規畫)

H-4에 등장하는 阿哈出은 H-3에서 보았듯이 1403년 建州衛軍民指揮使司가 된 인물인데 그의 이름 앞에 ‘火兒阿 豆漫 古論’이라는 동반되는 수식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火兒阿는 지명이고 豆漫은 萬戶를 이르는 것이며 古論은 김씨라는 성씨의 다른 표현이므로, 火兒阿(胡

74) 水達達路의 설치에 대해서는 『元史』에서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았다. 1325년에 수달달로 기민에게 진휼하였다는 기사에서 최초 등장하는데(『元史』卷29 本紀 29 泰定帝 1 泰定2年 6月 己卯朔條) 이 일대의 고고발굴 성과를 근거로 大德年間に 설치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75) 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은 다음 글에 잘 정리되어 있어(譚其驤, 1988, 237-239쪽)

兒哈, 胡里改) 지역 만호, 김씨 성을 가진 阿哈出이라는 의미이다. (古論阿哈出은 아래 H-5에 나오는 金於虛出이다.) 그의 출신지인 火兒阿(胡兒哈, 胡里改)는 牧丹江의 이칭으로 초기 건주여진의 근거지가 이 곳이었음을 확인하게 한다. 더불어 당시 여진 야인들이 조선에 대거 귀부해 왔다는 것은 곧 건주위가 조선과 접경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H-5에서는 童猛哥帖木兒의 개원 천사를 서술하는 중에 奉州가 곧 開元이며, 阿哈出(金於虛出)의 근거지라고 서술하여 개원과 봉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어지는 H-9에서 建州衛가 奉州 즉 開元에 거주한 지가 20여년이라는 서술 내용은 지금까지 살펴 본 H-3과 H-6의 서술 정합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해 준다.

여기에 더해 요동지에도 建州衛가 房州에 있었으며 그 위치를 요동 변경에서부터 1개월여 라고 언급하고 있어(H-7) 이로 보면 舊開原과 부합한다. 여기서 房州는 G-2에서 역참으로 나열된 坊州로 이해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建州女眞은 牧丹江 지역을 근거로 일어나 1403년 즈음에 開元 지역으로 이동하여 建州衛를 통해 명조로부터 정치적 지위를 보장받았음을 알 수 있다. 비록 建州衛의 중심이 수분하 일대이긴 하지만 혼춘 지역을 통할하였으며 혼춘 지역에 설치된 童寬山衛, 密拉衛, 烏爾渾山衛는 이러한 建州衛 체제에 조응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 명대의 동경 지역을 건주위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건주위를 동경 일대와 적극적으로 연계하지 않은 것은 더 이상 동경 일대가 건주위의 중심 지역이 아닌 탓에 있다 하겠다. 이는 곧 앞 시기부터 동경의 역사성이 퇴색하고 여진 중심의 현실에 직면하면서 나타난 위상 변화가 아닐까 한다.

청 왕조가 건립된 후 만주족의 풍습과 관습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 지역에 대해 封禁정책을 단행하였으며 발해 옛 지역에는 寧古塔副都統이 두어지고 동경 일대는 그 소속이 되었다. 이후 1881년(광서7)에 渾春副都統이 설치되고 그 관할 범위가 安圖, 汪清, 琿春, 圖們, 和龍에까지 미치면서 일시적으로 동경 일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세가 재편되었다. 하지만 일제의 만주침략과 함께 연해주 지역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면서 다시 혼춘은 길림성 연변에 소속 된다.

8. 동경 지역의 지역성과 변용의 의미

지금까지 발해 동경 지역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발표자의 능력을 벗어나 통시대를 다루다보니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동경 지역에 대한 관심이 역사적 맥락 속에서 체계있게 다루어지지 못한 채 각 시기별로 그간의 성과를 쫓아 정리하는 과정에 머물러 글의 전개가 난잡한 지경이 되고 말았다. 서술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발해 시대의 동경이 이 지역에 남긴 역사적 위상과 현재적 의미를 제언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동경 지역에 등장한 한국사 내의 최초 왕조는 옥저였다. 기존 성과를 바탕으로 동옥저라는 총칭으로 입전되었다는 전제하에 영역이 확장되면서 지역별로 구분하여 명명하였다고 이해하였다. 고구려는 북옥저를 먼저 복속한 뒤 남옥저를 공략하였는데 이는 곧 이 시기 동경 지역은 옥저 이서 지역의 안정적 지배를 위한 배후지로서 역할하였음을 말해준다. 이는 옥저를 단결 문화권과 동일한 문화단위로 파악하여 함경북도 이남과의 관계를 차단하려는 중국학계의 해석에 대한 비판적 논거를 전제로 한다.

초기 고구려의 책성 지배는 성읍 설치, 使者와 지역 大人의 相監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는 정치집단에 대한 지배라기보다는 지역민에 대한 지배로 이해된다. 이는 책성이 서북방 진출의 교두보적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東海谷守라는 관칭이 등장하고 있어 점차 고구려의 지배력이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冊丘儉 침입시 東川王의 피신이나 平州人의 안치, 그리고 여기에다 옥저의 동부여 피신 등을 포함한 일련의 사건은 책성이 중원왕조와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적 보루거점으로 역할하였음을 보여준다.

발해 시기 동경은 전대의 고구려가 구축한 방어 체제를 보강하면서 동경을 통해 연해주로 향하는 연계망을 확장시키고 광대한 영역을 확보하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제 동경 지역은 방어적 보루 거점이 아니라 동쪽으로 확장해 나가는 전초 기지로 그 역할을 전환하였다.

遼代의 동경 지역에 대해서는 蒲廬毛朵府를 통하여 渤海 遺民의 殘存 地域으로서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무엇보다 燕頰의 난과 大延琳의 난으로 이어지는 10세기말로부터 11세기초에 유독 이 지역에 대한 기사가 집중되는 것은 이 곳이 발해 부흥 운동 세력의 背後地로서 역할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遼朝는 蒲魯毛朵府에 대해 압박과 회유의 양면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전자를 통하여 요양 지역과 발해 부흥 세력을 차단하는 동시에 후자를 통해 반독립성을 부여하였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양면 정책은 동경 지역이 遼의 주요 관심 지역대 상에서 배제된 것을 의미하며, 이 지역에서 '발해 동경'의 역사성을 퇴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하

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무엇보다 발해 부흥 운동의 여파가 이 지역까지 미쳤을 가능성을 확인하게 된 것은 귀중한 부수적 성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연해주 지역은 방기되었고 여진화의 촉진을 초래하게 된다. 금은 葛喇路(葛喇路)를 필두로 恤品路, 耶喇路 등을 설치하여 이 지역을 관리하였다. 후에 원은 이를 기반으로 奚關總管府를 두었는데 특별히 해관총관부가 소속된 開元路의 명칭에 주목하였다. 『元史』에서는 이 지역을 금 선조의 땅이라 소개하면서 발해에 대한 기억은 전면 사라지고 금의 기억만을 남기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遼史에서 東京龍原府를 開州로 편입하고 그 산하 주현으로 開原縣을 두면서 본래 이 곳이 책성 지역이며 고구려의 龍原을 연용하였다는 기록을 상기해볼 때(C-2) 開元은 궁극적으로 책성, 용원이라는 명칭에 연원을 둔 것이 아닐까 하는 상상적 추론을 제안하였다. 후대 사서에서 開元和 鳳(鳳)州의 지명이 혼용되는 것 역시 開州를 鳳凰城으로 비정한 요사의 영향일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좀 더 세밀한 검토는 추후과제로 남기겠다.

明代에서는 기존 중국학계에서 고려하지 않는 建州衛와의 관련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았다. 비록 建州衛의 중심지역은 수분하 일대이지만 건주라는 명칭은 발해에 그 연원을 두고 있으며 建州女眞이 목단강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으로 보아 비록 실제적 동력은 상실하였지만 역사적 연원은 이 지역의 상징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대와 명대에 동북방의 중심 지역은 동경 지역이 아니라 수분하 일대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일차적인 직접 계기는 발해 멸망과 요양으로의 집단 천사라 하겠지만 또 다른 계기는 요의 이원 정책이 아닐까 한다. 요 동경도 내지의 발해 유민과 단절시키고 이 지역에 새로운 독립성을 부여해 줌으로써 발해 동경의 역사적 연원과 의미를 망각하게 만들었다는 점은 새롭게 주목해 볼만한 지점이다.

결론적으로 발해 시기 동경을 건설로 연해주 진출의 동력을 마련하였으며 역으로 발해가 멸망하면서 그 동력은 연해주의 여진화로 변개되고 동경 지역의 위상을 하락시켰다. 이러한 일련의 전환 과정은 동경 지역의 역사가 안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으며 발해 쇠퇴에 대한 안타까움을 불러 일으킨다.

1689년 네르친스크 조약 이후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분계된 이래 동경 지역과 연해주의 연계는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지난 해 10월 북한의 나진항과 연결되는 신두만강대교가 개통되면서 막힌 통로를 넘어 동경 지역이 다시금 극동의 물류 중심지로 부상하려는 발빠른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 곳에 붙여진 ‘금삼각’이라는 명칭에 걸맞은 역할과 위상이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가 훈춘 일대에 다시금 발해 동경의 위상을 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부족한 발표를 정리한다.

〈토론문〉

동경 지역의 역사적 연원과 지역성

권은주 (경북대)

발해 동경 지역은 발해 건국 전부터 역사가 유구한 지역이다. 또한 발해 5경 15부 중 하나로, 한때 수도가 될 만큼 발해의 국가운영과 지방지배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지역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동경 지역의 역사적 연원과 지역성을 통사적으로 살피고 있다. 사료와 고고자료가 너무나 부족한 현실에서 통사적으로 동경 지역의 역사적 연원을 다룬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때문에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토론자는 배우는 입장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토론자의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

1. 2장, 옥저 시대의 동경 지역에서 선생님께서는 동옥저를 후한서와 삼국지 동옥저전 명칭에 무게를 두시고 동옥저를 총칭이라는 전제하에 영역이 확장되면서 지역별 구분이 필요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계신다. 그런데 옥저와 관련된 기록을 보면, 고구려가 북옥저를 먼저 복속시키고 동옥저는 상대적으로 독립(또는 간접지배) 상태가 오래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고구려로 완전히 통합되기 전에 낙랑군 동부도위에 예속되거나 沃沮侯의 지위로 중국 세력과 관계가 이어졌기 때문에 열전에 동옥저 명칭으로 입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않는지 질문을 드린다.
2. 3장, 고구려 시대의 동경 지역에서 사료에 제시된 개마국에 설치된 군현을 그대로 고구려 초기 지방행정단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 행인국과 북옥저 등의 성읍과 동일한 성격이 아닌지, 이를 지배방식의 차이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토론자가 문외하여 설명을 부탁드린다.

3. 6장, 開元路 중 해관총관부 등이 발해 동경 일대로 보는 것은 타당한 것 같다. 그런데 개원로 자체는 글에서 밝혔듯이 발해 영역, 만주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기원도 포선만노 동하국(사료 G-1, 동하국 멸망이 아닌, 포선만노를 붙잡고 군대가 개원, 홀품 동쪽 땅에 이르렀는데, 이때 처음 보임)에서 부터이다. 개원 명칭을 발해의 開州에 연원을 둔 것 아닌지 '상상적 추론'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말씀 그대로 아직까지는 상상적 추론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된다. 혹시 보충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다면 부탁드린다.

〈발표 2〉

팔련성의 구성요소와 기와 생산체계

윤재운 (대구대)

1. 머리말

고대 도성은 각종 건축물과 기반시설이 어우러져 독특한 경관을 형성하며, 도성 주변의 고분도 정기적인 祭場 등으로 활용되면서 도성 경관의 일부를 이룬다. 都城 景觀은 각종 인공 구조물의 조영을 통해 형성되며, 이들의 보수와 신축을 통해 유지되거나 확장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인공 구조물을 조영하기 위한 각종 건축자재의 생산시설은 도성 경관의 조성에 필수 요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¹⁾

지금까지 발해의 도성연구는 천도문제와 도성구조에 대한 논의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주로 도성의 입지와 대외적인 관계 속에서 그 원인을 구명하는데 목적을 둔 것으로, 도성지와 그 주변에 분포하는 유적들을 분석하여 영역지배의 특징, 도성체제를 도출한 것이다.²⁾

후자는 주로 상경성을 대상으로 하여 발해 도성이 당의 장안성과 중국적 문화전통을 계승하였다는 것에 초점을 둔 중국학계의 연구³⁾와, 발해 궁전의 계보를 고구려 안학궁에서 찾거

1) 여호규, 2014, 「고구려 국내 도성의 구성요소와 수공업 생산체계-기와 생산체계를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52, 39~40쪽.

2) 孫玉良, 1983, 「渤海遷都淺議」, 『北方文物』3; 林相先, 1988, 「渤海的遷都에 대한 考察」, 『清溪史學』6; 何光岳, 1990, 「渤海大氏의來源和遷都」, 『求索』2; 방학봉, 1992a, 「발해의 중경에 관한 몇 가지 문제」, 『韓國史學論叢』上, 水邨朴永錫教授華甲紀念論叢刊行委員會; 방학봉, 1992b, 「발해는 무엇 때문에 네 차례나 수도를 옮겼는가」, 『于江權允遠教授停年紀念論叢』; 酒寄雅志, 2001, 「渤海의王都와領域支配」, 『渤海と古代の日本』, 校倉書房; 송기호, 2004, 「발해의 천도와 그 배경」, 『韓國古代史研究』36; 임상선, 2006, 「발해의都城體制와 그 특징」, 『韓國史學報』24; 김기섭·김진광, 2007, 「발해의 상경 건설과 천도」, 『韓國古代史研究』45; 윤재운, 2011, 「발해의 5京과 교통로의 기능」, 『한국고대사연구』63; 權恩姝, 2012, 「渤海 前期 北方民族 關係史」, 경북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3) 姜華昌, 1988, 「渤海上京龍泉府與唐長安城建築布局的比較」, 『北方文物』2; 魏存成, 2004, 「渤海都城의布局發展及其與隋唐長安城的關係」, 『邊疆考古研究』2.

나⁴⁾ 문왕시기 발해의 국가운영원리가 반영되었다고 보거나⁵⁾, 상경성의 도시계획의 분석을 통해 황제도성으로의 성격을 규명한⁶⁾ 한국학계의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발해 도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종래 연구에서는 도성체제를 구성하는 제반 요소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아래에서는 발해 도성의 생산 요소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선행연구⁷⁾와, 아울러 최근 고고자료⁸⁾와 고고학 성과를 참조하여 八連城을 중심으로 발해의 수공업체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팔련성의 도성경관과 구성요소

동경은 문왕 大興 48년인 785년경 상경에서 옮긴 후⁹⁾ 다시 성왕대인 794년경에 마지막으로 상경으로 갈 때까지¹⁰⁾ 9년 정도 수도였던 곳이다. 그 위치는 길림성 훈춘시의 팔련성이 가장 유력하다. 팔련성은 훈춘하 충적평야지대의 서쪽 끝 지점으로 훈춘시에서 서쪽으로 약 7.5km 떨어진 三家子鄉에 소속되어 있으며, 이 성의 서쪽 3.5km 지점에는 두만강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고 있다. 이곳의 지세는 평탄하고 주위에는 여러 산들이 둘러싸고 있으며 동남쪽으로 동해에 맞닿아 있어 신라 및 일본과의 해상교통에 적합한 지역이었다.¹¹⁾

팔련성의 축조시기와 관련된 주장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이곳으로 천도하기 이전에 수축되기 시작하여 수도로 있던 기간에 계속적으로 조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설이다.¹²⁾ 이와 달리 궁전 지역에 8개의 건물지가 있는 구조가 서고성과 비슷한 점을 근거로 이 두 성이 비슷한 시기에 축조되었을 것이라는 전제아래 팔련성이 740년 전후에 건설되고, 그 후 천도와 함께 도성에 걸맞은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은 아닐까 보기도 한

4) 양정석, 2008, 『韓國 古代 正殿의 系譜와 都城制』, 서경; 양정석, 2009, 「空簡構造를 통해 본 新羅의 五小京과 渤海의 五京」 『역사와 담론』53; 양정석, 2010, 「渤海 宮闕構造의 系譜에 대한 檢討」 『역사와 담론』56, 호서사학회.

5) 김진광, 2010, 「서고성의 궁전배치를 통해 본 발해 도성제의 변화」 『高句麗渤海研究』38; 김진광, 2012a, 「발해 도성의 구조와 형성과정에 대한 고찰」 『문화재』45-2; 김진광, 2012b 「발해 문왕대의 지배체제 연구」, 박문사.

6) 정석배, 2013, 「발해 상경성의 도시계획: 황제도성으로서의 발해 상경도성」 『고구려발해연구』45; 이병건, 2013, 「발해 상경성의 건축 조영과 형식」 『고구려발해연구』45; 윤재운, 2013, 「발해 도성의 의례공간과 왕권의 위상」 『한국고대사연구』71.

7) 윤재운, 2014, 「발해 도성의 생산 및 유통」 『역사문화연구』52.

8)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琿春市文物管理所, 2014, 「八連城-2004~2009年度渤海國東京故址田野考古學報告」, 文物出版社.

9) 貞元時 東南徙東京(『新唐書』卷219, 列傳 144, 北狄渤海).

10) 欽茂死 私諡文王 子宏臨早死 族弟元義立一歲 猜虐 國人殺之 推宏臨子華璵爲王 復還上京 改年中興 死 諡曰成王(『新唐書』卷219, 列傳 144, 北狄渤海).

11) 한규철, 2007, 「발해 5경의 성격과 기능」 『발해의 5경과 영역 변천』, 동북아역사재단, 64쪽.

12) 방학봉, 2002, 「발해성곽연구」, 연변인민출판사, 360~361쪽.

다.¹³⁾ 두 가지 주장이 다른 점도 있지만, 팔련성과 서고성이 서로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에서 두 도성이 비슷한 시기에 축조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듯하다. 따라서 팔련성의 조영 시기는 대략 740년경으로 추정된다.

이후 팔련성은 928년(東丹 甘露 3년, 遼 天顯 3년)에 폐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⁴⁾ 926년에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키고, 東丹國을 세우고 장자인 耶律倍를 東丹王으로 삼았다. 928년에 東丹을 요동으로 옮기고, 발해유민을 그곳으로 徙民시켰다. 이때 상경성을 비롯한 발해의 諸城은 결국 폐허가 되었다. 팔련성 1호 건물지 기단 퇴적층에서 출토된 ‘維次甘露元’¹⁵⁾ 다섯 글자가 새겨진 문자와가 나왔기 때문에, 이는 문헌상의 사실과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팔련성은 크게 내성과 외성의 이중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성은 장방형으로 동서 약 707.4m · 남북 약 744.6m이다. 내성은 외성의 중앙부에서 약간 치우친 북쪽에 있으며, 평면은 ‘凹’자형이다. 내성의 동서는 약 216.4m, 남북은 약 317.6m이다. 내성 북부 중앙에 남북방향의 대형건물지가 있는데, 남쪽에 있는 것이 제1호 건물지, 북쪽에 있는 것이 제2호 건물지이다.¹⁶⁾

제1호 건물지는 형태, 규모 및 위치가 서고성 제1호 궁전지 · 상경성 제3호 궁전지와 유사하여 前朝大殿으로 추정된다. 제1호 건물지는 正殿과 東西回廊으로 구성된다. 제2호 건물지는 형태, 규모 및 위치가 서고성의 제2 궁전지 · 상경성 제4호 궁전지에 해당하여 寢殿으로 추정된다.¹⁷⁾

13) 酒寄雅志, 2001, 앞의 책.

14)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 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 · 琿春市文物管理所, 2014, 앞의 책, 31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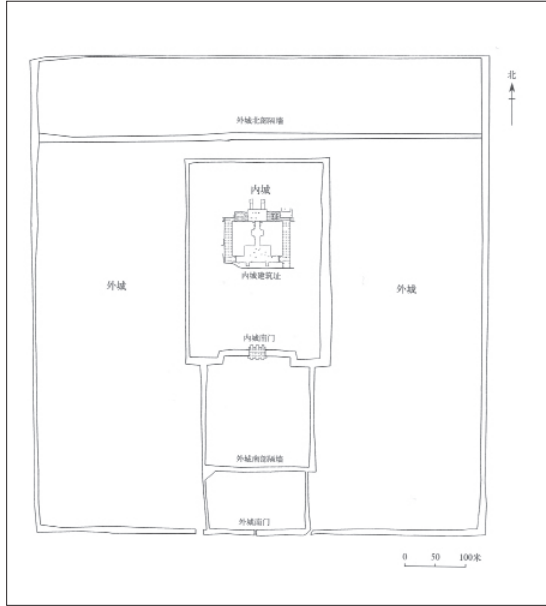
15)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 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 · 琿春市文物管理所, 2014, 앞의 책, 도판83 05HB II T0301③ :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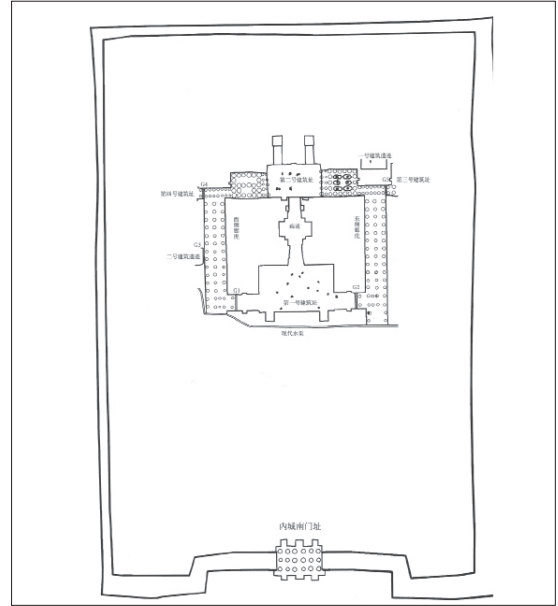
〈그림 3〉 ‘維次甘露元’銘 文字瓦

16)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 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 · 琿春市文物管理所, 2014, 앞의 책, 15쪽.

17)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 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 · 琿春市文物管理所, 2014, 위의 책, 310~311쪽.



〈그림 1〉 팔련성 평면도¹⁸⁾



〈그림 2〉 팔련성 내성 평면도¹⁹⁾

팔련성 주변의 산성으로는 琿春河 상류쪽인 북서쪽 도문 부근에 享岩山城이 있고, 동북쪽에 살기성이 있고, 그 북쪽에 농평산성과 도원동남산성이 있고, 팔련성 東寺廟跡, 新生寺廟跡 등의 절터도 있다. 또한 훈춘평원의 북부 25km 정도 거리에 축조되어 있는 長城(邊牆)도 서고성을 에워싸고 있는 ‘古邊牆’과 마찬가지로 동경용원부의 방위를 고려하여 축조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 장성의 동쪽끝에는 거대한 살기성이 있다. 그런데 팔련성 주변의 방위 시설은 주로 동북쪽의 훈춘하를 따라 배치되어 있다. 즉 이쪽이 팔련성에 대한 위협지역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주체는 말할일 것이다. 동경용원부는 북의 東寧에서 수분하 연안의 우수리스크, 다시 興凱湖 남부 등, 현재의 러시아 연해주 지방으로의 진출을 의도하고 이루어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²⁰⁾

18)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琿春市文物管理所, 2014, 앞의 책, 291쪽

19)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琿春市文物管理所, 2014, 위의 책, 292쪽.

20) 酒寄雅志, 2001, 앞의 책, 145~149쪽.



〈그림 4〉 琿春지역 일대의 발해유적²¹⁾

팔련성은 수도였던 시기가 기록상 10년 이내이므로 도성만이 축조되고, 도성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무덤이나 생활공간 등은 수도였던 기간에는 충분히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²²⁾

2) 팔련성과 주변의 기와 출토 양상

일반적으로 기와는 기본기와(수키와, 암키와), 와당(수막새, 암막새, 이형와당), 서까래기와(사래기와, 연목와, 부연와), 마루기와(적새, 착고, 치미, 용면와, 곱새기와, 마루암 수막새, 연봉형 장식, 유개, 취두, 망새, 잡상 등) 등으로 나뉘어진다. 또 특수용 기와로 기단용, 장식용, 무덤용이 있다.²³⁾

이 가운데 발해기와는 건축구조물의 사용처에 따라 평기와, 와당, 마루기와, 문자기와로 구분되며 용도에 따라 특수기와로 분류된다. 평기와는 기왓등과 기왓골을 형성하여 눈과 빗물의 유입을 방지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화된 기와이며, 암키와·수키와로 구분된다. 기와의 종류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기와는 와당류인데, 평기와의 한쪽 끝에 무늬를 새긴 드림새를 덧붙여 제작하여 처마 끝을 장식하는 역할을 한다. 이 중 연화문 와당의 수량이 압도적으로 많다. 연화문 와당은 단판연화문, 복판연화문, 심엽형 연화문으로 분류된다. 심엽형 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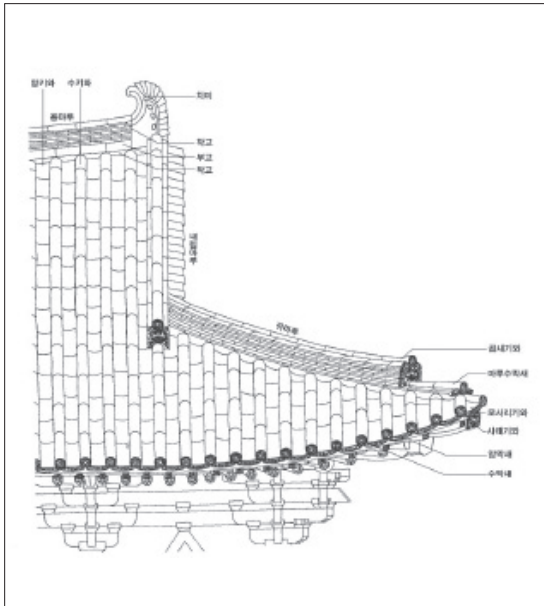
21) 魏存成, 2008, 『渤海考古』, 文物出版社, 61쪽.

22) 임상선, 2006, 앞의 논문, 310쪽.

23) 백종오, 2015, 『渤海 기와 研究의 推移와 몇 가지 斷想』, 『고구려발해연구』, 52, 92쪽.

문 와당은 연판의 형태, 간식문의 형태, 지방부의 구성에 따라 일련의 시간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 유물의 상대적인 선후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고고학적 유물로 활용되고 있다.²⁴⁾

마루기와는 목조건물의 마루를 축조하는 기와로 적새, 부고, 착고기와, 곱새기와, 용면와, 치미 등이 있다. 문자기와는 암·수키와 혹은 수막새에 문자나 기호를 새긴 기와이며, 특수기와는 특정한 장소에 사용되며 용도가 변용되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와를 말한다. 이러한 발해 기와 가운데 특징적인 것이 녹색유약을 바른 녹유기와이다. 녹유기와는 1차 소성 이후 유약을 바른 후 2차 소성을 거쳐 생산되는 만큼 장식성과 장엄성이 강조되는 건축물에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²⁵⁾



〈그림 5〉 발해 기와의 종류와 사용처²⁶⁾



〈그림 6〉 발해기와 종류 각종²⁷⁾

24) 田村晃一, 2001, 「渤海の瓦當文様に關する若干の考察」, 『青山史學』19; 中村亞希子, 2006, 「渤海上海龍泉府出土軒瓦丸の編年」, 『東京大學考古學研究紀要』20; 趙越, 2008-3, 「渤海瓦當類型學的考察及分期」, 『北方文物』; 김희찬, 2010c, 「발해 연화문 와당의 문양 변화와 시기적 변천」, 『白山學報』87.

25) 이우섭, 2016, 「발해기와의 종류와 특징」, 『고구려발해연구』54, 205쪽.

26) 이우섭, 2016, 위의 논문, 203쪽.

27) 이우섭, 2016, 위의 논문, 204쪽.

동경용원부는 785년경 상경에서 동경으로 천도한 후 다시 794년경에 마지막으로 상경으로 옮길 때까지 9년 정도 수도였던 곳이다. 동경은 지금의 길림성 훈춘시 팔련성이며, 그 아래 慶州·鹽州·穆州·賀州의 4개의 州가 있었다.

팔련성은 평면상 정방형에 가깝고 서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다. 팔련성에서 출토된 유물은 불상과 철축을 포함해 비교적 다양하다. 또한 와당, 수키와, 암키와, 꽃무늬 벽돌, 녹유기와, 문자기와 등이 나타나며 궁전지에서는 녹유기와가 출토되었다. 녹유기와는 발해유적 가운데 도성에서 나오는 것으로 彩陶瓦와 함께 건축물의 등급을 나타내는 것이다.²⁸⁾ 암키와는 크기가 매우 크고 양쪽 너비가 일정하지 않으며 가장자리에는 지두문이 확인된다. 또한 대다수의 암키와에는 문자가 압인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고성 출토품에서 보이는 특징이기도 하다. 팔련성에서 출토된 文字瓦는 2332건으로 전체 기와 출토량의 40%를 차지한다.²⁹⁾ 와당의 문양은 연화문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지방부가 돌출된 인동문 와당과 연화가 두 겹인 복판연화문 와당이 대표적이다. 제1호 건축지와 內城建築群의 주변에는 대부분 대형와당을, 建築群안에는 비교적 중소형와당, 그리고 제1·2호 건축지 사이의 회랑에서는 중소형와당이 출토되었다.³⁰⁾

〈표 1〉 팔련성내 건물터 출토 기와 통계표³¹⁾

유형		제1호 궁전터 동쪽회랑	제1호 궁전터 서쪽회랑	제2호 궁전터 동쪽건물	제2호 궁전터 서쪽건물	內城南門址	합계	
板瓦	普通板瓦	無紋式	79	300	109	390	100	978
		指壓紋	52	75	78	180	106	491
	檐頭板瓦	17	19	16	41	15	108	
筒瓦	普通筒瓦	78	200	125	403	184	990	
	檐頭筒瓦	63	41	123	23	18	268	
	綠釉筒瓦	7	9	21	8	43	88	
瓦當		14	19	58	53	37	181	
壓當類	板瓦形	無紋式	154	23	260	188	10	635
		指壓紋	5	17	6	143	0	171
	筒瓦形	9	109	16	240	52	426	
當溝		60	5	70	17	31	183	
합계		538	817	882	1686	596	4519	

28)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琿春市文物管理所, 2014, 앞의 책, 297쪽.

29)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琿春市文物管理所, 2014, 앞의 책, 307쪽.

30)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琿春市文物管理所, 2014, 앞의 책, 303쪽.

31)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琿春市文物管理所, 2014, 위의 책, 314쪽.

팔련성 주변 사찰지(馬滴達寺廟址, 新生寺廟址, 五一寺廟址, 楊木林子寺廟址, 大荒溝寺廟址)에서도 평기와류와 와당류가 출토되었는데, 신생사찰지와 양목림사찰지에서는 상경성이거나 서고성, 팔련성 궁전지에서 보이는 녹유기와들이 출토되기도 하였다. 오일사찰지에서는 암키와 부분에 압인된 문자기와가 출토되었다.

팔련성 주변 성곽에서도 기와가 출토되었다. 薩其城에서는 지압문 암키와, 회색자리무늬 암키와, 비스듬한 네모무늬 암키와, 갈색그물무늬 암키와, 文字瓦 등이 출토되었고, 東京龍原府管轄 慶州의 치소로 추정되는 濫特赫部城에서는 암키와와 미구가 있는 수키와가 출토되었다. 慶州管轄 縣의 治所로 추정되는 小城子古城에서는 연꽃무늬 와당, 미구가 있는 수키와, 지압문기와, 새끼줄무늬 암키와 등이 출토되었다. 英義城에서는 귀면와당과 베무늬 기와가, 營城子古城에서는 연꽃무늬 와당, 수면와당, 滴水瓦 등이 출토되었다. 穆州 또는 賀州의 치소로 추정되는 慶榮古城에서도 기와가 출토되었다. 鹽州의 치소로 추정되는 크라스키노성 안에서는 출토된 기와는 평기와류가 대다수를 차지한다.³²⁾ 이상을 통해 보았을 때, 기와가 출토된 팔련성 주변 성곽의 대다수는 州와 縣의 치소가 설치되었던 곳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팔련성 부근 건축유적에서 암키와, 수키와가 출토되었는데, 이 가운데 密江西崗子遺址와 北大遺址는 日本道상의 역참으로 추정되는 곳이다.³³⁾ 반면에 팔련성 부근 무덤유적(涼水良種場古墓群, 密江古墓群, 北大古墓群, 孟嶺河口古墓群)에서는 기와가 출토되지 않았다. 이는 東京을 도성으로 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서, 왕실이나 귀족들의 무덤이 조영될 겨를이 없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32) 김진광, 2012, 『북국 발해탐험』, 박문사, 663~676쪽.

33) 김진광, 2012, 위의 책, 605~611쪽.

〈표 2〉 동경지역 발해 기와 출토 유적 일람표³⁴⁾

일련 번호	유적명	성격	평기와		문 자 와	녹 유 와	외당		마루기와/장식기와				
			수키와	암키와			수	암	착고	곱새	적새	치미	용두
1	팔련성	도성	○	○	○	○	○	○					
2	살기성	성곽		○									
3	온특혁부성	성곽	○	○			○	○					
4	소성자고성	성곽	○	○			○						
5	영의성	성곽		○									
6	영성자고성	성곽		○			○						
7	경영고성	성곽		○			○						
8	크라스키노성	성곽	○	○			○						
9	마적달사찰지	사원지	○	○			○						
10	신생사찰지	사원지	○	○	○	○	○						
11	오일사찰지	사원지		○	○								
12	양목림사찰지	사원지	○	○			○						
13	대황구사찰지	사원지	○	○		○	○						
14	팔련성 동남사지	사원지		○			○					○	
15	크라스키노 사원지	사원지	○	○	○		○						
16	밀강서강가유적	건물지		○									
17	초평유적	건물지	○	○			○						
18	흑침자유적	건물지		○									
19	북대유적	건물지		○									
20	굴룽산유적	취락지	○	○			○						
21	육도포유적	취락지		○									
22	양목림자유적	취락지	○	○			○						

3) 팔련성의 기와생산체계

발해의 벽돌과 기와는 대체로 早期와 晩期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조기의 그것은 바탕흙이

34) 이우섭, 2016, 「발해기와의 종류와 특징」 『고구려발해연구』54, 228~232쪽의 〈표〉참조.

거칠고 예술장식이 적은데, 돈화 六頂山의 것이 대표적이다. 만기에는 상경 용천부에서 출토된 것이 대표적이며, 바탕흙이 견실하고 고우며 안료의 색은 순청색이 많다.³⁵⁾ 현재 단계에서는 상경천도이전에는 한반도의 영향이 짙은 기와를 사용하였지만, 상경성 조영 개시와 함께 당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독자적인 색깔이 농후한 기와를 제작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³⁶⁾ 한편 궁전이나 절의 건축에 쓰인 기와는 별도의 부서 또는 개인에 의해 제조되어 공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³⁷⁾

〈표 3〉 요업생산관계 유적³⁸⁾

	지역권	소재지	유적명	성격 / 출토 유물	數	구조
1	동경	中國 吉林省 琿春市	六道泡 유적	가마, 토기 · 瓦	-	不明
2		中國 吉林省 圖們市	甩彎子 유적	기와가마, 건축유구 인접	-	不明
3		中國 吉林省 琿春市	新興洞유적	가마, 瓦	-	石築平窯
4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성	기와가마, 瓦	12基	石築平窯
5	서경	中國 吉林省 長白縣	民主유적	기와 · 벽돌가마, 塼	-	塼築窯
6	상경	中國 黑龍江省 寧安市	杏山유적	가마, 瓦 · 塼 · 土錘	10數基	塼築平窯
7		中國 黑龍江省 寧安市	上屯유적	가마, 瓦	-	不明
8	남경	함경남도 신포시	오매리 유적	자기, 토기	1基	石築平窯
9	술빈부	러시아 연해주	코르사코프카유적 ³⁹⁾	토기가마, 토기	2基	石築平窯
10			니콜라예프카Ⅱ 성터	토기가마, 토기	-	不明

위의 가마터 가운데 동경 지역에 해당하는 것만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六道泡 유적

六道泡 유적은 敬信鄉 六道泡村에서 동북으로 1.5km 떨어진 평평한 산등성이에 있다. 서북 쪽으로 五道泡子와 1km 떨어져 있다. 유적지는 산등성이 서남부와 동남부의 옛 양어장 서쪽에 있다. 서남쪽 유적지는 면적이 남북 약 200m, 동서 약 70m에 달한다. 그러나 동남쪽 유적의 면적은 분명하지 않다. 인공으로 흙을 파낸 서쪽에서 약간의 갈색 협사도기잔편(夾砂陶片)과

35) 王承禮 著 · 宋基豪 譯, 1987, 『발해의 역사』,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32쪽.

36) 中村亞希子, 2012, 『渤海の瓦』, 『古代』129: 130, 342쪽.

37) 중경 현덕부지인 서고성과 동경 용원부지인 반납성자에서 동일한 인장을 찍은 기와가 출토되는 것도 일정한 곳에 위치한 製瓦場에서 수요에 응한 결과로 생각 된다(三上次男, 1961, 『渤海の押字瓦とその歴史的 성격』, 『和田博士古稀記念東洋史論叢』, 講談社; 임상선 편역, 1990, 『발해사의 이해』, 신서원, 168~169쪽).

38) 윤재운, 2014, 앞의 논문, 207쪽 표; 정석배 · 불딘 V.I., 2015, 『발해의 가마(窯)에 대한 일고찰』, 『선사와 고대』43; 中澤寬將, 2012, 『北東アジア中世考古學の研究-靺鞨 · 渤海 · 女眞』, 六一書房, 15쪽.

39) 코르사코프카 유적은 여덟 곳이 있으며 이 가운데 가마 유적은 코르사코프카 1 및 2 유적이 해당된다.(정석배, 2011, 『연해주 발해시기의 유적 분포와 발해의 동북지역 영역문제』, 『고구려발해연구』40, 124쪽) 여기서는 편의상 하나로 합하였다.

베 무늬 기와편이 발견되었다. 양어장에서 서쪽으로 약 50m 떨어진 두둑에서 가마터가 발견되었다. 유물은 불에 그슬린 붉은색 흙·니질회도편, 그리고 목탄 등이 발견되었다.⁴⁰⁾

② 甩鬻子 유적

길림성 훈춘시 영안향 솔만자촌에서 서쪽으로 2km 거리의 두만강 좌안에 위치한다. 솔만자유적은 크기가 동서 약 500m, 남북 약 250m이며, 이곳에서 발해시기의 토기편, 벽돌편, 기와편 등이 다량 수습되었다. 유적의 동북쪽 모서리부분에서 실시된 발굴조사를 통해 길이 22m, 너비 5~8m의 건물터가 1기 조사되었다. 가마터로 추정되는 곳은 이 유적의 서쪽 강변이다. 이곳에서는 적색 소토가 두께 20cm로 넓은 범위에 걸쳐 발견되었으며, 그 주변에서 기와가 밀집되어 확인되었다. 때문에 이곳에 가마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⁴¹⁾

③ 新興洞유적

유적은 琿春市 凉水鎮 남쪽 600m에 있다. 가마 벽을 돌로 쌓은 平窯이다. 1985년에 발굴하였는데 그 동쪽에 瓦場이 있고 많은 기와편이 쌓여 있었고, 가마 안에서 陶甗 한 점이 출토되었다.⁴²⁾

④ 크라스키노성

연해주 하산지구 크라스키노 마을 남서쪽 2km 거리에 위치한다. 발해의 염주성으로 추정되고 있는 크라스키노성은 동쪽으로 동해안과 400m 떨어져 있고, 부근에는 쭈까노브카 강이 흐른다. 1960년과 1963년에 샤브꾸노프가 이 유적을 측량하였고, 1980년·1981년·1983년·1990년·1993년에는 볼딘이 발굴조사를 하였으며, 이후 1994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⁴³⁾ 크라스키노 성터에서 조사된 가마터들은 모두 성 안의 북서쪽 사역 안쪽에 위치한다. 크라스키노 성터 사역에서는 모두 10기의 가마와 2기의 추정 가마가 조사되었다. 1호 가마는 1980년, 2호와 3호 가마는 1994년, 4호 가마는 1997년, 5~8호 가마 및 9호와 10호 추정 가마는 1998년, 11호와 12호 가마는 2001년에 각각 발굴되었다.⁴⁴⁾

40) 김진광, 2012, 앞의 책, 651쪽

41) 王洪峰, 1991-2, 『吉林省琿春市甩鬻子渤海房址清理簡報』, 『北方文物』, 36쪽.

42) 國家文物局主編, 1993, 『中國文物地圖集·吉林分冊』, 中國地圖出版社, 204쪽.

43) 고구려연구재단, 2004,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 발해 사원지 발굴보고서』; 고구려연구재단, 2005, 『2004년도 러시아 연해주 발해유적 발굴보고서』; 고구려연구재단, 2006, 『2005년도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성 발굴보고서』; 동북아역사재단, 2007, 『2006년도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성 발굴보고서』; 동북아역사재단, 2008, 『2007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 발해성 발굴보고서』; 동북아역사재단, 2010, 『2008년도 연해주 크라스키노 발해성 한·러 공동 발굴보고서』; 동북아역사재단, 2011a, 『2009년도 연해주 크라스키노 발해성 한·러 공동 발굴보고서』; 동북아역사재단, 2011b, 『2011년도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성 발굴보고서』; 동북아역사재단, 2013, 『2012년도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성 발굴보고서』.

44) 정석배·볼딘 V.I., 2015, 『발해의 가마(窯)에 대한 일고찰』, 『선사와 고대』43, 181~190쪽.

이상에서 발해의 요업생산시설을 도성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발해 가마의 입지와 분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Ⅰ類는 가마가 사원 등의 특정시설에 인접한 타입(시설인접형), Ⅱ類는 가마가 성곽의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타입(성곽 내포형), Ⅲ類는 주요한 소비지와는 별개의 장소에 가마가 있는 타입(독립형)이다. Ⅰ類는 관청·사원 등에 인접하여 가마가 있는 것으로, 이 유형의 사례로는 크라스키노성 가마터⁴⁵⁾를 들 수 있다. Ⅱ類는 성곽이나 마을 가운데 가마가 만들어진 경우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코르사코프카 유적을 들 수 있다. Ⅰ·Ⅱ類는 생산 장소와 소비 장소가 근접 혹은 공존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Ⅲ類는 생산 장소와 소비 장소가 일원적인 Ⅰ·Ⅱ類와는 달리, 가마가 성곽이나 마을과는 별도의 장소에 독립하여 형성된 경우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동경용원부(八連城)에 근접한 육도포·신흥동 유적, 상경용천부에 근접한 행산·상둔 유적을 들 수 있다. 즉 Ⅲ類는 도성이나 대규모 성곽 등 많은 인구가 모이는 한정된 특수한 형태, 다시 말하면 대량적·장기적인 수요가 필요한 상황에 의해 성립한 것이다.⁴⁶⁾

여기서 참고가 되는 것이 백제 사비기의 기와 가마이다. 사비 도성 인근의 대규모 가마터인 정동리, 정암리, 현북리, 왕진리 가마터들은 도성을 중심으로 10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 가마터들은 도성 외곽을 흐르는 백마강변에 위치하는 특징이 있는데, 백마강의 수계를 이용하여 연료의 확보가 유리하고 운송에 편리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한다.⁴⁷⁾ 이를 고려하면 팔련성에 있던 동경에 근접한 육도포·솔만자·신흥동 가마는 두만강 수계를 이용하여 기와를 운송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크라스키노성의 가마들은 사원내의 자체 수요의 충당을 위한 사원전용 가마라고 할 수 있다.

발해의 요업과 관련해서 더 주목할 것은 문자기와이다. 현재까지 보고된 문자 기와는 上京城, 八連城, 西古城에서 주로 출토된 것들로서, 거의 400개에 달하고 문자의 종류는 250종 이상이 된다고 한다. 당시 주변국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이렇게 많은 문자 기와가 발견되는 것은 발해 문화의 한 특징을 이루는 것이다. 이들 문자 기와들은 중국 吉林省博物館, 延邊博物館, 黑龍江省博物館, 黑龍江省 文物管理所, 서울대학교 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⁴⁸⁾

일찍이 三上次男은 발해의 문자와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⁴⁹⁾

45) Boldin V. · Nikitin Y., 1999-4, 「Kraskinskoye古城의渤海屋面瓦窯」『古陶瓷科學技術』-1999年度國際討論會論文集, 上海科學技術文獻出版社, 338~346쪽.

46) 中澤寬將, 2012, 앞의 책, 14~16쪽.

47) 이병호, 2014, 「백제 도성의 수공업 생산체계-기와 생산체계를 중심으로-」『역사문화연구』52, 103쪽.

48)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1992, 앞의 책, 473쪽.

49) 三上次男, 1990, 앞의 논문, 167쪽.

- ① 제작에 관여했던 지역 혹은 관할 구역의 지명
- ② 제작에 관여했던 관청 혹은 기관의 이름
- ③ 제작에 관여한 사람의 성씨
- ④ 제작에 관여한 사람의 이름
- ⑤ 사용에 관계된 건물명
- ⑥ 숫자
- ⑦ 간지
- ⑧ 이상의 항목들의 두 가지 이상의 조합

이 분류를 고려하면, 관영공방에서 제작에 참여한 工匠의 존재를 상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간지를 통해서도 기와의 제작연대를 추정할 수가 있다. 기와 제작과 관련된 전문기술자 집단은 이처럼 존재했겠지만 단순 노무 인력은 수령을 통해 동원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발해는 지역을 대표하는 수령층을 외교·무역에 이용하는 것으로 그 지배자로서의 사회적 신분과 이익을 보장함과 동시에 정치적으로 재편하였다. 발해의 국가구조는 이 영역에 특유한 지리·자연조건과 밀접한 수렵·어로·목축이라고 하는 생산형태로 규정되어 각자의 수령을 매개로 한 지역지배 혹은 수령의 지방 관리화를 국가형태의 기본으로 하고 있었던 것⁵⁰⁾이기 때문이다.

또한 三上次男은 두 가지 점을 지적하였다. 하나는 각각의 유적에 독자적인 문자가 많이 있는 것은 그 유적과 관계가 깊은 기와를 만드는 관계자가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상경성에 그것이 많은 것은 이곳이 다른 두 유적과 멀리 떨어진 도성이고, 또 중심적인 수도였기 때문일 것이라고 하였다. 다른 하나는 서고성과 팔련성 유적에서 동일한 인장을 사용하여 찍은 것으로 생각되는 문자기와가 함께 출토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것은 80여km의 간격이 있는 두 도성에 대하여 하나의 製瓦場에서 기와가 공급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⁵¹⁾ 이러한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까지 발견된 도성관련 가마터는 상경성과 동경성 부근에서만 발견되고, 중경이 있던 서고성 부근에서는 아직 발견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해의 5경 가운데 도성이었던 곳은 중경·상경·동경뿐이었고 이 가운데 상경과 중경·동경지역의 두 곳에 가마가 설치되어 건축물에 제공되는 기와가 제작된

50) 鈴木靖民, 1999, 『발해와 일본·당의 무역』 『장보고와 21세기』, 해안, 45~46쪽.

51) 三上次男, 1990, 위의 논문, 164~168쪽.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은 동경용원부에 비정되는 八連城유적에서 출토되는 기와가, 기본적으로 서고성에서 출토되는 기와와 특징을 같이하여, 같은 가마에서 공급되었음을 의미한다는 지적⁵²⁾에서도 증명된다.

2. 맺음말

팔련성의 축조 시기는 서고성과의 구조의 유사성을 근거로 보았을 때, 740년 전후에 건설된 것으로 판단된다. 폐기된 시기는 팔련성 1호 건물지 기단 퇴적층에서 출토된 ‘維次甘露元’ 다섯 글자가 새겨진 문자와에 의해, 928년 이후로 추정된다. 팔련성은 크게 내성과 외성의 이중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성 북부 중앙에 남북방향의 대형건물지가 있는데, 남쪽에 있는 것이 제1호 건물지, 북쪽에 있는 것이 제2호 건물지이다. 제1호 건물지는 前朝大殿으로, 제2호 건물지는 寢殿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팔련성은 수도였던 시기가 기록상 10년 이내이므로 도성만이 축조되고, 도성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무덤이나 생활공간 등은 수도였던 기간에는 충분히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발해기와는 건축구조물의 사용처에 따라 평기와, 와당, 마루기와, 문자기와로 구분되며 용도에 따라 특수기와로 분류된다. 팔련성에서는 와당, 수키와, 암키와, 꽃무늬 벽돌, 녹유기와, 문자기와 등이 나타나며 궁전지에서는 녹유기와가 출토되었다. 녹유기와는 발해유적 가운데 도성에서 나오는 것으로 彩陶瓦와 함께 건축물의 등급을 나타내는 것이다. 팔련성 주변 사찰지에서도 평기와류와 와당류가 출토되었는데, 신생사찰지와 양목림사찰지에서는 상경성이나 서고성, 팔련성 궁전지에서 보이는 녹유기와들이 출토되기도 하였다. 오일사찰지에서는 암키와 부분에 압인된 문자기와가 출토되었다. 기와가 출토된 팔련성 주변 성곽의 대다수는 州와 縣의 치소가 설치되었던 곳이었다. 팔련성 부근 건축유적에서 암키와, 수키와가 출토되었는데, 이 가운데 密江西崗子遺址와 北大遺址는 日本道상의 역참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반면에 팔련성 부근 무덤유적에서는 기와가 출토되지 않았다. 이는 東京을 도성으로 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서, 왕실이나 귀족들의 무덤이 조영될 겨를이 없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팔련성에 있던 동경에 근접한 육도포·솔만자·신흥동 가마에서는 두만강 수계를 이용하

52) 다무라 고이치외 지음·임석규 옮김, 2008, 『동아시아의 도성과 발해』, 동북아역사재단, 316~317쪽; 中村亞希子, 2012, 앞의 논문, 342쪽.

여 기와를 운송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크라스키노성의 가마들은 사원내의 자체 수요의 충당을 위한 사원전용 가마라고 할 수 있다. 문자기와를 통해 관영공방에서 제작에 참여한 工匠의 존재와, 간지를 통해서는 기와의 제작연대를 추정할 수가 있다. 기와 제작과 관련된 전문기술자 집단은 이처럼 존재했겠지만 단순 노무 인력은 수령을 통해 동원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까지 발견된 도성관련 가마터는 상경성과 동경성 부근에서만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상경과 중경·동경지역의 두 곳에 가마가 설치되어 건축물에 제공되는 기와가 제작·유통된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고구려연구회, 1998, 『러시아 연해주 발해절터』, 학연문화사
- 고구려연구재단, 2004,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 발해 사원지 발굴보고서』
- _____, 2005, 『2004년도 러시아 연해주 발해유적 발굴보고서』
- _____, 2006, 『2005년도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성 발굴보고서』
- 김중혁, 2002, 『동해안 일대의 발해유적에 대한 연구』, 중심
- 김진광, 2012, 『북국 발해 탐험』, 박문사
- 김창균, 1999, 「러시아 연해주 발해 사원지 기와의 고구려 양식 계승에 대한 연구」 『강좌미술사』14, 한국미술사연구소
- 김희찬, 2010a, 「발해 연화문 와당의 고구려 계승성 검토」 『고구려발해연구』36
- _____, 2010b, 「발해 인동문계 와당의 계통과 고구려 연관성 검토」 『東아시아古代學』21
- _____, 2010c, 「발해 연화문 와당의 문양 변화와 시기적 변천」 『白山學報』87
- 다무라 고이치 외 지음·임석규 옮김, 2008, 『동아시아의 도성과 발해』, 동북아역사재단
- 동북아역사재단, 2007, 『2006년도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성 발굴보고서』
- _____, 2008, 『2007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 발해성 발굴보고서』
- _____, 2010, 『2008년도 연해주 크라스키노 발해성 한·러 공동 발굴보고서』
- _____, 2011a, 『2009년도 연해주 크라스키노 발해성 한·러 공동 발굴보고서』
- _____, 2011b, 『2011년도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성 발굴보고서』
- _____, 2013, 『2012년도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성 발굴보고서』
- 류병홍, 1992-4, 「발해유적에서 드러난 기와막새무늬에 대한 고찰」 『조선고고연구』
- 리준걸, 1986-1, 「함경남북도일대의 발해유적유물에 대한 조사보고」 『조선고고연구』
- 리창진, 2013-3, 「발해 련꽃무늬수기와막새의 특징」 『조선고고연구』
- _____, 2013-4, 「팔련성에서 알려진 수기와막새의 무늬유형과 그 제작시기」 『조선고고연구』
- 방학봉, 2003, 『발해주요유적을 찾아서』, 연변대학교출판사

- 백종오, 2012, 「발해 기와의 연구사적 검토」 『백산학보』92
- _____, 2015, 「渤海 기와 研究의 推移와 몇 가지 斷想」 『고구려발해연구』52
- 송기호, 1992, 「불사조 문양이 있는 발해의 막새기와」 『미술자료』50
- _____, 1998, 「六頂山 古墳群의 성격과 발해 건국집단」, 『汕耘史學』8, 1998
- _____, 2010, 「용해구역 고분 발굴에서 드러난 발해국의 성격」, 『高句麗渤海研究』38
- _____, 2011, 『발해 사회문화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송옥빈, 2013, 「발해 문자와당의 구조와 문자와당의 사용」 『한국기과학회 학술대회발표집』10
- 여호규, 2014, 「고구려 국내 도성의 구성요소와 수공업 생산체계-기와 생산체계를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52
- 이병호, 2014, 「백제 도성의 수공업 생산체계-기와 생산체계를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52
- 윤재운, 2011, 「발해의 5京과 교통로의 기능」 『한국고대사연구』63
- _____, 2013, 「발해 도성의 의례공간과 왕권의 위상」 『한국고대사연구』71
- _____, 2014, 「발해 도성의 생산 및 유통」 『역사문화연구』52
- 이우섭, 2016, 「발해기와의 종류와 특징」 『고구려발해연구』54
- 임상선 편역, 1990, 『발해사의 이해』, 신서원
- 임상선, 2006, 「발해의 도성체제와 그 특징」 『韓國史學報』24
- 정동귀, 2015, 「발해 암막새에 대한 고찰」 『고구려발해연구』52
- 정석배, 2008, 「한·러 공동 발해유적 발굴보사의 성과와 과제」 『고구려발해연구』32
- _____, 2011, 「연해주 발해시기의 유적 분포와 발해의 동북지역 영역문제」 『고구려발해연구』40
- 정석배·정동귀, 2014, 「연해주지역 발해 평기와 일고찰-고뿐이토와 아브리코스 사원지 출토 평기와를 중심으로-」 『고구려발해연구』50
- 정석배·볼딘 V.I., 2015, 「발해의 가마(窯)에 대한 일고찰」 『선사와 고대』43
- 최진호, 2012, 「발해 수막새를 통해 본 발해문화의 성격」 『선사와 고대』36
-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Ⅲ
- 國家文物局主編, 1993, 『中國文物地圖集』吉林分冊, 中國地圖出版社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琿春市文物管理所, 2014, 『八連城-2004~2009年度渤海國東京故址田野考古學報告』, 文物出版社
- 王承禮 著·宋基豪 譯, 1987, 『발해의 역사』,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 三上次男, 1961, 「渤海の押字瓦とその歴史的 성격」 『和田博士古稀記念東洋史論叢』, 講談社
- 小嶋芳孝, 1999, 「渤海の産業と物流」 『アジア遊學』6, 1999
- 鈴木靖民, 1999, 「발해와 일본·당의 무역」 『장보고와 21세기』, 해안
- 中村亞希子, 2012, 「渤海の瓦」 『古代』129·130
- 中澤寬將, 2012, 『北東アジア中世考古學の研究-靺鞨·渤海·女眞』, 六一書房

〈토론문〉

팔련성의 구성요소와 기와생산체계

공석구 (한발대)

발해시대 東京에 해당하는 팔련성의 구성요소를 기와 생산체계와 연관시켜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이 발표를 통해서 팔련성이 짧은 기간 동안 왕성으로 기능하였으며, 그에 따라 주변 시설물의 조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다. 본 발표문을 보고 느낀 점을 토론형식으로 제기하고자한다.

첫째로, 팔련성 유적의 성격에 대한 문제이다. 이 유적의 폐기연대를 밝혀냈다. 기단 퇴적층에서 발견된 감로원년(926년)문자 기와를 근거로 하여 동단왕을 요동지역으로 이주시킨 928년으로 파악하였다. 그런데 감로원년 기와 유물은 팔련성이 동단국 성립이후에도 기능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팔련성에 대한 보수와 수리과정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현재의 팔련성 유적 상황에서 발해유적과 동단국유적, 유물에 대한 구분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다.

둘째로, 팔련성 주변의 무덤유적에서 기와가 출토되지 않는 현상을 785-794년에 불과한 왕성으로서의 존재기간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중경 서고성유적이 왕성으로 기능했던 기간이 팔련성과 비교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용두산고분군을 비롯하여 왕족, 귀족급 고분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특히 순목황후묘(9대 간왕(817-818년)의 부인)의 경우는 중경에서 천도해간 지 한참 후에 조성된 것이다. 따라서 기간이 짧아 귀족묘가 조성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겠지만, 그 외에도 동경의 운용방식과 관련하여 생각해보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팔련성은 왕성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모습을 갖추었을 것이다. 이와 비교하여 다양한 행정등급(王城, 州治所, 縣治所)과 관련한 성곽유적에서 이와 관련된 유물상의 차별성을 찾아보는 연구방법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기와유물과 관련하여 비교해볼 때 공통성과 차별성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

셋째로, 생산된 기와의 운송문제에 대한 이해는 발해기와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발표자께서는 팔련성의 기와생산체계를 백제유적과 비교 설명하여 그러할 개연성과 이해의 폭을 넓혀주었다. 하지만 팔련성의 경우 기와의 운송과 관련한 입지조건이 백제의 경우와 다른 측면이 있어 단순 비교에는 불안한 점도 있다. 토론자는 팔련성 주변지역에 팔련성 출토유물과 관련되는 요지가 분포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보다 자연스러울 것으로 생각한다. 왕성의 격식에 맞는 기와의 종류, 형태 등은 미리 정해진 방식에 의해서 동일한 형태는 얼마든지 제작 가능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팔련성 출토기와유물과 관련된 요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주변에 분포한 육조포·솔만자·신흥동 가마유적에 대한 상대 비교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혹시 이와 관련한 특별한 견해가 있는지 듣고 싶다.

넷째로, 팔련성 유물의 특징으로 문자기와의 존재를 지적하였다. 팔련성·상경성·서고성에서 출토되는 다양한 문자기와는 독특한 점이 있다. 문자기와의 유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사실 상당한 시기 차이가 있어 토론자가 연관성을 주장하기에는 무리한 점이 있다. 하지만 유물 상으로 볼 때 □안에 글자를 표현하는 방식이 백제의 문자기와의와 유사한 점이 간취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백제멸망이후 667년 웅진도독부가 만주지역의 건안성으로 이주한 사실이 있다. 이때 수많은 백제인이 요동지역으로 이주했을 것이다. 혹시 이때 사민된 백제인의 후손이 발해의 문자기와 생산에 참여하였을 것으로 추정해 볼 가능성은 없을까 생각해 본다. 이와 같은 토론자의 의견에 대한 발표자의 생각을 듣고 싶다.

〈발표 3〉

9~10세기 발해와 일본 교류의 재검토

— ‘日本道’와 ‘東丹國使’를 중심으로 —

임상선 (동북아역사재단)

1. 머리말

8세기 초 渤海 2대 왕인 武王은 처음으로 日本에 사신을 파견하여 발해가 새로이 건국되었음을 알렸다. 그때의 상황을 전하는 國書의 내용을 참조하면, 고구려의 옛 땅을 수복하고, 扶餘의 遺俗이 있는 신생국인 발해가 건국되었다는 것을 알리고¹⁾, 일본과의 교류를 희망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

발해의 일본 첫 사신 파견을 학계에서는 唐과의 싸움을 통해 건국의 기틀을 잡고 있던 발해가 일본의 군사적 지원을 기대하여 보낸 것이라 보기도 하지만,²⁾ 이는 당시의 국제정세나 발해와 일본이 처한 지정학적 위치 등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다. 발해가 사신 파견을 한 시점이 건국된지 30여년에 불과하여 일견 군사, 대외적으로 불안한 상황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지만,

1) 727년 발해와 日本간의 최초의 使臣으로 일본에 도착하였으나 일행 중 寧遠將軍 高仁, 義游將軍 德周, 別將 舍那婁을 비롯한 16인은 蝦夷에게 죽음을 당하고, 首領 高齊德 등 8인만이 죽음을 면하고 使行을 완수하였다. 『續日本紀』의 관련 기록은 다음과 같다. (神龜 4년 9월) : 庚寅 渤海郡王使首領高齊德等八人 來着出羽國 遣使存問 兼賜時服 / 12월 丁亥 : 渤海郡王使高齊德等八人入京 / 丙申 遣使賜高齊德等衣服冠履 渤海郡者舊高麗國也 淡海朝廷七年冬十月 唐將李勣伐滅高麗 其後朝貢久絕矣 至是渤海郡王遣寧遠將軍高仁義等廿四人朝聘 而着蝦夷境 仁義以下十六人並被殺害 首領齊德等八人僅免死而來 / (神龜 5년 春正月) : 庚子 天皇御大極殿 王臣百寮及渤海使等朝賀. 甲辰 天皇御南苑 宴五位已上 賜祿有差. 甲寅 天皇御中宮. 高齊德等上其王書并方物 其詞曰 武藝啓 山河異域 國土不同 延聽風猷 但增傾仰 伏惟大王 天朝受命 日本開基 奕葉重光 本枝百世 武藝忝當列國 濫愆諸蕃 復高麗之舊居 有扶餘之遺俗 但以天崖路阻 海漢悠悠 音耗未通 吉凶總問 親仁結援 庶叶前經 通使聘隣 始乎今日 謹遣寧遠將軍郎將高仁義 游將軍果毅都尉德周 別將舍航等廿四人 齎狀 并附貂皮三百張奉送 土宜雖賤 用表獻芹之誠 皮幣非珍 還慚掩口之誚 主理有限 披瞻未期 時嗣音微 永敦隣好. 於是高齊德等八人並授正六位上 賜當色服 仍宴五位已上及高齊德等 賜大射及雅樂寮之樂 宴訖賜祿有差. 二月壬午 以從六位下引田朝臣虫麻呂 爲送渤海客使 / 夏四月 : 壬午 齊德等八人 各賜綵帛綾綿有差 仍賜其王璽書曰 天皇敬問渤海郡王 省啓具知 恢復舊壤 聿修曩好 朕以嘉之 宜佩義懷仁 監撫有境 滄波雖隔 不斷往來 便因首領高齊德等還次 付書并信物綵帛一十疋 綾一十疋 純廿疋 絲一百絢 綿二百屯 仍差送使發遣歸鄉 漸熱 想平安好 / 六月庚午 送渤海使使等拜辭 / 壬申 水手已上惣六十二人 賜位有差(『續日本紀』卷第10, 聖武天皇, 神龜 4年-5年)

2) 濱田耕策, 『渤海國興亡史』, 吉川弘文館, 2000 ; 石井正敏, 『日本渤海關係史の研究』, 吉川弘文館, 2001 ; 酒奇雅志, 『渤海と古代の日本』, 校倉書房, 2001 ; 赤羽目匡由, 『渤海王國の政治と社會』, 吉川弘文館, 2011 등.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우선적으로 하는 일이 바로 주변국에 건국을 알리는 것이었다. 발해 大祚榮도 震國을 건국한 후 바로 한 일이 바로 突厥에 사신을 파견하여 알렸고,³⁾ 또한 사이가 좋지 않다는 남쪽의 新羅에도 사신을 파견한 바 있기 때문이다.⁴⁾

발해와 일본은 727년 처음 국교를 연 이래 발해가 일본에 34회, 일본이 발해에 13회 사신을 파견하며 밀접한 교류를 하였다. 특히 일본은 8세기 중엽, 신라와 당과의 공식적인 교류인 遣唐使와 遣新羅使의 파견이 중지되면서 10세기 넘어서까지 공식적인 교류를 한 것은 발해뿐이었다.

8세기 초의 국교 개시 이후 8세기 중엽까지는 양국의 교류 의도가 일치하여 상호 사신을 파견하고, 이에 답사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9세기 이후부터는 발해 주도의 교류가 진행되었다. 특히 9세기에 접어들면서 일본측이 발해 사신의 방문에 부담을 느끼고, 방문 자체를 여러 가지 이유로 제한하기에 이르렀다. 가령, 일본은 발해 사신의 방문에 따른 막대한 접대에 비해 실익이 적다고 생각하여, 방문 시기를 12년에 한번씩 오도록 하고, 심지어 발해 사신의 國書 내용도 엄격하게 요구하였다. 즉, 일본은 당시 발해를 자신의 하위 蕃國의 대상으로 치부하고, 이러한 내용을 국서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였다. 발해는 8세기 후반에는 일본의 요구를 일축하고 발해가 고구려 계승국이며 천손의 후손임을 강조하였으나, 9세기에 들어서는 국서의 내용을 사신단이 수정하면서까지 일본의 요구에 응하였다. 일본이 공식적으로 대외 교류의 상대가 발해인 것과는 달리, 발해는 일본 이외에도 唐, 新羅, 그리고 거란, 회흘 등과도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발해가 일본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교류를 지속한 것은 현실과 다른 일본의 명분을 들어주면서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고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후 발해와 일본간의 교류는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교류의 성격도 시종여일 하지 않고 변화를 겪었는데, 특히 9세기로부터 발해 멸망까지는 일본에 비해 발해가 적극적으로 교류에 임하였던 시기였다. 아울러 발해와 일본의 교류는 사신단의 왕래만 아니라, 이들의 출발과 도

3) 渤海靺鞨大祚榮者... 聖曆中, 自立為振國王, 遣使通于突厥(舊唐書권199下, 列傳제149下, 北狄, 渤海靺鞨)

祚榮即并比羽之衆, 特荒遠, 乃建國, 自號震國王, 遣使交突厥(新唐書권219, 列傳제144, 北狄, 渤海)

4) 『東史綱目』은 효소왕 9년(700)조에 『舊唐書』와 『新唐書』의 발해전과 유사한 내용으로 발해의 건국사실을 전한후, “말갈의 酋長 대조영이 使者를 보내어 來附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종래 이 기사가 경자년 효소왕 9년(당 무후 久視 원년, 즉 700년에 해당하므로, 발해가 이해에 신라에 사신을 파견한 것으로 이해하여 왔으나, 동사강목의 전체 내용을 보면 수정이 필요하다. 즉, 동사강목에서 건국과 신라에 사신을 파견한 내용을 발췌하면, “이해에, 당의 무씨 조가 거란의 남은 무리를 쳐서 평정하니, 말갈의 大祚榮이 달아났다. — 말갈의 酋長 대조영이 使者를 보내어 來附하였다. 그때에 거란이 突厥에 붙었었고 唐兵은 길이 멀어서 토벌하지 못하였다. 조영은 곧바로 비우의 무리를 병합하여 변경의 멀음을 믿고 이에 나라를 세워 스스로 震國王이라 부르고, 이웃의 도읍에 의지하고자 사자를 보내어 붙어 왔으므로, 신라에서는 제5품 大阿滄의 官秩을 주었다.”고 하였으니, 신라에 사신을 보낸 것이 대조영이 진국왕이라 칭한 후 이웃의 도움을 받고자 함이라고 하였다. 구당서, 신당서에서 둘둘에 사신을 파견한 것과 같은 맥락이나, 신라도 아마 같은 시기일 것으로 보아야 할 듯 하다.

착, 귀국이라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고려도 포함된다. 현재 양국간의 교류에 대해서는 관련 사료의 대부분이 일본측에 의한 것이어서, 일본 고대사의 일환으로 연구된 측면이 다분하지만, 교류의 주체이기도 한 발해측 입장에서 교류의 양상을 살펴볼 필요도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9세기 이후 발해 멸망과 그 이후의 東丹國⁵⁾ 시기를 범위로 하여, 양국간의 교류 양상의 일단을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⁶⁾ 가령, 발해의 대일 교류로로만 알려진 ‘日本道’의 의미, 그리고 10세기 전반 전후 3번에 걸쳐 일본을 방문한 裴璆의 활동을 다시 살펴보고, 아울러 발해 멸망후 세워진 東丹國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2. 발해 대외교류상의 ‘日本道’

1) 발해의 대외교류 기관

발해의 사신들이 일본을 방문하거나 혹은 일본으로부터 귀국할 때, 발해측에서는 어떤 부서에서, 그리고 어떤 곳에서 이러한 일을 담당하였을까. 현재 이와 관련하여 『新唐書』 발해전에는 발해가 건국 초에 諸生을 唐에 여러번 파견하여 古今의 制度를 익혀 드디어 海東盛國이 되었다고 하며,

初，其王數遣諸生詣京師太學，習識古今制度，至是遂為海東盛國，地有五京·十五府六十二州。--- 官有宣詔省，左相·左平章事·侍中·左常侍·諫議居之。中臺省，右相·右平章事·內史·詔誥舍人居之。政堂省，大內相一人，居左右相上 左·右司政各

5) 본고와 관련된 東丹國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저 참조. 日野開三郎, 「五代時代に於ける契丹と支那との海上貿易 - 東丹國內に於ける渤海遺民の海上活動(上·中·下)-」, 『史學雜誌』52-7·8·9, 1941; 島田正郎, 「契丹國-遊牧の民キタイの王朝」, (東方書店, 1993); 何俊哲, 「耶律倍与東丹國諸事考」, 『北方文物』1993-3; 최태길 역, 「야를배와 동단국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고증」, 『발해사연구』6, 연변대학출판사, 1995; 楊雨舒, 「近十五年来国内东丹史研究概述」, 『社会科学战线』1996-3; 楊雨舒, 「辽代耶律羽之“墓志”所记东丹国史事考」, 『社会科学辑刊』, 1996-5; 石井正敏, 「藤原定家書寫『長秋記』紙背文書「高麗渤海關係某書狀」について」, 『人文研紀要』61, 中央大學人文科學研究所, 2007; 篠崎敦史, 「東丹國使について - 來朝理由を中心に」, 『續日本紀研究』384號, 2010; 康鵬, 「東丹國廢罷時間新探」, 『北方文物』2010-2, 北方文物雜誌社, 2010).

6) 동란국은 발해 계승국가, 발해 유민국가, 발해 부흥국가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지만(이호형, 「발해 유민의 부흥운동과 대외관계」(정병준 외, 『중국의 발해 대외관계사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11) 255-258쪽), 본고에서 검토할 929년의 동란국 사신은 대표가 배구로서 이전에 발해 사신으로 일본을 방문한 바가 있고, 특히 이때의 사신단의 구성이나 방문 상황이 이전의 발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고려에 포함하였다.

一，居左右平章事之下，以比僕射 左·右允比二丞。左六司，忠·仁·義部各一卿，居司政下，支司爵·倉·膳部，部有郎中·員外 右六司，智·禮·信部，支司戎·計·水部，卿·郎準左 以比六官。中正臺，大中正一，比御史大夫，居司政下 少正一。又有殿中寺·宗屬寺，有大令。文籍院有監。令·監皆有少。太常·司賓·大農寺，寺有卿。司藏·司膳寺，寺有令·丞。胄子監有監長。巷伯局有常侍等官。其武員有左右猛賁·熊衛·羆衛，南左右衛，北左右衛，各大將軍一·將軍一。大抵憲象中國制度如此。以品為秩，三秩以上服紫，牙笏·金魚。五秩以上服緋，牙笏·銀魚。六秩·七秩淺緋衣，八秩綠衣，皆木笏。（『新唐書』 권219, 列傳·144, 北狄, 渤海）

라고 하였다. 발해의 官署 중에서 대외교류와 관련된 부서는 中臺省과 司賓寺를 찾을 수 있다. 中臺省에는 右相 밑에 右平章事, 內史, 詔誥舍人이 있었고, 司賓寺에는 장관인 卿이 있었다. 『渤海國志長編』 제15권 職官考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中臺省의 右相은 1명은 왕의 언론을 관리하고 나라의 정사를 잡고서 대내상 및 조상과 더불어 전문적으로 관할하며 결정하는 일을 담당한다. 발해의 중대성은 당의 中書省을 모방했는데, 중서성에는 중서령(정2품) 2명이 있는데, 천자를 보좌하여 큰 정사를 관장하고 결정하는 일을 보니, 발해 우상이 곧 중서령의 관직이다. 우평장사 1명과 내사 1명은 우상을 보조하는 직책인데, 당의 중서성의 문하시랑(정3품) 2명에 해당된다. 우평장사는 즉 당의 중서시랑과 중서문하평장사고, 내사는 곧 중서시랑이다. 詔誥舍人은 조고를 기초하고 왕의 언론을 修記하는 일을 하나, 인원수는 미상이다. 당 중서성의 舍人(정5품상) 6명은 進奏, 表章, 詔旨制勅을 기초하여 올리고, 다른 관리와 함께 制誥를 주관한다. 기거사인(중6품상) 2명은 記言을 관장하니 조고사인을 모방한 것이다.

발해 사신이 國書 및 중대성의 牒을 가지고 가고, 일본의 국서와 태정관의 牒을 받아왔으니, 당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다. 중대성의 일본 상대는 太政官이었다. 가령, 대이진의 동생이었던 大度晃(재위 857~871)은 즉위 전인 함화11년(841), 渤海의 中臺省이 일본의 太政官에 보낸 牒에 中臺親公·大內相·殿中丞 등의 관직으로 보인다. 건황은 3성 가운데 中臺省·政堂省 2성의 장관직과 함께 외교를 담당하는 殿中寺의 장관도 겸하고 있었다.⁷⁾ 특히 건황이 副王=東宮이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대외 교류 업무가 발해내에서 매우 중시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7) 中村裕一, 「渤海國咸和十一年中臺省牒に就いて—古代東アジア國際文書の一形式」(唐代史研究會 편, 『隋唐帝國と東アジア世界』, 汲古書院, 1979); 林相先 편역, 앞의 책, 309~338쪽.

司賓寺의 卿 1명은 빈객 및 흥한 의례와 관련된 일을 관할하니, 당의 鴻臚寺에 해당된다. 흥려시에는 경이 1명 있는데 종3품이고 소경이 2명 있는데 종4품상으로, 빈객 및 흥한 의례에 관련된 일을 주관한다. 측천무후 때 흥려시를 사빈시로 개칭하였다. 당에서 흥려시는 夷狄의 君長들의 관직과 봉작을 이어 받은 자들의 적서 관계를 식별하는 일을 관장한다. 제번이 봉명하면 곧 책을 받아 가는데, 제번의 조공사들에게 수종 인원이 있으면 절반은 국경에 남겨 두고 입조하여 바치는 공물은 우선 흥려시로 올린다. 무릇 빈객이 들어 가게 되면 흥려에서 하사품의 다소에 따라 등기해서 主客에게 알려 준다. 이것이 이른 바 흥려의 직책이다. 당의 사신이나 발해와 일본간에도 사신이 서로 왕래했으니, 이것을 관장하는 것이 사빈시였다. 특히, 일본에 파견된 사신중 史都蒙의 관직이 사빈소령이었으니, 사빈경은 슈이라고도 한 것 같다. 이밖에 財貨와 廩藏, 무역을 관장한 司藏寺는 당이나 일본 등과의 교역에 관여하였을 것이라고 한다.

발해 역사에서 사빈시와 관련된 인물로는 사도몽 이외에 賀守謙이 있다. 하수겸은 『渤海國記』를 저술한 張建章의 墓誌에 의하면 832년 司賓卿의 직함으로 왕인 大彝震의 명에 의해 唐의 幽州府에 사신으로 파견되어 다음 해 答訪使인 장건장과 함께 귀국하였다. 841년에는 일본에 보낸 中臺省牒에 吳秩大夫 政堂省春部卿 上中郎將 上柱將 聞理縣 擬開國男이라는 긴 직함으로 나타나는데, 이 때 첩의 발행주체인 春部[義部]의 長官으로서 서명하였다. 841년 일본으로 간 발해사신단의 책임자인 大使가 정당성 좌윤이었던 賀福延으로서 같은 성씨의 인물인 점도 눈에 띈다.⁸⁾

다음에는 발해와 일본의 사신들의 출입국 관련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2) 對日 교류상의 ‘日本道’

발해는 당, 신라, 일본, 거란 등과 활발한 교류를 하였으며, 양국의 사신이나 일반인들이 교류시 일정 교통로를 이용하였던 것 같다. 『新唐書』 발해전에는 이러한 교통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龍原의 동남은 바다에 임하였는데 日本道이다. 南海는 新羅道이고, 압록은 朝貢道이고, 長嶺

8) 中村裕一, 「渤海國咸和十一年中臺省牒に就いて—古代東アジア國際文書の一形式」(唐代史研究會 편, 『隋唐帝國と東アジア世界』, 汲古書院, 1979); 林相先 편역, 앞의 책, 309~338쪽.

은 營州道이고 부여는 契丹道이다. (龍原東南瀕海日本道也 南海新羅道也 鴨淥朝貢道也 長嶺營州道也 扶餘契丹道也 『新唐書』권219, 北狄列傳, 渤海傳)

일반적으로 위의 기록은 동경 용원부의 동남은 바다에 임하였는데 일본으로 가는 길이고, 남경남해부는 신라로 가는 길이며, 서경압록부는 당에 조공하러 가는 길 등과 같이 발해가 교류하는 국가로 가는 ‘交通路’의 의미로 이해하여 왔다. 그러나 ‘日本道’를 ‘일본으로 가는 길’로 이라고만 설명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감이 있다.

가령 발해에서 일본에 사절을 파견하려면, ①사절 파견을 위한 목적, 시기, 인원, 교통, 물품, 상대국과의 규정 검토 등이 필요하고, ②공간적으로는 수도 → 국내 이동 → 발해 항구 → 동해 항해 → 일본 연안 도착 → 입경 → 수도에서의 사절 활동 → 일본 연안 출발 → 동해 항해 → 발해 항구 도착 → 국내 이동 → 수도 도착 → 귀국 보고 등의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여기서 ①은 앞에서 살펴본 중대성과 사빈시 등이 담당할 것이고, ②의 경우, 발해에서 출발하여 일본에 도착하기까지는 전적으로 발해측이 담당하는데, 수도를 출발하여 일본으로 떠나는 곳이 ‘龍原’이다.⁹⁾ 그러므로 용원은 발해의 사신이 일본으로 가는 출발지이고 도착지임은 분명하지만, 아울러 시간적으로는 출발을 준비하고 도착 후에도 수도로 이동하기까지 준비하는 기간동안 머무는 곳이기도 하다. 즉, 사신이 출항 일자까지 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 물품이 모이고, 가장 중요한 항해용 배가 준비되어야 하고, 그 이후 적절한 자연조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곳이었다. 또한 사절이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거나, 일본 등의 외국 사신이 도착하는 곳이기도 하므로, 이와 관련된 제반 조치가 수행되고, 이에 필요한 시설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앞의 발해의 ‘道’는 출발하고 도착하는 ‘길’이라는 의미보다는 오늘날 국경이나 공항에서 행하는 ‘出入國管理’가 실제적으로 중요한 기능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¹⁰⁾ 즉, 『新唐書』 기록은 ‘龍原은 對日本 출입국 장소이면서 이

9) 9세기 이후 발해 수도와 동경 용원부를 잇는 교통로는 당시의 수도가 上京(오늘날 중국 흑룡강성 영안현 발해진)에 있었으므로, 대략 상경에서 남쪽의 馬蓮花를 따라 남하하여 老爺嶺을 지나 紅雲에 이르고, 이곳에서 다시 春陽 등을 汪清에 이른다. 왕청에서 룡천평, 석현을 지나 동흥, 송림일대에서 동으로 남강산을 넘어 경명, 랑수, 밀강, 그리고 다시 동남으로 대반령을 넘어 반령구 어구, 영안을 지나 東京에 도착하고, 이곳에서 동남쪽의 석두하차, 장령자를 지나 러시아 포시엣트만의 크라스키노에 도착하였다. 상경으로부터 동경을 지나 크라스키노에 이르는 일본도의 총 길이는 약 230km이다. (방학봉, 『발해와 일본의 교류사에 대한 연구』, 연변인민출판사, 2007, 139-143쪽)

10) 현재 한국에서 국내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를 담당하는 곳이 ‘출입국관리소’이고, 이와 관련된 규정이 ‘출입국관리법’이다. 이 법은 한국인과 외국인의 출국과 입국을 중심으로 선박 검색, 무기 등 휴대 금지 등의 여러 규정이 있다. 법에서 ‘출국하거나 입국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항구·공항과 그 밖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인 ‘출입국항’이 바로 발해의 ‘용원은 일본도-일본출입국관리 장소 및 기관’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출입국관리법』시행 2017. 3. 14, 법률 제14585호-2017. 3. 14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2311&efYd=20170314#AJAX> 참조). 이러한 맥락에서 신라 경덕왕때의 정천군에 쌓은 탄항관문은 신라의 발해에 대한 출입국관리 업무의 일환인 육상 국경 초소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井泉郡 本高句麗泉井郡 文武王二十一年 取之 景德王改名 築炭垣關門 今湧州, 『三國史記』권제35, 雜志 4, 地理 2). 또한 『新唐書』권43, 地理志7 말미에 인용된 賈耽 『道里記』(일명 『皇華四達記』라 함)에서 당의 營州에서 출발하여 압록강 어구에서 배로 거슬러

를 운영·관리하는 곳'이며, 나머지 南海는 對新羅, 鴨綠은 對(唐)朝貢, 長嶺은 對營州, 扶餘는 對契丹의 각각 출입국 장소이면서 이를 운영·관리하는 곳으로 이해하고자 한다.¹¹⁾

그렇다면 對日本 출입국관리 기관이며 장소였던 龍原府에는 어떠한 기능과 시설이 있었을까. 이를 알 수 있는 사료는 거의 없지만, 발해와 교류했던 唐이나 日本 등의 사례를 통하여 그 일단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Bruce Batten이 政治地理學에서 말하는 '境界(國境)機能'을 담당하는 大宰府의 대외적 역할을 人·物·情報의 국가 통제의 측면에 검토한 것을 참조하여 발해의 상황을 유추해 보고자 한다.¹²⁾

발해의 일본 출입국관리 기관과 유사한 것이 일본의 筑前國에 설치된 기관인 大宰府라 할 수 있다. 대재부는 고대 일본에서 당이나 신라 등의 외교 및 군사 업무 이외에 西海道 전역에 걸친 內政상의 기능도 가지고 있었다. 外交 업무는 寶龜 10년(779) 이후, 新羅使의 來朝가 없게 되면서 이 기능이 약화되고, 그 전후로 신라 등의 商人이 잇달아 방문하면서 交易이 새로운 대외적 업무가 되어갔다. 이곳에는 사신 出發 前의 宿泊 시설과 식량 지급, 배의 확보나 수리를 하고, 順風을 기다리면서 筑紫館에 숙박하고, 路糧의 지급이나 배의 확보 등이 大宰府의 책임이었으니, 발해의 용원부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이다.¹³⁾

발해 동경 龍原府가 외부의 적이나 침입을 받았을 때 취하였을 조치는, 일본이 大宰府를 비롯하여 연안 지역에 적이 침입하였을 때 취한 일련의 절차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즉, 寶龜 11년(780) 6월 26일의 勅에는

戊子. 勅曰 筑紫大宰 僻居西海. 諸蕃朝貢 舟楫相望. 由是簡練士馬. 精銳甲兵. 以示威武. 以備非常. 今北陸道 亦供蕃客. 所有軍兵 未曾教習. 屬事徵發. 全無堪用. 安必思危. 豈合如此. 宜准大宰 依式警虞(固). 事須緣海村邑見賊來過者. 當即差使速申於國. 國知賊船者. 長官以下急向國衙. 應事集議. 令管內 警虞(固)且行且奏. <其一>. 賊船卒來着我邊岸者. 當界百姓執隨身兵. 并齎私糧走赴要處. 致死相戰. 必待救兵. 勿作逗留令賊乘間. <其二>. 軍所集處. 預立標榜. 宜量地勢 務得便宜. 兵士已上及百姓便弓馬者. 量程遠近結隊分配. 不得臨事彼此雜亂. <其三>. 戰

올라가 도달하는 泊港口도 당의 사신이 발해에 입국하는 곳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발해 출입국 관리 기관이 있던 이곳이 발해 영역인 것은 분명하지만, 박작구를 경계로 서쪽이나 남쪽이 발해의 영역이 아니라는 주장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11) 이러한 점에서 앞의 '道'가 미연급된 발해의 5경 15부는 공식적으로 출입국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12) Bruce Batten은 政治地理學에서 말하는 '境界(國境)機能'을 담당하는 대재부의 대외적 역할을 人, 物, 情報의 국가 통제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당이나 일본 등 고대 동아시아는 '出入國境. 非公使者不許'이라는 원칙이 준수되었다고 보았다. (ブルース·파트ン(Bruce Batten), 「大宰府の國境機能 - 八世紀を中心として - 』, 『新川登龜男 編, 『西海と南島の・生活文化 古代王權と交流』, 제8권. 名著出版, 1995. 10), 381-419쪽)

13) 일본 대재부와 관련해서는 차츰順, 『일본고대국가의 왕권과 외교』, 泉仁文化社, 2003 : 연민수, 『일본고대의 大宰府의 기능과 新羅問題』, 『韓日關係史研究』, 45집, 2014 : 『古代文化』, 42권 8호, 12호(1990년) 수록 "大宰府鴻臚館めぐる諸問題" 논저 등 참조

士已上. 明知賊來者. 執隨身兵. 兼佩餘帑. 發所在處. 直赴本軍. 各作軍名. 排比隊伍. 以靜待動. 乘逸擊勞. <其四>. 應機赴軍 國司已上皆乘私馬. 若不足者. 即以驛傳馬充之. <其五>. 兵士白丁赴軍. 及待進止. 應給公糧者. 計自起家 五日乃給. 其閑處者給米. 要處者給糒. <其六>. (『續日本紀』卷第36, 寶龜11年 秋7月)

라 하였다. 大宰府가 군사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을 언급하길, 西海에 치우쳐 筑紫에 있는 大宰府는 諸蕃의 朝貢하는 배가 잇달오는 곳이기 때문에 簡練한 士馬와 精銳로운 甲兵으로 威武를 과시하며 非常의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北陸道도 또한 蕃客을 담당해야 하는데, 軍兵이 敎習이 부족하고, 관련 일의 徵發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大宰에 准하여 式에 따라 警虞(固)하라는 것을 北陸道の 諸國에 명한 구체적 내용이 6개조에 걸쳐 있다. ① 賊의 來寇를 인식, 파악하는 기능이 <其一>의 ‘緣海村邑見賊來過者. 當即差使速申於國’, ② 來寇에 관한 필요한 情報를 중앙 정부에 전하는 기능이 <其一>의 ‘國知賊船者. 長官以下急向國衙. 應事集議. --- 且奏.’의 부분, 그리고 ③ 군사적 조치 등으로 賊을 追討하는 기능이 <其一>의 ‘--- 令管内内 警虞(固)且行---’부분과 <其二>부터 <其六>까지의 全文에 해당 된다고 한다.¹⁴⁾

일본 등의 사신이 발해에 도착하였을 때의 입국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알 수 없다. 일본의 경우에는 사절의 來朝가 일본측이 생각하는 禮儀에 맞는지 아닌지 이고, 그 때문에 사절에게 내조의 이유 등을 묻고 國書가 있으면 정식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1회 개봉하여 옮겨 취한다고 하는 내용의 기조가 이루어졌다. 이 調査는 大宰府의 官人이었는지, 그렇지 아니면 朝廷에서 파견된 사자였는지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의견이 다른데, 조사가 행해진 후, 그 결과와 참고자료(國書의 모사 등)가 奏上되고, 그것에 따라 太政官이 사절의 入京, 放還을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규정에 맞지 않은 경우는 大宰府나 도착지로터 방환되게 되었다.¹⁵⁾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면, 발해 용원에 일본의 사신이 도착하고, 돌아가기 까지는 대략, ① 公使의 도착 인식, 파악하는 기능, ②도착의 뜻을 실제의 외교권을 가진 중앙정부에 전하는 기능, ③使節團을 首都까지 안내하는 기능, ④사절단이 국경 부근에 체재하는 동안 그 접대하

14) 블루스·파트슨(Bruce Batten), 「大宰府의 國境機能 - 八世紀を中心として - 」(新川登龜男 編, 『西海と南島の・生活文化 古代王權と交流』제8권, 名著出版, 1995, 10), 390-391쪽.

15) 발해와 일본간의 교류에서 문제가 된 國書, 訪期, 到着地와 관련한 논의에 대해서는 구난희, 「발해와 일본의 관계」(동북아역사재단 편, 『발해의 역사와 문화』, 동북아역사재단, 2007), 149-164쪽 참조

는 기능, ⑤모든 행사가 끝나고 사절단을 歸國시키는 기능 등이 필요할 것이다. 『延喜式』에 보이는 규정을 보면,

① 凡諸蕃使人，將國信物應入京者，待領客使到。其所須馱夫者，領客使委路次國郡，量獻物多少及客隨身衣物，准給迎送。仍令國別國司一人部領人夫防援過境 其在路不得與客交雜，亦不得令客與人言語。所經國郡官人，若無事，亦不須與客相見。停宿之處，勿聽客浪出入。自餘雜物不須入京者，便留當處庫，還日出與。其往還在路所須馱夫等，不得令致非理勞苦。

② 凡蕃客往還，若有水陸二路者，領客使與國郡司相知，逐便預定一路，明注所須船馱人夫等數。及客到時日，遞牒前所，應須供客之物，令預備擬。不得臨時改易及有停壅。如有事故，必須停滯及改張者，速告前所勿致費損。(『延喜式』 卷第廿一 治部省、雅樂寮、玄蕃寮、諸陵寮，玄蕃寮諸蕃條)

諸蕃의 使人이 도착하여 入京과 돌아가기까지 領客使 파견, 필요 물품 지급, 왕래중의 지켜야 점을 예시하고 있다. 가령, 사신(客)과 交雜하지 말고, 또한 客과 言語하지 말고, 지나는 國郡의 官人도 일없이 客과 서로 만나지 말고, 停宿하는 곳에서는 客의 出入을 허락하지 말고, 入京하지 않는 나머지 雜物은 적당한 곳에 보관하여 돌아오면 돌려주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번객의 안내시 水陸 2개 路가 있을 때의 처리 등이 설명되어 있다. 한편, 使節團이 國境 부근에 체재하고 있는 동안, 그 접대 기능은 博多灣에 면한 福崎 구릉상에 세워진 筑紫館이 宿泊 시설을 이용하였다. 筑紫館이 이용된 것은 사절단의 來朝에 즈음하여 領客使가 京에서 도착하기까지의 수 周間과 朝廷과의 행사가 끝난 후, 사절이 九州로 돌아와 歸國의 준비를 한다든지 順風을 기다린다든지 하는 동안이다. 그러나 入京한 것은 아마 大使를 비롯 일부의 사람들 뿐이고, 하급의 사절이나 水手 등은 도착하여 귀국하기까지 수개월 동안 쪽 筑紫館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사절이 귀국하는 직전에 향연도 아마 筑紫館이었을 것이다. 使節團을 歸國시키는 것도 大宰府가 渡海料를 지급한다든지 필요에 따라 배를 내린기도 하였다.¹⁶⁾

위의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여 발해의 상황을 유추해 보면, 일본으로부터 사신이 용원에 도착(용원부 소속의 鹽州. 현재의 위치는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로 추정)하는데, 이곳에는

16) 블루스·파트슨(Bruce Batten), 「大宰府의 國境機能 - 八世紀を中心として -」(新川登龜男 編, 『西海と南島の・生活文化 古代王權と交流』제8권, 名著出版, 1995, 10), 395-396쪽.

사절이 도착하고 출발할 수 있는 항구 시설이 있었을 것이다. 일본의 筑紫館과 같이, 중앙 정부로부터의 存問使나 領客使가 도착하기까지 머무를 곳은 도착 항구이거나 아니면, 동경용원부의 치소가 있는 八連城 주변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도착지든 동경에서든 수도까지의 기간에는 영객사나 존문사가 사절단을 안내하고 경유하는 인근의 府·州도 이들에게 필요한 물품이나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사절단과 발해의 관리나 일반인이 사사로이 접촉하는 것이 제한된다. 발해 수도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일본에 온 모든 사람이 아니고, 발해와 일본간에 정해진 수효만이며, 나머지 사람은 도착지에서 사절단이 돌아오기까지 머물게 되었을 것이다.¹⁷⁾

발해와 일본간의 교류에서 9세기 이후는 대체로 交易이 중심이었다. 당시 唐에서는 대외 교류가 금지된 禁物과 禁約이 있었는데, 禁物이란 禁兵器나 禁書의 종류로 해외로 유출은 물론 일반인의 소유도 금하는 것이고, 禁約이란 일반인의 소유는 가능하나, 해외로 유출이 규제된 것으로 고급 섬유품이나 원재료가 귀중한 것(귀금속 등)이라고 한다.¹⁸⁾ 발해가 일본에 가져간 물품은 금물보다는 대개 금약이었을 것이다. 일본의 關司令과 律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 ① 凡蕃客初入關日 所有一物以上 關司共當客官人 具錄申所司 入一關以後 不須檢 若無關處 初經國司 亦准此(關司令 禁物條)
- ② 凡官司未交易之前 不得私共諸蕃交易 爲人糾獲者 二分其物 一分賞糾人 一分沒官 若官司於其所部捉獲者 皆沒官(關司令 官司條)
- ③ 日 官司未交易之前私共蕃人交易者准盜論 罪止徒三年(『類聚三代格』19, 禁制事)

라 있다. 즉, 蕃客이 京으로 가는 동안 그들의 소유물은 關司(혹은 國司)나 領客使가 엄격히 검사를 하고, 交易할 때는 엄격한 규정이 있었다. 즉, 사절이 官司와 交易이 끝나기까지는 私人和 交역을 할 수 없었다. 貞觀 14년(872)에 入京한 渤海使가 內藏寮와 貨物를 迴易하고, 그 후 京師人과도 交關한 일이나, 元慶 7년(883)에 入京한 渤海使도 平安京의 鴻臚館에서 내장

17) 시대가 내려오지만, 朝鮮이 日本과의 사신 왕래시에도 제반 규정이 있었는데, 申叔舟(1417~1475)의 『海東諸國記』(1471년) 朝聘應接紀에 언급된 내용의 대개는 발해와 일본 교류를 이해하는데 참고가 된다. 조빙응접기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신의 배의 숫자(使船定數), 사신의 등급(諸使定例), 사신의 배의 크기 및 선원수(使船大小船夫定額), 지급하는 도서(給圖書), 사신별 영송(諸使迎送), 삼포에 머물 때의 음식 제공(三浦熟供), 사신의 배의 삼포 정박(三浦泊), 사신의 등급에 따른 상경인원 수(上京人數), 삼포 체재시의 연회(三浦宴), 사신 상경시의 인근 지방의 연회(路宴), 서울에서의 영송 연회(京中迎餞宴), 주간의 술 대접(晝奉杯), 서울에서의 음식 제공(京中日供), 대궐에서의 연회(關內宴), 禮曹宴, 名日宴, 下程, 사신들에 대한 사여(例賜와 別賜), 선박 수리 장비 지급(修船給粧), 일본배의 철제 못(日本船鐵釘體制), 상경시 이용할 도로(上京道路), 체재일수에 따른 식량(給料), 귀국시의 식량(過海料), 제도에 서의 연회 의식(諸道宴儀), 禮曹宴儀 등이다.

18) 일본의 關司令에도 “凡弓箭兵器 並不得與諸蕃市易 其東邊北邊 不得置鐵冶”(關司令 弓箭條), “凡禁物 不得將出境 若蕃客入朝 別勅賜者 聽將出境”(關司令 禁物條)와 같은 규정이 있었다. (ブルース・バートン(Bruce Batten), 『大宰府の國境機能 - 八世紀を中心として -』(新川登龜男 編, 『西海と南島の生活文化 古代王權と交流』, 제8권, 名著出版, 1995. 10), 402-403쪽.

료와 교관한 것이 그 좋은 예이다.¹⁹⁾ 반면, 京뿐 아니라 大宰府의 筑紫館에서도 交易이 행해졌다. 入京의 기회를 얻지 못한채 九州에서 放還된 경우나, 임경한 大使를 비롯한 일부의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머물고 있던 축자관에서 대재부의 官人이나 民間과 交易을 행하였을 것이라고 한다.

이밖에 공식 사절이 아닌 민간 상인이 도착하였을 때의 예로서, 天長 8년(831) 9월 7일이 太政官符에 의하면,

宜下知太宰府 嚴施禁制 忽令輟市 商人來着 船上雜物一色已上 簡正適用之物 附驛進上 不適之色 府官檢察 遍令交易 其直貴賤 一依估價 若有違犯者 殊處重科 莫綜寬典(『類聚三代格』18, 夷俘并外蕃人事)

라 하듯이, 商人이 도착할 때마다 大宰府의 官人이 船上雜物을 모두 점검하고 정부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선별하여 進上한 후, 남은 물건을 交易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것은 공식 사절의 ‘官司未交易之前 不得私共諸蕃交易’의 원칙이 민간 상인에게도 유사하게 적용되었음을 시사한다.²⁰⁾

3. ‘東丹國使’裴璆의 일본 방문

1) ‘東丹國使’에 대한 기록

裴璆는 907년 · 919년 · 929년 3회에 걸쳐 일본에 사신으로 갔고, 925년에는 後唐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다. 배구는 기록상 발해인 가운데 가장 많은 등장하는 보이는 인물이며, 아버지인 裴頌에 이어 외교사절의 임무를 담당하였고, 또한 발해멸망을 전후하여 활약한 점에서도 특이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배구는 아버지인 裴頌도 882년과 894년 두번에 걸쳐 일본을

19) 『日本三代實錄』권21, 貞觀 14년(872) 5월 20일 己丑, 5월 21일 庚寅, 5월 22일 辛卯 및 『日本三代實錄』권43, 元慶 7년(883) 5월 7일 壬申, 5월 8일 癸酉.

20) 블루스 · 바톤(Bruce Batten), 「大宰府의 國境機能 - 八世紀を中心として -」(新川登龜男 編, 『西海と南島の · 生活文化 古代王權と交流』제8권, 名著出版, 1995. 10), 406-408쪽.

방문하였으니,²¹⁾ 배구는 배정을 이어서 문적원소감벼슬을 하였고 이어서 정당성 信部少卿과 和部少卿을 역임하였다. 이들 부자는 모두 문장에 뛰어나고 외교적 교섭에 능통한 인물이었다.²²⁾

907년 겨울 文籍院소감으로서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다음해 귀국에 즈음하여 종3위를 받았으며, 919년에 두번째의 방문시는 신부소경으로서 일행이 105명이었다. 다음해 일본조정으로부터 정3위를 받고 귀국하였다. 925년 2월에는 守和部少卿으로서 梁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5월에 右贊善大夫의 관직과 함께 紫金魚袋를 받고 돌아왔다.

裴璆는 926년 정월에 발해가 망하고 東丹國으로 개칭된 후, 929년 겨울 英緒大夫의 신분으로 세번째로 일본에 일행 93명과 함께 사신으로 갔는데, 入京하지 못하고 귀국하였다. 그러면 배구가 동란국의 사신으로서 929년에 일본에 간 목적과 일본측의 대응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 관련된 사료를 먼저 제시하고 검토해 가기로 한다.²³⁾

- ① 渤海國入朝使文籍大夫裴璆著丹後國竹野郡大津浜(『日本紀略』延長7년 12월 24일조)
- ② 丹後國言上渤海客到來由. 左大臣參 被定召否之由. 伴客九十三人 去年十二月廿三日着丹後國竹野郡(『扶桑略記』裏書 延長8년 정월 3일조)
- ③ 渤海客舶修造料并若狹·但馬結番以正稅可饗司客也. (『扶桑略記』裏書 延長8년 정월 20일조)
- ④ 渤海存問使裴璆進怠狀 (『日本紀略』 延長 8년 3월 2일조)
- ⑤ 唐客稱東丹國使 着丹後國. 令問子細 伴使答狀前後相違. 重令復問東丹使人等 本雖爲渤海人 今降爲東丹之臣. 而對答中 多稱契丹王之罪惡云云. 一日爲人臣者 豈其如此乎. 須舉此旨 先令責問. 今須令進過狀 仰下丹後國已了. 東丹國失禮儀. (『扶桑略記』 延長 8년 4월 사일조)
- ⑥ 東丹國入朝使裴璆等解申 進過狀事

謬(그릇될 류)奉臣下使入朝上國怠狀

右 裴璆等 背眞向僞 爭善從惡. 不救先主於塗炭之間 猥(외람할, 함부로 외)詔(아침할 침)新王於兵戈之際. 況乎奉陪臣之小使 紊上國之恒規. 望振驚而面慙 詠相鼠而股戰. 不忠不義 向招罪過. 勘責之旨 曾無避陳. 仍進過狀. 裴璆等誠惶誠恐謹言 (『本朝文粹』 권제12 怠狀)

21) 裴璆는 882년과 894년 두번에 걸쳐 일본을 방문하였다. 882년 겨울 문적원 소감의 벼슬로서 일본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배정은 석학이며 총재이고 문적을 장악하고 풍도와 의태가 아주 훌륭하여 점잖고도 정중한 대접을 받았다. 당시 일본의 문인들과 교류하며 '七步之才'라는 칭송을 받았다. 894년 겨울에 재차 일본을 방문하였는데 그 때는 동행이 105명이었다. 이전에 교류했던 菅原道眞 등의 일본의 문인들과 賦詩로 酬唱하고, 이별을 아쉬워 하였다. (『日本三代實錄』 권5, 清和天皇 貞觀3년 5월조 및 金毓藏, 앞의 책 권18, 文徵, 詩類, 菅原道眞 및 권19, 叢考 참조)

22) 임상선, 『발해의 지배세력 연구』, 신서원, 1999, 204-205쪽.

23) 아래의 史料는 篠崎敦史의 글을 참조하고, 부분적으로 원문을 대조, 보충하였다. (『東丹國使について - 来朝理由を中心に -』, 『續日本紀研究』第384號, 大阪歴史學會古代史部會內 續日本紀研究會, 2010, 24-25쪽)

⑦ 遼東丹裴大使公 去春述懷見寄於余 勘問之間遂無和之. 此夏綴言志之詩 披与得意之人. 不耐握玩 偷(훔칠, 가벼울 투)押本韻. (『扶桑集』贈答部蕃客贈答(『群書類從』 제8輯 文筆部 所收)

⑧ (上略)于時新皇(將門) 勅云 (中略)如去延長年中大赦契王(大契丹) 以正月一日討取渤海國 改東丹國領掌也. (下略)(『將門記』)

사료 ①은 ‘渤海國入朝使文籍大夫裴璆’가 ‘丹後國 竹野郡 大津浜’에 延長 7년(929) 12월 24일에 도착하였다는 내용이고, ②는 丹後國이 渤海客이 도착한 이유를 보고하고, 左大臣이 다시 확인하니 무리 93인이 지난해, 즉 延長 7년 12월 23일에 丹後國 竹野郡에 도착하였다는 것이다.²⁴⁾ ③은 若狹國과 但馬國이 渤海客을 위한 舶의 修造비용과 “饗”을 담당하라는 내용인 듯 하며, ④는 渤海存問使가 裴璆에게 怠狀을 제출토록 했다는 것이다. 사료 ⑦은 배구가 일본의 지인들과 교류한 내용이고, ⑧은 거란이 발해국을 討取하여 東丹國으로 바꾸었다는 『將門記』의 내용이다. 그리고 사료 ⑤와 ⑥이 배구의 도착 정황과 그가 제출한 태장의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사료 ⑤ 『扶桑略記』 延長 8년 4월 삭일조 의미는 대략 “唐客이 東丹國使라 칭하며 丹後國에 도착하다. 자세히 물으니, 答狀의 前後가 서로 다르다. 거듭 다시 물으니 東丹使人 等は 본래 비록 渤海人인데 지금은 항복하여 東丹의 臣이 되었다고 하다. 그런데 對答中에 契丹王의 罪惡을 云云하길 여러번 하다. 하루라도 人臣인 者が 어찌 이와 같은가. 이러한 뜻을 들어 먼저 責問하고, 지금 過狀을 제출하니 丹後國에 낼 뿐이다. 東丹國은 禮儀를 잃었다”로 이해된다.

사료 ⑥ 『本朝文粹』의 기록은 東丹國 入朝使 裴璆 等이 제출한 怠狀의 내용이다. 그 의미는 “裴璆 等は 眞을 등지고 僞를 향하고 善을 다투다 惡을 쫓다. 先主를 塗炭의 사이에서 구하지 않고, 新王를 전쟁(兵戈) 중에 외람되게 아첨하였다. 또한 하물며 陪臣을 받드는 小使가 됨에 야. (이것들은) 上國(일본)의 오래된 규정을 어지럽힌 것이다. 현인을 바라보면서 얼굴은 부끄럽고, 쥐가 예의없다 노래하며 두려워 벌벌 떨다.”²⁵⁾ 不忠하고 不義하다. 罪過이다. 勘責한 뜻을 피하지 않고 진술하여 이에 過狀을 제출하다. 裴璆 等は 황송 황공하며 삼가 아뢴다.”로 이해된다.

24) 裴璆 일행이 ‘渤海’가 아닌 ‘東丹’의 사신인지는 중앙에서 파견된 사신이 검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일본에 도착한 발해 사신은 일반적으로 도착지에서 소지품 검사, 용모 보고, 饗宴을 하고, 京에서 파견된 存問使가 내조 이유 등을 질문(존문)한다고 한다. 당시 丹後國은 裴璆 等에게 내조 이유를 질문하지 못한 채 국교가 있던 渤海로 판단하여 奏上하였다고 한다. (篠崎敦史, 「東丹口使について - 来朝理由を中心 - 」, 『續日本紀研究』第384號, 大阪歴史學會 古代史部會內 續日本紀研究會, 2010, 26쪽)

25) 振鷲는 『詩經』중의 周頌·振鷲에 나오는 말이며, 여기서 振鷲는 조정에서 품행이 바른 賢人을 비유한다. 相鼠는 『詩經』중의 國風·鄘風·相鼠에 나오는 말로, 통치자자 자리에 있는자가 禮儀가 없는 것을 비유한다.

2) ‘東丹國使’관련 쟁점의 재검토

사료 ⑤ 『扶桑略記』 기록에 의하면, 裴璆 등을 일본은 처음에는 唐客으로 알았고, 자세히 물은 결과 사신들의 답장이 전후가 서로 달라, 다시 東丹使人 ‘等’을 심문하였다. 사신단이 당객이 아니라, 발해국사 혹은 동란국사라는 말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고, 배구만 아니라 일행(等)도 함께 심문하였다. 그 결과 이들은 본래 발해인인데(本雖爲渤海人) 지금은 항복하여 동란의 신하(今降爲東丹之臣)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일본측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사신들의 對答中에 거란왕의 죄악을 많이 말한 점인데, 하루라도 남의 신하된 자(一日爲人臣者)가 어찌 이와 같이 그들의 신하로서 왕인 거란왕을 비난할 수 있는가 생각하였다. 이러한 잘못된 점을 責問하고, 그것을 반영한 過狀을 제출토록 하였다. 여기서 배구 등 사신단이 비난한 거란왕은 누구이며, 그의 죄악은 무엇인가. 거란왕과 배구 등은 어떤 관계일까. 또한 마지막에 있는 “東丹國이 禮儀을 잃었다”고 한 것은 무슨 의미일까.

먼저, 하루라도 남이 신하였던 자(一日爲人臣者)에서 ‘신하’는 앞의 ‘東丹使人等’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 동란사인은 발해인이었다가 지금은 항복하여 ‘東丹之臣’이 되었다고 하니, 모두 발해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契丹王之罪惡’을 운운한 것이 ‘人臣’, 즉 거란왕의 신하로서 그 거란왕을 비난한 것이 부당함을 말하는 것이라면, 거란왕은 거란 太祖 혹은 太宗의 한명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배구와 사신단이 거란 태조의 신하라면, 발해 멸망전에 이미 거란의 신하였을 것이고, 아니면 발해 멸망 이후 동란국 설치 이후 거란왕의 신하라면, 당시의 황제인 거란 태종의 한때 신하였던 것이 된다. 거란 태조는 바로 발해를 멸망시킨 인물이니, 배구 등이 거란 태조의 신하라기 보다는 배구 등 사신단이 일본에 온 시기의 거란 황제인 태종의 신하가 보다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일본측은 동란국의 사신인 배구 등을 거란왕의 신하로 인식하였다는 것인데, 여기서 한가지 동란국과 거란과의 관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예의를 잃었다는 것이 거란왕을 책망한 배구 등의 사신뿐 아니라 동란국 자체가 거란국에 대해 비판적인 것 때문인지, 아니면 동란국 사신의 어떤 행위가 예의를 잃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배구 등이 거란왕의 죄악을 일본측에 이렇게 말한 것은 배구 등의 사신단뿐 아니라, 동란국의 파견 주체들도 같은 생각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대략 배구 등 동란국 사신이 태종을 뜻하는 거란왕의 죄악을 말하였는데, 일본측은 동란국의 사신이 거란왕의 죄악을 말하는 것

은 예의에 맞지 않다고 이해한 것으로 생각된다.²⁶⁾

사료 ⑥ 『本朝文粹』의 기록은 앞의 『扶桑略記』 연장 8년 4월 삭일조에 보이는 배구 등이 제출한 過狀의 구체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태장의 제목인 ‘謬奉臣下使入朝上國急狀’에서 상국에 입조한 ‘謬奉臣下使’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즉, ‘잘못 받드는(謬奉)’주체가 사신이라면 ‘신하를 잘못 받드는 사신’이 ‘東丹國入朝使裴璆等’이고, 만약 ‘잘못 받드는(謬奉)’주체가 신하라면, ‘東丹國入朝使裴璆等’은 옳지 않은 신하가 보낸 사신이 된다. 내용상으로는 두 가지 해석이 모두 성립되지만, 본문의 “奉陪臣之小使”이라는 말로 미루어 후자가 적합할 듯 하다. 그렇다면 ‘臣下’는 바로 배구 등을 보낸 동란국왕이라 할 수 있고, 일본이 거란과 동란과의 관계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한 듯, 동란국왕이 거란왕의 신하라고 인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⁷⁾ 이어서 본문에는 배구의 잘못을 첫째, 塗炭 속에 先主를 구하지 않은 점, 둘째, 新王에게 전쟁 중에 함부로 아첨한 점, 셋째, 陪臣을 받드는 사신인 점을 들고 있다. ‘배신’은 앞의 ‘臣下’이니 배구 등 사신단을 파견한 당시의 東丹國王, 즉 人皇王임은 분명한데, 나머지 先主와 新王은 누구일까.

생각건대, 이들 先主, 新王, 陪臣 3인은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고, 또한 표현의 용어로 보아 별개의 인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선주와 선왕은 동란국왕이 배신이라 하였으니, 이들은 발해 왕, 혹은 거란왕, 아니면 발해왕과 거란왕일 가능성이 있다. 먼저 선주와 선왕이 발해왕이라 한다면, 배구의 도일 시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배구는 延長 7년(929) 12월 이전에 渤海使로 일본에 온 것이 延喜 8년(908)과 연희 19년(919)이니 모두 大諲譔 시기이다.²⁸⁾ 일본이 말한 도탄지간의 先主를 대인선이라 한다면, 전쟁중에 있었던 선왕은 대인선 다음의 인물이나, 기록에는 대인선이 발해의 마지막 왕이다. 『遼史』에는 발해가 926년 1월 거란 아보기에게 항복하고, 발해국은 東丹國으로 개칭되었으며, 大諲譔은 그후 遼 上京으로 끌려갔다. 발해 멸망과 동란국의 건국, 그리고 태조의 사망에 이르는 저간의 경과를 『遼史』의 기록을 참조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거란 태조는 天顯 元年 春正月 扶餘城을 함락시킨 후, 그 여세를 몰아 忽汗城을 포위하고 발

26) 혹은 거란왕을 동란국왕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 배구나 사신단이 자신을 동란국 신하임을 인정하고 있고, 죄악의 대상을 동란국왕이라 하지 않고 ‘거란왕’이라 한 점에서 어색하다.

27) 사료⑧ 『扶桑集』에서 배구를 ‘遼東丹裴大使’, 즉 ‘요의 동란의 배대사’라고 하니, 이것도 동란국왕이 요 황제의 신하임을 시사하는 표현이다.

28) 당시 발해는 14대 大瑋瑑 왕이 당 昭宗 乾寧 원년(894)에 즉위하고, 당 소선제 천우 3년(906) 발해재상 烏昭度가 朝唐하였을 때 자신의 왕이 인선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15대 마지막 대인선은 梁 태조 개평 원년(907)에 처음으로 역사에 보이고 있으니, 이 907년이 대인선이 즉위한 해일 것이다. (金毓臧, 『渤海國志長編』 권19, 叢考)

해의 大諲譔의 항복에 이은 저항을 丁丑에 진압하였다. 2월에 壬辰에 天顯이라 개원하고, 渤海를 평정한 것을 後唐에 알렸으며, 丙午에 渤海國을 고쳐 東丹이라 하고, 忽汗城을 天福이라 하고, 皇太子인 倍를 책봉하여 人皇王으로 삼아 동단을 다스리게 하였으며, 皇弟인 迭刺를 左大相, 渤海老相을 右大相, 渤海司徒大素賢을 左次相, 耶律羽之를 右次相으로 삼았으며, 그 國內에 사면령을 내렸다. 3월에 長嶺府, 安邊府, 鄭頡府, 定理府가 반란을 일으켰으며, 태조는 東丹國의 僚佐에게 잔치를 베풀고 頒賜한 후, 甲申에 天福城에 갔다가, 乙酉에 군사를 회군하며 大諲譔의 일족도 함께 돌아갔다. 4월 辛卯에 人皇王이 東丹國 僚屬을 이끌고 인사를 하였다. 5월에 南海府, 定理府가 다시 반란을 일으켰고, 大元帥 堯骨(후의 태종)이 토벌하니, 6월 정유에 평정되었다. 秋7월 丙辰에 鐵州刺史 衛鈞이 반란을 일으키니 堯骨이 철주를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庚午에 東丹國 左大相 迭刺가 죽었고, 辛未에 衛送 大諲譔을 皇都 서쪽에 호위하여 보내, 城을 쌓아 살도록 하고, 諲譔에게 烏魯古, 妻에게 阿里只라는 이름을 내렸다. 甲戌에 扶餘府에 행차하였고, 辛巳에 태조가 죽으니, 향년 55세였다. 8월에 長嶺府를 함락시키고, 甲午에 皇后가 梓宮을 받들어 서쪽으로 돌아왔다. 壬寅에 堯骨이 오고, 乙巳에 人皇王 倍가 이어서 이르렀다. 9월 丁卯에 梓宮이 皇都에 이르고, 己巳에 昇天皇帝라는 시호와 太祖라는 묘호를 올렸다. 천현 2년 8월 丁酉에 태조를, 葬太祖皇帝于 祖陵에 장사지내고, 祖州를 설치하여 능침을 받들게 하였다.²⁹⁾

앞의 『요사』의 기록을 참조, 첫째, 先主와 新王이 모두 契丹王이라고 한다면, 동란국을 건국할 때의 거란왕과 929년 일본에 사신으로 올 때의 거란왕을 상정할 수 있고, 이는 바로 太祖와 太宗이 된다. 그러나 발해의 신하였고, 동란국의 신하인 裴璆가 도탄지간에 있던 태조

29) 天顯元年春正月己未, 白氣貫日. 庚申, 拔扶餘城, 誅其守將. 丙寅, 命惕隱安端、前北府宰相蕭阿古只等將萬騎為先鋒, 遇諲譔老相兵, 破之. 皇太子、大元帥堯骨、南府宰相蘇、北院夷離董斜涅赤, 南院夷離董迭里是夜圍忽汗城. 己巳, 諲譔請降. 庚午, 駐軍于忽汗城南. 辛未, 諲譔素服, 囊索牽羊, 率僚屬三百餘人出降. 上優禮而釋之. 甲戌, 詔諭渤海郡縣. 丙子, 遣近侍康末怛等十三人入城索兵器, 為邏卒所害. 丁丑, 諲譔復叛, 攻其城, 破之. 篤幸城中. 諲譔請罪馬前. 詔以兵衛諲譔及族屬以出. 祭告天地. 復還軍中. 二月庚寅, 安邊、鄭頡、南海、定理等府及諸道節度、刺史來朝, 慰勞遣之. 以所獲器幣諸物賜將士. 壬辰, 以青牛白馬祭天地. 大赦. 改元天顯. 以平渤海遣使報唐. 甲午, 復幸忽汗城, 閱府庫物, 賜從臣有差. 以奚部長勃魯恩、王郁自回鶻、新羅、吐蕃、党項、室韋、沙陀、烏古等從征有功, 優加賞賚. 丙午, 改渤海國為東丹, 忽汗城為天福. 冊皇太子倍為人皇王以主之. 以皇弟迭刺為左大相, 渤海老相為右大相, 渤海司徒大素賢為左次相, 耶律羽之為右次相. 赦其國內殊死以下. 丁未, 高麗、濊貊、鐵驪、靺鞨來貢. 三月戊午, 遣夷離畢康默記、左僕射韓延徽攻長嶺府. 甲子, 祭天. 丁卯, 幸人皇王宮. 己巳, 安邊、鄭頡、定理三府叛, 遣安端討之. 丁丑, 三府平. 壬午, 安端獻俘, 誅安邊府叛帥二人. 癸未, 宴東丹國僚佐, 頒賜有差. 甲申, 幸天福城. 乙酉, 班師, 以大諲譔舉族行. 夏四月丁亥朔, 次傘子山. 辛卯, 人皇王率東丹國僚屬辭. 是月, 唐養子李嗣源反, 郭存謙弒其主存勳, 嗣源遂即位. 五月辛酉, 南海、定理二府復叛, 大元帥堯骨討之. 六月丁酉, 二府平. 丙午, 次慎州, 唐遣姚坤以國哀來告. 秋七月丙辰, 鐵州刺史衛鈞反. 乙丑, 堯骨攻拔鐵州. 庚午, 東丹國左大相迭刺卒. 辛未, 衛送大諲譔于皇都西, 築城以居之. 賜諲譔名日烏魯古, 妻日阿里只. 盧龍行軍司馬張崇叛, 奔唐. 甲戌, 次扶餘府, 上不豫. 是夕, 大星隕于幄前. 辛巳平旦, 子城上見黃龍繚繞, 可長一里, 光耀奪目, 入于行宮. 有紫黑氣蔽天, 踰日乃散. 是日, 上崩, 年五十五. 天贊三年上所謂「丙戌秋初, 必有歸處」, 至是乃驗. 壬午, 皇后稱制, 權決軍國事. 八月辛卯, 康默記等攻下長嶺府. 甲午, 皇后奉梓宮西還. 壬寅, 堯骨討平諸州, 奔赴行在. 乙巳, 人皇王倍繼至. 九月壬戌, 南府宰相蘇斃. 丁卯, 梓宮至皇都, 權殯于子城西北. 己巳, 上謚昇天皇帝, 廟號太祖. 一二年八月丁酉, 葬太祖皇帝于祖陵, 置祖州天城軍節度使以奉陵寢. 統和二十六年七月, 進謚大聖大明天皇帝. 重熙二十一年九月, 加謚大聖大明神烈天皇帝. 太祖所崩行宮在扶餘城西南兩河之間, 後建昇天殿于此, 而以扶餘為黃龍府云. (『遼史』 卷2, 本紀第2, 太祖下)

를 구하지 않고, 전쟁중에 있던 태종에게 아첨했다는 것은 문맥상 어색하다. 둘째, 先主는 발해왕이고 新王은 현재의 거란왕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선주는 발해 大諲譔이고, 신왕은 현재의 太宗이 된다. 이 경우, 전쟁중에 있던 태종에게 배구 등의 발해인이 아침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셋째, 先主와 新王이 모두 발해인일 가능성이 있다. 발해 멸망과 동란국의 건국, 그리고 929년 당시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도탄지간은 대인선 시기이고, 병과의 시기는 발해 멸망후 부흥운동의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쉽다. 이러한 가정이 성립된다면, 발해 대인선의 시기가 도탄지간이었고,³⁰⁾ 발해 부흥운동을 하던 신왕에게 배구가 아첨하다가, 그 후 동란국왕의 신하가 된 것이 아닐까. 즉, 배구는 처음부터 동란국의 신하가 아니라 부흥운동을 하다가 동란국에 참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동란국과 발해인들은 거란왕(태종)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불만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 같다.

요컨대, 앞의 추정같이 선주가 대인선, 그리고 신왕이 발해 부흥운동을 하였던 인물, 배신을 동란국왕이라 한다면, 위의 본문에서 “背眞向僞 爭善從惡”과 “不忠不義”에서 진과 선은 선주, 신왕이고, 위와 악은 배신이 되고, 불충 대상은 선주와 신왕, 그리고 불의는 배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부상약기의 ‘東丹國失禮儀’라는 것은 동란국(왕)이 거란왕을 비난하는 것과 또한 동란국왕이 거란왕의 신하로서 일본에 사신을 보낸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東丹國王 人皇王은 태조의 장자로서 황위를 차자인 太宗에게 할수없이 양보하였고, 동란국이 耶律羽之의 上表로 요양으로 천사된 것이 天显 4년(929) 말인 점으로 미루어,³¹⁾ 천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배구 등이 일본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다. 그러므로 동란국왕과 발해 유민들이 거란왕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천사와 관련있을 가능성이 높다.

裴璆 등이 동란국사임을 확인한 일본측은 결국에는 入京을 허락하지 않고, 도착한 곳에서 돌아가게 하였다. 일본측의 처사에 대하여, 일찍이 烏山喜一은 그들은 망국의 신으로서 한때 동란국에 항복하고 그것에 베풀하지만 마음으로는 舊主의 復位를 꾀하고, 아울러 援兵이라도 빌릴 목적으로 내조한 것으로 보았고, 新王을 비방하여 兪狀을 제출하고, 不臣의 臣이었기 때문에 추방된 것으로 보았다.³²⁾ 石井正敏은 東丹國王이 발해와 마찬가지로 일본과 貿易을 할

30) 대인선 시기는 후반으로 갈수록 거란의 점증되는 압박을 벗어나기 위하여 주변의 여러 나라와 結援 협정을 맺어야 하는 어려운 시기였다. 이 때의 상황을 『契丹國志』에서는 “태조가 발해를 공격하여 夫餘城을 공략하고 나라 이름을 東丹國으로 바꾸었다. … 이보다 앞서 발해국왕 대인선은 본래 奚·契丹과 함께 입술과 이빨의 관계처럼 서로 돕고 의지하였다. 거란 태조가 처음 일어나 8部를 병탄하고, 이어서 군사를 내어 奚國을 병탄하였다. 이리하여 대인선은 거란의 공격을 아주 두려워하여 몰래 ‘新羅諸國’들과 연결하여 서로 結援하게 되었는데, 거란 태조가 이를 알고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였다. (太祖攻渤海 拔其夫餘城 更命曰東丹國…先是 渤海國王大諲譔本與奚契丹爲唇齒國 太祖初興 併吞八部 繼而用師 併吞奚國 大諲譔深憚之 陰與新羅諸國結援 太祖知之 集議未決 『契丹國志』 卷1, 太祖 天寶6年조)

31) 楊雨舒, 「近十五年来国内东丹史研究概述」(『社会科学战线』1996-3), 256쪽.

32) 烏山喜一, 「ニーラシア叢書26 渤海史考」, 原書房, 1977, 217-218쪽.

의도로 배구를 파견했으나 배구의 심정은 어디까지나 발해에 있어, 東丹國王을 비난하고 선주를 도탄에서 구하지 않고 신왕을 함부로 아첨하였다는 태장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하였다.³³⁾ 篠崎敦史는 동란국사 배구의 내조 목적은 동란국왕인 인황왕이 거란 태종에 제위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궁지에 몰려 있는 것을 전하려는 것이었고, 일본이 문제시한 점은 배구가 태종의 정당성이 없는 신하인 인황왕의 사자, 즉 ‘臣下使’가 일본의 ‘人臣과 外交하지 않는’ 외교 방침에 저촉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³⁴⁾

앞의 주장에는 주요 등장인물이 선주, 신왕, 배신 등에 대해 앞에서 살펴본 본고의 내용과 다른 부분도 있지만, 다시 한번 앞의 사료를 중심으로 배구의 방문 목적과 일본의 추방 이유를 살펴보기로 한다. 裴璆 등 사신단의 잘못을 篠崎敦史는 ‘臣下使’인 것만을 들고 있으나, 앞에서 검토하였듯이 배구가 태장을 제출하게 된 명백한 사유는 ‘紊上國之恒規’, 즉 상국의 항규를 문란시킨 것이다. 상국의 항규를 문란케 한 구체적 내용이 바로 그 앞의 ‘背眞向僞 爭善從惡. 不救先主於塗炭之間 猥諂新王於兵戈之際. 況乎奉陪臣之小使’이다. 다시 말하면 선주를 도탄지간에서 구하지 않은 점, 신왕을 전쟁중에 아첨한 점,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배신을 받드는 소사인 점의 3가지라고 할 수 있다. 문맥에서 보면 ‘배신의 소사’인 점보다 앞의 두가지 요소가 더 큰 잘못으로, 배구 등 사신단을 ‘背眞向僞 爭善從惡’한 집단으로 규정하였다. 즉 배구 등 사신단을 ‘僞惡’한 집단으로 간주한 것이다. 그러므로 위악한 집단의 교섭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위악한 집단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돌아가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의 『扶桑略記』에서는 배구 등 사신단의 잘못을 신하로서 ‘多稱契丹王之罪惡云云’한 것을 들고, 이러한 뜻을 태장에 적도록 한 듯이 보인다. 신주와 신왕을 구하지도 않고, 도리어 거란왕의 죄악만을 말하는 것을 비판한 것이라고도 이해된다.

篠崎敦史는 926년 동란국 건국 이후 929년 배구 등이 일본에 오기 전에 거란과 동란간에는 거란 황제인 태종과 동란국왕 인황왕간에 帝位 계승을 둘러싼 긴장 관계에 있었다고 보았다. 인황왕이 제위를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태종이 인황왕을 窮地에 모는 죄악을 일본측에 전하고, 인황왕이 일본에 지원을 요청하였던지 혹은 망명의 의지를 전달한 것은 아닐까 추측하였다.³⁵⁾ 동란국사의 방문 목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당시 거란과 동란국간에 어떠한 일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현재의 기록에서 929년 전후하여 양국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동란국의 요동 지역으로 천도이다.

33) 石井正敏, 『日本渤海關係史の研究』, 吉川弘文館, 2001, 32쪽.

34) 篠崎敦史, 「東丹国使について - 来朝理由を中心に -」, 『續日本紀研究』, 第384號, 大阪歴史學會古代史部會内 續日本紀研究會, 2010, 2), 23-35쪽.

35) 篠崎敦史, 「東丹国使について - 来朝理由を中心に -」, 『續日本紀研究』, 第384號, 大阪歴史學會古代史部會内 續日本紀研究會, 2010, 2), 28-35쪽.

東丹國 설립 직후부터 장령부를 비롯한 발해인의 저항이 계속되고, 거란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동란국의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동란국의 우차상인 耶律羽之가 태종에게 동란국 자체를 아예 거란 내지로 옮기자는 파격적인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다. “渤海가 지난날 南朝를 두려워하여, 阻險에 自衛하며, 忽汗城에 은거하였다. 지금 上京으로부터 거리가 遼邈하고, 이미 쓸모가 없고, 또한 지키지 않을 수도 없으니,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先帝가 저들의 離心을 틈타서 움직였으므로, 싸우지 않고도 이겼다. 天授人與이니, 저것은 一時이다. 遺種이 조금씩 蕃息하면, 지금 있는 곳이 遠境이니, 아마도 後患이 될 것이다. 梁水의 땅은 바로 그들의 故鄉이고, 地衍土沃하고, 木鐵鹽魚의 이익이 있다. 그들의 微弱을 틈타, 그 백성을 徙還하면, 萬世長策이다. 저들은 故鄉을 얻고, 또 木鐵鹽魚의 풍요로움을 획득하니, 반드시 安居樂業할 것이다. 그런 후에, 選徒하여, 우리의 左를 받들게 하고, 突厥, 党項, 室韋로 하여금 우리의 右를 돕게 하면, 앉아서 南邦을 제어하고, 天下를 통일할 수 있어, 聖祖가 이루지 못한 功을 이루어 後世에 無疆之福을 전할 것이다.”³⁶⁾라는 야율우지의 건의를 받아들여, 太宗은 이 해 동란국민을 梁水로 옮겼다.

야율우지가 상표에서 동란국의 수도인 홀한성은 거란 상경으로부터 거리가 멀지만 지켜야 하고, 발해 유민이 지금은 미약하지만 점차 늘어나면 후환이 되고, 옮겨갈 梁水의 땅은 발해인의 고향으로 땅이 비옥하고 목철어염의 이익이 있어 그들이 안거낙업할 수 있으며, 남방을 제어하여 성조의 이루지 못한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³⁷⁾

천사시기에 대해서는 야율우지전에 천현 3년(928) ‘是歲’라고 하였고, 『遼史』 태종본기 천현 3년 12월조에, “당시 인황왕이 皇都에 있었는데 조서를 내리길, 야율우지를 보내 동란의 백성을 옮겨 東平을 채우도록 하였다. 이에 동란의 백성들이 흑 新羅, 女直으로 도망해 들어가니, 또 조서를 내려 곤핍하여 옮겨갈 수 없는 자들은 上國의 富民이 도와주고 그들을 예속시키는 것을 허락하였다. 동평군을 南京(그후의 동경)으로 승격하였다.”³⁸⁾고 하니, 동란국의 천사는 928년 12월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5경 15부 62주에 이르렀던 옛 발해를 이은 동란

36) 太宗即位, 上表曰: 「我大聖天皇始有東土, 擇賢輔以撫斯民, 不以臣愚而任之. 國家利害, 敢不以聞. 渤海昔畏南朝, 阻險自衛, 居忽汗城. 今去上京遼邈, 既不為用, 又不罷戍, 果何為哉. 先帝因彼離心, 乘勢而動, 故不戰而克. 天授人與, 彼一時也. 遺種浸以蕃息, 今居遠境, 恐為後患. 梁水之地乃其故鄉, 地衍土沃, 有木鐵鹽魚之利. 乘其微弱, 徙還其民, 萬世長策也. 彼得故鄉, 又獲木鐵鹽魚之饒, 必安居樂業. 然後選徒以翼吾左, 突厥·党項·室韋來輔吾右, 可以坐制南邦, 混一天下, 成聖祖未集之功, 貽後世無疆之福.」表奏, 帝嘉納之. 是歲, 詔徙東丹國民於梁水, 時稱其善. (『遼史』 권75, 列傳제5, 耶律羽之)

37) 야율우지의 동란국 이주 주장의 배경으로는 거란내 황위계승을 둘러싼 동란왕 배와 그 동생인 태종과의 미묘한 갈등 관계에서 태종이 동란왕을 자신의 영향권에 두려는 의도, 발해 유민을 적극 통치할 군사, 경제면의 자신이 없었기 때문, 혹은 거란으로 멀리 떨어져 쓸모가 없는 발해 영토 대신에 동남부 중 원지역으로 확장을 기하려는 정책이었던 것 등이 제기되고 있다(李龍範, 제2장 요대 동경도의 발해유민, 『中世 東北亞細亞史 研究』(동국대학교 한국학연구소총서 제2집), 아세아문화사, 1976, 38쪽)

38) 時人皇王在皇都, 詔遣耶律羽之遷東丹民以實東平. 其民或亡入新羅·女直, 因詔困乏不能遷者, 許上國富民給贍而隸屬之. 升東平郡為南京. (『遼史』 권3, 本紀제3, 太宗上, 天顯3년 12월 甲寅)

국이 1개월이라는 짧은 시기에 거란 지역으로 옮기기에는 시간상으로 촉박한 감이 없지 않다 면, 천현 3년(928) 12월은 遷徙가 시작되고,³⁹⁾ 실제적으로는 그 다음 해(929년)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특히 최근에 발견된 耶律羽之 墓志⁴⁰⁾에서도 耶律羽之의 上表와 东丹国의 南迁과 东平郡이 南京을 삼은 것이 모두 天显 4년(929)에 발생한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⁴¹⁾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배구가 일본에 파견된 929년은 동란국이 바로 요동 지역으로 천사되는 시기였다. 야울우지 묘지문에는 『遼史』의 기록과 마찬가지로⁴²⁾, 동란국왕인 耶律倍가 东丹国 南迁의 일을 알았을 뿐 아니라 또한 친히 耶律羽之에게 詔书를 내려 시행된 것으로서 赞同을 표시하였다고 표시되어 있으나, 耶律倍가 东丹国 南迁을 주장한 것이 본심인지 아닌지는 불명이다.⁴³⁾ 동란국의 남천은 태종에게는 잠재적 경쟁자인 동란국왕을 가까이 두어 관리하는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불안요소 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배구를 비롯한 동란국인들은 야울우지의 상표의 내용과 달리 요동 지역으로의 천사를 내켜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살았던 생활의 터전을 떠나 멀리 떨어진 새로운 곳으로 옮겨지는 것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거란에 의해 강제적으로 진행되는 점에서 응당 그러할 것이다. 특히, 거주지만 아니라, 가족을 비롯하여 신분상으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초래되었을 것이므로 발해인들의 저항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동란국 자체로서도 태조 대의 건국과정에서 보장된 여러 조치가 시기가 지나며 점차 취소되거나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란국의 천사는 더욱 불만스러운 조치였을 것이다. 가령, 926년 태조에 의해 발해가 멸망되고 건국된 동란국은 별도의 年號를 사용하고, 독자적인 행정조직과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심지어 대외교섭도 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조치는 거란 황제의 입장에서는 계속 인정하기가 어려운 내용이다. 그리하여 太祖에 이어 즉위한 太宗이 태조대에 東丹國에 부여했던 여러 우대 조항을 점차 축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태종이 야울우지의 건의를 받아들여 동란국을 거란내로 옮기는 조치를 취한 배경에도 이러한 고려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⁴⁴⁾

39) 임상선, 「渤海人の契丹内地로의 강제 遷徙와 居住地 檢討」, 『高句麗渤海研究』第47輯, 2013, 201-202쪽

40) 以天显四年己丑岁 人皇王乃下诏曰 朕以孝理天下 虑远晨昏 欲效盘庚 卿宜进表 公即陈 辽地形便 可建邦家 于是允协帝心 爱兴基构 公夙夜勤恪 退食在公 民既乐于子来 国亦期年成矣 (齐小光, 『辽耶律羽之墓发掘简报』, 『文物』1996년 제1기, 32쪽의 附錄)

41) 齐小光, 『辽耶律羽之墓发掘简报』, 『文物』1996년 제1기, 31쪽; 杨雨舒, 『辽代耶律羽之“墓志”所记东丹国史事考』, 『社会科学辑刊』1996-5, 102쪽

42) 時人皇王在皇都 詔遣耶律羽之遷東丹民以實東平 其民或亡入新羅·女直 因詔困乏不能遷者 許上國富民給贍而隸屬之, 『遼史』권3, 本紀제3, 太宗上, 天顯3년 12월 甲寅)

43) 그러나 야울배가 천사 1년후인 천현 5년(930) 11월 后唐으로 달아난 것으로 미루어, 동란국왕 입장에서도 述律后와 辽 太宗의 信任을 얻어 하루라도 빨리 이들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했을 가능성은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후당 탈출은 오히려 동란국이 요양지역으로 천사되고, 이로부터 거란의 통제가 강화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4) 인황왕이 후당으로 달아난 것에 대해 “契丹東丹王突欲失職怨望 帥其部曲四十人越海奔唐(『契丹國志』권지2, 太宗嗣聖皇帝 上, 天顯 4년 11월조)”라 한 기

이러한 점에서 옛 발해인이었던 배구 등의 동란국 사신단이 비난한 ‘契丹王之罪惡’도 바로 동란국의 강제적인 천사와 여기서 파생한 행위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도 契丹王은太宗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⁴⁵⁾

한편, 篠崎敦史는 契丹王은 태종, 先主는 大譴讓, 陪臣은 人皇王, 그리고 사료 ⑥의 “猥諂新王於兵戈之際”의 新王은 先主=大譴讓에 상대 되고 裴璆의 새로운 主君이고, 그를 파견한 人皇王을 그의 陪臣으로 두는 사람이니, 太宗이라 하고 있다.⁴⁶⁾ 그러나 배구가 비난한 거란왕이 태종이고 또한 배구의 주군으로서 新王이라면, 인황왕은 배구의 ‘王’이 아니라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배구 등은 바로 동란국의 사신이니 인황왕은 배구의 ‘王’이므로, 新王이 인황왕이라면 오히려 납득하기 쉽다. 그러나 이도 『本朝文粹』의 “不救先主於塗炭之間 猥諂新王於兵戈之際. 況乎奉陪臣之小使”은 문맥상 배구 등의 3가지 서로 다른 상황, 즉 서로 다른 인물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니, 신왕이 배신일 가능성도 낮다.

4. 맺는말

발해의 사신들이 일본을 방문하거나 혹은 일본으로부터 귀국할 때,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官署 중에서 中臺省과 司賓寺이 있었다. 발해가 일본 등 주변국과 교류를 하였음은 『新唐書』 발해전에 “龍原의 동남은 바다에 임하였는데 日本道이다. 南海는 新羅道이고, 압록은 朝貢道이고, 長嶺은 營州道이고 부여는 契丹道이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다. 이 기록에서 ‘道’는 교통로로서의 ‘길’이라는 의미보다는 오늘날 국경이나 공항에서 행하는 ‘出入國管理’가 실제적으로 중요한 기능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新唐書』 기록은 “龍原은 對日本출입국 장소이면서 이를 운영·관리하는 곳”이며, 나머지 南海는 對新羅, 鴨綠은 對(唐)朝貢, 長嶺은 對營州, 扶餘는 對契丹의 각각 출입국 장소이면서 이를 운영·관리하는 곳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對日本 출입국관리 기관이며 장소였던 龍原府의 기능과 시설을 알 수 사료는 거의 없지만,

록에서 ‘失職’은 태종에게 빼앗긴 ‘황제’일 수 있지만, 아니면 후당으로 달아나기 전에 ‘東丹國王’의 직을 박탈당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45) 篠崎敦史는 928-930년간 태종이 인황왕이 제위를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霧地에 몰아 넣고 있었고, 이것이 배구 등이 일본을 방문한 목적이라고 하였다. (篠崎敦史, 「東丹國使について - 「朝理由を中心」 -, 『續日本紀研究』第384號, 大阪歴史學會古代史部會內 續日本紀研究會, 2010, 30쪽)

46) 篠崎敦史, 「東丹國使について - 來朝理由を中心 - 」, 『續日本紀研究』第384號, 大阪歴史學會古代史部會內 續日本紀研究會, 2010, 29-31쪽.

발해와 교류했던 당이나 일본 등의 사례를 통하여 그 일단을 검토하여 보았다. 발해의 일본 출입국관리 기관과 유사한 것이 일본의 筑前國에 설치된 기관인 大宰府라 할 수 있다. 대재부에는 사신 出發 前의 宿泊 시설과 식량 지급, 배의 확보나 수리를 하고, 順風을 기다리면서 筑紫館에 숙박하고, 路糧의 지급이나 배의 확보하고 있었다. 그리고 외부의 적이나 침입을 받았을 때의 조치 등도 대재부와 연안지역이 취한 조치에서 발해 龍原府의 상황도 유추할 수 있다.

발해 용원에 일본의 사신이 도착하고, 돌아가기까지는 대략, 公使의 도착 인식 기능, 도착의 뜻을 실제의 외교권을 가진 중앙정부에 전하는 기능, 使節團을 首都까지 안내하는 기능, 사절단이 국경 부근에 체재하는 동안 그 접대하는 기능, 모든 행사가 끝나고 사절단을 歸國시키는 기능 등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延喜式』 등의 사례를 참조하여 발해의 상황을 유추해 보면, 일본으로부터 사신이 龍原에 도착(용원부 소속의 鹽州. 현재의 위치는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로 추정)하는데, 이곳에는 사절이 도착하고 출발할 수 있는 항구 시설이 있었을 것이다. 일본의 筑紫館과 같이, 중앙 정부로부터의 存問使나 領客使가 도착하기까지 머무를 곳은 도착 항구이거나 아니면, 동경용원부의 치소가 있는 八連城 주변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도착지든 동경에서든 수도까지의 기간에는 영객사나 존문사가 사절단을 안내하고 경유하는 인근의 府·州도 이들에게 필요한 물품이나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사절단과 발해의 관리나 일반인이 사사로이 접촉하는 것이 제한된다. 발해 수도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일본에 온 모든 사람이 아니고, 발해와 일본간에 정해진 수효만이며, 나머지 사람은 도착지에서 사절단이 돌아 오기까지 머물게 되었을 것이다.

발해와 일본간의 교류에서 9세기 이후는 대체로 交易이 중심이었다. 발해가 일본에 가져간 물품은 禁物보다는 대개 禁約이었을 것이며, 일본의 關司令과 및 律에는 蕃客이 京으로 가는 동안 그들의 소유물은 關司(혹은 國司)나 領客使가 엄격히 검사를 하고, 交易할 때는 사절이 官司와 交易이 끝나기까지는 私人和 交역을 할 수 없는 엄격한 규정이 있었다.

한편, 929년 배구 등의 동란국사의 일본 방문을 검토한 결과, 첫째, 이들 사신은 契丹王이 아닌 東丹國王 人皇王(突欲)이 보낸 사신이며, 거란왕이 발해인을 포함한 동란국에 죄악을 지었다는 것을 비난하였다. 둘째, 거란왕을 太宗이라고 할 때, 그가 이전에 발해인이었던 동란 국민에게 지은 죄악은 동란국 건국과정에서 보장된 여러 조치가 이때 취소되거나 악화시키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가령, 926년 태조에 의해 발해가 멸망되고 건국된 동란국은 별도의 연호를 사용하고, 독자적인 행정조직과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심지어 대외 교섭도 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조치는 거란 황제의 입장에서는 계속 인정하기가 어려운 내용이다. 그리하여 태조에 이어 즉위한 태종이 태조대에 동란국에 주었던 여러 우대 조항을 점차

축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태종은 야율우지의 건의를 받아들여 동란국을 거란내로 옮기는 조치를 취하는데, 그것이 바로 929년에 이루어졌다. 셋째, 929년 방문 시기는 발해 때 마지막 방문 시기인 919년으로부터 11년 내외로서 방문 제한인 12년에 접근하고 있다. 일본측에서도 방문 시기에 대하여 어떤 문제제기가 없으며, 이것은 배구 등의 동란국이 이전의 발해국과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 것인 듯 하다. 넷째, 929년 東丹國使는 國書를 지참하지 않았다. 일본측은 발해 시기 사신단에게 국서 지참을 강하게 요구하였는데, 이때의 관련 자료 어디에서도 국서와 관련된 문제 제기가 없고, 방문 목적 등을 問答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다. 다섯째, 동란국왕이 배구 등을 보낸 목적은 아무래도 발해 시기와 마찬가지로 交易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동란국은 사실 중원 지역의 五代 왕조와도 교류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일본에 교역을 위해 사신단이 오는 것이 크게 어색하지 않다. 다섯째, 발해 멸망후 東丹國이 어떠한 국가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기왕에는 동란국을 거란의 위성국, 속국, 국중의 국이라 하고, 동란국과 거란은 황제와 왕이 형제 혹은 황족이기 때문에 적대적이 아닌 상호보완, 상하(거란은 ‘上國’) 관계로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동란국을 이전의 발해와 연결시키는 것조차 주저되기도 하였지만, 주민인 발해인만 아니라 동란국(엄밀하게는 동란국왕 돌육) 자체가 거란에 적대적인 점에서 동란국과 거란 관계, 그리고 동란국내의 발해인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동란국이 천사된 지역과 그곳의 주민들 다수가 발해 유민이고, 이들에 의해 발해 부흥운동이 일어난 점에서 발해 유민의 역사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토론문〉

9~10세기 발해와 일본 교류의 재검토

김기섭 (한성백제박물관)

발표문은 2가지 주제를 동시에 다루었다. 『신당서』에 실린 이른바 日本道가 단순한 교통로가 아니라 龍原府에 있던 일본관련 출입국 관리 장소와 기관을 가리킨 것이며, 929년 裴璆 등의 東丹國使가 일본을 방문했다가 교토 平安京까지 가지 못하고 丹後國에서 되돌아간 사건을 통해 거란과 동란국의 관계가 불편했음을 알 수 있다는 내용이다. 추론은 모두 흥미롭고 개연성이 있다. 그러므로 시비를 논하기보다 함께 곰곰이 생각해볼 뿐이다. 다만, 발표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질문 드린다.

첫째, 발표자는 龍原府가 발해사신이 일본으로 가는 출발지이자 돌아올 때의 도착지였으며, 일본사신이 왔을 때에도 역시 하급관원을 비롯한 일부가 오래 묵었던 출입국 장소이자 관련기관이 있었으므로 日本道の 기준이 되었다고 추정하였다. 이에 비견되는 사례로서 일본의 大宰府를 제시하고, 일본사절과 선박이 묵었던 곳으로서 용원부 소속의 鹽州, 크라스키노유적을 지목하였다.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동경 용원부의 중심은 훈춘의 팔련성에 비정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팔련성과 크라스키노의 기능 차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궁금하다. 즉, 일본 대재부에 상응하는 기관·시설이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는가?

둘째, 『日本紀略』에 따르면 929년 12월 24일 배구 일행은 일본 丹後國 竹野郡 大津浜에 도착했다. 丹後國이 일본 중앙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동안 배구 일행은 이곳에서 머물렀다고 하는데, 丹後國에도 역시 일본 서부의 중요 행정치소이자 견당사의 거점이었던 大宰府에서와 같은 시설·절차를 상정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물론, 외국사신을 대하는 일반적인 절차는 같았겠지만, 大宰府와 丹後國은 平安京에서의 거리가 크게 다르고 그에 따른 치소의 위상 및 운영방식도 달랐던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셋째, 발해 鹽州에서 일본 丹後國에 이르는 교통로는 어떠하며, 100여명의 사신일행을 태운 선박 숫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정하셨는지 궁금하다.

넷째, 東丹國使 배구 일행의 일본 방문 기록과 그에 관한 논쟁은 매우 흥미로운 것이지만, 발해 日本道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도 상당하다. 그러므로 東丹國使를 대하는 일본의 태도 및 거란과 동란국의 관계에 대한 고찰 부분은 별도의 논문으로 구성하고, 여기에서는 日本道の 구체적인 경로와 운영방식에 대해 조금 더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판단을 듣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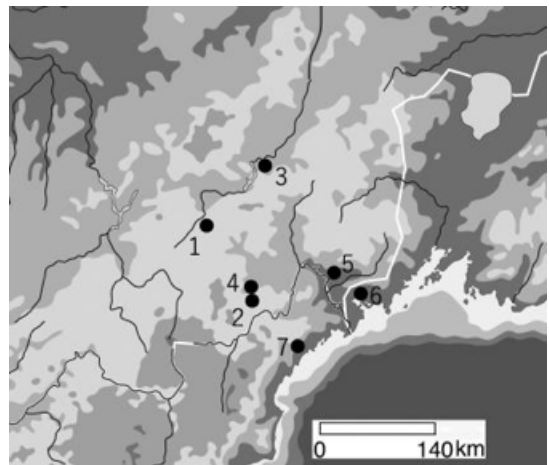
〈발표 4〉

瓦当編年으로 본 河南屯古城·西古城·八連城의 評價

고지마 요시타카 (카나자와대)

1. 報告主旨

과거 10년간, 渤海의 王都에 관한 중요한 조사보고서가 중국에서 간행되었다. 2007년에 西古城(吉林省 和龍市), 2009년에는 上京(黑龍江省 牡丹江市), 2014년에 八連城(吉林省 琿春市)의 조사보고서가 간행되었다. 각 유적보고에 의해 渤海王都에 관한 연구정보는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고고학적으로 연대를 판단하기 위한 토기나 기와의 편년이 확립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유적의 형성과정이나 유적상호의 비교검토에 혼란이 생기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田村晃一씨의 上京출토瓦当의 형식학적 연구를 기초로 한 발해의 瓦当編年試案을 작성했다. 그 결과 上京과 西古城·八連城은 모두 8세기 중반에 창건되었고, 八連城은 9세기 중반에 무너지고, 上京과 西古城이 10세기 초반에 무너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八連城은 西古城과 함께 上京의 副都로서 조영되어, 8세기말경 五京制 도입과 함께 西古城이 中京, 八連城이 東京으로 되었다. 사료에서는 785년경에 東京이 王都로 되고, 794년경에 다시 왕도가 上京으로 옮겨진 것을 알 수 있다. 八連城이 9세기 중반에 무너진 후, 日本道の 거점을 관리하는 東京의 기능을 계승한 유적은 해안가에 있는 크라스키노城跡으로 추정하고 있다.



1 六頂山墓群 2 河南屯古城 3 上京 4 西古城 5 八連城
6 크라스키노城跡 7 富居里石城 圖1 渤海王都關係의 遺跡

2. 渤海의 瓦当編年

1) 田村晃一에 의한 瓦当編年

田村晃一씨는 戰前에 東亞考古学会가 조사하고 현재는 東京大学이 보관하고 있는 上京출토의 하트형蓮弁文을 가진 瓦当을 검토하여 6형식으로 분류했다. 그 결과 中央丘 주위에 珠文이나 圈線을 가진 꽃잎이 입체적으로 표현된 형식의 와당(1式)이 珠文이나 圈線이 없는 꽃잎이 平板형식(6式)으로 퇴화한 것을 밝혀냈다. 中村亜希子씨도 田村씨와 함께 上京출토 기와를 정리한 성과를 바탕으로 편년을 제시하였다. 두 사람은 上京의 1式과 2式와당은 760년경의 上京遷都期, 3式을 8세기第3四半期~9세기第I四半期, 4式을 9세기第3四半期, 6式을 9세기第3四半期~10세기第I四半期로 比定하였다. 이번 보고에서는 8세기 전반대의 와당편년에 대하여 살펴보고 와당편년으로 본 河南屯古城과 西古城, 八連城의 역사적 성격에 대해 검토하고 싶다.

2) 六頂山墓群出土瓦当의 檢討

8세기 전반대의 와당에 대하여는 吉林省 敦化市에 있는 六頂山墓群에서 좋은 검토자료가 출토되었다. 1949년에 발해 3대왕 大欽茂의 둘째 딸인 貞惠公主의 묘가 발견된 이래 1953~57년, 1959년, 1964년, 2004~09년의 5차에 걸친 발굴조사가 행해져 왔다. 六頂山丘陵의 남측에 발해시대의 墳墓群이 조성되어 있다. 동쪽의 墓群을 第一墓区로 부르고, 서쪽의 묘구를 第二墓区로 부른다. 第一墓区는 작은 골짜기 사이에 입지하여, 109기의 분묘가 검토되었다. 第一墓区和 第二墓区 사이에는 산등성으로 나뉘어지고, 第二墓区는 완만하게 灣曲하는 산록에 입지하여 134기의 분묘가 검토되었다.

第一墓区에 있는 貞惠公主墓에서 출토된 墓誌에 의하면, 貞惠公主는 780년에 埋葬되었다. 王承礼씨가 貞惠公主墓의 조사보고에서 소개한 乳丁文와당이 그때까지 알려져 있던 발해 기와와는 다른 옛 형태이므로, 旧国과의 관계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보고에는 와당의 출토 위치나 출토상황의 기술이 없어 이 와당이 貞惠公主埋葬의 연대(780년)와 동시기인지, 앞선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어 왔다. 2012년에 六頂山墓群의 발굴조사보고서 『六頂山渤海墓葬』이 간행되어, 이때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기와의 출토상황이 명확해졌다. 『六頂山渤海墓葬』

海墓葬』은 기와가 출토된 묘가 第一墓区(1M)에서 11기와 3군데의 石敷遺構, 第二墓区(2M)에서 5기라고 보고하였다. 보고서는 기와가 출토된 16기의 분묘 중에서 第一墓区의 M1号墓와 M3号墓, M5号墓에 기와로 지붕을 이은 건물이 있었다고 추정하였다. 이외의 분묘에 건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보고서는 명확한 평가를 하고 있지 않다. 六頂山墓群에서는 土坑木室墓, 石牆石室墓, 封土石室墓의 3종류가 주된 묘장형태이다. 이하에서는 각 묘장의 개요와 기와의 출토상황을 정리하였다.

土坑木室墓 第一墓区의 M3号墓는 方形基壇의 윗면에 礎石建물을 배치하고, 그 본전에 3기의 화장된 木棺墓와 1기의 再葬墓가 놓여 있다. 분묘 주위에서 많은 기와가 출토되고 있어 기단 위 건물의 屋根에 기와가 이어져 있었던 것을 나타낸다. 第二墓区의 M8号墓와 M9号墓도 土坑 안에 複數의 木棺을 놓고, 그 위에 건물을 구축하고 있어 土坑木室墓 유형에 해당한다.

石牆石室墓 第一墓区의 M1号墓와 M5号墓는 폭1.5m전후·높이2m전후의 石壁을 方形으로 구축하고 안에 横穴式石室로 埋葬施設이다. 封土를 덮지 않은 石室을 둘러싸고 石牆이 지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고 추정된다. 보고서에서는 묘 위에 건물이 있었을 가능성을 서술하였다. 이 2기는 기와의 출토량이 비교적 많은 묘 위에 건물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石室 상부가 평평하게 깎인 초석 등은 확인할 수 없는 것이나 다른 石牆石室墓에서 출토되는 기와는 排水溝 덮개 등으로 전용한 사례가 많고 또, 윗부분에 건물이 있었던 것을 표시하는 초석 등이 확인되고 있지 않은 것 등을 고려하면, 石牆石室墓 위에 건물이 조영되어 있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한다.

封土石室墓 横穴式石室을 봉토가 덮고 있는 묘장형식으로, 貞惠公主墓(M2)와 第一墓区 M6号墓가 해당한다. M2号墓는 1949년에 발견되어 출토된 墓碑에 의해 발해 3대왕 大欽茂의 둘째 딸 貞惠公主가 780년에 매장된 것이 판명되었다. 墳丘에서 와당이나 평기와편이 출토되었다고 보고되었다. 隅三角持送構造의 天井을 架構한 横穴式石室墓에서 床面에는 무늬 없는 벽돌이 깔려 있다. 羨道部에서 墓碑와 石獅子가 검출되었다. 위에 石牆石室墓에서 기술한 것처럼 六頂山墓群의 분묘에서는 흩어져있던 기와편이 墓葬 안에 섞여 들어 오거나 전용된 사례가 많아 M2号墓의 경우도 출토된 기와는 墳墓構築 때에 섞여 들어 왔다고 생각된다.

M6号墓는 1963년과 64년에 王承礼씨 등에 의해 조사되어 묘군 중에서 가장 큰 직경22m의 墳丘와 側壁에 壁画를 그리고 床面에 벽돌을 둔 横穴式石室이나 花文磚·石獅子 등이 검출되었다. M2号墓(貞惠公主墓)의 묘비에 「宝曆七年冬十一月廿四日甲申陪葬于珍陵之西原」라고 한 것에서 王承礼씨와 王健群씨에 의해 「珍陵」은 貞惠公主墓의 동쪽에 있는 M6号墓로

被葬者를 제2대왕 大武芸로 비정하는 설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2012에 간행된 보고서에 기술되었던 M6号墓 재조사의 성과를 보면 직경22m라고 보고되었던 규모가 실제로는 15m였다는 것이나 花文磚이나 기와편은 墳丘裾 동쪽의 丘陵과 墳丘를 갈라놓은 골(溝)의 擁壁材로 전용되고 있던 것 등이 밝혀졌다. 六頂山墓群의 墓室에서 床面에 벽돌이 깔려 있던 것은 M2号墓(貞惠公主墓)와 M6号墓뿐이므로 M6号墓가 M2号墓과 같은 격식으로 만들어 졌던 것을 엿볼 수 있다. 또 발해묘에서 벽화를 수반하는 사례는 貞惠公主의 언니 貞孝公主墓, 上京에 수반하는 陵園에 있는 三靈屯墓群第二号墓 등 王族墓에 한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M6号墓가 왕족묘일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 어느 쪽이든 M6号墓는 M2号墓와 동시기인 8세기 후반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大武芸의 陵墓일 가능성은 없다.

墓葬의 構築順序 앞서 서술한 것처럼 土坑木室墓는 靺鞨의 전통적인 木棺墓나 土坑墓위에 墓上建物을 구축하고 있어 六頂山墓群에서는 초기의 埋葬形態이다. 8세기 전반경이라고 추정한다. 石牆石室墓는 橫穴式石室墓가 변형된 구조로 보고자가 기술한 것 같이 봉토가 없는 다른 유례가 없는 묘장이다. 封土石室墓와 비교하면, 약간 뒤에 나오는 묘장으로 8세기 중엽이라고 생각한다. 封土石室墓는 貞惠公主墓(M2号墓)에서 묘비에 기록된 매장연도가 780년이라고 하는 것에서 六頂山墓群에서는 뒤에 나오는 8세기 후반에 조영된 묘장유형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六頂山樣式瓦当 이제까지의 검토에서 第一墓区M3号墓를 墓区内 초기의 조영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 조영연대를 8세기第 I 四半期라고 생각한다. M3号墓에서 출토된 와당은 23점(十字文8점, 乳丁文15점)으로 모두 瓦当面의 직경은 약17cm · 外緣의 높이는 2cm이다. 十字文瓦当은 中心丘 주위에 4개의 十字文을 배치하고 圈線으로 둘러싸고, 外緣과의 사이에 8개의 紡錘形浮文을 두었다. 乳丁文瓦当은 中心丘 주위를 圈線으로 두르고 그 바깥에 4개의 菱形과 円形의 浮文을 교차로 배치하고 그 주위를 圈線으로 둘러 外緣과의 사이에 9개의 紡錘形浮文을 놓았다. 이 瓦当群을 六頂山樣式이라고 부른다.

3) 河南屯古城出土瓦当의 檢討

六頂山樣式の 와당과 발해 上京에서 출토된 하트형蓮弁文瓦当 사이에는 양식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이 차이를 메우는 와당이 河南屯古城(吉林省 延辺朝鮮族自治州 和竜市)에서 출토되었다. 河南屯古城은 図們江 지류인 海蘭河 왼편에 위치한다. 河南屯古城이 고고학적으로 확인된 것은 1924년8월 烏山喜一씨의 조사가 최초이다. 烏山씨는 이 유적에서 발해 기와를

채집하고 西壁200m, 南壁1300m의 城壁을 확인하여 八家子土城이라 명명했다. 1942년 10월 4일에 齋藤優씨가 조사를 행해 이 유적이 虚来平野에 있기 때문에 虚来城이라 명명했다. 齋藤씨는 河南屯古城은 北壁이 海蘭河의 侵蝕으로 없어졌지만, 西壁360m·南壁1200m전후·東壁600m의 城壁規模라고 보고했다. 근년, 吉林省 文物考古研究所는 河南屯古城의 西壁으로 상정되었던 土塁 모습이 높아진 것을 조사하여 河川堤防 등 후세에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판명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鳥山씨와 齋藤씨가 지적한 城壁規模는 城壁의 有無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필요가 생겼다.

齋藤씨의 보고에 의하면 城内 中央部の 약간 서쪽에 가까운 곳에 東西140m·南北120數m의 범위를 높이2m의 성벽으로 둘러싼 구획이 있다. 구획의 중앙 서쪽에 가까운 곳에 東西21m이상, 南北16m이상의 기단이 있고, 齋藤씨는 그 위에 5×3간의 母屋에 3m폭의 4面廂이 수반하는 東西18.5m×南北13m의 礎石建물을 확인하고 측량조사를 행했다. 戰後, 齋藤씨가 보고한 기단을 농민이 평평하게 깎았을 즈음에 유물이 출토되어1971년에 吉林省 文物考古研究所의 郭文魁씨가 발굴조사를 행했다. 그 결과 磚積墓坑이 2기 검출되어 金製帶金具 등이 다수 출토되었다. 또 분묘주위에 파여진 土坑에서 漆喰에 蓮花文을 묘사한 벽화단편이 출토되고 있어 墓上建物の 内壁에 수반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郭씨가 보고한 2기의 磚積墓坑은 齋藤씨가 측량한 4面廂建物の 본전에 배치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河南屯古城出土瓦의 檢討 이제까지 소개된 河南屯古城의 瓦塼은 郭文魁씨의 보고에 게재되어 있는 2점의 팔메트(인동문)文系瓦当과 軒平瓦2점, 文字瓦1점, 花文塼1점과 『吉林省博物館』에 게재되어 있는 側視蓮文瓦当, 宋玉彬「試論仏教伝入図們江流域的初始時間」(『文物』2015년11기)에 게재되었던 軒平瓦2점, 하트형蓮弁文系瓦当1점과 팔메트文系瓦当1점으로 모두11점이다.

郭文魁씨가 보고한 팔메트文系瓦当 중에 거의 완전한 형태의 개체는 中心丘주위를 14개 전후의 珠文이 둘러싸 그 바깥에 입체감 있는 팔메트문을 4개 배치하였다. 각 팔메트문의 양측에 円形浮文을 두고 문양을 한 단위로 하여 각 단위를 区切한 것처럼 縦長의 紡錘形浮文을 배치하였다. 外緣部에는 紡錘形의 浮文을 横方向으로 배치하였다. 이들 浮文은 六頂山樣式의 와당에 보이는 円形浮文이나 紡錘形浮文과 비슷해 六頂山樣式의 와당요소를 계승한 문양으로, 六頂山樣式의 와당에 비해 약간 늦은 연대권을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이 와당을 河南屯 A式이라고 한다. 六頂山樣式을 계승한 것에서 8세기第Ⅱ四半期로 비정하고 싶다. 다른 1점은 中心丘의 끝부분에 2중의 圈線이 있고 圈線사이에는 8개의 珠文을 두고, 圈線바깥에 6개의 팔메트문을 두었다. 이 팔메트문은 줄기좌우에 先端을 아래에 감고 있는 1対의 잎이 넓어

저 줄기의 頂部에 꽃잎을 두고 문양을 한 단위로 하였다. 꽃잎이 인접하는 꽃잎과 접해 팔메트문이 연속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이 와당을 河南屯B式이라고 한다.

宋玉彬씨가 보고한 와당2점 중에 1점도 팔메트문이다. 이 와당은 짧은 줄기 좌우에 1대의 잎이 있고 그 위에 좌우로 넓어지고, 좌우에 인접하는 팔메트문의 꽃잎과 접한다. 꽃잎의 중앙 위쪽에는 花文이 변형된 卍形浮文이 놓여 있다. 이 와당을 河南屯文C式이라고 한다. 잘 다듬어진 문양구성이 次第에 形骸化하는 변화가 문양변천의 원리이므로 그 관점에서 정리한다면 꽃잎이 여러 개 있는 中心花文도 잘 다듬어져 있는 B型이 오래되었고, 꽃잎이 1매로 된 中心花文이 卍形浮文으로 되어 있는 C型이 새로운 모습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河南屯C式은 上京3式내지 4式과 평행하고 옛 모습의 河南屯B式은 上京1·2式과 평행하는 8세기第3四半期로 비정한다.

『吉林省博物館』에 게재된 側視蓮文瓦當은 中心丘를 둘러싼 圈線바깥에 8個의 珠文을 두고 더욱이 그 바깥을 圈線으로 둘러싸고 있다. 圈線바깥에는 基部가 덩굴로 붙어있는 8개의 꽃잎을 옆에서 본 도안이 배치되어 있다. 이 형식의 와당은 西古城과 八連城에서도 출토되어 上京1·2式에 평행하는 8세기第3四半期에 비정한다.

宋씨의 보고에 있는 하트형蓮花文瓦當은 6 잎의 花文과 중앙의 圈線을 연결하는 줄기모양의 浮線이 특징이다. 이 형식의 와당은 宋씨가 지적한 것처럼 高產寺寺址(吉林省和龍市)에서도 출토된다. 퇴화한 花文의 모습과 앞사이의 半月形 浮文에서 田村編年の 上京4式(9세기第3四半期)에 비정한다.

4) 西古城出土瓦當의 檢討

西古城은 吉林省 和龍市에 있고, 河南屯古城의 북방 약4km, 海蘭河 왼쪽에 위치하고 있다. 2007년에 간행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西古城은 北壁이632m, 西壁이 725.7m로 城壁延長은 2720.1m이다. 城內中央 약간 북쪽에 가까운 곳은 北壁187m, 西壁306.8m로 延長이 992.8m의 城壁으로 구획된 內城이 있다. 內城中央의 남쪽 가까이에 1号殿을 두고 그 북쪽에 온돌시설을 갖춘2号殿과 그 양 옆에 脇殿이 각각 2동있고, 그 북쪽에는 5号殿으로 불리는 總柱建物이 있다. 西古城의 건물배치는 上京의 內城宮殿區画과 공통점이 많다. 이것으로부터 劉曉東씨와 魏存成씨는 上京보다 앞서 조영되었던 顯州王都=中京遺跡인 西古城을 모델로 上京이 조영되었다고 제기하였다. 두 사람의 설은 그 후 발해도성연구의 기초가 되어 西古城이나 上京城의 조사보고서의 기초가 되고 있다.

出土瓦当의 檢討 西古城에서 출토된 와당에 대해서는 宋玉彬씨가 상세히 정리해 보고 하였다. 西古城에서 출토된 瓦当은 하트형花文이 많고, 전체의 90%를 점하고 있다. 가장 많이 출토되고 있는 형식은 中央丘를 圈線이 둘러싼 珠文을 두고 바깥에 6잎의 하트형花文을 배치한 Aa형으로 40%를 점하고 있다. 결국 하트형花文와당의 약 반수를 Aa형와당이 점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많은 것은 中央丘주위에 圈線이 없고 珠文을 둔 바깥에 花文을 배치한 Ab형으로 17%. 또 中央丘주위에 圈線을 배치하고 있지만 珠文은 두지 않고 직접 花文을 배치하고 있는 B형이 18%를 점하고 있다. 다만 이 형식의 와당은 직경 16cm 전후의 a형(6%)와 13cm 전후의 b형(12%)으로 세분할 수 있다. 中心丘주위에 圈線, 그 바깥에 珠文과 6잎의 하트형花文을 배치하고, 꽃잎 사이에 3日月모양의 浮文을 둔 C형은 총수의 13%를 점하고 있다. 宋玉彬씨는 이들 와당을 顯州王都시기 즉, 8세기 중엽 경으로 추정한다.

田村編年과의 對比 上京은 天寶연간 말(756년경)大欽茂가 旧国에서 천도한 곳으로 田村씨에 의한 와당편년은 8세기 중엽 이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田村편년에서는 上京에서 「가장 오래된 시기」의 와당은 꽃잎이 7잎으로 중앙돌기와 圈線사이에 珠文을 둔 1式이나 같은 문양배치에서 꽃잎이 6잎인 2式이다.

田村편년을 기반으로 西古城출토의 하트형花文와당을 보면 宋玉彬씨 분류의 Ad형이 上京 創建期(8세기第Ⅲ四半期)의 上京2式에 비정할 수 있고, 上京의 「새로운 단계」의 6式에 상당하는 것이 B형 와당이다. 또 출토량이 40%로 가장 많은 西古城Aa형 와당은 上京3式에 비정할 수 있고 이 형식의 와당에 대해서 田村씨는 上京1·2式과 6式的 「중간에 놓여진 것」이라고 한다. 田村편년에 따르면 西古城은 上京의 「가장 오래된 단계」에 조영이 시작되어 上京의 새로운 단계 즉, 9세기후반까지 보수나 조영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된다. 또 上京3式 平行의 와당이 가장 많이 출토되고 있는 것은 8세기말~9세기전반경에 대규모 공사가 행해진 것을 나타낸다. 田村씨는 西古城에 대하여 「762년에 大欽茂는 발해국왕에 進封되었던 것을 계기로, 말하자면 副都 혹은 離宮으로서 西古城을 세우고 이것을 顯德府라 이름지었다」고 상정하였다.

결국 田村씨의 編年觀에 따르면 西古城은 上京의 「가장 오래된 단계」에 조영이 시작되어 上京의 새로운 단계 즉, 9세기후반까지 보수나 조영이 계속되고 있던 것이 된다. 또 上京3式 平行의 와당이 가장 많이 출토되고 있는 것은 8세기말~9세기전반경에 대규모 공사가 행해진 것을 나타낸다.

胎土觀察 齋藤優씨가 西古城에서 채집한 와당 4점(Aa형과 Ba형이 각1점, C형이 2점-福井県立歴史博物館)의 胎土觀察에서는 이하의 점을 확인하고 있다. Aa형와당은 시멘트질

의 灰白色으로 燒成되어 작은 白色微粒子和 黑色粒자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Ba型和 C型の 3점은 灰白色의 硬質로 燒成되어, 2mm 전후의 石英粒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Aa型和 다른 와당에 보이는 胎土의 차이는 9세기초 전후와 9세기 후반에서는 西古城에 기와를 공급한 가마가 달랐던 것을 나타내고 있다.

形花文以外の 瓦当群 西古城에서 출토된 와당에 대하여 한층 더 생각하기 때문에 하트형花文이외의 문양을 가진 와당에 대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싶다. 西古城에서는 側視蓮文瓦当과 팔메트文系瓦当, 複弁蓮花文瓦当이 1~5号殿址에서 출토되었다. 이들 와당의 수는 33점으로, 보고된 와당 총수 433점의 7.6%를 점하고 있다. 형식별 출토 수는 側視蓮文瓦当이 13점, 팔메트文系瓦当이 8점, 複弁蓮花文瓦当이 12점이다. 어느 형식의 와당도 1箇所정도 출토 수는 수 점 이하이지만, 1~5号殿址에서 1점 전후는 출토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싶다.

側視蓮文瓦当 : 西古城 외에 河南屯古城·竜頭山墓群(M13·14号墓)·台岩古城·竜泉坪古城·八連城 등 琿春市에서 和竜市에 이르는 図們江유역에서 출토되고 있다. 꽃잎 수는 기본적으로 8매로 각 꽃잎을 줄기모양의 浮線이 연결하고 있다. 中心丘의 끝부분에 圈線을 가진 A型, 圈線이 없는 B型 두 종류가 있다. A型은 圈線바깥에 珠文이 있고 그 바깥주위에 다시 圈線이 둘러져 있다. B型은 珠文에서 中心丘를 잇는 짧은 浮線이 보인다. 河南屯古城은 A型, 西古城은 A型和 B型, 竜頭山M13·14号墓는 A型, 八連城은 A型和 B型이 출토되었다. 형식적으로는 A型이 B型보다 오래된 모양이라고 추정한다.

팔메트文系瓦当 : 西古城과 八連城에서 출토된 팔메트文系瓦当은 中心丘주위에 珠文을 圈線으로 둘러져 있어 河南屯古城에서 팔메트B式으로 한 와당과 공통된다. 中心丘주위의 珠文과 圈線의 有無는 田村씨에 의한 上京출토 하트형花文瓦当의 형식분류에서는 上京 1式을 구성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이로부터 河南屯古城이나 西古城과 八連城에서 출토된 팔메트文B式の 와당은 上京 1式에 가까운 연대로 평가할 수 있다.

複弁蓮花文瓦当 : 西古城에서 출토된 자료에서는 中心丘아래의 圈線바깥에 珠文을 배치하여 바깥을 圈線으로 두르고 8개의 꽃잎을 두었다. 中心丘아래의 圈線이 2중으로 珠文이 12개의 와당이 3점, 圈線이 2중으로 珠文이 16개의 와당이 1점, 圈線이 하나인 와당이 1점 출토되어 적어도 3종류의 瓦范이 사용되었다. 複弁蓮花文瓦当이 출토된 발해유적은 西古城과 八連城뿐이다.

非하트형文樣의 瓦当群(側視蓮文瓦当·팔메트文A式瓦当·複弁蓮花文)은 上京에서 출토되지 않는다. 한편 西古城에서는 Ad型(上京2式)의 와당이 非하트형文樣瓦当群과 함께 1号殿址와 2号殿址 주변에서 출토된다. 하트형瓦当文은 上京창건에 수반하여 창안된 문양으로 西古

城이 있는 囟們江유역에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형식이다. 西古城에서 上京창건기에 사용된 Ad型(上京2式)의 와당이 출토되고 있는 것은 西古城의 조영이 天寶말년 上京창건 후 바로 행해진 것을 나타낸다.

西古城과 河南屯古城 河南屯古城에서 출토된 側視蓮文瓦當과 河南屯B式의 팔메트(인동문)文瓦當은 西古城古相樣式의 瓦當群과 문양이 일치한다. 그러나 河南屯A式의 팔메트(인동문)文瓦當은 西古城에서 같은 모양의 瓦當이 출토되지 않는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이 와당은 浮文이 있는 방법 등 六頂山樣式의 와당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 六頂山樣式과 西古城古相樣式의 瓦當群을 연결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상의 검토에서 河南屯古城이 西古城에 앞서 조영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西古城의 창건을 8세기第Ⅲ四半期로 한다면 河南屯古城의 조영은 8세기第Ⅱ四半期로 둘 수 있다. 西古城은 上京조영 직후에 건설을 개시했고 그 목적은 副都制의 제정에 있었다고 田村씨는 지적한다. 西古城出土瓦當의 40%를 Aa型(上京3式)이 점하고 있는 것에서 8세기第Ⅳ四半期부터 9세기전반에 큰 改修가 행해졌다고 추측할 수 있다. 西古城에서 출토된 綠釉瓦當도 Aa型이므로 이 공사는 단순한 수선이 아닌 大改修였던 것을 엿볼 수 있다.

5) 八連城出土瓦當의 檢討

囟們江하류 왼쪽에 八連城(吉林省 琿春市)은 『新唐書』에 기록된 東京으로 비정된다. 785년경에 大欽茂가 上京에서 東京으로 천도하고, 793년에 大欽茂가 죽은 후 제5대왕 大華璵이 上京으로 다시 천도하였다. 2014년에 보고서가 간행되어 瓦當의 모양을 상세히 알 수 있게 되었다. 戰前의 齋藤優씨나 駒井和愛씨에 의한 조사의 영향을 고려한 것인지 보고서에는 西古城과 다른 各型式每의 출토수량을 기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同書의 囟版에 게재된 와당 수에 보다 편의적으로 집계하여 비율을 내보았다. 각 와당간의 비율은 Ab型(上京3式)이 56%, 다음으로 側視蓮文瓦當17%, 複弁蓮花文瓦當15%, 팔메트文瓦當9%가 된다. 綠釉瓦當도 Ab型이다. 와당형식의 분포에서 八連城에서도 西古城과 마찬가지로 上京창건 직후에 조영이 시작되어 8세기第Ⅳ四半期~9세기第Ⅰ四半期에 대규모 改修工事が 행해졌던 것이 판명되었다. 綠釉瓦當도 포함하는 Ab型와당은 王都로 整備될 때(785년경)에 사용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고, 八連城이 후에 東京으로 불린 王都유적인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유물이다. 또 Ab型和 Aa型 즉, 上京3式의 연대를 8세기第Ⅳ四半期로 추정하고 있지만 八連城을 王都(東京)와 관련지어 이 年代觀을 보강할 수 있다.

더욱이 西古城과 八連城의 와당을 비교하면 이하의 것이 명확해 진다.

① 古城에서는 上京4式·6式과 병행하는 B類17%와 C類13%가 출토되고 있는 것에 대해 八連城에서는 전혀 출토되지 않는다. 西古城과 八連城은 함께 8세기第Ⅲ四半期에 조영이 시작되었지만, 八連城의 조영·수리는 8세기第Ⅳ四半期~9세기第Ⅰ四半期에 종료되고 西古城은 발해가 멸망한 10세기第Ⅰ四半期까지 계속되고 있다.

② 하트형花弁을 가진 瓦當의 비교에서는 西古城이 Aa類42%·Ab類16%인 것에 대해 八連城은 Aa類13%·Ab類42%로 되어 있다. 上京에서 출토된 하트형花文瓦當은 어떤 것이나 중앙돌기 주위에 圈線을 가지고 있고, Ab類처럼 중앙돌기 주위에 圈線을 가지지 않은 와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西古城과 八連城에서는 Ab類만이 중앙돌기 주위에 圈線을 수반하지 않고, 다른 형식에서는 圈線을 수반하고 있다. Aa類와 Ab類의 하트형花文이나 冑간 장식은 함께 매우 입체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문양이 퇴화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上京에 기원을 가진 하트형花文瓦當의 직접적인 계보는 Aa類이고, Ab類는 函們江유역에 있어서 Aa類의 변형으로 이해하고 싶다. Aa類와 Ab類에 倂년상의 시간차를 상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西古城과 八連城에 있어서 Aa類·Ab類의 비율 차는 2개의 성을 건설했을 때의 기와 공급체제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3. 瓦當으로 본 河南屯古城·西古城·八連城

河南屯古城과 河南屯古墓 河南屯A型瓦當이 六頂山墓群의 瓦當群과 西古城古相瓦當群 사이에 위치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그 연대를 8세기第Ⅱ四半期로 추정할 수 있었다. 西城壁의 存在가 부정되는 등 규모나 구조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河南屯古城을 賈耽이 기록한 顯州王都로 비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齋藤優씨는 河南屯古城에 대해서「渤海創業期の 上京遷都迄의 都城」이라고 서술하여 顯州王都를 포함하는 旧国의 후보지라 지적하고, 西古城은「文王말년 경 五京을 경영하는데 맞추어」中京으로 조영되었다고 추측한다. 齋藤씨가 河南屯古城을 旧国과 관계된다고 한 근거는 内城(河南屯古墓를 둘러싼 城壁)이 작은 돌맹이를 쌓아 올린 그 모양이 고구려의 성벽과 비슷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후 1986년에 秋山進午씨도 河南屯古城을 顯州라고 논하고 西古城을 中京으로 간주하였다.

나는 顯州王都로서의 河南屯古城은 上京으로 천도한 후에 廢城으로 되고 그 跡地에 墓上 建物을 수반하는 河南屯古墓가 조영되었다고 생각한다. 河南屯古墓의 조영시기에 대해서는 河南屯C型瓦當이나 蓮花文瓦當이 上京3式(8세기第4四半期~9세기第1四半期)으로 비정하고 싶다. 또 河南屯古墓의 연대비정에는 河南屯古城에서 채집된 「素」刻印文字瓦와 같은 文字瓦가 西古城의 우물과 1号住居跡에서 출토되고 있는 것이 실마리가 된다. 西古城의 우물에서는 다수의 刻印瓦가 上京3式에 병행하는 와당과 함께 출토되고 있는 것에서 河南屯古墓가 8세기第IV四半期에서 9세기전반에 조영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顯州王都에서 上京으로 천도한 3대왕 大欽茂가 다시 천도한 東京에서 794년에 죽었지만 그 葬地는 밝혀져 있지 않다. 大欽茂의 葬地를 大欽茂의 皇后인 孝懿皇后墓가 발견된 竜頭山墓群에서 찾는 설도 있지만, 나는 顯州王都의 옛 땅인 河南屯古城에 歸葬했을 가능성을 생각하고 싶다. 唐에서 渤海王에게 하사했다고 생각되는 金製帶金具에 장식한 벨트를 副葬한 河南屯古墓가 大欽茂의 陵墓에 상응하는 것은 아닐까? 宋씨의 보고에 있는 하트형蓮花文瓦當은 上京4式(9세기第3四半期)에 비정할 수 있다. 風鐸도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부터 陵墓에 수반하는 寺院이 조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西古城 西古城은 上京조영직후 8세기第3四半期에 조영을 개시했다고 생각한다. 田村晁一씨는 西古城에 대해 「762년에 大欽茂는 발해국왕에 進封된 것을 계기로 말하자면 副都 혹은 離宮으로서 西古城을 세우고 이것을 顯德府라 이름지었다」고 상정하였다. 나도 田村씨와 마찬가지로 西古城은 副都로서 조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顯州에서 上京으로 천도한 후에 凶們江유역의 지배거점으로서 西古城을 정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西古城의 설계가 上京과 공통되고 있는 것은 上京을 모델로 西古城을 조영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八連城 八連城은 『新唐書』에 기록된 東京에 비정되고 있고, 창건은 西古城과 마찬가지로 上京1式에 평행하는 8세기第3四半期이다. 『新唐書』는 東京이 785년경~794년경에 上京에서 천도하여 왕도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劉曉東씨는 발해에 있어서 五京制를 기록한 『新唐書』渤海傳이 張建章의 『渤海国記』에 의거하고 있는 것이나 張建章은 大和7년(833)에 발해를 떠나 大和9년(835)에 幽州로 돌아와 復命하고 있는 것에서 五京制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논하고 있다. 劉曉東씨는 발해에 있어서 五京制度의 시행은 10대왕 大仁秀의 治政으로 추론하고 있다. 劉曉東씨에 따르면 五京制의 성립은 9세기에 들어서부터의 것이 된다.

『新唐書』에는 上京은 顯州王都에서의 천도, 東京은 上京에서의 천도에 관한 기술이 있어 五京制성립이전의 8세기후반에 上京과 東京의 이름이 등장한다. 『新唐書』편찬 때에 上京과

東京의 이름을 8세기로 거슬러올라가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 2京에 대해서는 8세기후반에 上京·東京이라고 불리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또 西古城은 顯州를 관할 하에 둔 중앙으로 비정할 수 있지만, 西古城의 창건이 八連城과 거의 동시였던 것에서 西古城도 창건 때부터 中京으로 불리었을 가능성이 있다.

上京창건 직후에 副都로서 東京과 中京이 조영되어 三京制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八連城에서 대량으로 출토된 Ab型이나 Aa型の 上京3式와당은 王都가 되었기 때문에 改修에 수반하여 지붕을 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西古城에서 같은 시기에 행해졌던 大改修는 東京의 副都로서의 재정비였다고 생각된다. 三京制에 南京과 西京을 더해 五京制로 된 것은 劉暁東씨가 서술한 것처럼 제10대왕 大仁秀(818~830년)의 治世였다고 생각된다.

西古城에서는 上京4式·6式(9세기第3四半期~10세기第I四半期)과 병행하는 B類17%와 C類13%가 출토되고 있는 것에 대해 八連城에서는 上京4式(9세기第3四半期)이후의 와당이 전혀 출토되지 않는다. 이것은 八連城이 9세기중엽에 무너진 것을 시사한다.

4. 八連城의 廢絶과 크라스키노城跡에 대한 試論

八連城의 보고서에 게재되었던 와당을 田村편년에서 정리하면 9세기중엽이후 기와가 전혀 출토되지 않는다고 하는 예상외의 결과가 되었다. 西古城에서는 上京4式·6式과 병행하는 B類17%와 C類13%가 출토되고 있는 것에 대해 八連城에서는 전혀 출토되지 않는다. 八連城의 조영·수리는 8세기第IV四半期~9세기第I四半期에 종료되고, 西古城은 발해가 멸망한 10세기第I四半期까지 계속된다. 이것은 八連城은 西古城과 함께 조영되어 발해멸망기까지 존속했다고 생각해 온 종래의 설에 큰 변경을 가하는 것이다.

東丹国 八連城에서는 「維次甘露元」이라고 線刻한 평기와가 1号宮殿에서 출토되었다. 보고서는「甘露」를 東丹国의 연호로 그 元年(926년)이 線刻되어 있다고 했다. 이 자료에서 八連城은 발해멸망 후까지 존속했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검토로 그 추정을 정정하게 되었다. 2号宮殿의 동쪽 기단에서는 본래의 宮殿건물에 중복하여 1×2간의 礎石건물이 검출되었다. 宮殿 廢絶후에 얼마간 시설조영이 행해지고 있던 것을 나타내는 遺構로 그 시기가「甘露」元年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東京의 後繼施設 八連城이 9세기중엽에 廢絶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東京의 기능은 함께 廢絶된 것일까? 東京은 日本道の 관리시설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使節을 왕성하게 파견하고 있던 9세기중엽에 그 기능을 廢絶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다른 곳에 그 기능이 移轉되고 운영이 날이 없다.

富居里石城 발해 東京에 비정되는 유적에 대해서는 북한의 연구자가 富居里石城(북한 咸鏡北道 清津市)으로 비정하는 설이 있다. 鄭永振『富居里一帶的渤海遺跡』(香港 亞州出版社 2011년)에 의하면 富居里石城은 富居里集落 북부에 半月形으로 작은 돌을 쌓은 城壁이 構築되어 城壁주위 길이는 1236m라고 보고되었다. 城内에서 발해의 기와가 출토되었다는 報文도 있지만, 이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城壁은 대형 石材를 평평하게 쌓아 발해나 고구려 본적이 없는 구조이다. 富居里石城이 東京인 것일까 또는 八連城廢絶후의 시설인 것일까 지금 상황에서는 발해설 자체를 적극적으로 긍정할 재료가 부족하다.

크라스키노城跡 八連城에서 약 50km에 있는 크라스키노城跡(러시아 연해지방 사할린구 크라스키노촌)은 靑原府 塩州의 州城으로 비정한다. 城跡의 형상은 略五角形으로 石積城壁의 주위길이는 약 1300m이다. 南·西·東에 城門(瓮城)이 구축되어 있다. 城内에는 寺院이나 礎石建物群, 鍛冶工房, 瓦窯跡 등이 조영되어 있다. 또 10세기초 전후에는 城門에 瓮城이 敷設되어 있었다.

크라스키노城跡의 石積城壁이 구축된 시기에 대해서는 9세기대라고 전망하고 있다. 근년의 크라스키노에서는 基盤層에 가까운 깊이까지 파는 조사가 행해졌다. 그 결과 城内에 堆積된 土層은 크게 上·中·下 三層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다. 寺院이나 礎石建物群, 瓦窯 등은 上層에 조영된 遺構群이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中層에 粗砂層이 몇 마나 堆積되어 있는 것이다. 粗砂層은 洪水堆積의 産物로 城跡부근을 흐르는 河川에서 다량의 粗砂가 유입된 것을 나타낸다. 결국 粗砂가 堆積된 즈음에 크라스키노城跡에는 洪水流入의 障壁이 되는 石積城壁은 구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하여 石積城壁은 上層에 構築되었다고 추측하고 있다. 上層에는 9~10세기대의 遺構가 있어 石積城壁이 구축된 것은 9세기대라고 생각한다. 八連城이 9세기중엽에 廢絶된 이유는 이후의 검토문제이지만 크라스키노城跡에서의 石積城壁구축이 八連城의 廢絶과 관계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발해의 평지역에서 石積城壁을 구축했던 사례는 上京이외에 이리스타야川流域의 고르바트카城跡 등은 있지만 많지 않다. 크라스키노城跡배후의 산중에서 돌을 깎아내어 延長 약 1300m·높이3~4m의 성벽을 구축하는 대토목공사를 일으킨 배경에 石積城壁을 준비했던 새로운 평지역을 해안에 日本道の 거점을 구축한다고 하는 王權의 의지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다. 크라스키노城跡은 八連城이 가지고 있던 日本道 관리기능을 계승한 평지역일 것이다. 크라스키노城跡의 평가에 대해서는 上層遺構의 시기적인 분류와 변천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이후의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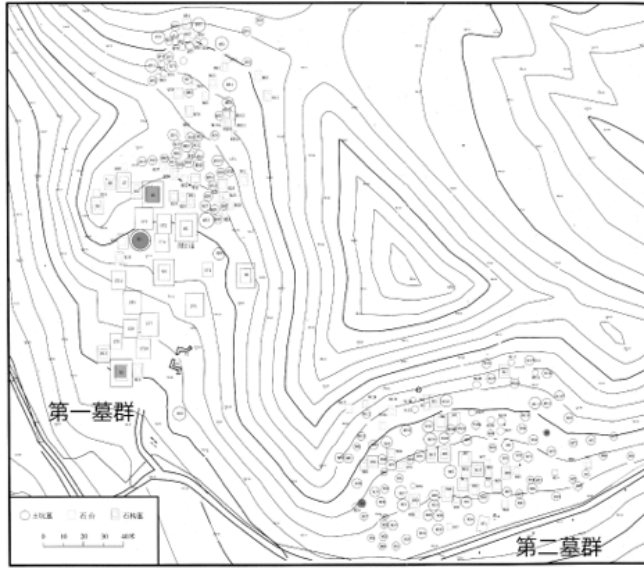
5. 맺음말

이상 瓦当文樣의 편년을 기반으로 河南屯古城, 西古城, 八連城을 검토해 왔다. 와당편년에 대해서는 六頂山墓群第一墓区M3号墓에서 출토된 乳丁文이나 十字文의 와당에 대해 발해초기의 年代觀을 들 수 있었다. 河南屯古城에서 출토된 와당에 六頂山墓群의 와당문양을 계승한 요소가 있는 것에서 河南屯古城을 8世紀第Ⅱ四半期の 顯州王都에 비정할 수 있는 것을 서술했다. 다만 河南屯古城은 고고학적인 조사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후의 조사를 기대하고 싶다. 西古城과 八連城은 8세기중엽 上京조영과 함께 개시되고 있어 三都制의 성립 혹은 上京의 副都내지 離宮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785년경에 上京에서 東京으로 천도했던 것은 이 시기의 와당(綠釉瓦当을 포함)이 다량으로 출토되고 있는 현상과도 부합된다. 八連城에서는 9세기중엽이후의 와당이 출토되지 않아 9세기중엽에는 廢絶된 가능성이 높다. 日本道の 거점을 관리하는 東京의 기능을 계승한 유적으로 해안부에 있는 크라스키노城跡을 추정하고 있다.

이 원고는 2015년 9월 24일·25일 吉林大学에서 개최된 「東北아시아의 古代社會와 文化國際심포지움」에서의 보고(「渤海前期의 王都에 관한 研究」)와 『中國과 러시아沿海地方에 있어서 渤海의 考古學的研究』(2016년 3월 金沢學院大學)에 게재했던 同名論文을 기초로 하여 구성을 변경하여 加筆·削除한 것이다.

<参考文献>

- 田村晃一「渤海の瓦当文様に関する若干の考察」『青山史学』第19号, 青山学院大学史学研究室, 2001.
- 田村晃一「渤海瓦当論再考」『早稲田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紀要』第47輯 第四分冊, 2002.
- 田村晃一「上京龍泉府出土瓦当の蓮花文に関する考察」『東アジア都城と渤海』(財) 東洋文庫, 2005.
- 田村晃一「近時における渤海都城研究の動向と課題」『青山考古』第29号, 青山考古学会, 2013年.
- 中村亜希子「渤海上京龍泉府址出土軒丸瓦の編年」『東京大学考古学研究室紀要』第20号, 2006.
- 中村亜希子「渤海の瓦」『古代』129・130号, 早稲田大学考古学会編, 2012.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敦化市文物管理所編著『六頂山渤海墓葬』文物出版社, 2012.
- 斎藤優『半拉城と他の史蹟』半拉城史刊行会, 1978年.
- 劉曉東・魏存成「渤海上京城宮筑序与形制淵源研究」『中国考古学会第六次年会文集』文物出版社, 1987.
- 劉曉東・魏存成「渤海上京城主体格局的演变—兼談主要宮殿建築的年代」『北方文物』1991・1期.
- 劉曉東『渤海文化研究』黒竜江人民出版社, 2006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他編著『西古城—2000~2005年度渤海国中京顯徳府故址田野考古報告』文物出版社, 2007.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学边疆考古研究中心「吉林省琿春市八連城内城建築基址的発掘」『考古』2009年 第6期.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学边疆考古中心・琿春市文物管理局編著『八連城』文物出版社, 2014年.
- 宋玉彬「渤海都城故址研究」『考古』2009・第6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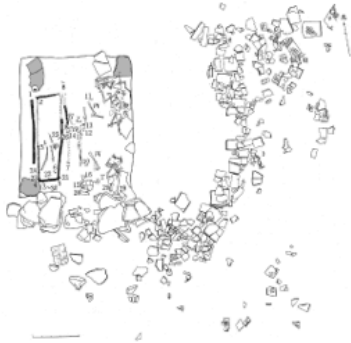
图二 六頂山墓群墓群の墓分布図

六頂山墓群の墳墓分布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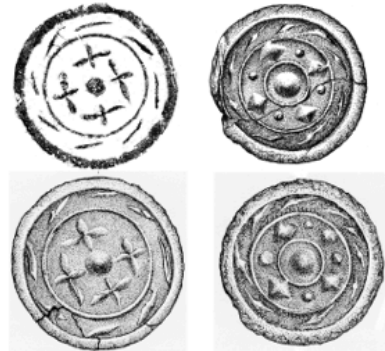


第一墓群M1号墓

第一墓群M3号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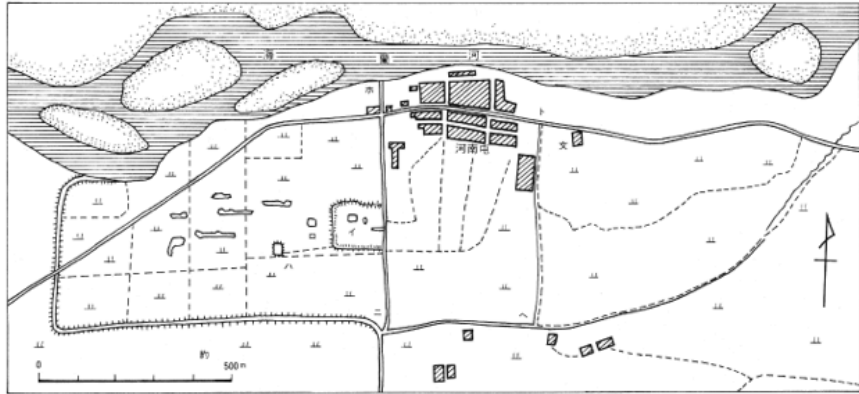


第二墓群M9号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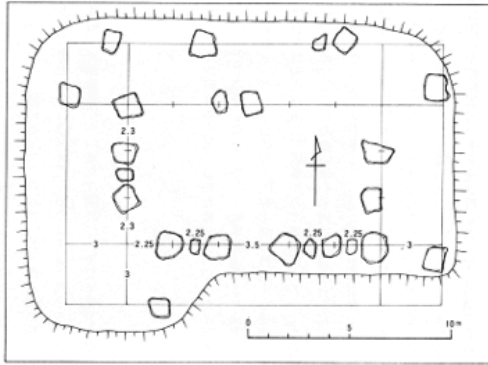


第一墓群M3号墓出土の瓦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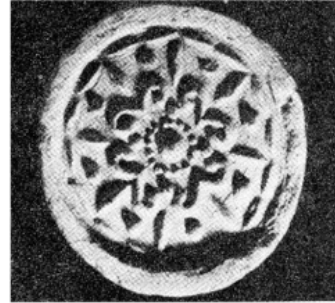
图2 六頂山墓群



河南屯古城の平面図(斎藤優測図)



河南屯古墓の墳丘(斎藤優測図)



パルメット文A瓦当



パルメット文B瓦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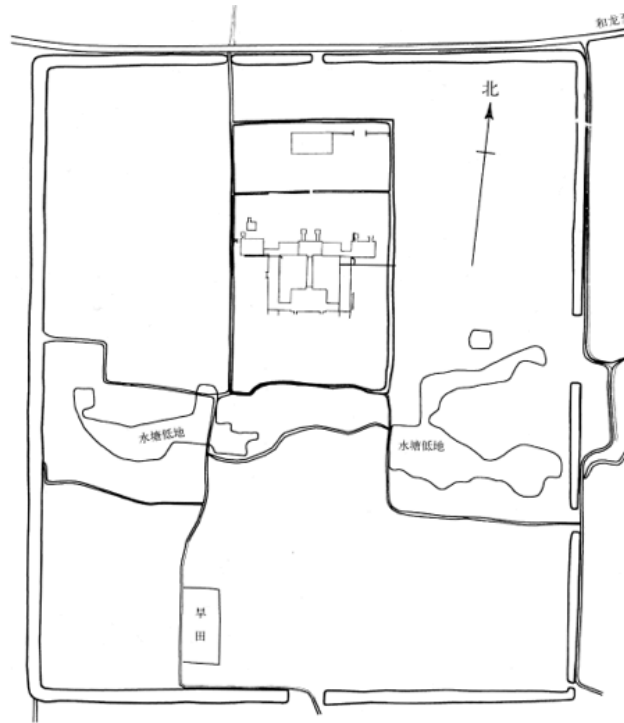


河南屯古城(畦道が古墓を囲んだ城壁跡)



パルメット文C瓦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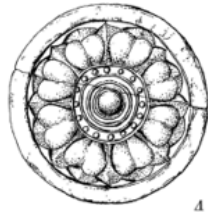
図3 河南屯古城・古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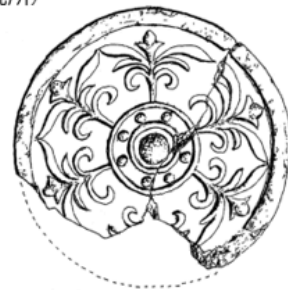
西古城の平面図(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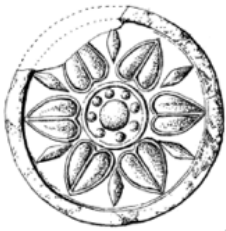
側視蓮文瓦当



複弁蓮花文瓦当



パルメット文B瓦当



ハート形花文瓦当・上京2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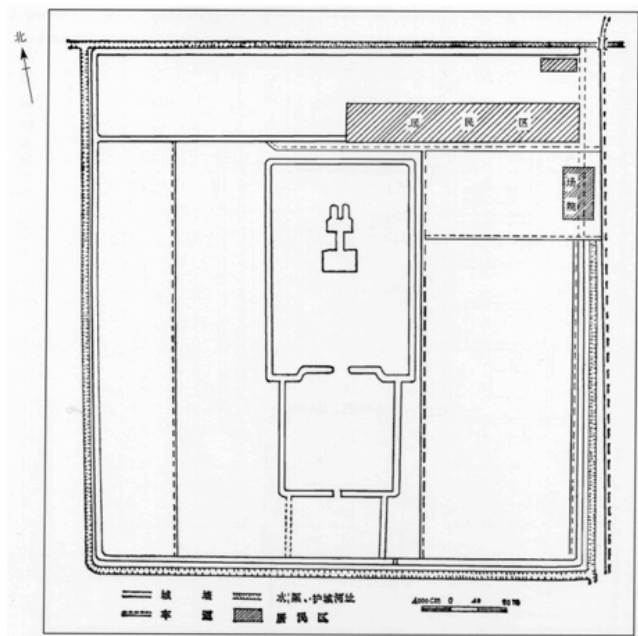


ハート形花文瓦当・上京3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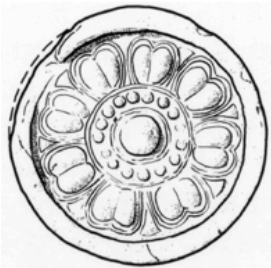


ハート形花文瓦当・上京6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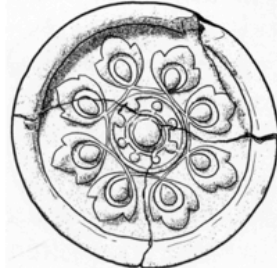
図4 西古城



八連城の測量図



複弁蓮花文瓦当



側視蓮文瓦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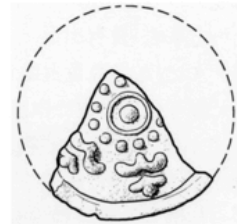
パルメット文瓦当



ハート形花文瓦当
上京2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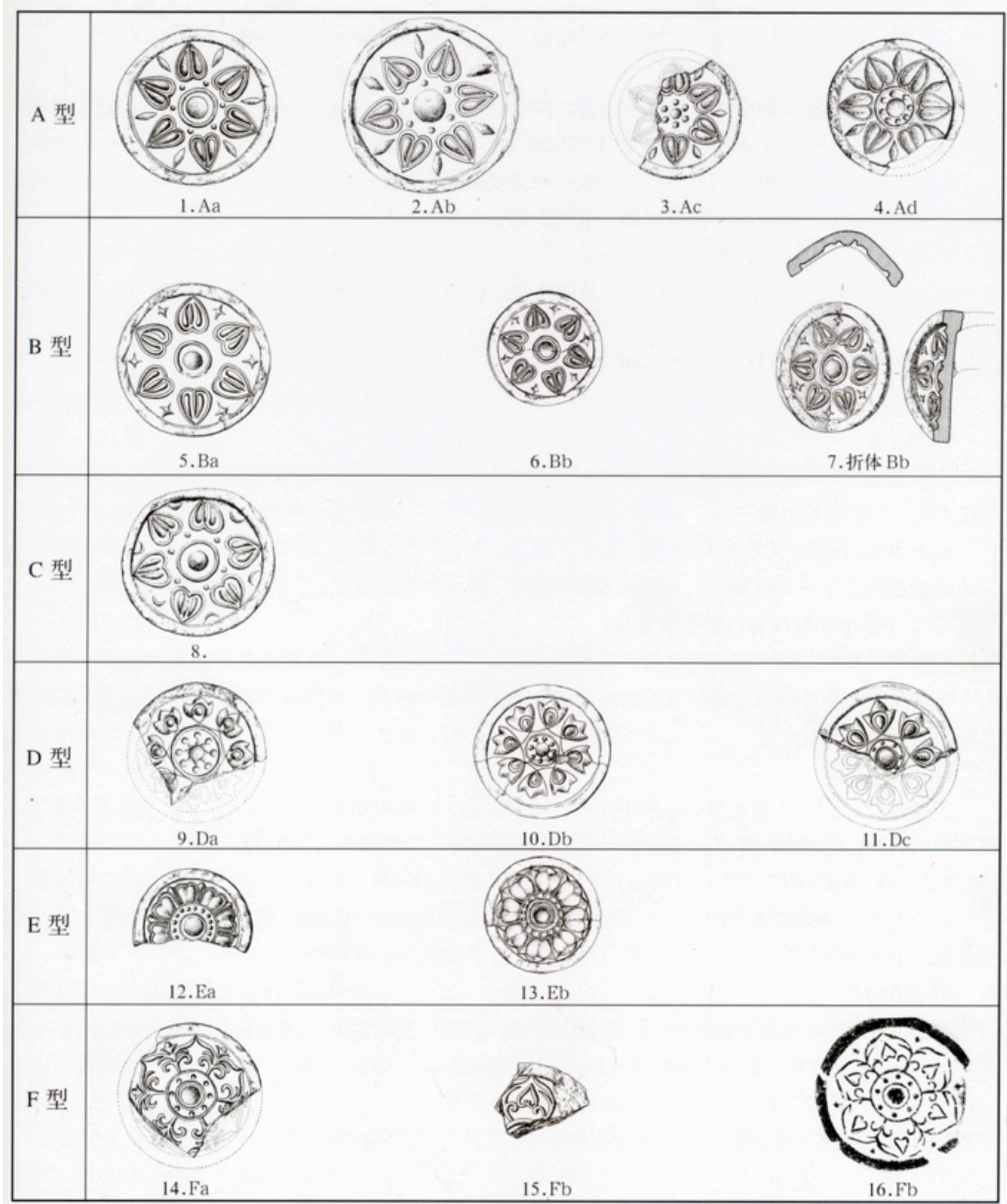


ハート形花文瓦当
上京3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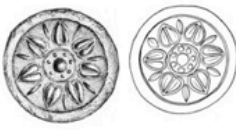









側視蓮文瓦当

第6図 八連城



第7圖 西古城의 瓦当分類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他編著『西古城—2000~2005年度渤海国中京顯德府故址
田野考古報告』文物出版社2007)

型式名(年代)	六頂山墓群	河南屯古城	西古城	八連城	上京
六頂山様式 (8世紀第1四半期～ 第2四半期)					
(8世紀第2四半期)					
上京1式・2式 西古城古様相 (8世紀第3四半期)					
上京3式 (8世紀第4四半期～ 9世紀第1四半期)					
上京4式 (9世紀第3四半期)					
上京6式 (9世紀第4四半期～ 10世紀第1四半期)					

第8圖 渤海瓦当의 編年試案



제2부

발표 5 **발해 상경성 외성벽 남쪽문과 북쪽문의 고고 발굴**
발표 : 김태순 (흑룡강성고고연구소)

발표 6 **발해 도성 발굴보고서로 분석해 본 신라와 발해의 건축기술 동질성**
발표 : 이병건 (동원대)

발표 7 **발해 동경용원부의 치소와 소속 네 개 주의 위치 고찰**
발표 : 정영진 (연변대)

발표 8 **발해의 성벽 축조방식에 대해**
발표 : 정석배 (한국전통문화대)

〈발표 5〉

발해 상경성 외성벽 남쪽문과 북쪽문의 고고 발굴

김태순 (흑룡강성고고연구소)

발해 상경성은 발해 역사에서 규모가 제일 큰 도시이다. 상경성 발굴 관련 연혁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1930년대 초부터 일본 학자들이 상경성의 발굴과 조사를 하였으며, 1939년에 《상경성》을 간행하였다. 1960년대 초 中·朝 연합 고고팀은 상경성의 유적을 부분적으로 발굴하였으며, 1970년대 초 조선학자들이 발굴 성과를 소개하는 《육정산과 발해진》이라는 보고서를 출판하였다. 1980년대 초부터 중국 흑룡강성 고고학자들이 상경성 유적을 재차 발굴하였으며, 고고학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최근 중국의 고고학자들이 《육정산과 발해진》, 《발해 상경성》등의 발굴 보고서를 출판했다.

상경성이 자리한 발해진은 소규모의 성진(城鎮)으로, 목단강에서 도문으로 가는 철도역에서 3k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 곳은 사면이 높은 산으로 둘러 있고, 산 아래에는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경치로 매우 유명한 관광지이다. 또한 토지가 비옥하고 물산(物産)이 풍부하여 예로부터 자연재해에 따른 흉년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던 곳이다.

상경성은 외성, 내성, 궁성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성은 장방형 모양으로, 동·서쪽의 벽과 남쪽 벽은 직선으로 건축되었으며, 북쪽 성벽은 직선이 안이며 그 형태는 복잡하다. 외성의 둘레 길이는 16.313m이며, 성 안쪽의 면적은 15.93㎡에 달한다. 상경성은 장방형으로, 동쪽 벽 길이는 3.364m이고, 남쪽 벽 길이는 4.590m이며, 서쪽 벽 길이는 3.402m이고, 북쪽 벽 길이는 4.952m이다.

상경성의 외성 구조에 대해서는 일찍이 많은 외국 학자들이 관심을 보였다. 현재 남아 있는 외성의 횡단면을 보면 돌로 성벽을 쌓은 흔적은 남아 있지 않다. 성벽을 쌓은 흔적은 외성의 동·서쪽 성벽의 북쪽과 북쪽 성벽에서 쉽게 발견되며, 당시 돌과 흙을 함께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주요 구조는 성벽 안을 흙으로 다진 후 바깥 층에 돌로 다시 쌓은 것이다.

외성이 북쪽으로 돌출한 것은 주변 지형 지세와 강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성벽의 서북쪽으로부터 동북 방향으로 강물이 흐르고 있다. 서북쪽 성벽이 직각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길이는 252m이다. 성벽은 직선거리로 동쪽으로 1397m 쌓았으며, 다시 북쪽으로 177m 성벽을 쌓은 후 다시 동쪽 방향으로 846m의 성벽을 쌓았다. 지세의 영향을 받아 다시 남쪽으로 47m의 성벽을 쌓은 후에 성벽이 동쪽으로 205m의 길이로 나와 재차 남쪽 방향의 직선으로 115m 내려 온 후 동쪽으로 1919m 길이로 동쪽 벽과 연결되었다.

상경성의 문이 몇 개인가 하는 것은 이미 여러 책에서 많이 언급되어 있다. 이것들은 당시 사람들이 실제 답사 고찰 후에 기록한 것으로, 당시 4면에 7개의 문 혹은 8개의 문이 설치되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국 고고학자들이 여러 차례 고찰과 발굴을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외성 4면에 문이 10개 설치되었음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었다. 즉 남·북에 각각 3개의 문이 설치되었으며, 동·서쪽에 각각 2개의 문이 설치되었다.

상경성의 안전과 방어 시설로는 성벽 둘레에 보호시설과 성벽 위에 방어시설이 있다. 상경성의 외성 가운데 동쪽 벽과 북쪽 벽은 유적의 흔적을 볼 수 있지만, 남쪽 벽과 서쪽 벽은 손상 정도가 매우 심하다. 동쪽 벽의 바깥으로는 아직도 도랑(溝壕)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동쪽 성벽의 북쪽에 흔적이 남아 있는 도랑(溝壕)은 넓이가 약 2m²이며, 깊이가 약 1m 정도이다.

성비(城障)는 성벽 위에 설치된 방어 시설로, 성의 모퉁이마다 조금 높은 흔적이 발견된다. 이는 당시 흙 혹은 돌로 쌓은 것으로 추정되며, 상세한 형태는 남아 있지 않다.

1. 외성 남쪽 성문

외성의 남쪽 문은 상경성 남쪽 성벽의 중간에 자리잡고 있다. 남쪽 문은 중간의 문 1기, 두 옆에 문 2기, 중간에 문과 두 문이 연결된 벽, 그리고 동서 양쪽으로 두 단락의 성벽이다. 문의 동서 전체 길이는 57.6m이다. 외성 남쪽 성문은 발해 상경성의 구조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남쪽에는 문이 3개나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아, 본래 규모가 아주 컸던 것으로 보인다. 중간에 설치된 문은 결구가 복잡한 것으로 보아, 중요한 행사를 거행할 때 마다 사용했던 것으로 생각되며, 그 양쪽의 문은 평소에 출입문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1) 문둔(門墩)

남쪽의 성문에는 크기가 비슷한 문둔(門墩) 두 개가 설치되었다. 문둔(門墩)은 장방형 모양으로, 남북의 길이는 11.6m, 동서의 길이는 11.1m이다. 문둔(門墩)은 가공하지 않은 돌로 쌓은 후에 4벽에 누런 흙을 발랐으며, 그 위에 다시 백회를 바른 흔적이 남아 있다. 문둔(門墩)의 위쪽으로 9개의 기둥구멍(柱洞)이 발견되었다. 두 문둔(門墩)의 북쪽으로 약 1m 거리에 한 줄의 기둥구멍이 발견되었으며, 서쪽 문둔(門墩)의 북쪽에는 6개의 기둥 구멍(柱洞)이, 동쪽에 4개의 기둥 구멍(柱洞)이 발견되었다.

2) 문도(門道)

두 문둔(門墩) 중간으로 한 갈래의 문도(門道)가 설치되었으며, 동서 넓이는 4.7m²이다. 중간 문도(門道)는 돌을 편 것으로 보여지며, 그 넓이는 4.2m²이다.

3) 벽을 연결한 기초 유적

중간 문과 양쪽 문 사이에는 서로 연결된 벽이 있다. 두 벽은 크기가 비슷하며, 길이는 6.5m이며, 넓이는 3.3m²이다. 벽은 보존이 잘 되지 못하였으며, 현재 기초 유적만 남아있다. 벽은 먼저 지면에 돌 한 층을 편 후에 누런 갈색이 나는 흙과 모래가 섞인 흙을 함께 사용하였으며, 경사진 바깥쪽 벽면에는 접착력이 강한 누런 색깔의 진흙을 사용하였다.

4) 동문과 서문

중간문의 양쪽에 각각 문 하나가 설치 되었으며, 두 문의 형태와 크기는 매우 비슷하다. 양쪽의 문둔(門墩)은 성벽과 연결되어 있으며, 문둔(門墩)의 길이는 7.2m, 넓이는 2m²이다. 당시 지면에 깔았던 돌이 조금 남아 있으며, 누런 흙이 대부분 지면에 노출되어 있다. 문도(門道)는 넓이 4.5m²으로, 양쪽의 지복(地楸)과 그 중간에 길이 조성 되어 있다. 지복(地楸)은 보존이 잘 되지 못하였으며, 넓이는 약 0.2m²이다. 지복(地楸)의 중간으로 길이 통하며, 돌을 편 흔적은 알아 볼 수가 없었다.

이번에 성문을 발굴하는 동시에 그와 연결된 성벽도 발굴 정리하였다. 성벽은 지면에 흙을

쌓은 후 돌로 벽체를 쌓았으며, 양쪽 벽의 경사진 쪽으로는 누런 진흙을 사용하였다. 현재 성벽은 기초 부분이 약간 남아 있으며, 돌이 널려있는 곳도 있었다. 성벽의 밑면 넓이는 3.2㎡이며, 성벽 횡단면을 보면 성벽과 두 문이 연결된 성벽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같은 것으로 보인다. 성벽의 기초에 돌을 펴지 않고 누런 갈색이 나는 흙에 검은 흙을 섞어서 다시 벽을 쌓았다. 성벽의 경사진 두 면은 누런 갈색이 나는 흙을 사용하여 쌓은 것으로 보인다. 상경성 남쪽 문의 유적 발굴에서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건축자료와 생활용품으로 사용된 토기가 출토되었으며, 이외에도 철기, 동기, 석기가 출토되었다.

2. 외성 북쪽 성문

외성의 북쪽 문은 상경성 북쪽 성벽의 중간에 자리잡고 있으며, 상경성에서 북쪽 방향으로 드나드는 매우 중요한 문이다. 외성의 북쪽 문은 중간의 문과 그 양쪽의 문 그리고 서로 연결된 성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적의 동서 길이는 52.12m이며 넓이는 30.8㎡, 높이는 0.75m이다.

1) 중간문

중간문은 대기식(臺基式) 건축이다. 중간에 남북으로 통하게 도로를 설치하였으며, 남북 양쪽에는 각기 만도(慢道)를 설치하여 대기(臺基)에 올라 갈 수 있게 하였다. 대기(臺基)의 남쪽 길이는 21.9m이며, 북쪽은 22.6m이고, 남북의 길이는 18.4m이며, 높이는 0.75m이다. 대기식(臺基式)건축에는 누런 색깔의 흙이 사용되었으며, 4면에는 매끄럽게 가공한 돌로 벽을 쌓았고, 벽 바깥으로는 산수(散水)가 설치되었다. 대기(臺基)의 주초는 파괴 정도가 매우 심하며, 현재 남아 있는 유적으로는 대기(臺基) 위쪽에 동·서 면으로 5간(間), 남북으로 들어가서 4간(間)이 남아 있다. 대기(臺基) 위에 건축물은 파괴되어 본래의 형태를 전혀 알아볼 수 없다. 한 주춧돌 밑에 원래 벽의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현재 남아 있는 벽의 두께는 약 0.2m 정도이다. 대기(臺基)의 남·북 양쪽에는 각각 하나의 답도(踏道)를 설치하였으며, 그 바깥으로는 돌로 벽을 쌓았다. 남쪽의 답도(踏道)는 경사진 것으로 보여지며, 북쪽의 답도(踏道)는 파괴되어 원래의 형태를 전혀 알아볼 수 없다.

2) 연결된 성벽

대기(臺基) 동서 양쪽으로는 성문과 연결된 성벽이 쌓여 있다. 양쪽의 성벽은 크기와 모양이 비슷하며, 길이는 5.3m, 넓이는 2.2㎡ 내지 2.3㎡이며, 높이는 0.8m이다. 성벽은 돌과 흙으로 쌓았으며, 바깥 벽 쪽으로는 가공하지 않은 돌을 쌓았으며 안쪽으로는 누런 갈색이 나는 진흙과 가공되지 않은 돌로 쌓아 올렸다.

3) 동쪽 문과 서쪽 문

중간 문 양쪽으로는 각각 하나의 문이 설치 되어 있다. 두 문의 형태와 결구는 서로 다르지 않으며, 중간에는 문도(門道)가 있고, 그 양쪽으로는 문둔(門墩)이 있다. 문둔(門墩)은 가공하지 않은 돌을 사용하였으며, 손상 정도가 매우 심하다. 문둔(門墩)의 길이는 7m, 넓이는 2.4㎡, 현재 남아 있는 높이는 0.8m이다. 문둔(門墩)은 벽을 쌓은 후 다시 남북 양쪽에 한 층의 돌계단을 쌓았다. 문둔(門墩)에서 북쪽으로 돌출한 부분의 길이는 1.2m이고, 남쪽으로는 돌출한 길이는 3.3m이다. 문도(門道)의 넓이는 5.2㎡이며, 문도(門道)의 양쪽 옆에는 한 줄의 돌이 깔려 있다. 문도(門道)의 위로는 지복(地楸)이 설치 되었으며, 길이와 방향은 문둔(門墩)과 별 차이가 없다. 문도(門道)의 중간에는 큰 돌을 펴놓았으며, 중간에 공간이 있는 곳마다 작은 자갈을 펴놓았다. 그 위에 다시 모래를 펴서 바닥을 편편하게 다져놓았으며, 돌을 편 넓이는 약 2.7㎡이다. 문도(門道)와 지복(地楸)의 아래에 펴놓은 돌 주위에서 목탄과 불에 탄 흙을 발견되었다. 불에 탄 나무 기둥은 대략 정방형으로, 현재 남아 있는 한 변의 길이는 0.1m 내지 0.2m이다. 북쪽 성문의 발굴에서 토기, 철기, 석기가 발견하였으며, 대다수가 토기와 철기이다.

외성의 남쪽 문과 북쪽 문의 발굴에서 발견된 유적과 유물은 아주 풍부하며, 두 문의 유적에서 출토된 대량의 新 자료는 우리의 연구에 새로운 내용을 제공해 주었다.

〈토론문〉

발해 상경성 외성벽 남쪽문과 북쪽문의 고고 발굴

홍형우 (강릉원주대)

1. 김태순 선생님은 흑룡강성고고연구소에서 발해에 관한 많은 유적들의 발굴을 해오시고,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꾸준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동북아역사재단과 고구려발해학회에서 주최하는 ‘발해 동경용원부 팔련성의 도성 조영과 역할’을 주제로 개최되는 국제학술회의에서 토론을 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저에게 토론의 기회를 주신 주최 측 관계자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 선생님의 이번 발표는 발해 상경성에 관한 것으로서, ‘발해 상경성 외성벽 남쪽문과 북쪽문의 고고 발굴’에 관한 것입니다. 발표문은 길지 않지만, 발굴 연혁, 외성의 구조, 상경성의 문들에 관한 사항 등 상경성의 전체적인 부분을 요약하고 있고, 외성 남쪽 성문과 외성 북쪽 성문에 대한 발굴 성과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발굴 결과 외성 4면에는 문이 10개 설치되었음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중 외성 남쪽 성문에는 중간의 문 1기와 양 옆으로 문 2기가 있고, 외성 북쪽 성문 역시 성벽 중간 문과 그 양쪽의 문이 있으며, 성문과 함께 그와 연결된 성벽도 발굴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외성의 경우 남쪽과 북쪽 벽은 각각 길이 4,590m, 4,952m로 규모에서의 약간의 차이와 함께 돌출부 형태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남쪽과 북쪽의 문과 연결 성벽에 있어 이러한 차이 이외에, 성벽의 구조적인 차이내지는 출토 유물의 구성의 차이 같은 또 다른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발해 동경용원부 팔련성의 도성 조영과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발표에서 언급이 되리라 생각되지만, 이번 상경성 외성벽 남쪽문과 북쪽문의 발굴결과와 팔련성과의 관련성에 대하여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4. 한편, 고구려발해학회에서는 지난 2012년도에 ‘발해 상경성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제목아래 상경성을 주제로 한 동계학술발표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2012년도 학술발표회에서는 상경성의 도시계획, 상경성의 건축, 상경성의 역사 및 지리 연구현황, 상경성의 발굴 및 고고 연구현황, 상경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전망 등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발표 및 토론에서 거론되었던 내용 중에 몇 가지에 대한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상경성 축조 기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상경성 축조는 단계적 조영설과 동시 조영설로 의견이 나뉘어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온 것으로 압니다. 현재까지의 발굴 결과를 볼 때, 축조 기간은 어떻게 정리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상경성 궁성과 서고성 및 팔련성의 구조가 매우 흡사하며, 따라서 이 구조물들이 거의 동시기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셋째, 상경성 발굴은 1930년대 일본 학자들의 발굴과 조사를 시작으로 이후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2009년에는 10년 발굴의 결과물인 『渤海上京城』보고서가 출판된 바 있습니다. 보고서 출간 이후 상경성에 대한 발굴 현황과 앞으로의 발굴 계획, 그리고 향후 보존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지 알고자 합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5. 끝으로, 남쪽 문과 북쪽 문의 발굴에서 발견된 유적과 유물은 아주 풍부한 것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출토 유물 등 발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발표를 들으면 이해가 더 용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생님의 이번 발표문에 대한 더 자세한 질문은 선생님의 발표를 경청하고 난 후, 추가 질문을 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종합토론 시간에 질문을 보충하고자 합니다.

〈발표 6〉

발해 도성 발굴보고서로 분석해 본 신라와 발해의 건축기술 동질성

이병건 (동원대)

1. 머리말

중국은 夫餘, 高句麗, 渤海, 遼, 金을 비롯한 만주지역 역사를 중국사에 편입하기 위해 ‘東北工程’을 진행한바 있다. 또한 한국 고대사와 관련된 그 지역의 ‘文化主體’를 보는 시각이 우리와는 뚜렷하게 차이가 있다. 발해의 건축문화도 같은 맥락에서 상호 이해되고 있다. 중국은 이미 13년 전인 2004년 集安과 桓仁지역 고구려유적을 자신들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였다. 최근에는 경제발전에 힘입어 발해 도성과 그 주변 유적에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정비·관리 중에 있다. 이 가운데 黑龍江省 寧安市 上京城, 吉林省 和龍市 西古城, 吉林省 琿春市 八連城은 발굴과 정비가 끝난 상태로 근년에 발굴보고서가 모두 출판되었다.¹⁾ 그 이후 각 도성유적은 부분적인 후속 발굴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고구려 유적은 북한과 중국이 동시에 세계유산으로 등재하여 공동의 문화유산이 되었지만, 만일 발해유적을 중국 단독으로 등재한다면, 발해는 중국의 역사와 문화가 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1)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延邊朝鮮族自治州文化局·延邊朝鮮族自治州博物館·和龍市博物館 編著, 『西古城』-2000~2005年度渤海國中京顯德府故址田野考古報告-, 文物出版社, 2007;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編著, 『渤海上京城』-1998~2007年度考古發掘報告書-, 文物出版社, 2009;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琿春市文物管理所 編著, 『八連城』-2004~2009年度渤海國東京故址田野考古報告-, 文物出版社, 2014.

渤海建築 研究 태도는 특정 주변 국가나 민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즉, 중원지역은 당과의 관계, 한반도지역은 고구려와의 관계이다. 발해는 국가가 성립된 후 唐과 日本과는 활발한 교류를 이루어 나갔지만, 남쪽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던 統一新羅와는 몇 차례의 공식적인 왕래가 있을 뿐 이렇다 할 외교관계는 이루지 못하였다. 이러한 발해의 공식적인 국제관계에 몰입되어 대부분의 기존연구는 당이나 고구려와의 문화적 교류나 繼承關係에만 역점을 두어왔다. 물론 발해는 당시 동북아시아의 맹주였던 당의 都城制度를 비롯한 선진의 상층 건축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반면, 살림집과 같은 기층 건축문화는 당시 그 지역의 토착세력이었던 고구려와 말갈의 주거문화를 그대로 따랐다.

발표자도 이와 같은 기존 입장과 시각에서 당과 고구려와의 건축적 관련성에 역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러던 중 최근 발해 도성이었던 서고성, 상경성, 팔련성 유적에서 보아 왔던 건축 기법과 기술들이 신라 땅 경주에서도 눈에 띄므로써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었다. 당시 대립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공식적인 관계가 수립되지 않았더라도 건축기술은 주변지역과 여러 방면에서 자의든 타의든 교류하게 되어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21세기 남과 북이 대치관계로 교류가 희박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끈이 지금도 이어져 있다.

발해 상경성 내 궁전건물 기단부 밖 바닥에는 돌못(石釘·散水釘)이란 건축부재가 사용되었다. 이는 추운 겨울 凍害로 바닥 臺石(板石)이 솟아오르는 현상을 막기 위해 땅 속 깊이 못을 박아놓는 건축기술의 한 방편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기법은 경주남산 창고터(中倉址) 축대, 감포 감은사지 중문 밖 축대, 불국사 본전 紫霞門 밑 축대, 월성 월정교 문루 밑 축대, 일정교 문루 밑 축대 등에서도 발견된다. 발해와 신라에 동질적 건축기술이 상호 존재했었음을 대변해 주는 사례라 하겠다.

또한 경주지역 석탑에서 세련미를 더하기 위해 석탑 옥개, 탑신, 기단 모서리에 사용되었던 合角線이 상경성 궁성 바닥돌(散水石)과 제1절터 주춧돌에서 보이고 있으며, 불국사 자하문 아래 청운·백운교 난간에서 보였던 隅棟이 혼춘 팔련성 궁전터에도 쓰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렇듯 문화는 자의든 타의든 자생적 요소를 바탕으로 내재적 발전을 해나가는 동시에, 외래적 요소의 유입과 내재적 요소의 유출을 거듭하는 가운데 문화적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발해는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그 후대의 요와 금나라에도 도성을 비롯한 많은 건축기술을 전승시켜 주었음이 점차 밝혀지고 있다.

이에 본 발표에서 추구하는 목적은 아직까지는 불과 몇 건에 불과한 발해와 신라의 건축기술 방면 동질성을 다루고 있지만, 앞으로 좀 더 많은 상호교류의 단서들을 찾아 나감으로써

발해건축의 정체성을 설정해 나가는 마중물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글의 전개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라의 발해의 상호관계를 살펴보았다. 둘째, 신라와 발해의 건축방면 동질성과 관련된 기존연구결과를 정리해 보았다. 발해와 한반도지역의 관계이니 만큼 북한에서 수행된 연구결과가 대부분이다. 셋째, 발표자가 발해와 신라 지역에서 찾은 상호 동질적인 건축기술 요소들을 제시해 보았다. 마지막 맺음말에서는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발해건축 연구에 있어 새로운 방향설정이 필요함을 제안해 보았다.

2. 신라와 발해의 상호관계

발해가 건국된 즈음 초기에는 신라에도 사신을 파견하였음이 崔致遠의 기록에 전하고 있다.²⁾ 大祚榮이 신라의 벼슬인 大阿飡을 제수 받았던 것이다. 당시 신라가 나당전쟁의 앙금으로 당과의 국교가 단절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이 주축을 이룬 발해로서는 당과 함께 고구려를 멸망시켰던 신라의 동향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신라도 나당전쟁 이후 평안했던 북방에 새롭게 등장한 ‘발해’라는 세력을 간과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신라 입장에서 발해의 세력이 한반도 지역으로의 南下와 발해를 견제해야 하는 당 입장이 부합하여 발해와 신라의 관계는 나빠지게 된다. 일본을 내세워 신라를 견제한 일, 발해가 登州를 공격한 이듬해인 733년 당과의 협공작전으로 발해를 공격한 일, 734년 다시 단독으로 발해를 공격하려고 시도한 일 등등. 일련의 양국 관계로 신라는 결국 735년 당이 패강(대동강) 이남의 영유권을 인정하게끔 하였다. 발해와 신라의 국경선이 결정된 셈이다. 이렇듯 발해↔당↔신라는 각각의 이해에 따라 서로 견제해 나가는 관계였음을 알 수 있다.

‘羅唐聯合’에 의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삼국을 통일했다고 자부하는 신라와 고구려 유민이 말갈족을 규합하여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자부하는 발해는 기본적으로 대립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다. 양국 간의 잠재적인 대립 의식은 발해의 세력 남하로 점차 드러나기

2) 『東文選』, 卷33 表箋 ‘謝不許北國居上表’

시작하였다. 급기야 당의 요청에 의해 신라가 발해를 공격함으로써 전면화 되었다. 이에 따라 신라는 발해를 점차 이질적인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물론 신라 지배층인 진골 귀족들에 국한한다. 건축을 비롯한 전반적인 문화와 경제적 교류는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이후 양국 간의 교류에도 불구하고 진골 귀족들의 발해에 대한 배타적인 인식은 발해 멸망 이후 한국사가 한반도에 국한되어 전개됨에 따라 한국 중세 사회에 그대로 계승되었다. 유득공의 ‘南北國時代論’으로 대표되는 발해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중세 사회의 해체기에야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³⁾

3. 신라와 발해의 건축기술 동질성 기존연구결과

1) 한국고대건축사 부문에서 남북한의 시대구분 견해차

한국건축에 대한 시대구분 방법은 크게 ㉠우리나라 역대왕조를 기준으로 한 구분 방법과 ㉡고대→중세→근대로 나누는 三分法的 구분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⁴⁾ 위의 두 방법은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시대구분 방법을 채용하든 남한과 북한의 고구려 및 발해건축에 대한 입장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한에서는 삼국시기인 고구려, 백제, 신라는 상호 교류를 통하여 독자적인 건축기술을 정착시키게 되었고, 백제와 신라의 고구려 척 사용 흔적이나 백제의 장인 아버지가 황룡사구층 목탑 건립에 참여한 사실 등으로 보아 삼국이 교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⁵⁾고 하여 건축기술적 교류는 동등한 관계에서 상호 이루어졌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한에서는 남한의 일반적인 시대구분 개념인 ‘통일신라시대’를 부정하고⁶⁾ ‘발해 및 후기신라시대’라 하여 고구려→발해를 중

3) 동북아역사재단 편, 『발해의 역사와 문화』, 동북아역사재단, 2007, 143~148쪽 내용을 요약·정리 하였다.

4)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技文堂, 1997, 11~15쪽.

5)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통사』, 기문당, 2014, 174쪽.

6) 최근에 출판된 위의 『한국건축통사』는 삼국시대를 ‘전기고대’로 통일신라시대를 ‘후기고대-남북국시대’로 설정하여 점차 건축역사학계도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공론화되지 못했다.

심으로 하는 시대구분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⁷⁾ 즉, 고구려→발해→고려로 이어지는 한국역사의 무게중심을 북쪽으로 맞추려는 의도이다. 북한에서는 고구려 및 발해와 관련된 많은 고고조사보고서와 단행본이 출판되었는데, 주장은 일관되게 남북분단 후 지금까지 ‘北國重心論’에 방점이 찍혀있다.

삼국시대인 세 나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관련 글 가운데 리정남의 논문 「삼국시기 수도형식에 관한 연구」를 보면,⁸⁾ 먼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수도형식을 유적현황과 발전과정에 대한 내용을 먼저 기술하고 마지막 결론부에서는 고구려가 “위 두 나라 도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로 글을 맺고 있다. 이뿐 아니라 북한에서 나온 대부분의 건축 관련 글들은 동일한 전개 순서를 따르고 있다. 이렇듯 북한에서는 북국인 고구려의 영향과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즉, 한반도 남측보다는 고구려를 비롯한 북측 영향력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북한의 발해건축 관련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장상렬의 글 「발해건축의 역사적 위치」를 살펴보겠다.⁹⁾ 글은 두 개의 편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편에서는 발해건축 유산에 대한 자료들을 분류 체계화하고 공통점을 찾으면서 당시에 크게 발달한 발해건축의 모습을 입증하려 하였다. 제2편에서는 당시의 주변 다른 나라 건축과의 대비를 통해 앞에서 살펴본 공통점들이 발해건축의 특성이 된다는 것을 밝히고, 그 역사적 위치와 관련한 발해건축의 몇 가지 특성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발해건축을 고구려, 통일신라 및 고려건축과 대비함으로써 발해건축이 우리나라 민족건축 유산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위치를 밝혀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임을 논증하였다. 글의 결론은 건축방면에서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하였고, 이를 고려에 전승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 전개는 모든 건축 관련 단행본과 논문들에서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

2) 기존연구결과

본 논문의 주제인 신라의 발해의 건축기술 동질성을 다룬 기존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⁰⁾ 장상렬이 제시한 발해와 통일신라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7)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5』 중세편 발해 및 후기신라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8) 리정남, 「삼국시기 수도형식에 관한 연구」, 『고고학연구논문집19』, 사회과학출판사, 2011.

9) 장상렬, 「발해건축의 역사적위치」, 『고고민속논문집3』, 사회과학출판사, 1971.

10) 본 절의 내용은 다음 부분을 축약 정리하였다. 장상렬, 「발해건축의 역사적위치」, 『고고민속논문집 3』, 사회과학출판사, 1971, 162~164쪽.

① 발해와 통일신라는 城市(도시)를 계획하는 원칙이 동일했다. 통일신라의 모습이었던 경주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里坊’을 바둑판 모양으로 조직하였으며, 리방들 사이에는 큰 것과 작은 것이 하나씩 건너 엇바뀌어 놓였고, 큰 길들 사이에 두고 4개씩 단위를 이루어 ‘田’모양으로 묶여 있었다. 당시 동양의 도시들은 바둑판 모양으로 리방을 조직하였으나, 이렇게 4개씩을 단위로 묶은 것은 드물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독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고구려 평양성, 발해 상경용천부 등에서도 볼 수 있으며, 이 원칙은 이후시기 다른 나라에도 전해졌다.

② 통일신라에서는 발해와 마찬가지로 돌을 많이 썼고 잘 다루어 건축물을 튼튼하게 하였다. 신라 왕궁이었던 경주 월성의 성벽은 돌과 흙을 섞어 쌓은 것이고, 그 주변에 있는 명활산성, 선도산성, 남산신성¹¹⁾ 등은 모두 돌로 쌓은 것이다.

③ 무덤을 쌓는 방법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통일신라의 돌칸흙무덤과 돌곽무덤은 고구려나 발해의 돌칸흙무덤과 구조상 같은 계열의 것이고, 돌곽흙무덤도 돌을 기본으로 썼다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다.

④ 발해와 통일신라는 돌로 쌓은 지하구조물 축조에도 공통적인 수법을 썼다. 당시 돌로 우물을 쌓는 풍습을 발해에서 보았는데 이러한 돌우물이 경주를 비롯한 신라 여러 유적에서도 확인된다. 이 가운데 우물 마감 테두리를 팔각으로 한 것이 발해 상경성 제2궁전터 옆의 팔보유리정을 그대로 연상케 한다. 발해의 돌우물은 땅 속에 병 모양의 역학적 곡선을 지어 견고성을 높인 데 특색이 있다. 신라에서도 침성대와 같이 돌로 역학적 곡선을 지은 구조물을 쌓았다. 통일신라에서는 이러한 기술에 기초하여 석굴암과 같은 커다란 지하구조물까지 만들게 되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석굴을 만들 때 바위를 뚫거나 자연동굴을 이용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와 다르게 주로 돌로 구조물을 쌓고 그 위에 흙을 덮는 형식을 취하였다. 이것은 고도의 역학적 지식이 요구되는 석굴의 천장과 같은 구조물을 다룰 수 있는 기술적 토대와 경험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것은 신라와 발해가 기술발전 수준에서도 대등하였으며, 서로 교류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⑤ 통일신라에서는 집을 지을 때 돌을 많이 썼는데 그 솜씨가 발해와 통하는 점이 많았다. 경주 성동리 전랑지나¹²⁾ 감은사지를 보면 주춧돌에 기둥밑받치개(주좌)를 둥글게 새기고, 거

11) 본문에는 ‘남산성’이라 하였으나 남산에는 ‘南山土城’과 ‘南山新城’의 두 곳이 있다. 돌을 주로 사용하여 쌓은 것은 남산신성이다. 따라서 ‘남산신성’이라 정정 명명한다.

12) 본문에는 ‘경주 석동리건축지’로 서술되어 있으나, ‘경주 성동리 전랑지’로 명명된 곳을 지칭하는 것 같다.

기에 벽선까지 나타냈으며, 그 밑에는 주추자리돌(적심)을 깔았는데 이것은 발해의 것과 다를 바 없다. 뿐만 아니라 신라의 도성¹³⁾ 바닥돌 걸면을 두 층으로 하고, 모서리 것은 ‘ㄱ’ 모양으로 다듬은 것이나, 밑에 놓인 돌에 홈이나 구멍을 내어 그 윗돌이 밀려나지 않게 한 수법에 이르기까지 발해와 비슷하다.

⑥ 발해의 상경 돌등과¹⁴⁾ 신라의 석탑 특히 불국사 다보탑과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상경 돌등과 불국사 다보탑은 모두 동시대인 8세기 중엽에 만들어졌다. 전반적인 균형을 잘 맞추면서 동시에 지붕의 요소들과 곡선까지도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받침대(기단)는 모두 두 층으로 하였는데, 이는 석탑에서 목탑의 모습이 점차 사라져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보탑에는 팔각형의 요소들이 많고 거기에 원형, 삼각형, 사각형 등이 결합되었다. 다보탑에서도 (하층기단) 한 변의 너비가 구도의 기준크기(기본모듈)를 이루고 있다. 다보탑은 바닥돌(하층기단)의 한쪽 길이를 한 변으로 하는 정팔각형을 그리면 바닥돌(하층기단)부터 그 대응변까지의 거리가 탑의 높이가 되며, 지붕들의 높이는 바닥돌(하층기단)의 한쪽 길이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리면 바닥돌(하층기단)부터 그 대응변까지의 거리가 지붕돌이 시작되는 높이가 되며, 이곳에서 위로 정삼각형을 작도했을 때 그 꼭짓점 위치가 지붕들의 높이와 맞먹는다. 그 위는 상륜부이다. 다보탑에서는 위로 올라가며 요소들의 크기를 차츰 줄여 일정한 체감을 나타냈으며, 1층 부분에서 기둥으로 둘러싼 부분과 그 윗부분을 적절히 대조시켰다. 이상의 모든 것들이 발해 석등과 매우 유사하다.

⑦ 원과 다각형을 원활하게 배합하여 구조물을 완성한 예는 석굴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석굴암 각 요소들의 생김새, 크기, 그들 사이의 거리는 圖形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이루어 놓은 걸작이라 할 수 있다.

⑧ 통일신라는 발해와 동일한 크기의 자(척도)를 썼다. 553년에 건축된 황룡사는 고구려와 같은 크기의 자(尺)로 지은 것이다. 백제 사람들이 고구려 자를 받아 쓴 사실을 고려한다면 신라에서도 고구려 자를 그대로 썼을 것이다. 황룡사는 경주 도시계획 일원에 소속되어 몇 개의 리방을 차지하며 서있었다. 따라서 경주 도시계획에 활용된 자도 고구려 척도를 기초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자’는 그대로 통일신라로 넘어가 682년에 준공된 감은사 건설에도 쓰였다.

13) 본문에는 ‘도성’이라 되어 있는데 문맥상 ‘도성’인 듯하다.

14) 발해 상경성 제2절터였던 지금의 興隆寺 대웅전 앞에 있는 석등이다.

⑨ 발해와 통일신라는 건축부재에서도 공통점이 많다. 발해에서 독특하게 발전한 곱새기와 신라에서도 나타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또한 경주 천군리사지나 기림사에서 나온 치미¹⁵⁾를 보면 몸체와 깃 그리고 치레의 생김새가 발해의 것과 매우 비슷하다.

⑩ 신라 벽돌은 방형벽돌, 장방형벽돌이 주이며, 무늬는 대부분 연꽃무늬와 넝쿨무늬로 되어있다. 벽돌은 전체적으로 보아 발해의 것과 비슷하다. 이 가운데서도 방사형으로 뻗은 연꽃무늬를 중앙에 두고 네 모서리에 넝쿨무늬를 새긴 벽돌은 발해의 것과 같은 것이다. 통일신라에서는 장방형벽돌을 활용하여 물도랑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수법 또한 발해와 별로 다를 바 없다.

이상 장상렬이 제시한 발해와 신라의 건축방면 공통점을 보면 都市計劃(①), 石材의 活用度(②), 무덤 築造方法(③), 地上과 地下의 石造構造物 造形技術과 藝術性(④·⑤·⑥·⑦), 同一한 尺度(⑧), 同類의 建築部材(⑨·⑩)로 분류할 수 있다. 쉽게 이해되어 수궁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건축기술의 보편성을 양 지역만의 특수성으로 인식한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각 사항별로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도 있다.

발표자가 생각하는 앞으로 남은 향후과제는 첫째, 이미 제시된 공통성 증거들이 과연 진정성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인지를 하나하나 밝혀나가야 하며, 부족한 사항에 대한 입증자료를 찾아내어 보완하거나 다시 규명해 나가는 작업이다. 둘째, 기존연구결과는 1970년대까지의 발굴성과를 기초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 이후의 연구나 발굴결과를 토대로 동질성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자료들이 있는지를 추적해 나가는 작업이다. 경주를 비롯한 신라유적은 대한민국의 고고학 분야 역량 강화로 근래 괄목할만한 발굴성과가 도출되었다. 발해유적도 중국의 경제발전에 힘입어 서고성, 상경성, 팔련성 등 많은 유적이 발굴되었고 보고서도 출간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발해건축 관련 보고서를 深層分析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80년대 이후 북한의 발굴성과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새로운 동질적인 요소를 탐색해 보겠다.

15) 본문에는 '지림절터'로 서술되어 있으나 경주 기림사(祇林寺)에서 출토된 화강암재 치미로 판단된다.

4. 발굴보고서로 분석해 본 건축기술 상관성 탐색

1) 돌못(石釘)

흑룡강성 영안시 발해진에 있는 발해 상경성은 외성, 황성, 궁성으로 이루어진 三重城이다. 발해의 역사 229년 가운데 150여 년을 도읍으로 했던 만큼 당시의 건축기술이 녹아있을 것이다. 제일 뒤편에 자리한 궁성 내 중궁에는 정문인 五鳳樓를 통과하면 제1궁전부터 제5궁전까지 5개의 건물이 일렬로 배열되어 있었다.

5개의 궁전은 높은 기단 위에 조영되어 있었다. 기단은 상경성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현무암으로 마감되었다. 기단 밖 바닥은 건물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물 피해를 막기 위해 바닥에 판석(板石)이나 벽돌(磚)을 깔았는데, 중국 발굴보고서에는 이를 ‘산수(散水)’라 하였다. 또한 이 散水가 밖으로 밀리거나 위로 솟아오르지 못하도록 그 사이사이에 수직으로 ‘돌(石)’이나 ‘전(磚)’을 박아 놓았는데 이를 ‘散水釘’이라 하였다.¹⁶⁾ 散水와 散水釘 재료는 돌(현무암)이 대부분이지만, 제3궁전 경우는 돌 대신 벽돌로 이를 대신했다. 각 건물에 따라 재료가 달랐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상경성 궁성 제2궁전 북벽 바닥에 깔린 제유형 散水시설(2016년 4월 촬영)

16) ‘散水’에 대한 적당한 이름이 없어 중국 명칭을 그대로 쓰고자 한다.

散水 재료로 돌을 사용한 제2궁전터의 산수 조영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단 네 벽 아래 바닥에는 散水가 있는데, 그 높이는 土襯石과 대체로 같다. 시설된 산수는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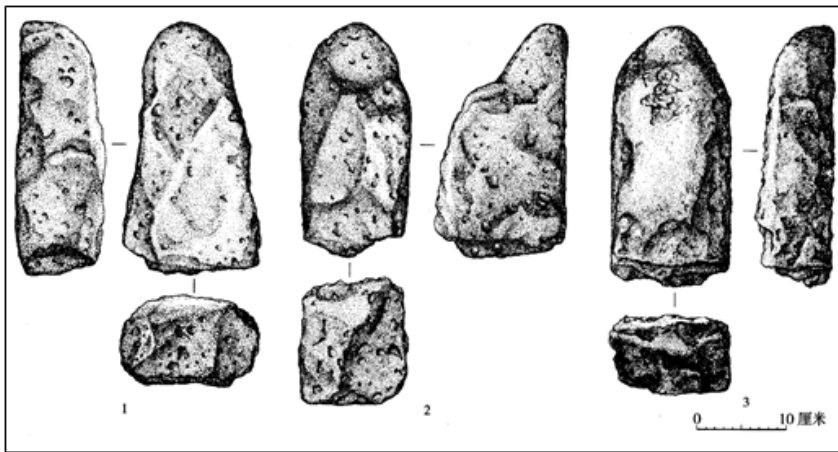
① 제1유형 : 북벽 아래, 즉 궁전 뒤 중앙에 있는 踏道 서쪽에 있으며,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단 마감벽(包壁) 아래에 있는 土襯石에 인접한 부분에 너비 0.3m의 현무암으로 만든 ㉠판석(板石)을 평평하게 깔고, 그 바깥쪽에 너비 0.12m의 현무암으로 만든 ㉡산수아자(散水牙子)를 묻었다. 산수아자와 서로 맞물리는 부분에 현무암으로 만든 ㉢산수정(散水釘)을 박아 고정시켰다. 산수정은 옆에서 보면 직각 사다리형태이다. 안쪽 면(건물을 향하고 있는 방향)은 평평하고, 위에서 보면 반원형으로 생겼다. 산수정 바깥쪽으로는 너비 0.2m의 현무암으로 만든 장방형 ㉣판석을 끼워 넣었다. 안쪽 면은 곡선 형태로 양쪽 모서리를 잘라내어 散水釘 머리가 드러나게 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산수 너비는 판석+산수아자+판석=0.3+0.12+0.2=0.62m이고, 여기에 산수와 연결되어 있는 토친석 중 바깥쪽으로 드러난 부분 너비가 0.1m이므로 기단 포벽에서부터 0.72m가 전체 산수 너비가 되는 셈이다.

② 제2유형 : 제2궁전터 散水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다. 궁전 본채건물 동·남·서쪽과 궁전 뒤 중앙에 있는 답도 동쪽부분에서 모두 이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제2유형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단 土襯石에 인접한 부분에 너비 0.3m의 현무암으로 만든 ㉠판석(板石)을 평평하게 깔고, 그 바깥쪽에 너비 0.12m의 현무암으로 만든 ㉡산수아자(散水牙子)를 묻었다. 산수아자와 서로 맞물리는 부분에 현무암으로 만든 ㉢산수정(散水釘)을 박아 고정시켰다. 散水釘의 머리는 첫 번째 유형 산수정 보다 크며, 무늬가 있는 것도 있다. 이러한 유형의 산수 너비는 판석+산수아자=0.3+0.12=0.42m이고, 여기에 산수와 연결되어 있는 토친석 중 바깥쪽으로 드러난 부분 너비가 0.1m이므로 기단 포벽에서부터 0.52m가 전체 산수 너비가 되는 셈이다.

제2유형 산수는 제1유형에서 산수아자와 산수정 바깥쪽의 장방형 판석(제1유형의 ㉣판석)이 없는 경우이다. 비록 제1유형처럼 반듯한 판석은 보이지 않으나, 궁전 남동쪽에 있는 踏道 동쪽의 산수에서는 확인된다. 광장에 깔 黃沙 아래에서 산수아자의 바깥쪽을 발견하였는데, 다듬지 않은 현무암 판석을 끼워 넣었다. 크기가 일정하지 않으며, 자연 상태 그대로 깔았다. 그 너비는 약 0.2m이다. 따라서 두 가지 유형의 산수는 구조적으로 서로 같지만 다듬는 방식에 차이점이 있다. 아마 제1유형의 산수는 전체가 밖으로 드러난 것이고, 제2유형의 산수는 앞부분이 가려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판석(㉣판석)의 가공된 상태로 봐서 두 유형은

조영시기가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¹⁷⁾

산수석을 바닥에 깔면서 돌과 돌 사이가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돌못을 사용한 것이다. 빗물로 느슨해진 땅바닥을 잡고 있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추운 겨울 동해(凍害)로 바닥이 치솟아 오르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일 것이다. 산수 판석 보다 깊게 박아놓을 수 있을 만큼 길다. 발표자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북아시아 도성 가운데 이렇듯 돌못을 사용한 예는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했다.



〈그림 2〉 상경성 제2궁전터 출토 바닥 散水 돌못

(자료 :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編著, 『渤海上京城』, 文物出版社, 2009, 218쪽 圖一五九)

1930년대(일본 발굴)와 1960년대(북한·중국 발굴) 발굴보고서에는 돌못에 대한 언급이 없다.¹⁸⁾ 제2궁전터 경우 1990년대 중국이 발굴하기 전에는 가장 많이 파괴되었던 건물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상경성뿐 아니라 팔련성에서도 돌못이 발견되었다. 팔련성에서는 돌못과 벽돌못이 동시에 출토되었는데, 대부분 산수아자 밖에서 대석을 고정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돌못은 제2호 건물지 主殿 동서 양측 계단 및 제1호와 제2호 건물 사이의 회랑 계단터에서 발견되었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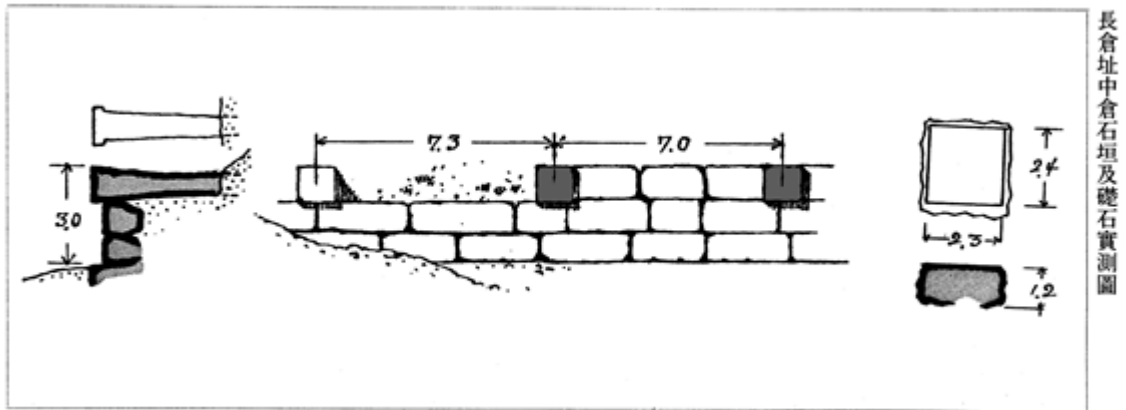
17)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編著, 『渤海上京城』-1998~2007年度考古發掘報告書-, 文物出版社, 2009, 29~30쪽.

18) 原田淑人, 東方考古學叢刊 甲種第五冊 『東京城』, 渤海國上京龍泉府址의 發掘調査, 東亞考古學會, 1939; 조중공동고고학발굴대, 『중국동북지방의 유적발굴보고(1963~1965)』 사회과학원출판사, 1966

19)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琿春市文物管理所 編著, 『八連城』-2004~2009年度渤海國東京故址田野考古報告-, 文物出版社, 2014, 132, 306쪽.

한편 신라 경주지역에도 南山新城 中倉址, 불국사 대웅전 영역 축대, 月精橋 양쪽 남·북 누각 밑 축대, 日精橋 축대(지금의 경주박물관 천변 축대), 감은사지 중문 앞 축대, 석굴암 본전 지붕 등 여러 곳에서 돌못이 사용된 경우를 찾을 수 있다.

경주 南山新城 中倉址에는 여러 개의 주춧돌과 함께 건물 기단 및 축대 일부가 남아있다. 노출된 축대 면석 중간 중간에 수평으로 2.1~2.2m(7.0~7.3尺) 간격으로 두툼한 머리를 가진 돌못이 박혀있다. 썩기 역할을 하는 석재이다. 돌못의 크기는 가로×세로×두께가 0.69×0.72×0.36m(2.3×2.4×1.2尺)이다. 길이는 약 1.5m 내외 정도이다. 물론 발해 상경성 제2 궁전터에서 보이는 돌못(散水釘)과는 성격이 약간 다르다. 상경성 돌못은 凍害로 인한 바닥 들뜸이나 건물 기단이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수직으로 박은 경우이지만, 남산신성 중창지 돌못은 土壓으로 축대가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평으로 박아놓은 것이고 길이도 훨씬 길다. 그러나 못을 사용하여 밀림, 들뜸을 방지하는 효과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 경주 남산신성 창고지 중창터 축대에 박힌 돌못

(자료 : 열화당 편집부, 경주남산의 불적(영인본), 열화당, 1994, 圖版第一一)



〈그림 4〉 경주 남산신성 中倉址 축대 돌뭉(2015년 4월 촬영)

경주 불국사 본전이 있는 극락전 구역 安養門 前面 가구식 기단으로 이루어진 축대와 대웅전 구역 紫霞門 前面 가구식 기단으로 이루어진 축대에도 많은 돌뭉이 사용되었다. 돌뭉은 감잡이 역할을 하여 석재를 쌓는 중간 중간에 머리를 돌출시켰다. “목조의 보뺨목과 같은 구조적인 기능을 가질 뿐 아니라, 외관에 변화를 가져오며, 간명하고 장중한 감을 준다.”²⁰⁾고 평가되고 있다. 남산신성이 토사 붕괴에 중점을 둔 반면, 불국사 축대 돌뭉은 가구식 기단의 틀을 견고히 하는 동시에 의장적 효과를 더한 경우라 하겠다.



〈그림 5〉 경주 불국사 본전 구역 아래 가구식 축대(2015년 5월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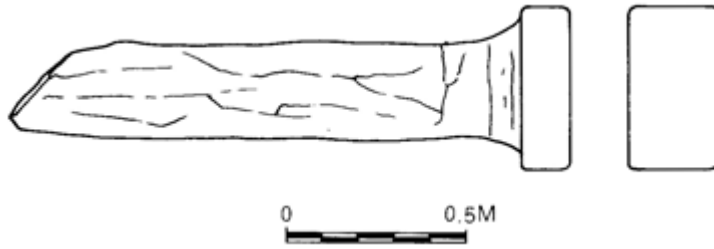
20) 윤장섭, 『한국의 건축』,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210~211쪽.

돌뭇은 감은사지 중문 밖 축대에도 사용되었다. 감은사는 경상북도 양북면 이견대와 대왕암이 있는 동해바다에 이르기 직전의 산기슭에 있는데, 높은 축대 위에 거대한 삼층석탑이 금당 앞 좌우에 서 있으며, 그 앞은 동남으로 대종천이 흐른다. 금당터는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데, 특이한 것은 높은 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주춧돌 밑에 지하공간을 구성하고, 장대석을 마루식으로 덮은 후, 그 위에 주춧돌과 대석을 놓아 건물을 조영하였다. 중문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높은 축대로 난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데 평지가람과는 달리 미절개 부분은 산지의 경사면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항상 산사태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절개 면에 석축을 쌓아 경내의 부지를 보호하고자 했다. 가람 四面 모두에 축대를 쌓았는데 동편과 남편 석축은 경내 부지의 유실을 막기 위해 설치했던 것으로 판단된다.²¹⁾ 또한 이 지역이 바다와 가까워 침습의 우려로 매우 견고한 축대가 필요했던 것으로도 보인다. 여기에서도 굽은 머리를 가진 돌뭇을 축대 중간 중간에 박아 넣어 토압에 견디도록 하였다. 불국사와 마찬가지로 중문을 오르기 전 가람 전체의 의장적 효과도 의도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 감은사지 중문 앞 축대(2016년 3월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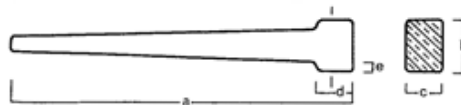
21)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慶州市, 『感恩寺 發掘調査報告書』,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1997, 138쪽.



〈그림 7〉 감은사지 축대 돌뭇 실측도(『感恩寺 發掘調査報告書』, 139쪽)

축대는 바른층쌓기로 하여 현재 8단에 2.53m의 높이로 남아 있으나 원래는 남아 있는 석축보다 1~2단이 더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4단까지 쌓고 5단과 8단에는 머리에 턱을 만든 돌뭇(심석)을 1.1~1.3m 간격으로 배치하였다. 돌뭇은 아랫단과 윗단이 서로 엇갈려 물리도록 전면에 6개, 측면에 4개를 배치하여 장대석이 돌뭇 머리에 걸려 빠져나가지 않도록 견고하게 쌓았다. 돌뭇은 25cm의 직사각형 머리를 가진 길이 150cm의 크기로 머리끝에서 10~15cm 들어와서 10cm의 턱을 만들고, 뒤초리는 다듬지 않은 상태로 두었다.²²⁾

신라의 궁궐이었던 경주 월성을 드나들었던 月精橋 남과 북 橋臺 밑 축대에도 돌뭇의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이곳의 돌뭇도 남산신성, 불국사, 감은사지 것과 거의 동일하다. 남과 북측 橋臺의 좌우 날개벽 석축에 사용된 석재로 한 단의 턱을 두어 만든 머리부분과 긴 꼬리부분으로 되어있다. 이 석재를 높게 쌓은 축대에 드문드문 박아 토압에 의한 석축붕괴를 방지하려는 이상적인 조영방법으로 보인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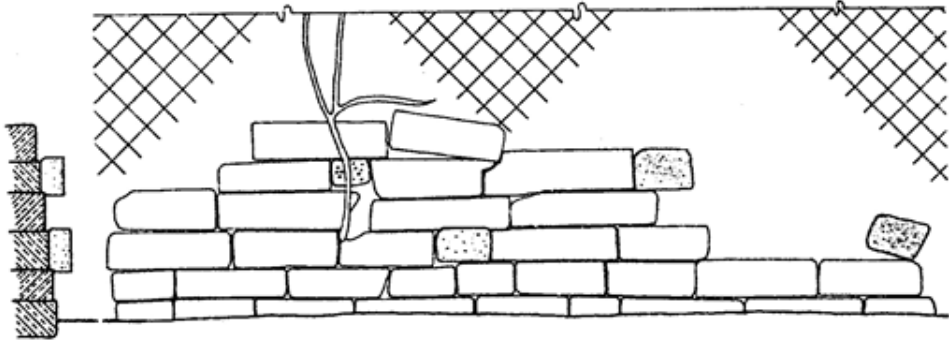
NO	a	b	c	d	e
3074	2020	390	360	330	0
3277	1760	390	450	220	0
3564	(1520)	370	300	280	0
3163	(730)	380	380	-	-
3392	(540)	390	340	130	20
3386	(480)	540	270	160	60

〈그림 8〉 월정교지 출토 돌뭇 실측표(단위 : mm)(『월정교』, 125쪽)

22)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慶州市, 『感恩寺 發掘調査報告書』,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1997, 139쪽.

23) 慶州古蹟發掘調査團, 『月精橋』發掘調査報告書, 文化財研究所, 1988, 124쪽.

月精橋 뿐 아니라 경주박물관 쪽에 있는 日精橋에도 돌מות이 사용되었음이 현 유적에서 확인되었다. 일정교 돌מות과 같이 가로가 약간 긴 장방형의 마구리가 석축면에서 18cm 가량 돌출되어 있어 구조적인 동시에 의장적인 면도 고려된 것으로 보고 있다.²⁴⁾



〈그림 9〉 日精橋 동측교대쪽 석축 입단면도(『日精橋址』, 13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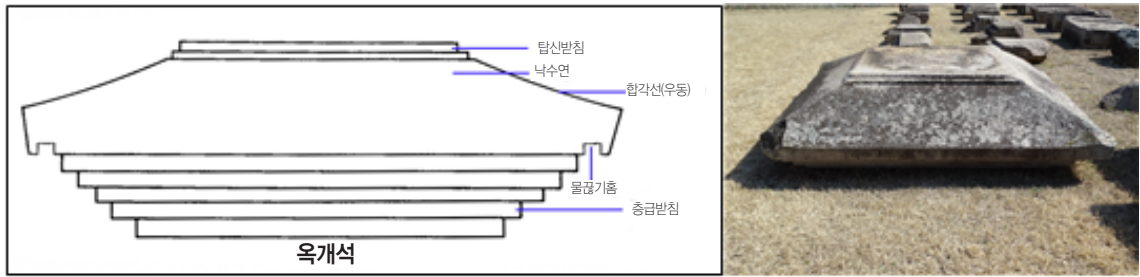
이렇듯 남산신성, 감은사지, 불국사, 일정교지, 월정교지 등 경주의 여러 지역에서 돌מות이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 경주지역에 사용된 돌מות은 발해 상경성 경우처럼 수직으로 박은 것이 아니라, 수평으로 박아 빗물에 의한 토압으로 축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방지하거나 축대를 가구식으로 구성하여 틀을 튼튼하게 구축함과 동시에 밋밋한 축대 면에 변화를 주는 의장적인 효과를 동시에 누리기 위한 것이었다. 즉, 발해와 신라는 돌מות을 사용한 건축기술 측면에서 同質性을 가지고 있지만, 못을 박는 방향이 수직이냐 수평이냐가 달랐다.

2) 합각선 · 우동(合角線 · 隅棟)

‘합각선’이라 함은 석탑의 옥개석(지붕돌) 상면에서 지붕과 지붕이 맞닿는 선으로 ‘우동(隅棟)’이라고도 한다.²⁵⁾ 그런데 이 합각선이 옥개석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석탑 기단부의 지대석과 갑석, 심지어 탑신 괴임대에도 새겨져 있는 탑들이 있다. 또한 탑이 아니라 건물에서도 바닥 대석 모서리나 계단 난간 모서리 甲石(처마석)부분에서도 보여 합각선은 돌을 많이 활용한 한반도 지역 건축기술 가운데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다.

24) 三成建築士事務所, 『月精橋址 發掘調査 및 復元設計報告書』, 慶州市, 1986.12, 113~114쪽.

25) 박경식, 『한국의 석탑』, 학연문화사, 2008, 52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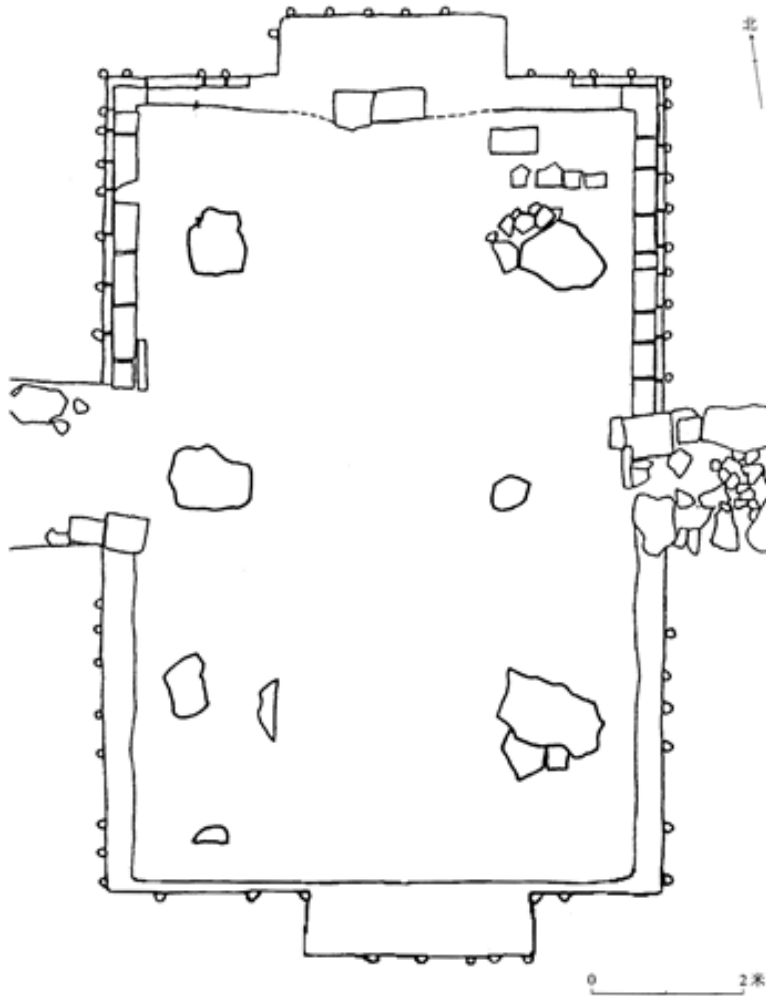
〈그림 10〉 옥개석 세부명칭도와 이거사지 삼층석탑 일층옥개석(경주남산 傳 염불사지)

앞 절(3. 2) 기존연구결과)에서도 언급된바와 같이 당시 신라는 돌 다루는데 있어 매우 세련된 기술이 내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주남산에 남아있는 석탑, 불상, 건물터의 건축부재 등지에서 지금도 이를 실견할 수 있다.

석조기술 가운데 방형의 석탑 조영에서 기단이나 옥개석을 만들 때 사각형 모서리를 90°각이 아닌 예각으로 처리하고, 두께를 위치에 따라 달리하여 모서리 부분을 좀 더 날렵하게 보이게 하였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모서리에 45°로 선을 새겨 넣어 정돈되어 보이게 造型美를 보태었다. 이것도 합각선·우동이라 할 수 있다.

발해 상경성에서 합각선을 확인한 곳은 궁성 내 제2궁전터 구역이다. 제2궁전 본채 좌우로 전방 제1궁전과 연결되는 회랑이 있는데, 그 회랑 양 모서리에 동·서액문(東·西掖門)이 있다. 양 액문 가운데 서액문은 제2궁전 기단 서쪽에 있다. 액문 기단의 동서 길이(散水石 있는 부분까지)는 7.4m, 남북 길이는 12.5m이며, 높이는 0.45m이다. 네 벽을 둘러싼 돌은 발견되지 않았다. 액문 주변에는 散水石이 깔려있는데, 그 주변에는 돌못(散水釘)이 박혀있다. 돌못 안쪽으로는 너비 0.12~0.15m에 달하는 散水牙子가 깔려있는데, 돌못이 두 산수아자 사이, 즉 이음매에 자리했다. 산수아자 안쪽으로는 너비 0.3m에 달하는 바닥대석(板石)이 깔려있다. 남쪽변의 산수는 파괴되었지만 북쪽변의 산수는 보존상태가 좋다.²⁶⁾

26)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編著, 『渤海上京城』-1998~2007年度考古發掘報告書-, 文物出版社, 2009, 39쪽.



〈그림 11〉 상경성 제2궁전 서액문 평면도(자료 : 『上京城』, 40쪽)

북쪽변 산수석 양 모서리는 정교하고 아름답게 조각되어 있는데 여기에 모서리에 놓이는 귀틀석(모서리용 ‘ㄱ’형태의 散水牙子) 안쪽 바닥 판석에 합각선이 표현되어 있다. 오른쪽 것은 단순하게 45°의 합각선만 새겨 놓았지만, 왼쪽 것은 선을 밖으로 가며 점차 턱을 높게 두어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였다. 합각선이 그어진 부분은 도드라지게 하였고, 그 주변은 낮은 형태를 이루어 배수에 도움이 되게 하였다. 본체가 아닌 액문에 이러한 고급의 합각선을 표현했다면, 다른 중요건물에도 이러한 건축기술이 베풀어져 있었을 것이다.



〈그림 12〉 상경성 제2궁전 서역문 발굴사진(북→남)

(자료 :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趙虹光 編著, 『渤海上京城存真』, 科學出版社, 2014, 39쪽.)



〈그림 13〉 서역문 서편모서리 발굴정리후(왼쪽)와 복원후(오른쪽사진)

길림성 훈춘(琿春)에는 몇 년 동안 발해의 도읍 역할을 했던 팔련성 유적이 있다. 발굴보고서에 따르면 제1호건물지 기단 모서리 부분에도 합각선이 매우 입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합각선이 보이는 부분은 제1호건물지 동벽과 북벽이 만나는 모서리 기단 면석 밑 地臺石에 표현되어 있다.²⁷⁾ 상경성에서 본 합각선과도 다르게 크고 두툼하게 표현되어 있어 모서리를 강조

27)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琿春市文物管理所 編著, 『八連城』—2004~2009年度渤海國東京故址田野考古報告—, 文物出版社, 2014, 圖版—0~—1.

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된다. 가장 중요한 제1호건물지 모서리에서 이러한 합각선이 드러났다는 것은 합각선 표현이 발해에서는 매우 격식 있고 고급의 건물에 행해졌던 발해의 건축기술임을 알리는 것이다.

1. 第一号建筑址殿基台基东壁
(东北—西南)



〈그림 14〉 상경성 제1호건물지 기단부(『八連城』圖版一一)



〈그림 15〉 팔련성 제1호건물지 기단부 모서리 합각선(2014년 11 촬영)

두 발해 도성유적에서 찾아낸 합각선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모습이 신라 땅 경주에서도 보이고 있어 흥미롭다. 발표자가 찾은 건물지에 표현되어 있는 유적은 경주 남산 창림사지 건물터, 사천왕사 단석터, 황룡사지 옆 건물 기단부, 불국사 대웅전 영역의 청운교와 백운교 위와 계단참 아치교 상부 난간 甲石(처마석) 등에서이다.

昌林寺는 『三國遺事』 기록에 의하면, 朴赫居世와 闕英왕비가 태어난 후 이곳에 궁궐을 지어 13년 간 살았다는 기록이 있어 사찰이 건립되기 전 궁궐이었으나, 그 이후 어느 시기에 궁궐이 ‘昌林寺’란 절로 변경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신라 역사 가운데 매우 이른 시기부터 건물이 조성된 곳이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절 전체 지형은 상·중·하 모두 3단으로 나누어진다. 제일 서쪽인 하단은 남북 60m, 동서 26m 규모로 추정되며, 현재 목 없이 남쪽을 향한 雙龜趺와 서쪽을 향한 장대석 3기, 주위에는 주춧돌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중단은 남북 52m, 동서 30m로 주춧돌과 장대석이 있고, 상단은 복원된 삼층석탑이 있는 곳이다. 이 삼층석탑은 2015년 3월 보물로 지정되었다.²⁸⁾



〈그림 16〉 경주 창림사지 발굴현장의 바닥 대석 합각선(2015년 3월 촬영)

합각선이 확인된 곳은 下段 구역으로 中段과의 경계 부근이다. 건물의 기단 모서리에 깔려 있던 장대석인데 45°로 사선이 그어져 있어 정제된 완결미를 표현해주고 있다. 상경성 제2궁

28) 2014년 7월 30일, 2015년 3월 9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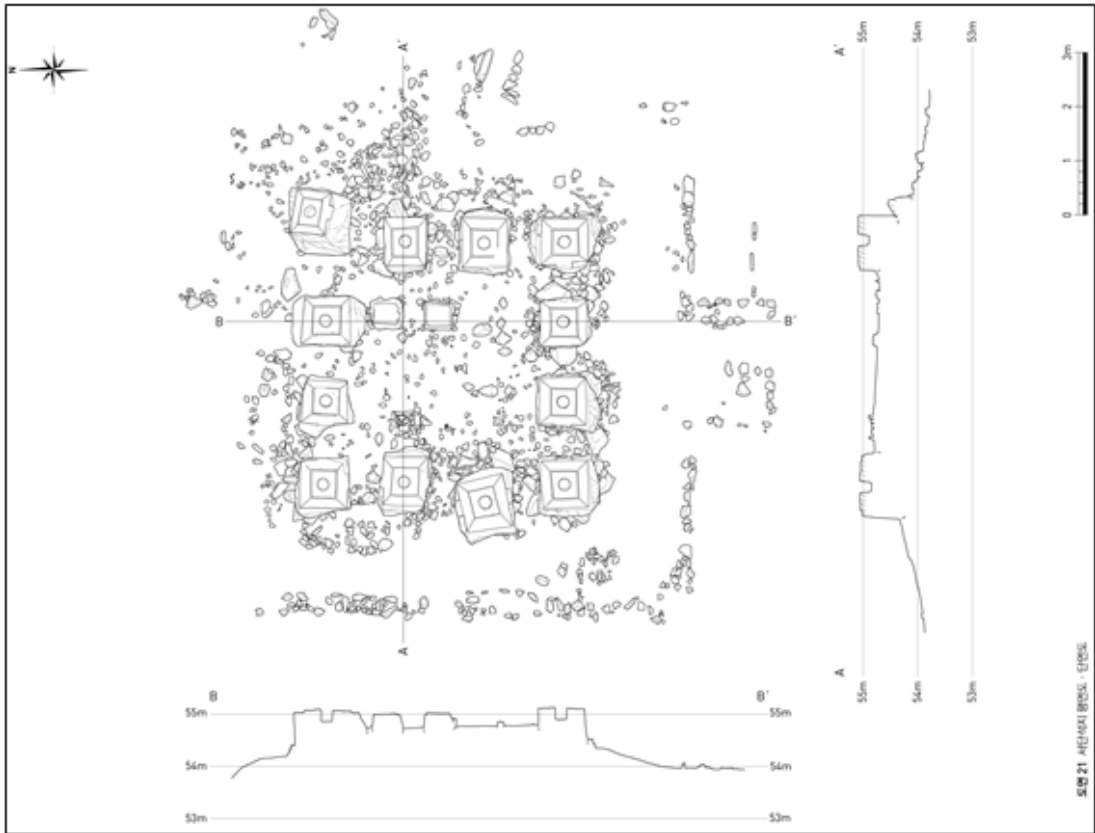
전 서역문 모서리 대석과 다른 점은 합각선 밖으로 돌이 잘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의 마감 면석이 놓이는 부분이 턱을 지어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다. 아무튼 합각선의 표현방법과 형태는 매우 유사하다.

四天王寺는 경상북도 경주시 낭산 남동쪽에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절터이다. 주변에 경주 선덕여왕릉(사적 제182호), 능지탑, 보문리사지, 전 황복사지, 전 신문왕릉 등이 있고 7번 국도를 사이에 두고 경주 망덕사지(사적 제7호)가 있다. 현재 사역에는 동서방향으로 주춧돌을 남긴 사방 3칸의 탑지가 있고 그 북쪽에 주춧돌이 남아 있는 金堂址가 있어 雙塔式 가람배치였음을 알 수 있다. 금당지 북쪽에 동서방향으로 사방 3칸 규모의 작은 건물 기단이 있는데 불교의식 공간인 일명 壇席址로 추정되고 있다. 금당 후방에 동단석지와 서단석지가 동서로 대칭하여 배치되어 있는데 각각 4방 3칸의 방형 주춧돌(사방 약 80cm)이 높이 약 60cm 정도의 토대 위에 다소 교란되어 있었다. 두 지역에 각각 12개의 주춧돌이 토대 둘레에 ‘□’자 형태로 배치되었다. 주춧돌 상면 중앙에는 각기 직경 약 20cm의 원형 썸기구멍이 있고, 그 주변에는 약 50cm 내외 크기의 이중 주좌선(돌기선)이 정방형으로 쇠시리 되어 있다. 이는 다시 주좌 네 모서리 부분에서 경사각을 이루면서 방형 주춧돌의 네 귀퉁이로 연결됨으로써 일종의 합각선(우동)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중앙의 원형 구멍 주변의 정방형 부분이 높고, 그 바깥으로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합각선이 표현된 특수한 형태이다.²⁹⁾



〈그림 17〉 사천왕사 동단석지 방형 주춧돌 전경(2017년 2월 촬영)

29) 張忠植, 「新羅 四天王寺址 壇席의 考察」, 『佛敎學報』 第39輯, 東國大學校 佛敎文化研究院, 2002, 13쪽.



〈그림 18〉 경주 사천왕사지 서단석지 평면·단면도

(자료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四天王寺 II』 回廊 内廊 발굴조사보고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4, 122쪽.

한편 팔련성 제1호건물지 바닥 지대석처럼 뚜렷하게 합각선이 보이는 경우의 예를 경주 신라유적에서 찾는다면 불국사 대웅전 영역의 청운·백운교 위 紫霞門 밖 난간 甲石(처마석)과 청운교와 백운교 사이 아치교 상부 난간 甲石(처마석)에서이다. 白雲橋 上段 좌우는 각기 세 개의 檐遮石 위에 긴 板石形 甲石을 올려놓았는데, 이러한 경우는 다보탑 난간, 석굴암 前室 神將石 上段에서도 보이는 통일신라시대의 특이한 의장기법 가운데 하나로 알려지고 있다.³⁰⁾

또한 대웅전 영역의 中門인 紫霞門에서 그 아래로 계단을 바라보면 계단참에 해당되는 난간 모서리 甲石을 팔련성과 같이 뾰족하게 모서리를 입체화시켜 다리 자체를 날렵하게 보이

30) 三成建築士事務所, 『月精橋址 發掘調査 및 復元設計報告書』, 慶州市, 1986.12, 140쪽.

려는 효과를 극대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와 같이 신라와 발해는 기존에 연구된 동질적인 요소 이외에 여러 부분에서 공통점이 찾아지고 있다. 최근까지의 발굴과 연구성과에 힘입어 앞으로 많은 것들이 찾아질 것을 기대해 본다.



〈그림 19〉 불국사 청운·백운교 정면(2015년 5월 촬영)



〈그림 20〉 불국사 대웅전 紫霞門 밖 난간 甲石(처마석)(2013년 12월 촬영)

5. 맺음말

본 글은 발해건축 연구가 지금까지 취해 왔던 특정 주변국가(민족)와의 관계에만 몰입되어 발해건축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할 수 있음을 밝히기 위해 공식적인 왕래가 별로 없었던 신라와의 건축방면 상관성을 주제로 몇 가지 단서들을 제시하였다. 글은 우선 발해와 신라의 대외관계를 고찰해 보았고, 이어 발해와 신라의 건축기술 동질성을 밝힌 기존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해 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새롭게 발견한 양국 간 동질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건축요소들을 제시해 보았다.

기존에 연구된 성과에서 제시된 양 지역간 공통점은 동일한 리방제 채택, 건축재료로 석재를 많이 사용, 무덤구조의 동질성, 돌 축조기술과 표현기법, 돌을 활용한 입체조형기법, 동일한 척도(尺) 사용, 건축부재의 동질성 등 여러 가지가 제안되었다. 그러나 신라와 발해의 건축방면 공통점을 보면 쉽게 이해되어 수궁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건축기술의 보편성을 양국 간의 특수성으로 인식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제시된 것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이어 발표자는 두 가지 양 지역간 동질성이 있는 요소를 새롭게 제시하였다.

첫째, 발해 상경성 제2궁전터에서 돌못(散水釘)을 사용한 것을 근거로 이와 동질적으로 볼 수 있는 증거를 신라 땅 경주에서 찾아냈다. 남산신성 중창터 축대, 감은사지 남문 밖 축대, 불국사 대웅전 영역 축대, 월정교 문루 밑 축대, 일정교 문루터 등지에서도 돌못이 사용되었음을 알았다. 다만 발해는 수직으로 돌못을 사용한 반면, 신라는 수평으로 사용한 것이 다른 점 이었다.

둘째, 발해 상경성 제2궁전 서액문지 바닥 산수석 모서리 板石과 훈춘 팔련성 제1호건물지 바닥 지대석에서 모서리를 날렵하게 보이기 위해 사용했던 합각선(우동)을 사용한 것을 근거로 이와 동질적으로 볼 수 있는 증거를 마찬가지로 경주에서 찾아냈다. 창림사지 건물터 바닥 귀틀석, 사천왕사 단석지 방형 주춧돌, 불국사 청운·백운교 난간 모서리 甲石(처마석) 등지에서도 합각선이 사용되었음을 알았다.

지금까지 발해를 바라보는 입장은 당시 그 주변국이었던 당과 그리고 발해를 탄생시킨 고구려와의 상관성에만 몰입되어 당시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신라와의 동질성은 무시된 오류를 범하였다.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시각에서 벗어나 북국 발해가 남국 신라와도 동등한 문화 비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그 이후의 시대인 고려뿐 아니라 요(거란)와 금(여진)의 건축까지도 상호 비교되어야 진정한 발해건축의 정체성 설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三成建築士事務所, 『月精橋址 發掘調査 및 復元設計報告書』, 慶州市, 1986.12.
-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慶州市, 『感恩寺 發掘調査報告書』,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1997.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学边疆考古研究中心·琿春市文物管理所, 『八连城』, 文物出版社, 2014.
-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技文堂, 1997.
-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통사』, 기문당, 2014.
- 동북아역사재단 편, 『발해의 역사와 문화』, 동북아역사재단, 2007.
- 리정남, 「삼국시기 수도형식에 관한 연구」, 『고고학연구논문집19』, 사회과학출판사, 2011.
-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慶州市, 1976.
- 文化財研究所·慶州古蹟發掘調査團, 『月精橋 發掘調査報告書』, 文化財研究所, 1988.
- 박경식, 『한국의 석탑』, 학연문화사, 2008.
-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5』 중세편 발해 및 후기신라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 原田淑人, 東方考古學叢刊 甲種第五冊 『東京城』渤海國上京龍泉府址の發掘調査, 東亞考古學會, 1939.
- 윤장섭, 『한국의 건축』,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 장상렬, 「발해건축의 역사적위치」, 『고고민속논문집3』, 사회과학출판사, 1971.
- 張忠植, 「新羅 四天王寺址 壇席의 考察」, 『佛教學報』 第39輯, 東國大學校 佛教文化研究院, 2002, 1.
- 조중공동고고학발굴대, 『중국동북지방의 유적발굴보고(1963~1965)』 사회과학원출판사, 1966
-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編著, 『渤海上京城』, 文物出版社, 2009.

〈토론문〉

발해 도성 발굴보고서로 분석해 본 신라와 발해의 건축기술 동질성

김왕직 (명지대)

이병건 교수의 이번 논문은 발해와 신라 건축기술의 동질성을 통해 두 나라의 교류관계를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그동안의 논문은 발해지역에 한정하여 건축적인 내용을 규명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면 이번 논문은 주변국과의 비교를 통해 역사의 흐름을 보다 역동적으로 살펴봐왔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첫 시도이다. 평상시 존경하는 학자이지만 매번 이렇게 새로운 시도와 내용으로 옆에서 보는 사람을 자극하고 놀라게 하는 재주가 있다.

남들은 잘 관심도 갖기 어려운 ‘돌못’과 ‘합각선’이라는 구조기법과 치석기법을 구체적인 사례조사를 통해 비교하였다. 제시된 사례는 설명을 들으면 누구나 ‘그런 것들이 있었구나.’ 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것을 찾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세밀한 관찰, 광범위한 탐색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 노력에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 또 건축양식을 떠나 기법을 연구하는 것이 요즘의 연구경향이라는 측면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의 기법은 상호비교를 통해 동질성을 발견할 수는 있겠지만 서로의 영향관계를 규명하기까지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측면에서도 이 논문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

저자는 구조보강기법으로 사용된 돌못(石釘)을 설명하면서 중국용어를 그대로 차용해 사용했다. 그러나 이 기법은 한국의 성곽건축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성곽건축에서는 이를 ‘심석(心石)’(문화재청, 한국성곽용어사전, 156쪽)이라 부르고 있으므로 돌못 보다는 ‘심석’으로 번역해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심석은 썩기돌, 썩기석이라고도 부르지만 한자를 차용한 심석이라는 용어가 좀 더 무난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심석은 축대석이나 성돌이 물러나지 않도록 뒷채움 부분에 단단히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성벽이나 축대에 사

용되는 사례는 흔히 볼 수 있으나 바닥의 퇴박석에도 사용한 사례가 발해 말고 신라지역에서도 있는지 궁금하다. 이러한 심석은 멀게는 인도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며 한국의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의 성곽에서도 사용된 사례가 많다. 따라서 지역과 시대를 막론하고 널리 사용되는 기법이기 때문에 신라와 발해에 한정하지 말고 영향과 변천과정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합각선(우동)의 경우에도 필자가 제시한 것 외에 감은사지 회랑의 귀틀석을 비롯하여 멀게는 인도의 페테푸르시크리나 아그라성을 비롯한 많은 석조궁궐과 성곽, 사원에서도 보인다. 대개 이러한 기법은 목조건축기법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신라뿐만 아니라 백제의 미륵사지, 정림사지 탑 등에서도 나타난다. 심석과 같이 그 사용의 지역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가 매우 넓은 기법이다. 따라서 역사적인 흐름과 상호 영향관계는 좀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매우 널리 사용된 기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으며 사례를 산만하게 떠올릴 수는 있으나 이를 체계화하고 영향관계로 해석해 보려는 시도는 그동안 누구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논문의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발해와 신라만 비교하기에도 어렵겠지만 욕심을 부린다면 그 범위를 넓혀서 살펴보았으면 하는 것이 토론자로서의 바람이다.

〈발표 7〉

발해 동경용원부의 치소와 소속 네 개 주의 위치 고찰

정영진 (연변대)

1. 머리말

발해국5경 지리에 대한 연구는 18세기부터 많은 학자들이 《신당서》의 기록을 근거로 5경15부의 위치를 고증하였으며 일정한 성과도 거두었으나 시대의 객관조건영향으로 意見分岐도 많았고 지금의 입장에서 볼 때 오차도 비교적 크다고 하겠다. 발해유적에 대한 조사와 발굴과 더불어 20세기이후 조사와 발굴성과를 결합하여 5경15부의 지리고증은 이미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허다한 문제는 공동한 인식을 얻게 되었으나 아직도 일부 문제는 논쟁 중에 있는데 예하면 동경용원부의 위치문제도 그중의 하나다. 필자는 이전에 《발해의 강역과 5경의 위치》논문에서 5경의 위치를 고증하였으며 훈춘의 팔련성을 동경용원부의 치소로 주장하고 동경용원부 부거리설을 부정한바 있다.¹⁾ 2008~2016년, 연변대학발해사연구소에서는 조선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와 함께 공동으로 부거리일대의 발해유적을 포함하여 회령일대, 북청일대, 어랑일대의 발해유적을 조사 발굴하였다.²⁾ 필자는 몇 년간의 조사발굴에 직접 참가하였으며 이전에 북한학자들이 제기한 부거리가 발해동경용원부치소라는 설에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전의 인식을 바탕으로 몇 년간의 조사발굴성과를 결합하여 다시 한 번 동경용원부의 위치를 검토하고 나아가 동경용원부가 관할하는 네 개 주의 위치도 고증하여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려고 하며 적당치 못한 점에 대하여 많은 지적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1) 정영진: 《발해의 강역과 5경의 위치》, 《한국사의 전개과정과 영토》, 《한국사론》34, 국사편찬위원회 2002년.

2) 동북아역사재단: 《부거리일대의 발해유적》, 2011년. 동북아역사재단: 《회령일대의 발해유적》, 2015년.

2. 동경용원부치소에 대한 연구현황

《新唐书·渤海传》에는 “濊貊故地为东京，曰龙原府，亦曰栅城府，领庆、盐、穆、贺四州”，“贞元时，东南徙东京”，“龙原东南濒海，日本道也”라고 기록하였고 贾耽의《古今郡国志》에는 “渤海国南海、鸭绿、扶余、栅城四府，并是高句丽旧地也。自新罗泉井郡至栅城府，凡三十九驿”라고 기록하여 동경용원부를 비정하는 주요한 사료근거로 되고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발해동경용원부는 예맥의 고지에 있었으며 또한 책성부라고도 불렀는데 고구려시기 여기에 책성부를 세웠기에 그 이름을 따랐다는 것과 신라 천정군으로부터 책성까지의 거리는 39개 역이고 상경의 동남쪽에 있는데 貞元時에는 수도로까지 하였다는 것과 동남쪽으로 바다와 가깝고 일본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육불은 예맥의 故地인 것이 아니라 옥저의 고지인 것을 잘못 기록한 것 같다고 지적하고 훈춘경내의 팔련성을 동경용원부의 치소로 보았다.³⁾ 동경용원부의 위치에 대하여서도 이전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었지만 지금 대부분 학자들은 훈춘팔련성설을 따르고 있으며 북한의 박시형도 이 설을 받아들이고 있다.⁴⁾ 그러나 1990년대 초에 북한의 채태형이 북한의 함경북도 청진시 부거리설을 주장하면서 장국종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북한에서는 거의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다.

부거리설은 채태형이 그의 논문 《발해동경용원부--훈춘팔련성설에 대한 재검토》에서 제기한 것이다. 그는 팔련성설의 부당성을 네 가지로 지적하였는데 첫째는 《료사》지리지의 “돌을 쌓아 성을 만들었는데 둘레의 길이는 20리 이다”라는 기록을 인용하면서 팔련성은 돌성인 것이 아니라 흙성이며 둘레의 길이는 20리인 것이 아니라 2,800미터, 즉 7리 정도의 작은 성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新唐书·渤海传》의 “예맥 옛 땅을 동경으로 정하였는데 용원부라고 하고 또는 책성부라고도 하였다. ……용원은 동남으로 바다에 면하였는데 일본도이다”라는 기록을 인용하면서 훈춘팔련성은 동해 바닷가에서 200리 떨어진 내륙도시이기에 바다와 면하지 않았으므로 동경용원부의 소재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다.

셋째는 贾耽《古今郡国志》의 “발해국의 남해, 압록, 부여, 책성 4부는 모두 고구려의 옛 땅이다. 신라의 천정군으로부터 책성부에 이르기까지 39개 역이다.”라는 기록을 인용하면서 역

3) 金毓藏: 《동북동사》상, (사회과학선집지사).

4) 박시형: 《발해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9년.

과 역사이의 거리가 70, 80, 90리 되는 것도 있기에 덕원에서 팔련성까지 39개 역이 있고 그 거리가 1,170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넷째는 발해--일본항로 선정에서 오늘의 함경북도 선봉군과 그 이북연해는 겨울철에 바닷물이 얼기 때문에 배가 다닐 수 없고 바닷물이 얼지 않는 나진항과 그 이남지역에서만 겨울철에 배가 다닐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발해가 34차 일본으로 사신을 파견한 중에서 겨울에 파견한 차수를 밝힌 뒤 毛口威(波謝特灣)는 겨울철에 얼기 때문에 팔련성에서 떠나 이를 통해 일본으로 갈 수 없다고 하였다.

이상의 네 가지 조건을 들면서 팔련성은 동경용원부의 소재지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함경북도 청진시 청암구역 부거리가 동경용원부자리가 아니겠는가하는 가설을 제기한다고 하면서 주요한 근거를 세 가지로 제기하였는데 첫째는 부거리에는 고구려, 발해시기의 성터가 있는데 그것은 팔련성과 같은 흙성이 아니라 《료사》지리지 기사에 부합되는 돌성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부거리는 바다에 면하고 있으며 겨울에도 얼지 않는 용제항과 연진항을 끼고 있다는 것이며, 셋째는 부거리는 역참수에서도 참고하여 불만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⁵⁾

장국중은 동경용원부의 소재지는 함경북도 청진시 청암구역 부거리였는데 그 산하에는 경주, 염주, 목주, 하주의 네 개 주가 속하여 있었다고 지적하여 채태형의 부거리설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

팔련성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新唐书·渤海传》, 贾耽의 《古今郡国志》 등 문헌기록과 발해유적에 대한 조사발굴을 결합하여 자기의 주요근거를 제출하는데 李建才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해석하였다.⁷⁾ 다른 학자들은 이 설을 받아들이거나 일부 보충하였다. 필자도 팔련성설을 주장하면서 그 구체적인 근거는 다른 학자들과 대동소이하므로 상세히 열거하지 않고 다만 채태형이 제출한 팔련성설의 네 가지 부당성을 검토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피력하겠다.

첫째, 팔련성은 돌성인 것이 아니라 흙성이며 둘레의 길이는 20리인 것이 아니라 2800미터 정도의 작은 성이기에 성 축조 자재와 크기에서 《요사》지리지의 “壘石爲石, 周圍二十里”의 기록과 어긋난다고 하였다. 이 기록의 원문은 “開州 鎮國軍節度 本濊貊地 高麗爲慶州 渤海爲東京龍原府 有宮殿 都督慶鹽穆賀四州事 故縣六 曰龍原永安烏山壁谷熊山白楊 皆廢 壘石爲石, 周圍二十里”이다. 여기에서 지적한 “壘石爲石, 周圍二十里”를 이근재, 방학봉은 요나라의 開

5) 채태형: 《발해동경용원부—훈춘팔련성설에 대한 재검토》, 《역사과학》1990년3기.

6) 장국중: 《발해사연구(1)》, 조선사회과학출판사, 1997년.

7) 이근재: 《瑋春渤海古城考》, 《學習與探索》, 1985년6기.

州(鳳城鳳凰山山城)를 가리킨다고 지적하였었다.⁸⁾ 이 견해는 정확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기록을 인용하면서 동경용원부를 꼭 석성에서 찾는 것은 무리하다. 팔련성을 2800미터 정도의 작은 성이라고 하였는데 발해의 평지성에서 상경성을 제외하고 이처럼 큰 성은 없다.

팔련성의 크기는 서고성과 비슷하며 역시 외성과 내성으로 구성되었으며 내성에는 지금도 두 개의 궁전자리가 있는데 남쪽의 궁전자리는 대흙무가 동경을 수도로 할 때 정사를 보던 자리로 추측하고 북쪽의 궁전자리는 寢殿으로 추측한다. 팔련성과 서고성의 크기와 구조는 상경성의 궁성과 비슷하고 경급의 성곽에서 상경을 제외하고 더 이상 큰 것을 찾을 수 없다. 상경성은 여러 차례의 축조를 거쳐 지금의 규모로 완성되었다는 것은 이미 지적된 바이다.⁹⁾

대흙무가 상경으로 천도할 때 현재의 궁성만 축조하였으므로 상경성의 궁성과 팔련성, 서고성의 규모와 짜임새는 비슷하다. 부거리성은 현재 심한 파괴로 하여 성의 크기조차 알 수 없고 또한 궁전자리도 없으므로 《요사》의 기록을 오해하고 석성이기에 기록과 맞으므로 동경의 소재지로 비정하기에는 아직 문제점이 많다.

둘째, 팔련성이 바다에 면하지 않았기에 《신당서》발해전의 기록과 어긋난다고 지적하였는데 이도 일종 문헌기록의 이해에서 생긴 오해라고 생각된다. 《신당서》발해전에 “龍原東南瀕海 日本道也”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용원이 곧 바다와 면하였다고 하면 잘못이다. 용원이 바닷가에 있다면 동남이라는 이 방위를 제시할 필요가 없이 “龍原瀕海”라고 지적하면 된다. 용원이 바닷가와 일정한 거리가 있었기에 그 구체적인 방위를 제시한 것이고 “東南瀕海”뒤에 “日本道也”를 적은 것은 일본도에서 바다로 나가는 부두를 가리켜 지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팔련성이나 부거리성의 동쪽뿐만 아니라 발해의 전체 동쪽 강역이 기나긴 해안선을 접하고 있기에 “東瀕海”라고 하면 되겠는데 그 구체적인 방위를 제시하면서 “東南瀕海”라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부두를 王俠는 毛口威(클라스키노港)를 가리킨다고 지적하였다.¹⁰⁾ 모구위의 위치는 확실히 팔련성의 동남에 있다. 사실상 용원이 바닷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산하의 염주가 바닷가에 있었다. 팔련성에서 동남으로 30리 좌우되는 곳에는 石頭河 子古城이 있고 이 성에서 좀 더 가면 長嶺子口에 이른 후 동남쪽으로 내려가면 바로 모구위에 도달한다. 여기에는 용원부 산하의 염주로 추정되는 克拉斯基諾古城이 있다. 이상의 사실로 팔련성은 “龍原東南瀕海 日本道也”의 기록과 어긋나지 않는다.

8) 이근재: 《琿春渤海古城考》, 《學習與探索》, 1985년 6기, 방학봉: 《발해의 강역과 행정제도연구》, 연변대학출판사 1996년.

9) 劉曠東, 魏存成: 《渤海上京城營築時期與刑制淵源研究》, 《中國考古學會第六次年會文集》, 文物出版社 1987년, 및 《渤海上京城主體格局的演變》, 《北方文物》 1991년 1기.

10) 王俠: 《琿春的渤海遺跡與日本道》, 《學習與探索》 1982년 4기.

셋째, 역참노정 계산에서 꼭 39개 역 1170리의 거리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역과 역사이의 거리는 79, 80, 90리 되는 것도 있기에 30리로 계산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신당서》職官志에 의하면 30리가 한 개 역이 되는데 이것은 보편적인 거리를 말한 것이다. 개별적으로 역과 역사이의 거리가 30리가 아닌 것을 예로 들면서 39개 역 1170리와 근사한路程에 위치한 팔련성을 부정하기에는 더 설명하지 않아도 그 문제점을 알 수 있다.

넷째, 일본도 항로에서 모구위는 겨울에 얼기 때문에 팔련성에서 떠나 모구위를 통해 일본으로 갈 수 없기에 팔련성이 동경의 소재지가 아니라고 지적하였는데 확실히 모구위는 제일 추운 12월 이후면 얼고 있다. 그러나 발해에서 일본으로 떠난 시기는 알 수 없고 일본에 도착한 시간을 일본 측의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데 겨울에 일본에 도착한 차수는 채태형의 통계에 의해도 몇 번 안 된다. 왕협은 발해사신이 일본으로 떠난 시간을 상세하게 고증하고 바다가 얼기 전인 가을에 출항하였다고 지적하였다¹¹⁾. 가령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겨울에 일본으로 떠나야 할 때 모구위가 얼어서 떠날 수 없다면 팔련성에서 멀지 않는 나진항을 이용할 수도 있다. 나진항이 모구위보다는 좀 더 멀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조건은 팔련성을 부정하는 주요 원인으로 될 수 없다. 총적으로 보면 부거리보다 팔련성을 동경용원부의 소재지로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대부분 학자들은 다 팔련성설을 따르고 있으며 거의 정설로 되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동경용원부의 위치를 논증하고 여러 가지 설을 제기하였으나 여기에서는 생략하겠다.

3. 동경용원부·훈춘팔련성설과 부거리성설의 비교

필자가 《발해의 강역과 5경의 위치》 논문에서 동경용원부가 훈춘팔련성이라는 이유를 설명할 당시 필자는 아직 부거리일대를 포함한 북한동해안일대의 발해유적에 대하여 조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거리성설에 대한 요해가 거의 없었고 특히 부거리일대에 분포된 허다한 양의 고분에 대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결여되어 팔련성이 동경용원부치소라고 주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직접 부거리일대를 포함한 북한 동해안일대의 발해유적을 조사하

11) 王俠:《渤海使者訪日啓港時間考》,《東北亞歷史與考古信息》1993年 1,2期 合刊.

고 필자는 확실히 훈춘팔련성이 발해의 동경용원부치소라는 이전의 견해를 확고하게 확인하였고 부거리일대 발해유적의 성격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아래에 훈춘팔련성과 부거리석성을 비교하면서 훈춘팔련성이 동경용원부치소라는 정당성을 재차 설명하려고 한다.

팔련성은 훈춘하와 두만강으로 이루어진 삼각 충적평원의 서북부에 있으며 구체적인 위치는 琿春市國營良種場남부 경작지에 있다. 두만강이 성 서쪽 약 2.5km되는 곳에서 북으로부터 남으로 흐르고 있고 북쪽 1km되는 곳에는 도문에서 훈춘으로 통하는 도로가 있으며 동남 약 5km되는 곳에는 훈춘하가 동북으로부터 서남으로 흘러 두만강과 합류한다.

팔련성은 일찍 20세기 20년대에 발견되었는데 魏聲禾가 처음으로 《琿春古城考》에 팔련성을 기록하였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팔련성은 일명 半拉城이라고도 하는데 현성에서 15리가 되는 곳에 있으며 성은 방형으로서 縱橫 각 250丈이고 동, 서, 북 삼면 성벽은 아직도 3자 높이로 남아 있고 남벽부분이 좀 더 높게 남아 있다. 서벽은 이미 도로와 접했고 네 벽에는 각각 문자리가 하나씩 있으며 성내에는 子城이 7개 있는데 중앙에 3개, 좌우 각각 2개성이 있으며 모두 서로 통하고 14개의 문자리가 있다. 북벽안쪽, 자성북쪽에는 또 하나의 벽이 있는데 일명 北大城이라고도 하는데 7개성과 합하여 8개성으로 되어 팔련성이라 부른다”라고 하였다.

1930년대, 일부 일본학자들이 팔련성에 대하여 조사와 試掘을 행하였으며 그 정황을 《간도성고적조사보고》에 소개하였다. 그들은 이런 조사와 《신당서》발해전의 “濊貊故地为东京，曰龙原府，亦曰栅城府，领庆、盐、穆、贺四州”，“贞元时，东南徙东京”，“龙原东南濒海，日本道也”등 기록과 결합시켜 팔련성을 동경용원부치소로 추정하였으며 팔련성에 대하여 실측을 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길림성문물고고연구일군들은 수차례에 걸쳐 팔련성을 조사하였으며, 특히 21세기이후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 길림대학변강고고연구중심 등 부문에서는 팔련성에 대하여 대규모적인 발굴을 진행하여 팔련성의 형식, 규모 및 역사상의 지위 등 많은 문제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다.¹²⁾

팔련성은 외성과 내성으로 구성되었으며 성벽은 모두 흙을 다져 쌓았다. 외성은 기본적으로 방형인데 방향은 190도이고 둘레의 길이는 2890미터로서 북벽의 길이는 720미터, 남벽은 700미터, 동벽은 746미터, 서벽은 735미터이며 성외에는 해자가 있고 네 벽에는 각각 문자

12)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 길림대학변강고고연구중심: 《吉林琿春八連城內城建築基址的發掘》, 《考古》2009년 6기; 길림대학변강고고연구중심,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 《吉林省琿春八連城遺址2004年調查測繪報告》, 《邊疆考古研究》第7集, 科學出版社2008年; 王培新: 《渤海國東京龍原府址琿春八連城址布局初步復原》, 길림대학변강고고연구중심주최: 《高句麗渤海文化學術研討會論文集》, 2013년 10월,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 길림대학변강고고연구중심, 훈춘시 문물관리소: 《팔련성-2004~2009년도발해국동경故址田野고고보고》, 문물출판사 2014년.

리가 하나씩 있다. 내성은 외성의 중부에서 북쪽으로 치우친 곳에 설치되었는데 장방형이고 둘레의 길이는 1070미터이며 남북 두 벽의 길이는 218미터, 동서 두 벽의 길이는 318미터이다. 남벽의 중부 약 80미터 되는 곳은 안으로 5미터 들어가고 중부에는 문자리가 있는데 너비는 25미터이다. 성내 중심에서 북쪽으로 치우친 곳에는 동서의 길이가 약 45미터, 남북의 너비가 30미터 되는 큰 둔덕이 있는데 지금의 높이는 약 2미터 된다. 2004~2009년 사이 집중적으로 내성내의 궁전자리와 남문 자리를 발굴하여 기본상 내성내의 궁전분포와 결구를 확인하였다.

내성중부의 큰 둔덕은 제1궁전자리이고 그 북쪽으로 약 38미터 되는 곳에 제2궁전자리가 있는데 궁전과 궁전사이에는 모두 회랑으로 연결되어 있다. 제1궁전자리의 기초는 장방형으로서 동서길이 42.45미터, 남북너비 26.32미터, 중앙부분의 남은 높이가 2.2미터이며 기초위에는 12개의 이미 움직여 놓은礎石이 있다. 제2궁전자리의 기초도 역시 장방형으로서 동서의 길이는 30.60미터, 남북의 너비는 18.55미터, 남은 높이는 1미터이며 제1궁전자리의 앞에는 광장이 설치되어 있다. 이런 궁전자리의 분포로 제1궁전자리는 正殿이고 제2궁전자리는 寢殿으로 추측하고 있다. 팔련성내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대부분 陶質로 된 建築材料이고 주요하게는 회색암기와, 솟기와, 막새기와, 연꽃무늬 벽돌, 유약을 바른 수기와, 막새기와, 지붕위의 장식 등이다.

부거리석성은 부거리 마을안의 평지에 있는데 성벽 동북쪽은 산기슭과 인접하였고 서남쪽은 확 트인 벌이다. 성의 서쪽 멀지 않은 곳에는 부거천이 북으로부터 남으로 흐르고 있다. 이곳의 이런 지형으로 하여 서벽은 곧으나 기타 세 벽은 둥그렇게 반원형을 이루어 마치 활동처럼 되어 있어 이 성을 半月城이라고도 한다.

성의 형태는 기본상 불규칙적인 방형으로서 방향은 190도이다. 성벽은 모두 돌로 쌓았는데 지금은 서벽과 북벽 및 남벽의 일부가 남아있고 다른 부분은 파괴되어 없어졌다. 현존하는 성벽의 높이는 1.2미터좌우이고 어떤 부분은 아랫부분의 2, 3층 돌만 남았고 어떤 부분은 한 벌의 기초만 남았다. 서벽이 가장 잘 남아 있는데 길이는 436미터이다. 남벽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80미터 되는 구간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마을과 길에 의해 파괴되어 거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북벽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80미터 좌우는 곧게 쌓았고 그 다음부터는 남쪽으로 휘면서 동벽과 잇대어 있다. 동벽이 파괴가 가장 심한데 동벽 북단의 일부만 존재할 뿐 나머지 부분은 없어졌으나 성벽의 기초부분은 확인할 수 있다.

성벽을 쌓은 방법은 먼저 큰 돌과 판석으로 내외 양측을 쌓고 그 안에 작은 돌들을 채워 석벽을 이루었다. 벽 기초는 먼저 땅을 고르게 다진 후 그 위에 돌을 쌓았고 어떤 부분은 높은

쪽의 흙을 낮은 쪽으로 파서 평하고 그 위에 돌을 쌓았으며 일부 지형이 낮은 곳은 흙을 일정한 정도로 파고 작은 돌을 채워 벽의 기초로 삼고 그 위에 다시 큰 돌을 쌓는 수법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예하면 남벽과 서벽은 지면을 고르게 평한 후 큰 돌로 벽을 쌓았고 北壁東端과 동벽북단의 휘어진 부분은 산기슭의 높은 곳을 파서 낮은 곳으로 평한 후 돌로 석벽을 쌓았고 서벽의 북단과 북벽의 서단은 지형이 매우 낮아 습지로 되었기에 먼저 땅을 1.5미터 정도 파고 그 안에 작은 돌을 채워 넣어 지면과 같은 높이에서부터 큰 돌을 쌓아 석벽을 이루었다.

벽을 쌓는데 사용된 돌들은 간단하게 가공하여 면을 고르게 한 큰 돌들로서 특히 면에 놓이는 돌들은 비교적 잘 가공한 돌들이다. 성벽의 면은 안쪽으로 약간 기울이게 쌓았고 밑 부분의 돌과 윗부분의 돌들의 크기는 별로 큰 차이가 없는 돌들이다. 현존하는 성벽으로 보면 북벽과 동벽의 돌들이 서벽과 남벽의 돌들보다 좀 크다. 현존한 서벽의 길이는 436미터이고 둘레의 길이는 약 1500미터이며 성벽의 아랫부분은 약 4~4.5미터, 윗부분은 3~3.5미터이다.

성벽에는 문과 배수시설을 설치하였는데 지금 잘 보존된 것은 서문자리이다. 당시 백성들의 반영에 따르면 네 벽에는 모두 문이 하나씩 있었다고 하나 잘 보존된 서문과 힘들게나마 알아 볼 수 있는 북문 외에는 알아보기 힘들으나 네 면에 모두 문을 설치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서쪽문은 서벽남단에서 북으로 약 236미터 되는 곳에 있는데 기본상 서벽의 중간 위치다. 성문은 큰 돌로 축조하였는데 문의 아래에는 큰 판석을 한 벌 깔았고 바깥쪽은 성벽과 일치하고 안쪽은 성벽보다 안으로 더 너르게 쌓았는데 너비는 약 5.10미터이다. 지면에 깎 판석은 지금 6개로 남아 있다.

서벽에 두 개의 배수구 시설을 설치하였는데 하나는 서벽남단에서 15미터 되는 곳에 설치하고 다른 하나는 서벽북단에서 남으로 22미터 되는 곳에 설치하였다. 북쪽에 위치한 배수구가 그대로 잘 남아 있고 남쪽에 위치한 배수구는 심하게 파괴되었다. 북쪽의 배수구는 성벽 제일 밑단에 있는데 그 축조 방법은 먼저 아랫부분에 큰 판석을 한 벌 깔고 양쪽에 판석을 세워 벽을 이룬 후 그 위에 다시 큰 판석을 덮어 구멍을 낸 후 다시 판석위에 성벽을 축조하였다. 판석의 길이는 약 2.2~2.25미터, 너비는 0.45~0.5미터, 두께는 0.45미터로서 지금 6개의 판석이 보존되어 있다. 배수구위의 성벽 너비로 보아 본래는 적어도 10개 이상의 판석을 덮었을 것으로 보인다. 배수구의 길이는 4.6미터로서 성벽의 너비와 같고 안쪽의 너비는 0.8미터, 바깥쪽의 너비는 0.4미터, 높이는 0.45미터이다.

이상은 훈춘팔련성과 청진부거리석성의 기본 상황이다. 아래에 두 성의 입지조건, 성의 규모와 布局, 출토유물, 주위의 유적분포 등 면에서 비교하고 어느 성이 과연 동경용원부의 치소로 합당한지를 설명하려고 한다.

1) 두 성의 입지조건비교

훈춘팔련성은 훈춘분지의 북쪽으로 약간 치우친 곳에 위치되어 있는데 훈춘은 길림성동남 부두만강하류의 연변조선족자치주경내에 속한다. 훈춘분지는 연변의 8개 시현에서 제일 큰 평야로서 중, 조, 러 삼국이 교차되는 지점에 있다. 훈춘분지는 사면이 산으로 쌓이고 분지중앙 서쪽에는 두만강이 서북으로부터 동남으로 흐르며 두만강우안은 북한이고 좌안은 훈춘시 소재지이다. 훈춘 시내 중부에는 훈춘하가 동북으로부터 서남으로 시내를 가로 질러 두만강에 흘러든다. 두만강과 훈춘하 두 강이 흐르면서 형성된 사방 몇 십리의 큰 충적평원은 연변에서 제일 큰 평야를 형성한다.

부거리석성은 북한 청진시 청암구역 부거리소재지의 마을 안에 있는데 성의 동북은 산기슭과 잇대어 있고 서남쪽은 확 트인 작은 벌이며 성의 서쪽에는 부거천이 북으로부터 남으로 흐르고 있다. 부거리의 지형은 동서 3km, 남북 8km 좌우의 좁은 평지로서 이 좁은 평지 중부에는 부거천이 흐르는데 부거석성은 바로 부거천의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이런 지세로 인해 성의 동벽은 산기슭과 잇대어 있고 서벽은 부거천과 아주 가깝다. 이러한 입지조건은 京城으로서의 건설과 확대수요를 근본 만족시킬 수 없다.

두 성의 입지조건을 비교하면 부거리석성의 자연환경은 한때 발해의 수도로 되었던 동경용원부의 치소로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다. 한동안 발해의 수도로 되었던 화룡서고성, 영안상경성 등은 모두 드넓은 분지에 위치한 점을 고려하면 발해통치자들이 10년간 수도로 있었던 동경용원부를 드넓은 훈춘분지가 아닌 비좁은 부거리에 설치할 수 없다.

2) 두 성의 규모와 布局비교

팔련성은 내성과 외성으로 되었고 성벽은 흙을 다져 쌓았으며 외성은 기본상 방형으로서 동서 700여 미터, 남북 740여 미터, 둘레의 길이 2890여 미터이고 성 밖에는 해자를 파고 네 벽에는 모두 문을 하나씩 두었다. 내성은 외성의 중부에서 약간 북쪽으로 치우친 곳에 두었는데 장방형으로서 남북 두 벽의 길이는 218미터, 동서 두 벽의 길이는 318미터, 둘레 길이는 1070미터이다. 내성 남벽의 중부 약 80미터는 안으로 5미터 정도 들어가고 중심에 문을 두었는데 너비는 25미터이다.

지금 학계에서는 화룡서고성, 영안상경성, 훈춘팔련성은 모두 발해제3대왕 시기에 축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축조 시간도 서로 그리 멀지 않으며 規劃布局도 상당히 흡사하다고 보

고 있다.¹³⁾ 팔련성의 기본 布局은 ① 내성과 외성으로 된 双重성벽이고 내성과 외성의 성문은 남북방향 일직선으로 전체성의 中軸線에 놓였다. ② 궁전건축은 내성북부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었다. ③ 외성 안에 성벽을 쌓아 봉폐된 구역과 院落을 조성하였다. ④ 주요한 궁전은 모두 성의 中軸線에 있다. ⑤ 前朝后寢식 이중궁전설계다. ⑥ 寢區건축은 동서 일직선으로 배치하였다. ⑦ 회랑으로 매개 건축을 연결시켜 봉폐된 공간을 통하게 하였다.¹⁴⁾

부거리석성의 형태는 기본상 불규칙적인 방형으로서 성벽은 돌로 축조하였는데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서벽과 북벽 및 남벽의 일부이고 기타는 파괴되어 없어졌지만 기초부분이 존재하여 성의 평면과 크기는 파악할 수 있다. 서벽은 온전하게 남아있고 남벽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80미터 구간은 존재하지만 나머지는 집과 길에 의해 파괴되었다. 북벽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80미터 구간은 직선이고 여기서부터 남쪽으로 가면서 弧形을 이루면서 동벽과 이어 진다. 동벽은 파괴가 심하여 동벽북쪽일부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없어졌으나 기초부분은 알 수 있다. 서벽의 길이는 436미터, 둘레길이는 1500미터 좌우이고 지금 남아있는 성벽의 밑 부분은 4~4.5미터, 윗부분은 3~3.5미터다. 성벽에는 문과 배수구를 설치하였는데 잘 보존된 것은 서문이고 북문은 알아 볼 수 있지만 나머지는 없어졌다. 백성들의 반영에 따라 본래는 동, 서, 남, 북 네 벽에 모두 성문을 두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서벽에서 배수구 두 곳을 발견하였다.

부거리석성은 남북으로 긴 좁은 평지에 축조되고 평지중간에는 부거천이 북으로부터 남으로 흐르므로 동벽은 산기슭 바로 아래에 쌓았고 서벽은 부거천과 가까운 곳에 쌓았으며 지세가 매우 낮아 서벽에 두 곳의 배수구를 설치하여 성안의 물이 이 배수구를 통해 부거천으로 흐르게 하였다. 성의 平面布局도 이곳의 자연환경에 따라 불규칙적으로서 서벽은 곧게 쌓았으나 나머지는 모두 弧形을 이루고 있으며 성안에서도 궁전자리로 볼 수 있는 건축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두 성의 규모와 布局을 비교하면 부거리석성은 팔련성과 비교도 안 되며 그 규모나 성안의 布局을 보아도 수도 혹은 경의 치소로 보기에선 너무도 거리가 멀다.

13) 魏存成:《關於渤海都城的幾個文題》,《史學集刊》1983年 3期; 劉曉東, 魏存成:《渤海上京城營築時序與刑制淵源研究》,《中國考古學會第6次年會論文集》, 文物出版社 1990年.

14) 王培新:《渤海國東京龍原府址瑯春八連城址布局初步復原》길림대학변강고고연구중심주최:《高句麗渤海文化學術研討會論文集》, 2013년 10월.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 길림대학변강고고연구중심, 훈춘시박물관리소:《팔련성-2004~2009년도발해국동경故址田野고고보고》, 文物출판사 2014년.

3) 두 성의 출토유물비교

오랜 세월에 거쳐 팔련성에서는 수없는 유물이 나왔는데 대다수는 陶質建築材料로서 주요 하계는 수기와, 암기와, 막새기와, 꽃무늬 벽돌, 유약 바른 수기와, 막새기와, 지붕위의 장식 품 등이다. 유물은 집중적으로 건축유적이 무너진 뒤에 형성된 토층에서 나왔는데 특히 1호 건축지의 북측과 회랑의 동서 양측 및 2호 건축지에서 보다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¹⁵⁾ 이런 유물 중에 유약 바른 기와들은 전문적으로 궁전 같은 건축지거나 특별하게 중요한 사원지 유적에서만 보이는 유물들이다.

부거리석성은 지표조사만 진행한 한계도 있지만 지면에는 아주 적은 유물이 있을 뿐이다. 특히 유약 바른 建築材料들은 보이지 않는다. 두 성의 출토유물로 보면 팔련성에서 출토된 유물은 그 양이나 질에 있어 부거리보다 풍부하고, 특히 많은 양의 유약 바른 기와는 팔련성이 수도로서 혹은 경으로서의 소재지인 점을 유력하게 설명하고 있다.

4) 두 성의 주위유적분포비교

팔련성부근에 분포된 유적으로는 주요하게 濛特赫部城, 英安古城, 石頭河子古城, 薩其城, 小英子古城, 英城子古城, 密江古城, 慶榮古城, 城牆砬子山城, 農坪山城, 桃園洞南山山城 등 평지성과 산성이 있는데 이런 평지성과 산성 중 일부는 고구려시기에 축조하여 발해시기까지沿用한 것도 있고 발해시기에 축조한 것도 있다.

팔련성부근에서는 사원지유적도 적지 않게 발견되었는데 주요하게는 八連城東南寺廟址, 三家子良種農場寺廟址, 新生寺廟址, 馬適達寺廟址, 五一寺廟址, 楊木林子寺廟址, 大荒溝寺廟址 등이다.

지금까지 발견된 무덤은 주요하게 馬適達墓塔, 密江고분, 慶榮고분, 沙坨子고분, 新農고분, 涼水果園고분군 등이다. 이외, 팔련성북부에는 몇 십리로 이어지는 長城(邊牆)유적이 있다. 부거리부근에서 발견된 유적으로는 주요하게 부거리석성, 부거리토성(산성), 독동산성, 다래골고분군, 연차골고분군, 합전고분군, 옥생동고분군, 토성고분군, 독동고분군과 연대봉등 십여 개의 봉수대가 있다.

15)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 길림대학변강고고연구중심: 《吉林琿春八連城內城建築基址的發掘》, 《考古》2009年 6期;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 길림대학변강고고연구중심, 훈춘시문물관리소: 《팔련성-2004~2009년도발해국동경故址田野고고보고》, 문물출판사 2014년.

지금까지 발견된 상황으로 보면 팔련성부근의 유적은 부거리부근보다 종류가 다양하고 수량도 많다. 성의 수량이나 규모로 볼 때 팔련성부근의 성곽은 부거리부근보다 얼마 더 다양하고, 특히 팔련성부근에서 발견된 사원지 유적은 거의 10곳에 달하여 서고성부근에서 발견된 사원지 10여 곳, 상경성부근에서 발견된 사원지 10여 곳과 어울린다. 그러나 부거리부근에서는 아직 사원지가 한곳도 발견되지 않았다. 유일하게 팔련성부근에서 발견된 고분이 부거리보다 양적으로나 규모로도 비교가 안 되게 부족하다. 이는 서고성부근에서 발견된 龍頭山墓群, 北大墓群, 상경성부근에서 발견된 三陵屯墓群, 虹鱒魚場墓群 등과 현저한 對照가 되어 팔련성을 동경용원부치소로 주장하는데 있어서 큰 약점으로 되고 있다.

무덤의 양이나 규모로 볼 때 부거리일대에는 확실히 많은 고분들이 분포되어 있고 규모도 매우 크다. 연차골과 다래골에서 발견된 고분들은 규모가 비교적 크고 어떤 고분은 왕릉에 해당 할 정도로 크기에 북한학자들은 부거리를 동경용원부의 치소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팔련성부근에도 고분은 발견되었으나 규모가 작고 서고성이나 상경성에서처럼 왕릉으로 볼 수 있는 고분군이 없다. 부거리에서 발견된 고분들은 석실봉토분, 석곽봉토분, 석관봉토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중 석실봉토분의 규모가 비교적 크고 또한 모두 지상에 축조하였고 석곽봉토분, 석관봉토분들은 지하에 축조하였다. 부거리일대의 고분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① 고분들은 대부분 지상에 축조하였다. ② 석실봉토분의 평면형태는 대부분 원형이거나 타원형이다. ③ 석실봉토분은 대부분 목관을 사용하지 않고 판석으로 석관을 만들었다. ④ 고분에서 출토되는 토기는 여기만의 특색이 있고 또한 고구려 토기의 전통이 짙다. ⑤ 고분에서는 마구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 양으로 출토된다. 이런 점들은 어느 정도 이 지역의 지방 세력가들이 무력으로 보장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음을 반영한다.

이상으로 두 성의 입지조건, 성의 규모와 布局, 출토유물, 주위유적분포 등 네 가지 면으로 팔련성과 부거리석성을 비교하면서 어느 성이 과연 10년 동안 수도로 사용되고 5경중의 하나인 동경용원부 치소로 합당한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고분을 제외하고 팔련성이 모두 부거리보다 합당하다는 결론을 가지게 되었다. 고분 하나만을 가지고 팔련성을 부정하기에는 너무도 미흡하다. 특히 성의 입지조건 하나로만도 부거리보다 팔련성을 동경용원부치소로 비정하기에 충분하다.

4. 동경용원부 管轄하의 4개주위치 考證

《新唐书·渤海传》에는“初，其王数遣诸生诣京师太学，习识古今制度，至是遂为海东盛国，地有五京十五府六十二州”라고 기록하였다. 발해의 5경에 대해서는 북한학자들은 고구려의 5부제로부터 淵源을 찾고 있지만¹⁶⁾ 일반적으로 당나라의 五京制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5경을 설치한 시기도 당나라에서 5경을 설치한 이후로 보고 있다.¹⁷⁾ 당나라에서 5경을 설치한 시기는 742~757년 사이고《续日本纪》에 발해사신 史都蒙이 南海府吐號浦에서 출발하여 일본의 對馬島에 도착하였다고 하였다.¹⁸⁾ 이 시기가 바로 778년으로서 이때 이미 남해부 명칭이 존재하므로 발해의 5경은 이 시기에 이미 전부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발해의 5경15부에 대한 지리고증은 많이 연구가 되었고, 특히 5경의 구체적인 위치에 대해서는 이미 공동한 인식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상경은 흑룡강성 영안시 발해진의 상경성, 중경은 길림성 화룡시서고성, 동경은 길림성 훈춘시의 팔련성, 서경은 길림성 립강시, 남경은 북한의 함경남도 북청군 청해토성이 정설로 되고 있었다. 그런데 1990년대부터 북한학자들이 동경용원부를 북한의 함경북도 청진시 부거리로 추정하면서 5경에 대한 토론이 다시 재개되었다. 필자가 이미 앞에서 많은 편폭으로 팔련성과 부거리석성을 여러 방면으로 비교하면서 훈춘팔련성이 동경용원부치소라는 점을 재검토하였다. 그러면 부거리석성과 성상리토성 등은 발해시기에 과연 어떤 작용을 하였을까? 필자는 부거리일대의 발해유적에 대한 조사를 거쳐 부거리일대는 동경용원부 管轄하의 한 개 주, 구체적으로 목주라고 지적한 바 있다.¹⁹⁾ 그러나 그때 그 논문의 주제가 이 문제를 토론하는 것이 아니기에 구체적으로 이유를 전개하지 않았다.

《新唐书》에는“稊貊故地为东京，曰龙原府，领庆盐穆贺四州”라고 기록하여 동경산하에는 4개주를 설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경주의 소재지는 팔련성남쪽 2.5km되는 곳에 있는 온특 혁부성이고 염주는 러시아연해주크라스키노 성으로 보는 데는 별 의견이 없고 목주와 하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견재선생은 훈춘의 薩其城을 목주로, 桃園洞南山

16) 장국중: 《발해의 령역과 5경제》, 《고구려, 발해와 고대일본》.

17) 宋基豪著, 金荣国译: 《渤海五京制的渊源与作用》, 《渤海史研究》第九集, 延边大学出版社2002年.

18) 《续日本纪》卷34, 光仁天皇: “遣使问渤海使史都蒙等曰……对曰: 鸟须弗来归之日, 实承此旨, 由是都蒙等发自弊邑南海府吐号浦, 西指对马嶋竹室之津, 而海中遇风, 着此禁境, 失约之罪, 更无所避”.

19) 郑永振: 《渤海的东海岸经营与对日交流》, 《渤海海洋史与21世纪环东海交流》国际学术研讨会论文集, 高句丽渤海学会·韩国学中央研究院2010年.

山城을 하주로 추정하였다.²⁰⁾ 방학봉선생은 목주를 북한(의 함경북도)경원일대로, 하주는 염주의 서북, 목주의 북쪽, 경주의 동북방향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나 구체적인 지점은 제시하지 않았다.²¹⁾ 손진기선생은 목주를 開山屯船口山城으로, 하주를 훈춘의 城牆砬子山城으로 비정하였다.²²⁾ 그런데 이런 비정들은 모두 북한(경내)의 발해유적에 대한 답사가 없는 상황에서 《遼史》지리지의 기록에 의해 추정한 가설로서 모두 믿을 수가 없고 특히 《遼史》지리지의 기록은 매우 혼란스럽다는 점은 잘 아는 사실이다.

북한(경내)의 발해유적은 부거리일대, 화대군일대, 북청군일대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함경북도와 함경남도가 접하는 곳에는 개마고원 마천령이 있는데 마천령은 지세가 험하기로 소문이 있으며 고대로부터 천연적인 요새로서 옥저시기에는 동옥저와 북옥저의 경계로 되었고 발해시기에는 동경과 남경의 분계선으로 되었다. 즉 마천령이북은 동경의 관할범위이고 이남은 남경의 관할범위이다. 동경용원부의 경주는 훈춘(팔련성)에서 멀지 않는 곳에 위치한 온특(북성)이고 염주는 크라스키노 성으로서 순서대로 부거리성은 목주이고 하주는 화대군 城上里古城이다. 이렇게 동경용원부의 4개주 중 3개는 모두 동해안의 해변에 설치하였다고 필자는 보고 있다.

동경용원부(관할하)의 4개주를 모두 해변에서 멀지않은 곳 혹은 해변에 설치한 것은 발해가 동경을 설치한 목적과 일치하다고 생각된다. 동경을 설치한 목적은 바로 동해안에 대한 경영과 일본과의 교류를 위한 것으로서 이 점은 이미 필자가 한편의 논문에서 지적한 바 있다.²³⁾ 지금까지의 지리(고증)으로 볼 때 동해안과 관련이 있는 발해의 京府는 동경용원부, 남경(남해부), 솔빈부이다. 솔빈부의 치소를 이전에는 러시아의 烏蘇里斯克城으로 보았으나 중국의 張泰(상)선생이 黑龍江省東寧縣大城子古城으로 추정하면서 중국의 대부분 학자들이 이 설을 따르고 있다.²⁴⁾ 솔빈부를 烏蘇里斯克城으로 보던 대성자(고성)로 보던 모두 동해안의 북단일부분과 연결되고 문헌기록으로 보면 솔빈부와 관할하는 동해안(北端)은 발해시기 일본으로 통하는 교통로로 사용한 적이 없고 남경(남해부)가 관할하는 해안도 발해사신들이 일본으로 갈 때 몇 번 사용하지 않았으며 대부분 동경용원부가 관할하는 해안을 사용하였다. 동경을 동해에서 멀지 않는 훈춘(팔련성)에 두고 염주, 목주, 하주를 해안가에 설치하였다는 것은 발해가 일본으로 통하는 교통로인 동경을 아주 중요한 위치에 두었으며 또한 동경에

20) 李健才: 《瑯春渤海古城考》, 《学习与探索》1985年6期.

21) 方学风: 《渤海的疆域与行政制度研究》, 延边大学出版社1996年.

22) 孙进己: 《唐代渤海之五京》, 《东北民族研究(1)》, 中州古籍出版社1994年.

23) 郑永振: 《渤海的东海岸经营与对日交流》, 《渤海海洋史与21世纪环东海交流》国际学术研讨会论文集, 高句丽渤海学会、韩国学中央研究院2010年.

24) 張泰相: 《唐代渤海率濱府考》, 《歷史地理》제2집.

대한 경영을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수도를 직접 동경으로 옮긴 사실에서도 잘 반영된다.

발해는 229년간 모두 4차례 천도하였는데 이는 고대 동아시아 국가의 역사 중 드문 일이다. 《신당서》의 기록에 따르면 발해가 처음 수도를 정한 곳은 동모산인데 몇 십년동안의 발해 유적조사와 발굴 및 연구를 통하여 동모산을 지금의 돈화일대로 추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점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 지금 대부분 학자들은 동모산을 성산자산성으로 보고 있으나 일부는 이 설을 부정하고 일부 학자들은 오동성을 초기 도성으로 보고 있으나 일부는 오동성이 금나라시기의 토성이지 발해의 토성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성산자산성과 영승유적을 합하여 발해의 초기도성으로 비정하고 있지만 또한 부정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돈화일대가 발해가 처음으로 도읍을 정한 곳이라는 점은 돈화육정산에서 발해초기의 고분군이 발견되었고 정혜공주묘지가 출토됨으로 하여 부정할 수 없다. 《신당서》발해전에서는 賈耽《도리기》의 기록을 인용하면서 “顯州，天寶中王所都”라고 하여 현주는 한시기 발해의 수도였음을 알 수 있다. 현주의 위치에 대하여서는 그간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중경을 설치한 후의 중경치소인 화룡서고성이 제일 유력하다. 돈화에서 서고성으로 천도한 시간도 문헌에는 “天寶中王所都”하여 구체적인 천도시간은 알 수 없지만 일부는 대흙무시기에 천도한 것으로 보고 또 일부는 대무예말기에 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新唐書》渤海傳에는 “天寶末，欽茂徙上京，直旧國三百里，忽汗河之東”이라 하여 천도자는 대흙무이고 시간은 756년이며 천도지는 상경으로서 흘한하의 동쪽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경은 지금의 흑룡강성영안시발해진의 상경성으로서 학계의 정설이다. 785년, 대흙무는 세 번째로 재차 천도하였다. 《新唐書》에는 “貞元時，東南徙東京”，“龍原東南瀕海，日本道也”라고 기록하여 천도시기와 천도지점은 명확한데 곧 일본도의 중심인 동경용원부로서 지금의 훈춘팔련성이다. 794년, 대흙무가 죽은 후 발해국내에서는 왕위쟁탈사건이 발생하고 大元義는 “國人”들에 의해 살해되면서 大華璵를 왕으로 추대하면서 상경으로 다시 還都하여 동경용원부를 10년간 수도로 하였다.

대흙무가 동경으로 천도한 원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한국의 임상선선생이 그 원인을 비교적 잘 정리하였다.²⁵⁾ 발해가 동경으로 천도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일본과의 교류와 동해안에 대한 경영을 목적으로 하였을 것이다. 727년, 대무예가 처음으로 일본도를 개척하면서 대흙무시기에 발해와 일본간에는 빈번한 교류가 있었

25) 林相先: 《對渤海遷都的考察》, 《清溪史學》(5), 清溪史學會1988年.

는데 발해에서 11차, 일본에서는 9차례의 사신왕래가 있었다. 발해와 일본간의 교류가 이처럼 빈번한 시점에서 동해와 멀리 떨어진 상경보다는 동해와 가까운 동경이 사신왕래에 편리하였을 것이고 수도를 동경으로 옮기면서 이 일대는 큰 발전이 있었을 것이며 전에 없는 개발과 함께 인구도 증가하였을 것이다. 문헌의 “柵城之鼓”는 동경일대의 특산으로서 동경일대의 농업생산이 크게 발전되었음을 추측케 한다.《요사》의 기록에 의하면 발해국이 멸망한 후 요나라통치자들이 발해동경지역의 “造船人”들을 강제 동원하여 요나라를 위해 배를 만들게 하였다는 사실은 발해시기 동경일대의 조선업이 매우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동경관할하의 3개주가 모두 바닷가에 분포되었다는 것은 이 일대의 어업이 발달하였음을 의미하고 어업생산은 조선업의 발전과 연계된다. 일본도의 시발점인 동경은 사신들의 항해를 위해서도 많은 배를 만들었을 것이고 이와 연결되는 산업이 크게 발전되었을 것이며 동시에 동해안에 대한 경영도 이왕의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시 되었을 것이다.

5. 결말

북한경내의 발해유적에 대한 조사와 발굴을 거쳐 발해동경용원부의 치소는 지금의 훈춘팔련성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였고 경주는 팔련성에서 아주 가까운 온특혁부성에 설치하고 연주는 크라스키노토성이며 부거리일대(부거리석성)는 동경의 4개주 중 목주로 추정하였고 화대군일대(성상리토성)는 하주로 추정하였다. 발해는 동경용원부에 대한 경영을 강화할 목적으로 해변에서 가까운 克拉斯基诺城에 염주를, 부거리석성에 목주를, 성상리토성에 하주를 설치하면서 동해안에 대한 경영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일본과의 원활한 교류를 위하여 수도를 직접 동경으로 천도하면서 동해안에 대한 경영을 중시하였다. 기왕에는 발해의 경, 부, 주 치소를 고증할 때 주요하게《요사》지리지의 기록에 의해 추정하는데 이번에 북한지역 발해유적을 조사발굴하면서 유적에 대한 실지조사와 발굴의 중요성을 재삼 피부로 체득하였다.

〈토론문〉

발해 동경용원부의 치소와 소속 네 개 주의 위치 고찰

김은국 (동북아역사재단)

발표자는 팔련성과 부거리석성을 비교하면서 단순히 두 성의 입지조건, 성의 규모와 布局, 출토유물, 주위유적분포 등을 통해 과연 10년 동안 수도로 사용되고 5경중의 하나인 동경용원부 치소로 합당한가에만 무게중심을 두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고분만을 제외하고 성의 입지조건 등으로부터 팔련성을 동경용원부치소로 비정하고 있다. 여기서 토론자는 우선 비교상에서 중국과 북한내 발해유적 발굴조사의 한계를 들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근거로 발표자의 발굴로 제출되어 출간된 보고서 「부거리 일대의 발해유적」(동북아역사재단, 2011)를 통해 보면 부거리 일대의 성곽은 상경성, 서고성, 팔령성 등과 같은 성곽 방어 체제를 보여준다. 또 그 일대의 무덤은 발해 전형적인 무덤인 석실봉토분의 수가 많다는 점 등을 들어 유적의 형성 시기를 동경용원부가 설치되는 시기부터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 지역은 아직도 발굴을 기다리는 수천 기의 무덤이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거리 등 북한내 발해 유적지 발굴은 앞으로가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까지 북한내 발해유적 발굴이 진행되어 발해 역사고고학에 큰 성과가 있었긴 하지만, 여전히 북한의 경우는 중국, 연해주 등에 비해선 아직 발해유적이 미진한 가운데 있다. 발표자가 정리해 준 동경용원부 소속 4개 주에서도 부거리 석성(목주), 성상리 토성(하주) 등이 북한 경내에 있음은 발해의 동해안 경영과 일본교류에서 큰 비중이 있음을 대변하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고고학계 입장에서는 본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동경용원부 중심을 북한 경내에 둘 수 있는 근거도 인정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 동해안 지역의 발해유적 발굴 보고를 잠깐 살펴보려고 한다. 2000년 7월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가 함경북도 청진시 청암 구역 부거리의 다래골 1,2호 무덤, 독동1호 무덤 발굴을 통해 발해시대의 돌칸흙 무덤을 소개하고 무덤의 구조, 형식 및 유물을 소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다래골에서 발굴된 2개의 무덤은 구조형식과 유물에서 연차골에서 발

굴된 발해시기의 무덤들과 같다고 보았다.¹⁾ 이것은 바로 육정산 고분군들에 보이는 발해 돌칸 흙무덤은 그 연원은 움무덤(토광묘)이 아니라 고구려시기의 돌칸흙무덤 유형을 계승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발해의 고구려계승성을 보장하는 시각인 것이다.²⁾

나아가 부거리 일대에는 그 어느 지역에서도 볼 수 없을 만큼 많은 발해유적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이곳이 중요한 행정중심지의 하나였을 가능성을 주고 있다. 『遼史』卷38 地理志 및 『新唐書』渤海傳의 해당 기록과 같이, 이곳에는 왕릉급 무덤, 평지성, 산성 등 유적 등이 남아있어 일찍이 東京龍原府의 중심으로 보는 견해가 나왔다.³⁾

부거리 일대에는 발해시기의 평지성, 산성, 봉수터, 무덤떼 등 유적이 상당수 분포하고 있다. 부거리 일대의 발해유적에 대한 발굴은 수차에 걸쳐 진행된 바 있는데,⁴⁾ 우선 무덤 떼에 대해 보면, 부거리 일대에 이미 대단위 묘군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18세기 기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실학자 홍양호(1744~1802)의 『北塞記略』에는 부거현의 서쪽 산에 고분이 만여 개 있는데 모두 돌곽 무덤이라는 것과 어느 때의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富居廢縣。在富寧府東六十里。石城盡頽。只存基址。縣西山有古冢萬餘。皆石槨。未知何時物也。”⁵⁾

또 『海東繹史』속편에서 발해 5경의 위치 비정 속에 동경용원부의 해당지역을 지금의 함경도 경성, 부령 등이라 보았다. (『海東繹史續』地理考 卷9 渤海) 그리고 「발해의 남해 압록 부여 책성의 4府는 모두 고구려의 옛 땅이다. 新羅 泉井郡(현재 함경남도 德源)에서 柵城府까지 무릇 39개의 驛이 있었다.」(三國史記)卷37 雜志6 地理4 末尾)는 기록을 통해 “신라의 천정군은 지금의 덕원이며, 여기서 북으로 39개 역을 올라가면 대략 1,170리인데, 마땅히 부령, 경성부 경내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 이 지역을 용원부로 하였음은 분명하다.”고 하여,⁶⁾ 기존의 팔련성을 동경용원부 중심으로 보는 견해와는 차이가 난다.

이를 통해서 북한에서는 부거리 일대의 무덤 자료 조사를 통해 이를 동경용원부로 보는 것을 신빙성 있게 보고 있다.⁷⁾ 이를 통해서 부거유적이 용원부의 중심이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1) 김남일, 「다래굴 무덤과 독동 무덤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2002-3호, 38~43쪽.

2) 장철만, 「발해시기의 석광봉토분에 대한 몇가지 고찰」 『조선고고연구』 2003-2호, 29~33쪽.

3) 김중혁, 「청암구역 부거리 일대 유적의 성격」 『동해안 일대의 발해유적에 대한 연구』 (중심, 2002 : 사회과학원 출판, 1998), 211쪽 이하.

4) 『조선유적유물도감』 8 (발해편, 1991) ; 장상렬, 「발해의 건축」 『발해사연구논문집』 1권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2 ; 『부거리 일대의 발해유적』 (동북아역사재단, 2011) 등.

5) 『北塞記略』北關古蹟記, 「富居廢縣」. 이에 대해서는 장상렬, 「발해의 건축」, 275쪽 ; 김혁철, 「실학자들의 발해력사관」 『발해사연구논문집』 1권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2, 180~186쪽 참조.

6) 『海東繹史續』地理考 卷9 渤海.

7) 신광선, 「유적유물을 통해 본 고구려와 발해문화의 계승관계」 『동북공정과 고구려』 (동북아역사재단 편, 2010), 177쪽

문제점이 놓여 있긴 하지만 실학자들의 유적지 實見인 기록들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자 한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토론자는 발해 시기 동경을 좀 더 광역의 개념으로 설정하였으면 한다. 연해주 크라스키노 성을 치소로 인정하는 鹽州, 琿春의 八連城과 이웃하는 溫特赫部城으로 비정하는 慶州, 발표자가 정리한 대로 穆州는 부거리일대(부거리석성), 賀州는 화대군일대(성상리토성)로 보고, 이들 동해안 연안의 주성은 계절과 항구의 상태에 따라 입출항의 장소를 달리하여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동경용원부 산하 4주의 위상을 보면, 현재로서는 鹽州로 비정되는 크라스키노 城이 그 중심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고자 한다. 앞서 든 柵城은 柵城府로 표현되듯이 이들 해당 州를 아우르는 광의의 지역 개념으로 상정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북한 경내 발해 유적의 발굴이 더 추진되어 이러한 역사해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공동으로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하여 본다.

〈발표 8〉

발해의 성벽 축조방식에 대해

정석배 (한국전통문화대)

1. 머리말

발해(698~926년)는 지금의 북한지역과 중국 동북지역, 그리고 러시아의 연해주-아무르 지역에 걸쳐 위치하였다. 때문에 발해유적은 이 지역들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연해주지역에는 발해의 유적뿐만 아니라 고구려, 요, 금, 동하시기의 유적들도 많이 분포한다. 다시 말해서, 발해의 성들 중에는 고구려시기에 축조된 것도 있고, 발해 때에 축조된 다음 이후 요·금대에 수축이나 증축을 거쳐 계속해서 사용된 것들도 있다.¹⁾ 그 결과 외견상 요·금대의 특징을 가진 성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발해의 성으로 소개된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부여시 백도고성의 경우에는 성 내에서 발해 유물이 함께 발견되어²⁾ 비록 외형적 특징이 요·금대의 것이라 할지라도 발해유적으로도 판단이 가능하다. 다만 지금 밖으로 드러나 있는 백도고성의 성벽 자체는 발해의 것이 아님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편 외견상 요·금대 성의 특징을 가진 돈화 오동성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발해 구국이 있었던 돈화지역의 평지성이라는 이유로 발해유적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최근의 발굴조사를 통해 금대의 성임이 분명하게 밝혀졌다.³⁾ 이 두 예는 발굴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발해의 성으로 보고된 유적들을 모두 총괄하여 발해 성곽의 일반적인 특성을 도출해 내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인지를 알게 한다.

1) 王禹浪·王宏北, 『高句麗渤海古城址研究匯編 下篇 渤海國古城址』, 哈爾濱出版社, 1994; 방학봉, 『발해성곽』, 연변인민출판사, 2001; 방학봉, 『발해성곽연구』, 연변인민출판사, 2002.

2) 陳相偉·李殿福 主編, 『扶餘縣文物志』, 1982, 42~47쪽.

3) 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吉林敦化市敖東城遺址發掘簡報』, 『考古』, 第9期,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해 성의 입지와 구조, 평면모양, 크기, 성벽 축조재료, 혹은 발해의 부(府), 주(州), 현(縣)의 치소성 비정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연구대상 유적이 대개 중국 동북지역⁴⁾ 혹은 연해주 지역⁵⁾에 제한되었다. 다만 송기호의 경우는 중국 동북지역과 연해주, 그리고 북한지역의 발해성을 함께 포괄적으로 검토하였지만 부·주·현 치소성 비정에 중점을 두었다.⁶⁾ 최근에는 스토야킨 막심이 그동안 발해의 성곽으로 알려져 왔던 러시아(38기), 북한(26기), 중국지역(114기)에 분포하는 178기의 성들을 처음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⁷⁾ 발해 성곽연구를 진일보시켰다. 하지만 이 논저들에는 대개 오동성의 경우와 같이 발해의 것이 아닌 성들, 백도고성의 경우와 같이 발해유적은 맞지만 성벽은 발해의 것이 아닌 성들, 성벽이 명백하게 금대의 것인 유즈노-우쭈리스크 성, 빠르띠잔스크 니콜라예브카 성 등도 함께 포함시켜 논의를 진행시켰기 때문에 결론에 오류가 없을 수가 없었다. 이후 스토야킨 막심은 연해주의 발해성곽에 대해 다시 종합적인 분석을 하였는데,⁸⁾ 공간적 범위를 연해주 남부지역으로 제한하였고, 실체가 없는 ‘오투라드노예 평지성’을⁹⁾ 발해성곽에 포함시키는 등의 문제점을 보였다. 이러한 인식하에 이 글에서는 발굴조사가 된 발해성벽들을 중심으로 발해성벽의 축조방법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발해의 성벽 축조방법을 논의의 중심에 둔 것은 발해 때에 쌓은 것이 분명한 성벽들의 특징을 밝히는 것이 요·금대의 것들과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발해성곽 연구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 성벽 단면이 조사된 발해의 성들

발해 때에 축조 혹은 증축한 성벽이 있는 성들 중에서 지금까지 성벽 단면조사내용이 보

4) 이정봉, 「발해국 평원성의 유형, 시기획분 및 그 특징」, 『발해사연구』, 4, 연변대학출판사·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朱國忱·朱威, 『渤海遺跡』, 文物出版社, 2002, 38~87쪽.

5) 에.베.샤브쿠노프 역음 / 송기호·정석배 옮김, 『러시아 연해주와 발해역사』, 민음사, 1996, 4~106쪽.

6) 송기호, 「발해 성지의 조사와 연구」, 『한국사론』, 19, 1991.

7) 스토야킨 막심, 「발해성곽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8) 스토야킨 막심, 「연해주 발해성곽의 구조와 성격」, 『중앙고고연구』, 제22호, 2017.

9) ‘오투라드노예 평지성’은 성(城)이 아니다. 이곳은 유물로 보아 발해유적은 분명하지만 성의 평면도와 성의 규모 등이 전혀 제시된 것이 없다. 이 유적을 처음 보고한 글에는 러시아어로 ‘석축성벽의 잔재’라고 제시된 사진이 있는데 오히려 허술한 담장에 가깝다(대한민국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역사학교고학민속학연구소, 『연해주의 발해유적 I』, 2007, 201~202쪽 및 사진 123~126 참조).



도면 1. 성벽단면이 조사 혹은 확인된 발해성 분포도

고된 유적으로는 상경성, 서고성, 팔련성, 끄라스끼노 성, 시넬니꼬보 1성, 니콜라예브까 1성, 니콜라예브까 2성, 스파로레첸스꼬예 성, 오끄라인까 성, 꼭샤로브까 1성, 마리아노브까 성, 노보고르제예브까 성, 이즈베스트꼬바야 소쁘까 성, 지기뜨브까 성, 끄라스노예 오제로 성, 스몰노예 성 등 16개소가 있다.¹⁰⁾ 그 외에도 대성자고성, 하룡고성, 꼭샤로브까 2성, 용두산성, 소밀성, 영의성 등 몇몇 발해 성들에는 성벽의 단면이 노출된 지점이 있어 성벽축조방법의 일단을 엿볼 수가 있다(도면 1).

여기에서 연해주 동북해안지역에 위치하는 지기뜨브까 성과 끄라스노예 오제로 성, 그리고 연해주의 남동부지역에 위치하는 스몰노예 성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의가 필요하다. 오늘날 러시아의 대표적인 발해 연구자들인 A.L. 이블리예프,¹¹⁾ Yu.G. 니끼친,¹²⁾ E.I. 겔만¹³⁾ 등은 연해주 동북해안지역을 발해의 영역 밖에 위치한 말갈문화 지역으로, V.E. 샤브꾸노프¹⁴⁾는 스몰노예 성을 발해와 이웃하여 오랫동안 공존을 하였던 스몰노예 문화의 유적으로 각각 파악한다. 그런데 이 의견들은 발해가 말갈제부를 모두 복속시켰다는 문헌자료의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다.¹⁵⁾ 그 외에도 연해주 동북해안지역에는 발해의 것이 분명한 토기들이 출토되고 있으며,¹⁶⁾ 스몰노예 문화에 특징적인 격자타날문토기는 사실 발해유적이 분명한 고르바뜨까 성과 끄라스끼노 성에서도 출토되었고, 또 스몰노예 성에서는 발해에 특징적인

10) 발해시기의 유적인 연해주 쉬꼬뜨브까 지구의 노보로씨야 2유적은 성으로 보고되어 있고, 성벽으로 추정된 토루 모양의 구조물에 대한 단면도도 소개되어 있다. 하지만 이 유적의 전체 길이가 55m인 '성벽'은 강이 있는 북쪽을 제외하고도 동쪽에는 시설되지 않았고, 또 모래 땅 위에 다짐이 전혀 없이 사질토와 자갈이 섞인 모래흙을 단순 성토하여 올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연히 발해유적에 20세기 탱크나 대포 등을 은폐하기 위해 만든 시설이 아닌가 생각된다. 실제로 연해주지역에는 중화기 은폐시설이 가끔씩 확인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노보로씨야 2성'은 제외하였다. (Дьякова О.В., Государство Бохай: археология, история, политика, Москва, 2014, 150~151쪽, 도면 46, 47 참조). 연해주 동북해안지역에 위치하는 구날레이까 성은 성 내에서 발해유물이 출토되었고 또 성벽 단면조사 내용도 알려져 있지만 성벽 자체는 동하국시기에 쌓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Дьякова О.В., Государство Бохай: археология, история, политика, Москва, 2014, 186~188쪽 참조.)

11) Ивлиев А.Л., Очерк истории Бохая // Российский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в древности и средневековье. Открытия, проблемы, гипотезы. Владивосток, 2005, 465~475쪽.

12) Никитин Ю.Г., Таң, Бохай и "Восточные варвары" (Восточная периферия Бохая) // Российский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в древности и средневековье. Открытия, проблемы, гипотезы. Владивосток, 2005, 521~522쪽.

13) 겔만 E.I. / 정석배 옮김, 「러시아 연해주 발해유적 발굴의 결과와 의의」, 『고구려발해연구』, 제38집.

14) Шавкунов В.Э., Памятники смольнинской культуры Приморья (по материалам раскопок городищ Смольнинское и Шайга-Редут) //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ий регион: археология, этнография, история, Выпуск 4, Владивосток,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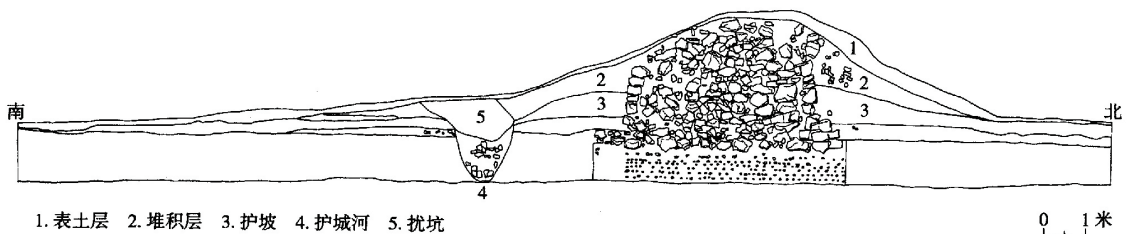
15) 정석배, 「발해의 북방경계에 대한 일고찰」, 『고구려발해연구』, 제54집, 2016.

16) Дьякова О.В., Государство Бохай: археология, история, политика, Москва, 2014, 165쪽 도면56, 167쪽 도면 58 참조.

구들주거지들도 조사되었다.¹⁷⁾ 따라서 연해주 동북해안지역과 스몰노예 문화 유적분포권은 발해 지방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1) 상경성

흑룡강성 영안시의 목단강 우안에 위치하는 발해 상경용천부유적이다. 외성, 내성, 궁성의 3중성으로 되어 있다. 외성은 전체 둘레길이가 16,293m이고, 내성은 크기가 남북 1,1174m, 동서 1,050m, 궁성은 남북 720m, 동서 620m이다. 외성과 내성 그리고 궁성의 성벽 축조방식이 각기 차이가 났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성벽 단면조사내용은 궁성 남벽만 제대로 보고되었다(도면 2).¹⁸⁾



도면 2 상경성 궁성 남벽 단면도(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編著, 2009, 圖459)

궁성 남벽 단면조사는 남벽의 동쪽 부분에 위치하는 단절부(豁口)의 서쪽 2m 거리에 2.5 26m 크기의 트렌치를 넣어 실시하였다. 성벽의 축조방식은 먼저 너비 6m, 깊이 1m의 기초 홈(基槽)을 파고, 그 안쪽에는 아래 0.8m 높이까지는 강돌을 6단으로 쌓고 그 사이는 황토로 채웠다. 다만 기초 홈 안의 남쪽 끝 부분에는 0.8m 너비로 황토만을 쌓았다. 더 위로는 큰 현무암 덩이 돌들을 기초 홈보다 0.4m가 더 높게 전체 0.6m 두께로 쌓았고, 그 양쪽에는 수평으로 0.4m 두께로 황토를 덮었다. 그 위로는 현무암으로 성벽 본체를 쌓았는데 밀면 너비 4.7m, 잔존 높이 2.5m이다. 안쪽과 바깥쪽 면이 모두 가운데로 8.42° 정도 기울었다.

석축 성벽은 3번의 과정을 거쳐 축조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먼저 속의 북쪽 부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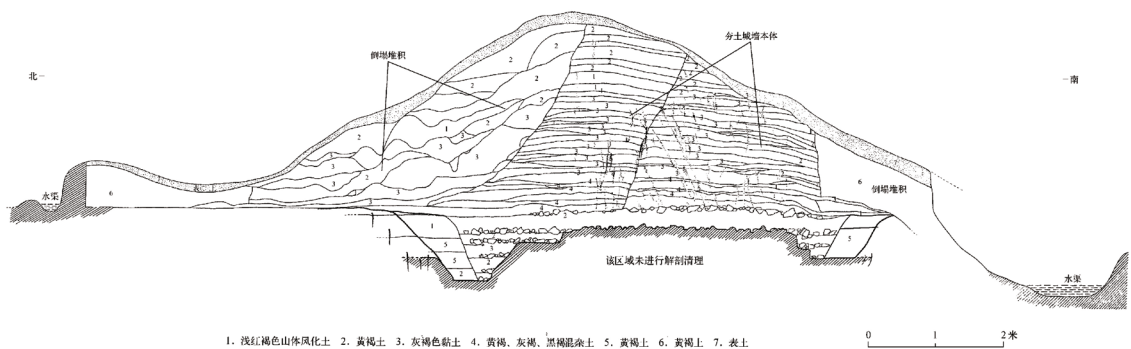
17) Шавкунов В.Э., Памятники смольнинской культуры Приморья (по материалам раскопок городищ Смольнинское и Шайга-Редут) //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ий регион: археология, этнография, история, Выпуск 4, Владивосток, 2015, 도면 2-5.

18)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編著, 『渤海 上京城 - 1998~2007年度考古發掘調查報告』, 文物出版社, 2009, 626~629쪽. (상경성의 외성 남벽과 북벽 그리고 내성 내 황성 남벽에 대한 조사보고도 있으나 보고내용이 지나치게 소략하고 또 조사지점의 성벽이 대부분 훼손된 상태여서, 유감스럽게도, 성벽의 단면내용을 알 수가 없다.)

너비 2.8m로 쌓았는데 아래가 넓고 위가 좁다. 다음에는 속의 남쪽 부분을 밀면 너비 1m로 쌓았는데 위로 가면서 점차 넓어지며 처음 쌓은 속 북쪽 부분의 성벽 위로 겹치게 쌓았다. 다음에는 남쪽과 북쪽에 큰 돌로 면석을 쌓았다. 이때 편평한 면이 밖으로 보이게 하였고, 면석과 속 채움 사이의 틈에는 황토로 메웠다. 절개된 곳의 성벽(장체) 아래 부분에서 남북방향으로 길이 4m, 직경 0.16m의 원목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성벽 축조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석축 성벽을 축조한 다음에는 성벽 양쪽의 아래 부분에 황사토로 보호벽(기저부 보강층)을 쌓았다. 성벽 밖 2.6m 거리에는 위 너비 1.35m, 깊이 1.4m의 해자(護城河)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런데 이 ‘해자’는 규모로 보아 궁성 밖의 배수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2) 서고성

길림성 화룡시의 해란하 좌안 두도평원에 위치한다. 발해 중경현덕부유적으로 알려져 있다. 내·외 이중성이다. 외성과 내성 모두 평면상 장방형이나, 내성의 남벽은 직선이 아니라 문지 일대가 안쪽으로 내만한 형태이다. 외성에는 각 벽에 1개씩의 문지가 있었고, 성벽 밖에 일부 해자가 확인된 곳도 있다. 외성과 내성 모두에서 치나 옹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성벽의 전체 둘레길이는 외성이 2,720.1m, 내성이 992.8m이다. 성벽 단면조사는 외성 남벽과 내성 동벽에 대해 각각 실시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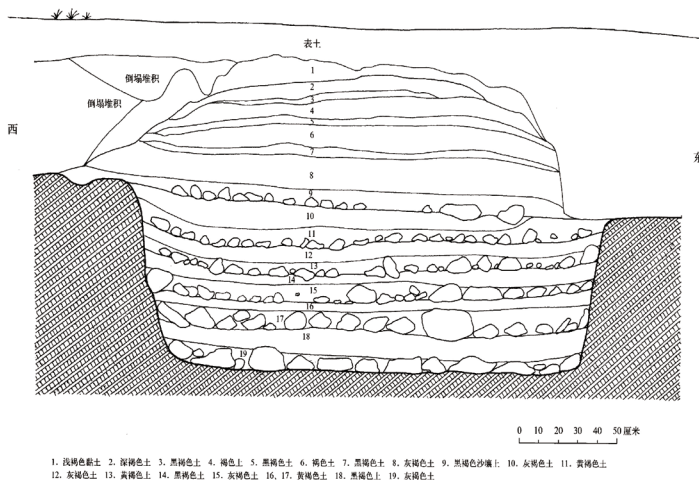


도면 3. 서고성 외성 남벽 단면도(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編著, 2007, 圖15)

외성 남벽은 남문지 동쪽이 조사되었다. 남문지 동쪽의 성벽 부분인 피트4(2000HXWT4)와 그 동측 확장 지점 성벽 단면이 각각 보고되었다. 피트4에서는 성벽 단면이 판축면 및 그 아래의 강돌층 한 겹이 노출되었고, 피트4 동측 확장지점에는 아래 기초 흙까지 보다 완

전하게 성벽 단면을 확인하였다(도면 3). 기초 홈은 모양이 아래가 좁고 위가 넓은 역사다리꼴이다. 기초 홈 안에는 양측 가장자리 쪽은 황갈토 등을 다짐하였고, 그 사이부분에는 강돌층과 흙다짐층을 5번씩 되풀이하여 쌓았으며, 그 위로 기초 홈 위 가장자리와 성벽 본체 사이에도 다시 강자갈을 한 겹 깔아 전체적으로 6겹의 강돌층을 조성하였다. 기초 홈 안의 흙다짐층은 황갈토와 회갈색점토를 교대로 사용하였다. 강돌 기초의 너비는 남문지 서쪽 문돈 서벽은 약 6m, 동쪽 문돈 성벽은 약 4.8m로 차이를 보인다.

기초 홈 위의 성벽은 본체 부분과 내·외측의 ‘붕괴토(倒塌堆積)’ 부분으로 각각 구분되었다. 토층을 겹겹이 판촉다짐하여 쌓은 성벽본체 부분은 가장 아래의 기저부는 기초 홈과 대체로 합치하게 위로 쌓았지만 그 위로는 기초 홈의 좌우 가장자리보다 약간 안쪽으로 들어온 곳에 위치한다. 성벽본체는 외측 절반과 내측 절반을 각기 따로 축조하였을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성벽본체 가운데 부분의 위에서 아래로 토층들을 구분하는 안쪽으로 비뚤게 난 선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다짐층의 두께는 얇은 것은 2cm, 두꺼운 것은 20cm로 일정하지가 못하다. 본체 부분의 다짐층들은 위에서 아래로 크게 4개의 성분으로 구분이 되었다. 가장 위의 1~6층은 과립(顆粒)상의 황갈색 토양으로 되어 있고 두께는 0.6~0.7m이다. 그 아래의 7~9층은 과립상의 엷은 홍갈색 풍화토이고 두께가 0.3~0.4m이다. 외부에서 유입된 토양으로 판단되었다. 그 아래의 10~22층은 회갈색 점토로서 두께가 0.2~0.4m이다. 가장 아래의 23~24층은 황갈, 회갈, 흑갈색의 혼합토로서 두께는 0.2~0.4m이다. ‘붕괴토’는 엷은 홍갈색 풍화토와 회갈색 점토로 되어 있다. 이 지점 성벽의 높이는 발해시기 지표에서 약 3m, 기저부 너비는



약 6.94m이다.¹⁹⁾

붕괴토로 보고된 성벽본체 좌우의 부분이 정말 성벽이 붕괴하여 쌓여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성벽 안쪽의 ‘붕괴토’는 성벽의 단면에서 거의 1/3을 차지하고 있고, 또 성벽이 무너져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토층양상을 보여 성의 안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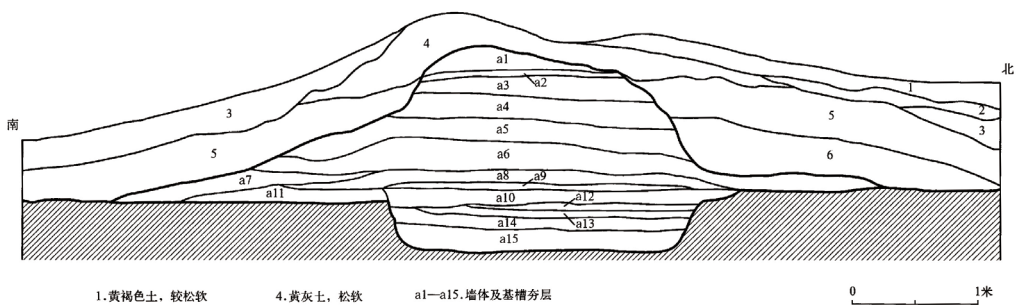
도면 4. 서고성 내성 동벽 단면도(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編著, 2007, 圖19)

19)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編著, 『西古城 - 2000~2005年度渤海國中京顯德府故址田野考古報告』, 文物出版社, 2007, 25~29쪽.

이기 때문에 공력을 적게 들여서 쌓은 부분일 거라고 생각된다. 그 외에도 성벽본체의 보다 얇은 다짐층들이 무너졌다면 ‘붕괴토’ 내의 각 층들에 여러 가지 흙들이 뒤섞인 양상이 관찰 되어야만 할 것이다. 내성 동벽은 2002년에 내성 궁전구역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배수시설과 관련하여 조사되었다. 조사 지점은 3호 궁전지 동쪽 약 13m 거리의 내성 동벽 가운데 부분이다. 8 3m 크기의 트렌치조사를 하였다. 성벽은 당시 지면에 기초 홈을 파서 그 안에 강자갈층과 다짐층을 6번씩 교대로 쌓아 기초를 다지고 그 위로 다시 판축다짐을 하여 성벽을 완성하였다(도면 4). 기초 홈은 크기가 위 너비 2.45m, 바닥 너비 2.1m이며, 깊이는 약 0.7~0.8m이다. 지면 위 성벽 기저부의 너비는 약 2.65m, 잔존 높이는 0.52~0.58m이다. 9개의 다짐토층이 잔존하는데 3, 5, 7층은 흑갈색 토양으로서 두께가 2~5cm로 얇고, 그 사이의 층들은 갈색 혹은 회갈색 토양으로서 두께가 3~10cm로 두껍다.²⁰⁾

3) 팔련성

길림성 훈춘시 서쪽의 두만강과 훈춘하 사이의 충적대지에 위치한다. 서쪽의 두만강과는 2.1km 떨어져 있다. 발해의 동경용원부유적으로 간주되고 있다. 서고성과 마찬가지로 내·외 이중성이다. 외성은 방형에 가까운 장방형이고 내성은 장방형이기는 하나 남북이, 서고성의 경우와 같이, 직선이 아니라 문지 일대가 안쪽으로 내만한 형태이다. 외성은 성벽 전체 둘레길이가 2,885.4m이다. 내성 성벽의 전체 둘레길이는 남북의 가운데 내만한 부분을 따로 고려하지 않고 직선으로 보았을 때에 1,065.6m로 산출된다.²¹⁾ 성벽의 단면은 외성 남북과 내성 남북에서 문지조사와 관련하여 각각 조사되었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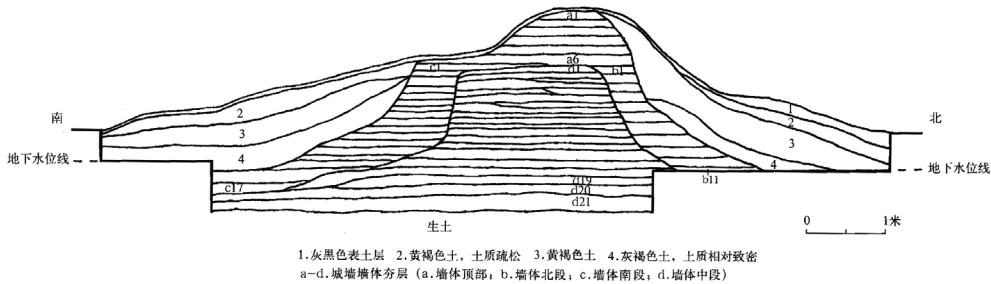
도면 5. 팔련성 외성 남벽 단면도(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編著, 2014, 圖11)

20)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編著, 『西古城 - 2000~2005年度渤海國中京顯德府故址田野考古報告』, 文物出版社, 2007, 34~37쪽.

21)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編著, 『八連城 - 2004~2009年度渤海國東京故址田野考古報告』, 文物出版社, 2014, 15~18쪽 참조(외성 성벽은 남북 698.4m, 북벽 709.2m, 동벽 743.4m, 서벽 734.4m로, 내성 성벽은 남북 직선거리 216m, 북벽 219.6m, 동벽 316.8m, 서벽 313.2m로 각각 보고되어 있다).

22)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編著, 『八連城 - 2004~2009年度渤海國東京故址田野考古報告』, 文物出版社, 2014, 18~22쪽.

외성 남벽 단면조사는 남문지 문길 가운데에서 서쪽으로 14m 거리에 1.2 7.8m 크기로 설정한 트렌치(WQT2)를 통해 실시되었다(도면 5). 성벽 축조는 당시의 지표에서 아래로 너비 약 3m, 깊이 약 0.5m의 기초 홈을 파고, 먼저 그 안에 황토를 겹겹이 다져 쌓아 성벽의 기초를 단단히 하고 그 위로도 다시 겹겹이 쌓아 성벽 본체를 축조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토층도를 보면 성벽 남쪽에는 먼저 한 겹 토층을 쌓고 난 다음에 기초 홈을 팠음을 알 수 있다. 성벽 본체의 기저부는 안쪽과 바깥쪽 모두 기초 홈보다 밖으로 나가있지만, 안쪽은 가장 아래의 한 층 위로는 대체로 기초 홈의 범위 안에 있다. 다짐층 위와 좌우의 토층들은 후에 자연적으로 퇴적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당시 지표면을 기준으로 한 다짐한 성벽의 잔존 높이는 약 1.1m, 기저부 너비는 당시 지표면을 기준으로 한 다짐한 성벽의 잔존 높이는 약 1.1m, 기저부 너비는 6.1m, 위 부분 너비는 약 2m로 각각 파악되었다.



도면 6. 팔련성 내성 남벽 단면도(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編著, 2014, 圖12)

내성 남벽 단면조사는 내성 남문지에서 동쪽으로 약 25m 거리에 2 10m 크기의 트렌치(NQT1)를 넣어 실시하였다(도면 6). 두께 약 5cm의 표토를 제거하자 성벽 다짐 토층이 노출되었다. 성벽 축조 방식은 먼저 기초 홈을 파고, 기초 홈의 바닥에 강돌을 깔고, 그 위로 황토를 2층 다짐하고, 그 다음에 위로 성벽 본체를 겹겹이 다짐 축조하였다. 성벽 본체는 중단(中段), 남단(南段), 북단(北段), 정부(頂部)로 구분되었다. 남단과 북단 좌우의 토층들은 성벽이 붕괴된 그리고 자연적으로 퇴적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아래 토층(4층)의 경우 일부가 기초 홈에 들어 있어 성벽 중심부를 보호하도록 인위적으로 쌓은 측면보호벽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중단은 황갈색 토양을 사용하였는데 백색의 과립이 비교적 많이 석여 있고, 간혹 작은 와편도 발견된다. 토층의 두께는 하반부는 15~20cm, 상반부는 6~10cm이다. 기저부 너비는 약 5.4m, 위 너비는 약 1.8m, 높이는 약 1.5m이다. 본체 남단과 북단 그리고 정부는 중단 본체가 붕괴된 다음에 쌓은 것으로, 다시 말해서 수축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축조 방법은

중단 본체의 약해진 부분을 제거하고, 바깥쪽(남단)의 기초 위로 황토를 2층 쌓고, 그 위 표면에 외편을 1층 깔고, 그 다음에 중단 본체보다 약간 더 넓게 남단과 북단에 토층을 올려 쌓았다. 남단 장체의 토층은 두께가 8~10cm, 북단과 정부는 토층의 두께가 10~15cm이다. 수축 후의 내성 남벽은 기저부 너비가 약 6.5m, 높이가 약 2.05m이다. 기초 흙 강돌 층에서 성벽 본체의 가장 위까지의 잔존 높이는 약 2.6m이다.

4) 끄라스끼노 성

연해주 하산지구의 끄라스끼노 마을 부근 바닷가에 위치한다. 발해 동경용원부 염주의 치소가 있었던 곳, 다시 말해서 염주성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평면상 오각형에 가깝고, 성벽의 전체 둘레길이는 1,380m이다. 동문지, 서문지, 남문지 3개의 문지가 있는데 모두 옹성이 시설되어 있다. 동문지 남쪽 가까이에서는 치가 한 개 조사된 바 있다. 성벽 단면조사는 1996~1997년에 서벽 북쪽 부분(제14구역)에 대해,²³⁾ 2004년에 동벽 치 부분에 대해²⁴⁾ 각각 실시되었다. 두 곳 모두 속은 흙을 다짐하여 채우고 양쪽 겉은 석축을 한 일종의 토심석축성벽²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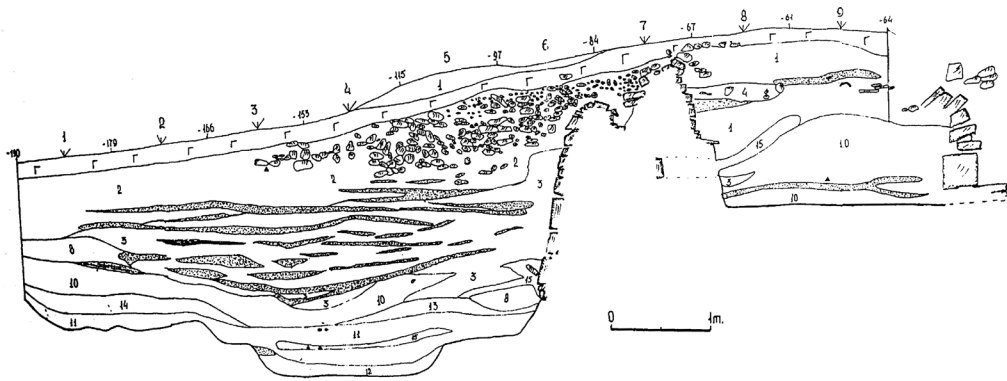
서벽 북쪽 부분의 성벽은 두 단계에 걸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었다(도면 7). 이른 단계 성벽은 석축을 한 내벽과 외벽이 있었고 그 사이는 흙을 다짐하여 채웠다. 외측 석축은 전체 높이가 약 2.6m, 두께가 1.4~1.8m이며, 외면을 돌로 8~9층 쌓았다. 외측 석축의 내면은 돌을 6~7층으로 쌓았고 높이가 0.9~1m이다. 외측 석축의 외면과 내면 모두에는 기저부에 판돌 1층을 기반으로 삼았다. 내측 석축의 내면은 돌을 7층으로 쌓았고, 기단이 있으며, 현존 높이는 1.1~1.2m이다. 내측 석축의 아래층은 높이가 0.4m까지인 횡단면이 방형인 큰 돌들을 사용하였다. 위층들의 돌들은 높이가 10~15cm이다. 내측 석축은 안쪽에만 돌을 쌓았고, 외측 석축과는 2.2m 떨어져 있다. 외측 석축은 내측 석축에 비해 0.4~0.6m가 더 높는데 여장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23) Болдин В.И., О результатах полев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на Краскинском городище, городище Синельниково I и в Анучинском районе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в 1997 году // Архив ИИАЭ ДВО РАН.

Ивлиев А.Л., Болдин В.И., Никитин Ю.Г., Новые сведения о фортификации бохайских городищ // Археология и этнолог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Владивосток, 1998.

24) クラスキノ土城發掘調査團, 『2004年度 ロシア・クラスキノ土城發掘調査概要報告』, 2005.

25) 성벽에서 토축부와 석축부가 결합된 것은 '석축부가 판축성벽', '석축형 토성', '기단석축형 판축토성', '토심석축성벽' 등 여러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각 용어마다 각각의 누양스를 가지고 있다(안성현, 『경남지역 통일신라시대 토성에 대한 재검토』, 『경남연구』, 제11집, 2016, 105~108쪽 참조). 이 글에서 '토심석축성벽'은 겉은 석축, 속은 판축이나 성토에 관계없이 흙으로 채워진, 다시 말해서 문자 그대로 속은 흙, 겉은 돌로 된 성벽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도면 7. 그라스끼노 성 서벽 단면도(Болдин В.И., 1997, 도면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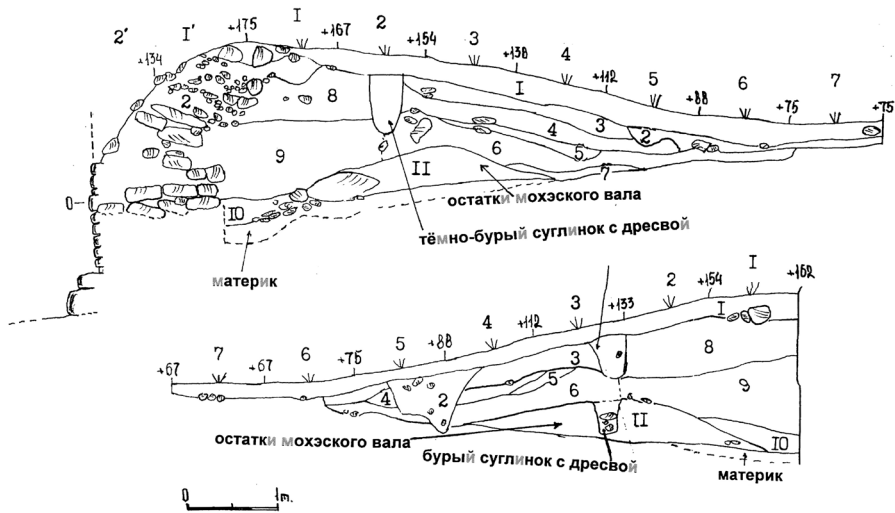
그 위의 층은 이후 증축에 의한 결과로 판단되었는데, 성벽의 외측에 사질점토와 사질토를 교대로 덮고 그 위에 자갈을 다시 덮었다. 성벽 내에서 확인된 배수로는 증축을 할 때에 성 내 성벽 가까이의 저지에 모이는 지하수를 배출하기 위해 처음 축조한 석축 성벽을 절개하고 만든 것으로 추정되었다. 배수로는 양 측면에 평행하게 석벽을 세우고 그 위를 판돌로 덮어 만들었다.

성벽 조사 시에 내측 석축의 북쪽 부분과 남쪽 부분에 사용된 석재와 돌을 쌓은 방법이 차이가 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사실은 성벽의 여러 구간들이 독자적으로 석재를 채취하여 가져온 서로 다른 집단들에 의해 축조되었음을 혹은 각 구간의 석재를 서로 다른 곳에서 가져왔음을 말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성 내와 성벽에서 발해유물만이 출토되었기 때문에 두 단계의 성벽 모두 발해 때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되었다.²⁶⁾

5) 시넬니꼬보 1 산성

연해주 옥짜브리스크 지구의 시넬니꼬보 2 마을에서 서쪽으로 2.5km 거리의 라즈돌나야 강 우안 산 정상에 위치한다. 성의 평면 모양은 길쭉한 반달 모양인데 길이가 260m, 폭이 78m이다. 성의 전체 둘레 길이는 약 700m이고, 면적은 약 1.3헥타르이다. 성의 북쪽과 동북쪽은 절벽이고, 동쪽은 가파른 경사면이며, 남쪽과 남서쪽은 상대적으로 덜 가파른 경사면이다. 이곳 상대적으로 덜 가파른 곳에만 석축 성벽이 축조되어 있다. 석축 성벽의 높이

26) Ивлиев А.Л., Болдин В.И., Никитин Ю.Г., Новые сведения о фортификации бохайских городищ // Археология и этнолог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Владивосток, 1998, 155쪽.



도면 8. 시넬니코보 산성 문지 서쪽 부분 성벽 단면도(Болдин В.И., 1997, 도면 5 재편집)

는 밖에서 2.5m, 안에서 0.5m이고, 밀면 너비는 5m이다. 동쪽 부분에는 높이 0.5m, 밀면 너비 5m의 토축 성벽이 길이 12m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문지는 남벽에 어긋문 형태로 한 곳만 확인되었다. 성의 동북쪽 끝 부분에서는 작은 보루가 하나 위치한다. 성벽 단면조사는 1996~1997년에 문지 서쪽 부분에 대해,²⁷⁾ 1999년에 문지 동쪽 바로 가까이 부분에 대해²⁸⁾ 각각 실시되었다.

문지 서쪽 부분은 길이 8.5m, 너비 2m의 트렌치를 넣어 조사하였다. 바깥쪽에는 석축을 하였고 안쪽에는 토축을 하였다(도면 8). 석축에는 판돌을 사용하였는데 가장 아래에는 밖으로 약간 돌출하게 기단석을 두었다. 석축 벽의 높이는 2.6m, 너비는 1.5m이다. 토축 부분은 가장 아래에는 생토 흙으로 쌓은 ‘생토 퇴적층’(11층)이 있고, 그 위로는 단면도의 말뚝 2지점 혹은 2지점과 3지점의 사이를 경계로 외측은 표토 아래로 2개의 토층(8층과 9층)으로 구분되고 있고, 내측은 다수의 토층으로 세분되어 있다. 외측과 내측의 경계에는 기둥구멍들이 확인되었는데 그 중의 하나는 크기가 깊이 60cm, 너비 20cm이다. 가장 아래의 ‘생토 퇴적층’ 외측은 덩이 돌들로 보강되어 있으며, 양단의 위쪽에는(제7층과 제10층) 불탄 흙들이 각각 위치한다. 또한 이 ‘생토 퇴적층’에서도 깊이 40cm, 직경 24cm의 기둥구멍이 확인되었다. ‘생토 퇴적층’의 너비는 3.5m, 높이는 0.4m이다.

27) Болдин В.И., О результатах полев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на Краскинском городище, городище Синельниково 1 и в Анучинском районе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в 1997 году // Архив ИИАЭ ДВО РАН.

28) Болдин В.И., Итоги полев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на Краскинском городище и городище Синельниково 1 в Приморье в 1999 году // Архив ИИАЭ ДВО РА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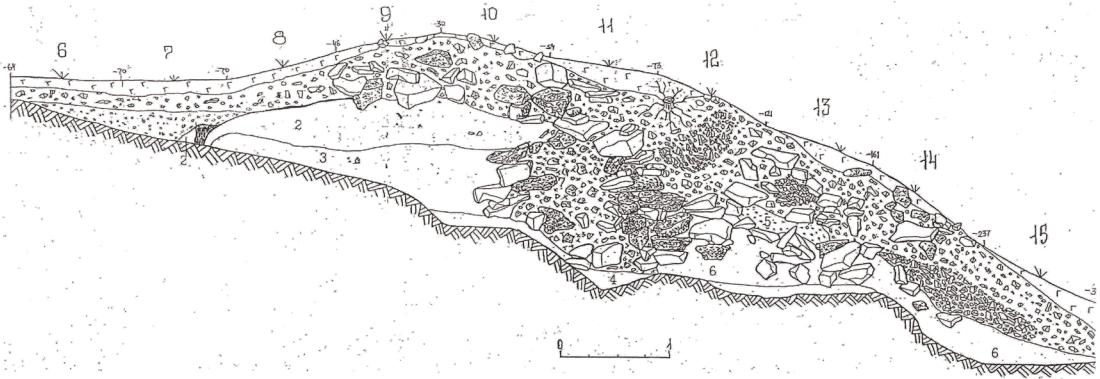
이 유적을 조사한 V.I.볼딘은 가장 아래의 ‘생토 퇴적층’은 말갈인들이 쌓은 토축 성벽일 것으로, 그 위는 발해시기에 증축한 것으로 각각 판단하였다. 말갈의 토축 성벽은 기둥구멍과 불탄 흔적들로 볼 때에 안쪽에 나무 ‘벽’이 있었을 것으로, 불탄 흔적들은 발해와의 충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발해시기의 성벽은 석축 면석부터 기둥구멍들까지로서, 외측은 석축, 내측은 나무 벽, 그 사이는 흙으로 속 채움을 한 성벽이었을 것으로, 그리고 발해시기 성벽의 너비는 3.5m로 각각 파악하였다. 유물은 2층과 3층에서는 수제토기와 윤제토기가 함께, 8층과 9층에서는 수제토기만이 각각 출토되었다.²⁹⁾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발해시기 성벽에서 기둥구멍들을 경계로 그 안쪽의 토층들은 성벽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단면도에 보이는 8층과 이웃하는 4층은 자갈이 섞인 단단한 밤갈색 사질점토와 석립이 섞인 밝은 밤갈색 사질점토로, 9층과 6층은 잔돌이 섞인 밤갈색 사질점토와 돌이 섞인 밤갈색 사질점토로 각각 구분되어 있다. 그 외에도 8층과 9층 그리고 4층과 6층은 기둥구멍 혹은 수직의 선에 의해 지극히 인위적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금방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기둥구멍들은 성벽 안쪽의 경계가 아니었고 또 속 채움과도 관련이 없었던 다른 용도의 구조물이었다고 생각된다. 어쩌면 성벽 위로 시설한 목책의 흔적일 수도 있을 것이나, 문지 동쪽 부분의 성벽에서는 기둥구멍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벽 전체에 다 이 시설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성벽 단면도를 통해 볼 때에 안쪽의 흙 채움은 면석에서 약 7.5m까지 계속된 것으로 생각된다.

문지 동쪽 가까이의 성벽 단면조사 부분은 성벽 높이가 2m, 밑변 너비가 6m, 위 부분 너비가 1m이었다. 암반을 계단상으로 정지하였고 그 위로 성벽을 쌓았다. 단면도의 11번과 12번 말목 사이에 석축 면석이 위치하며 그 바깥쪽은 성벽이 붕괴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바깥쪽은 석축을 하였고 안쪽은 토축이며 그 위는 현무암 돌들이 섞인 회색 사질토층으로 덮여 있다. 석축 면석 바로 안쪽에는 사암과 현무암 돌들로 속 채움을 하였다. 석축 부분 바로 밑에는 현무암 잔돌이 드물게 섞인 두께 10cm까지의 암갈색 사질점토층(4층)이 위치하는데 ‘건드려지지 않은 말갈층’으로 보고되었다. 그 위로 석축 안쪽의 토축 부분에는 현무암 잔돌이 소량 섞인 암갈색의 무른 사질토층(3층, 두께 0.6m)과 현무암 잔돌이 많이 섞인 적갈색 사질점토층(2층, 두께 0.4m)이 차례로 위치한다. ‘건드려지지 않은 말갈층’ 위의 석축성벽

29) Болдин В.И., О результатах полев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на Краскинском городище, городище Синельниково I и в Анучинском районе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в 1997 году // Архив ИИАЭ ДВО РАН.
 Болдин В.И., Ивлиев А.Л., Никитин Ю.Г., Гельман Е.И., Итоги поиска исследования археопамятников эпохи Бохая в Приморье в 1997 г. // Россия и АТР, № 1, 1998, 68~70쪽.

은 8세기보다 이르지 않은 시기에, 다시 말해서 발해 때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석축 내에서는 수제와 윤제의 토기편들이 출토되었다.³⁰⁾



도면 9. 시넬니코보 산성 문지 동쪽 성벽 단면도(Болдин В.И., 1999, 도면 2 재편집)

2015년에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바로 이 문지 동쪽 가까이의 성벽 절개부분에 대해 다시 정리조사를 한 적이 있다. 그런데 토축 부분의 안쪽으로, 1999년에 작성한 단면도에서 대략 3층 안쪽의 아래 부분에서 불에 탄 목재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1997년도 문지 서쪽의 성벽 절개조사 구간의 소위 ‘생토 퇴적층’ 안쪽 위(7층)와 대체로 상응하는 곳이다.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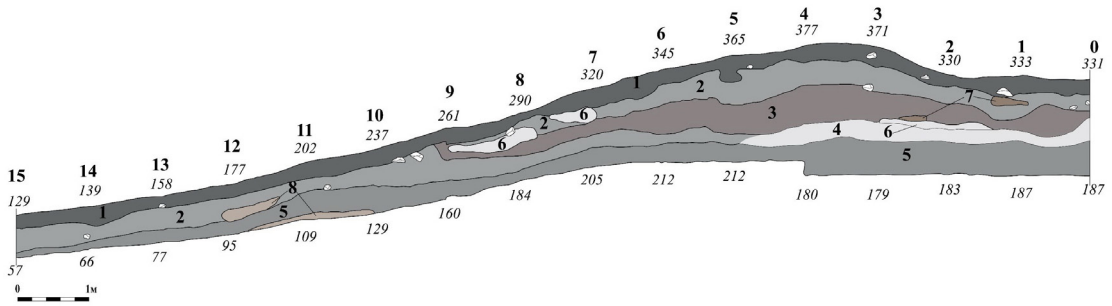
6) 니콜라예브카 1성

연해주 미하일로브카 지구의 니콜라예브카 마을에서 남쪽으로 3km 거리의 일리스따야 강 좌안 지류 곁에 위치한다. 평면상 장방형에 가까우며 크기는 240 295m이다. 동벽 밖에는 보조성벽이 하나 있다. 각 벽에 1개씩의 문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남문은 어긋문으로 되어 있다. 2010년에 서벽의 중간 북쪽 부분에 길이 15m, 너비 1m의 트렌치를 넣어 성벽 단면조사를 실시하였다.³²⁾

30) болдин В.И., Итоги полев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на Краскинском городище и городище Синельниково 1 в Приморье в 1999 году (городище Синельниково 1) // Архив ИИАЭ ДВО РАН, 191-200쪽.

31) 발굴조사 현장을 살펴볼 수 있게 해준 국립문화재연구소 시넬니코보 1산성 발굴조사단에 감사드립니다.

32) Никитин.Е.Ю., Отчет об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разведках на территории Михайловского и Анучинского районов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в 2010-2011 гг. // Архив ИИАЭ ДВО РАН. (니콜라예브카 1 성 서벽 단면조사 시에 필자는 약 1주일간 발굴 진행사항을 관찰한 바 있다. 때문에 서벽에 대한 본고의 내용은 발굴조사자의 보고내용에 필자의 관찰내용을 더한 것이다. 보고서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준 니키티н Е.Ю.에게 감사드립니다.)



도면 10. 니콜라예브카 1성 서벽 단면도(Никитин.Е.Ю., 2010-2011, 도면 36)

성벽의 기본 토층은 위에서 아래로 제1층 암회색 사질점토층(표토), 제2층 회갈색의 단단한 사질점토층, 제3층 황갈색의 단단한 사질점토층, 제4층 회갈색의 단단한 사질점토층(외측)+명갈색의 단단한 사질점토층(내측), 제5층 갈색의 무른 사질토층(생토)으로 구분되었고, 그 사이사이에 황갈색 소토와 명회색 재층이 렌즈모양으로 끼어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기본 토층이 생토층을 제외하고 모두 사질점토층이었고 색깔도 회갈, 황갈, 명갈색 등으로 비슷하여 사실 토층 간 구분이 뚜렷하지 못하였다. 성벽에서는 발해뿐만 아니라 초기철기 시대와 말갈의 토기편들도 함께 출토되었지만 발해 이후의 유물은 섞여있지 않았다. 생토로 표시된 토층의 상면에서 성벽 가장 높은 부분까지의 높이는 약 1.4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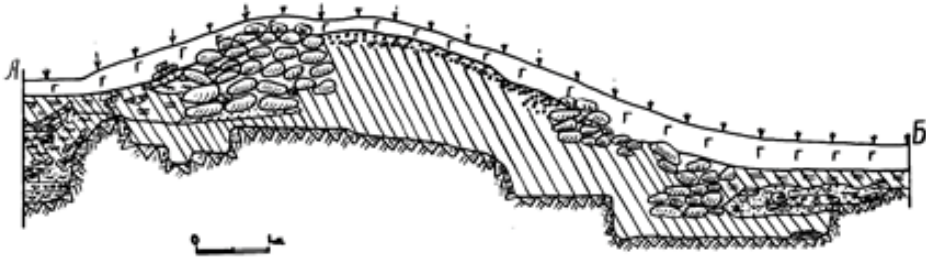
성벽의 위 부분에는 대체로 제1층 표토 아래 부분부터 시작하여 제2층 회갈색의 단단한 사질점토층까지 성벽의 안쪽과 바깥쪽에서 각각 돌들이 깔린 것이 확인되었다. 성벽 안쪽은 아(A)-1방안에, 바깥쪽에는 아(A)-8, 9방안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이 사실은 성벽의 가장자리에 인위적으로 층석을 하였음을 의미할 것이다. 지표 아래로 약 20~30cm 깊이에 집중되어 있는 성벽 내·외측의 돌무지 사이의 거리는 돌무지를 포함하여 약 9m이다.

성벽 단면에서 토층이 서로 잘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성벽을 성토다짐하여 쌓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아(A)-7방안의 성벽 표면(레벨 320cm)에서 62cm 깊이(레벨 258cm)에서 40cm(레벨 218cm) 깊이의 기둥구멍이 하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기둥구멍의 직경은 약 30cm이다. 이 기둥구멍의 둘레를 따라서는 소토가 그리고 그 안에서는 작은 숯 무더기가 발견되었다. 전체적으로 니콜라예브카 1성의 서벽은 사질점토로 성토다짐하여 축조하였고, 성벽의 내·외측 가장자리 부분에 층석을 하여 성벽을 보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성벽 바깥쪽 가장자리 부분에서 발견된 기둥구멍은 성벽 축조와 관련되었을 수도 있

고 혹은 목책과 관련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나, 아직은 단 1개만 확인되어 그 용도가 분명하지 못하다.

7) 니콜라예브까 2성

연해주 미하일로브까 지구의 니콜라예브까 마을에서 북서쪽으로 0.5km 거리의 일리스따야 강 좌안에 위치한다. 평면 모양은 장방형에 가까우며 크기는 140 290m이다. 남북과 서벽에 단절부 형태의 문지가 각각 있다. 성벽 단면조사는 서벽의 현대 수로에 의해 관통된 부분에 대해 1975년에 실시하였다.³³⁾



도면 11. 니콜라예브까 2성 서벽 단면도(Болдин В.И., Семениченко Л.Е., 1975, 도면 5 재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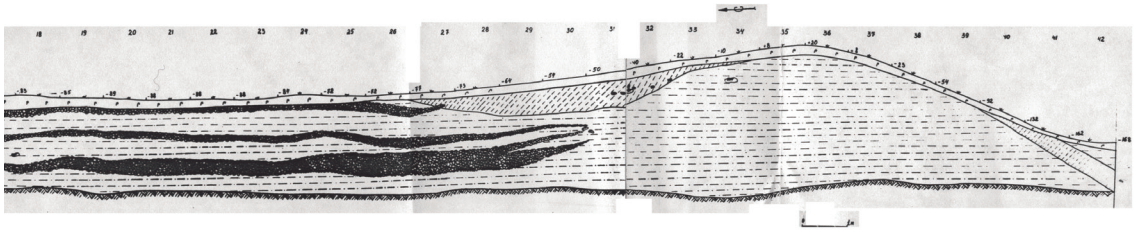
조사지점의 성벽 높이는 밖에서 1.75m, 안에서 1m 이하이다. 성벽은 안쪽과 바깥쪽을 돌로 쌓고 그 사이는 흙으로 속 채움을 한 다음에 위는 잔돌을 15cm 두께로 그리고 너비 3m로 덮어 축조한 것으로 판단되었다(도면 11). 안쪽 석축은 높이가 130cm, 밑변 너비가 170cm이다. 바깥쪽에는 돌무지가 서로 인접하여 두 곳이 있는데 안쪽의 것은 성벽 석축이고 밖의 것은 무너져 내린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런데 속 채움을 한 갈색 사질점토층이 안쪽과 바깥쪽의 석축 아래는 물론이고 바깥쪽의 해자로 추정된 너비 3m, 깊이 0.4m의 도랑 안에까지 이어지고 있어 토층 구분이 세밀하지 못하였음을 반증한다. 성벽 안쪽과 바깥쪽의 석축은 수축한 결과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토층 구분이 세밀하지 못해 판단하기 힘들다. 성벽 바깥쪽의 도랑이 해자였는지의 여부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이 도랑이 해자였다면 바로 인접하여 위치하는 성벽 외측이 쉽게 붕괴되었을 것이다. 성벽 안쪽에서 직경 25

33) Болдин В.И., Семениченко Л.Е., Об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ях на Николаевском II городище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в 1975 году // Архив ИИАЭ ДВО РАН, 62-65쪽.

cm에 깊이 40cm, 직경 30cm에 깊이 25cm의 기둥구멍이 각각 발견되어 성벽 안쪽으로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목책이나 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성벽 등성이를 따라 나지막한 도랑이 확인되어 성벽 등성이에 목책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8) 스타로레첸스꼬예 성

연해주 옥짜브리스끼 지구의 스타로레첸스꼬예 마을에서 남쪽으로 1.5km 거리의 라즈돌냐야 강 우안에 위치한다. 평면상 삼각형이며, 서쪽은 강에 의해, 동-북쪽은 가파른 낭떠러지에 의해 막혀있다. 남벽이 가장 잘 남아있는데 길이 150m, 높이 약 2m이다. 남벽의 서단은 안쪽으로 꺾여 들어갔고, 그 서편에 4~5m의 거리를 두고 강에 의해 대부분이 유실된 성벽의 일부가 길이 약 42m로 잔존한다. 이 성벽은 높이가 평균 2~2.5m이나 가장 높은 곳은 3m이다. 이 42m 길이 잔존 성벽의 강에 의해 노출된 면이 조사되었다(도면 12).³⁴⁾



도면 12. 스타로레첸스꼬예 성 남벽 서편 성벽 토층도(Семениченко Л.Е., 1982, 도면 4)

성벽의 기본 층위는 잔돌이 섞인 암회색 사질토층인데, 남쪽 가장 높은 부분은 대부분이 이 토층으로 되어 있고, 다만 표토 아래 좌우에 회색 사질토층이 배치되었다. 북쪽 부분은 대부분 암회색 사질토층 사이로 모래가 섞인 자갈층이 3개 포함되어 있다. 남쪽 부분은 잔돌이 섞인 토양을 성토다짐하여 쌓은 것으로 보이고, 북쪽 부분은 잔돌이 섞인 토양과 모래가 섞인 자갈을 번갈아 쌓아 올려 성벽을 축조한 것으로 보여 동일 성벽 내 구간에 따라 서로 다른 축조방식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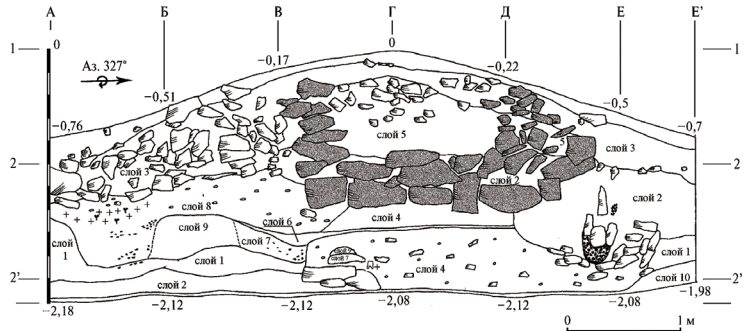
34) Семениченко Л.Е., Отчет об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ях на Старореченском городище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в 1982 году // Архив ИИАЭ ДВО РАН, 3-4쪽.

9) 오프라인까 성

연해주 추구예브까 지구의 오프라인까 마을에서 남서쪽으로 0.5km 떨어진 주라블로브까 강의 좌안에 위치한다. 평면상 준장방형이다. 성벽의 전체 둘레길이는 405m이다. 성벽의 높이는 밖에서 1.8~2.6m, 안에서

1.2~1.7m이며, 성벽의 너비는 밑변이 5~7m, 위 부분이 약 0.5m이다. 면적은 1.2헥타르이다. 성벽에는 동벽, 북벽과 동벽이 만나는 부분, 남벽, 그리고 서벽에 각각 1개씩의 문지로 추정되는 단절부가 있다. 서문지는 너비 5m의 어긋문 형태를 하고 있다. 성벽 둘레로는 북벽을 제외하고 너비 3~4m의 해자가 돌아간다. 성벽 단면조사는 서벽 문지 단절부분에 대해 실시하였다(도면 13).³⁵⁾ 그 외에도 서벽의 한 지점에서 성벽의 석축 면석 노출조사가 있었지만 성벽의 단면은 조사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곳의 성벽 외측 석축부는 높이가 2.4m이며, 다짐 기초 위에 쌓아 올렸고, 면석의 크기가 아래, 중간, 위 부분이 서로 차이가 난다.³⁶⁾ 면석 밖 토층의 양상은 보고되지 않았다.

서문지 단절부 조사지점의 성벽 외면 높이는 2.4m이다. 성벽의 구성요소를 기초부, 측면 보호부, 석축 중심부, 석축 덮개부의 네 부분으로 설명하였으나, ‘석축 덮개부’는 사실 성벽 안쪽 측면 보호부의 위 부분에 해당된다. 성벽 기초부는 생토를 약간 파낸 다음에 조성하였는데 중심부와 측면부로 구분되었다. 기초 중심부는 사질점토를 다져 조성하였으며 석립과 잔돌이 섞인 간층(6층)에 의해 아래와 위로 구분되었다. 아래의 사질점토층(4층 하부)은 두께가 0.56m까지이며 작은 자갈(10~15cm)과 큰 덩이 돌(56cm까지)들이 섞여 있으며, 양단에 돌을 눕히거나 혹은 세워 놓았다. 위의 사질점토층(4층 상부)은 두께가 0.2m까지이며 큰 덩이 돌은 섞여 있지 않다. 아래 사질점토층의 좌우 생토면 바로 위의 토층(안쪽은 2층, 바깥쪽은 1층)은 기초 측면부로 파악하였다. 기초 중심부 좌우의 토층들(안쪽은 1층, 7



도면 13. 오프라인까 성 서벽 단면도(Сакмаров С.А., 2016, 도면 3 재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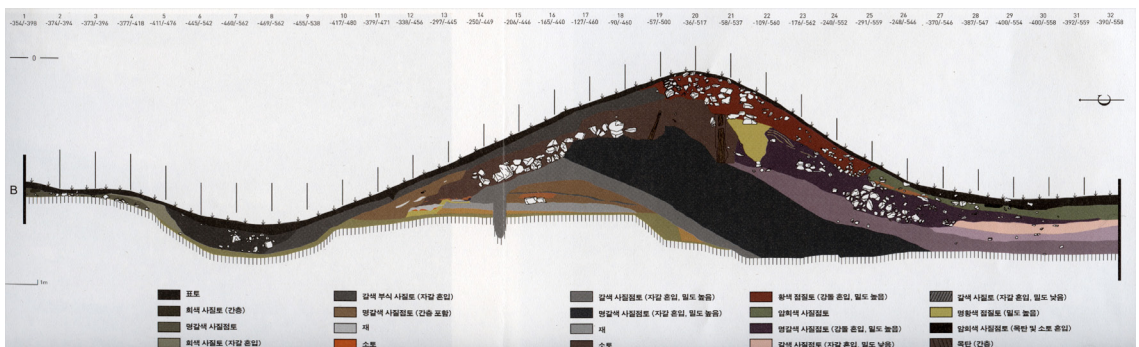
35) Сакмаров С.А., Результаты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го обследования городища Окраинка // Средневековые древности Приморья, Выпуск 4, Владивосток, 2016.

36) 대한민국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역사학교고학민속학연구소, 『연해주의 발해유적 1』, 2007, 362~367쪽.

층, 9층, 8층, 바깥쪽은 2층)은 측면 보호부로 간주하였다. 석축 중심부는 기초 중심부 바로 위에 위치하는데 너비가 2.2m, 높이가 0.9~1m이다. 석축 중심부는 양쪽 측면과 아래 부분이 돌로 되어 있는데 아래 부분의 돌 쌓은 두께는 0.5m까지이다. 석축 중심부의 가운데 부분에는 단단한 명황색 사질점토가 채워져 있다. 석축 중심부의 안쪽에 쌓여 있는 돌들은 ‘석축 덮개부’로 파악되었는데 중간 부분에 수직으로 석축의 면을 맞춘 부분이 있어 보축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유적은 성의 입지와 평면구조, 방어구조물의 요소들, 출토 유물 등을 통해 발해국 말기와 발해 멸망 이후의 시기로 편년되었다.³⁷⁾

10) 꼭샤로브까 1성

연해주 추구예브까 지구의 꼭샤로브까 마을에서 북동쪽으로 3km 거리의 우쭈리강 우안 지류 꼭샤로브까 강의 좌안에 위치한다. 성의 평면모양은 장방사다리꼴이다. 성벽의 전체 둘레길이는 1,645m이고, 성벽 높이는 4~6m, 밑변 너비는 10~14m이다. 성 내의 면적은 16만㎡이다. 북문지와 서문지에는 웅성이 있고, 그 외 남벽에 1개소, 동벽에 2개소의 단절부가 있다. 서벽의 남쪽 부분에는 치가 하나 확인되었다. 성벽 주변에서는 해자가 확인되는데 동벽 밖에는 꼭샤로브까 강이 자연 해자를 이룬다. 성 내에 3개의 기단이 있는데 북쪽 기단에서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기의 대형 건물터로 된 북편건물지군과 다른 건물지 등이 발굴되었다.³⁸⁾ 성벽은 남벽과 해자가 함께 조사되었다(도면 14).



도면 14. 꼭샤로브까 1성 남벽 단면도(대한민국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외, 2015, 그림 55)

37) 대한민국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역사학교고학민속학연구소, 『연해주의 발해유적 1』, 2007, 362~367쪽.
 Сакармав С.А., Результаты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го обследования городища Окраинка // Средневековые древности Приморья, Выпуск 4, Владивосток, 2016, 179쪽.
 38) 대한민국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역사학교고학민속학연구소, 『연해주의 꼭샤로프까-1 평지성 1』, 2012; 대한민국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역사고고민족지연구소, 『연해주 꼭샤로프까 유적: 꼭샤로프까-1 평지성, 꼭샤로프까-8 석축구조물』, 2015.

단면조사 지점의 성벽은 높이가 지표에서 3.8m, 해자 바닥에서 4.5m이었다. 성벽 조사에서 성벽 이전 문화층, 제1단계 성벽, 제2단계 성벽이 구분되었다.³⁹⁾

성벽 이전 문화층은 성벽의 외벽 생토 위에서 확인되었는데 목탄과 소토 알갱이가 섞인 두께 25cm까지의 흑회색 점질토층이다. 이곳에서는 연도 2줄이 25cm 거리를 두고 노출되었으며 윤제 호 등의 구연부편과 저부편, 동이, 철제 찰갑, 슬래그, 동물 뼈 등이 출토되었다. 또한 이 점질토층에서 기둥구멍도 하나 확인되었다.

그 위로는 인공 성토층인데 축성 전에 지면을 안쪽으로 단이 지게 사전에 준비를 하였다. 가장 아래에는 작은 자갈돌이 섞인 단단한 명갈색 사질점질토가 위치하고, 그 위는 크고 작은 자갈돌이 섞인 단단한 갈색 사질점토층이 덮고 있다. 그 위로는 두 종류의 흙을 중심부에서 안쪽으로 교대로 쌓아 올리며 성토하였다. 지표에서 약 2m까지는 외벽과 내벽에서 큰 덩이 돌들이 층을 이루며 확인되나, 가운데 부분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는 후대에 증축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제거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기까지를 제1단계 성벽으로 파악하였다. 이 높이의 성벽 가운데 부분에서 단단한 암갈색 사질점토와 함께 11개의 각목이 확인되었다. 각목은 모두 단면이 사각형이며 양단이 편평하고, 일정한 시스템으로 배치되어 있다. 가운데 2개씩의 각목이 성벽과 동일 방향으로 열을 이루고 있었다. 쌓을 이루는 두 각목 간의 거리는 20cm, 다른 쌍 각목들 간의 거리는 170cm이다.

이 각목 구조물에 대해 러시아조사단은 최초 성벽의 정상부에 있던 구조물로 파악하였고, 한국조사단은 성벽의 외연을 확장하면서 성벽 정상부에 시설한 석벽을 지지하기 위한 것으로 각각 파악하였다. 한국측 의견의 근거는 석벽의 바깥 면에 각목을 대어 구조물을 지지한 흔적이 관찰되었고 또 각목 구조물의 평면 배치가 일정하다는 점이었다. 후대의 성벽 외연 확장은 높이를 올리고 폭을 넓히는 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조사단에 의하면 제2단계 성벽은 1차 성벽의 가운데 부분 큰 돌들을 빼내고 먼저 암갈색 사질점토로 성토하고, 다음에 각목을 시설하고 명황색 사질점토를 깐 다음 성벽 정상부에서 확인되는 돌들로 석벽을 시설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석벽의 잔존 높이는 85~90cm, 너비는 180~190cm이다. 석벽의 외면에서 70~75cm 거리에서 기둥구멍들이 확인되었다. 석벽은 황색 점토를 이겨 단단하게 하였고 바깥면은 거의 수직이 되게 하였다. 다음에는 이면에 맞대어 성벽 외벽 전면을 잔 자갈돌층으로 깔아 포장을 마무리하였다.

한국조사단은 제1단계 성벽의 축조 연대와 관련하여 아래 부분에서 발해 입방체 1점이 출토되었고, 1단계 성벽 성토층에서 성 내 건물지군에서 출토한 것과 동일한 물레성형 토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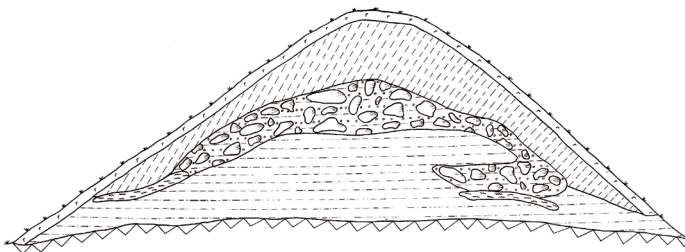
39) 대한민국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역사고고민족지연구소, 『연해주 콕사로프카 유적: 콕사로프카-1 평지성, 콕사로프카-8 석축구조물』, 2015.

이 출토되어 성벽 축조의 주체가 성 내 건물지 운영 주체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제 2단계 성벽의 토층에서는 발해 시기 이후의 수막새 등의 유물이 상부에서 수습되어 성벽의 운영시점이 발해 이후까지 이어진 것으로 간주하였다. 방사성탄소연대결과를 통해 발해 시기에 성벽이 초축되고 발해 이후까지 상당기간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러시아조사단에 의하면 성벽이 발해 마을유적 위로 2단계에 걸쳐 축조된 것은 방사성 탄소연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성벽의 기초 부분에서는 1270 ± 20 BP(Cal AD 675~770) (Beta-409087), 제2단계 성벽에서는 1070 ± 30 BP(Cal AD 895~925; 940~1020) (Beta-409086)라는 연대가 검출되었다.⁴⁰⁾

11) 마리아노브까 성

연해주 끼로프 지구의 마리아노브까 마을에서 남쪽으로 약 5km 거리에 우쭈리 강의 우안 지류 가에 위치한다. 성의 평면 모양은 ‘버선’모양이다. 남벽은 강의 마른 하상에 접하고 있어 성벽이 없다. 전체 둘레길이는 약 900m이며, 성벽에 치 13개가 있다. 성벽의 높이는 5~7m이다. 문지는 북문지와 동문지 2곳이 있는데 동문지에는 옹성이 시설되어 있다. 1971년에 동문지의 성벽 절단면이 조사되었다(도면 15). 조사지점의 성벽 높이는 4m이다.



도면 15. 마리아노브까 성 동벽 단면도
(Галактионов О.С., Шавкунов Э.В., 1971, 도면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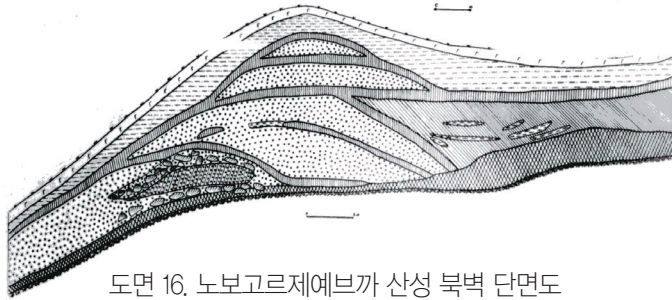
성벽 층위는 매우 단순하다. 가장 위는 표토이고, 그 아래는 모래가 섞인 명회색 점토층(2층)인데 드물게 돌을 포함하고 있고 간혹 윤제 토기편이 확인되었다. 그 아래는 대부분 돌로 된 적석층(3층)이다. 돌들의 사이는 짙은 색의 부식토로 채워져

있었는데 이 부식토에서 성 내에서 발견되는 것과 동일한 토기편과 뼈 등이 발견되었다. 적석층 좌우로 아래에는 재층이 있다. 적석층 아래는 잔돌이 섞인 명황색 점토층(4층)으로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다. 더 아래는 모래 생토층이다. E.V.샤브꾸노프 등은 모순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생토 위의 4층이 초축 성벽이라고 하면서, 초축 성벽의 높이는 2.4m라고

40) 대한민국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역사고고민족지연구소, 『연해주 콕사로프카 유적: 콕사로프카-1 평지성, 콕사로프카-8 석축구조물』(러시아어본), 2015, 81~89쪽.

한 것이다. 그 위로는 여진 시기에 증축된 성벽으로 파악하였다.⁴¹⁾ 도면의 스케일을 보면 2.4m 높이는 3층 적석층까지를 포함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A.L.이블리에프 등은 적석층까지를 발해 때에 쌓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⁴²⁾

12) 노보고르제예브까(고루글라야 소쁘까) 산성



도면 16. 노보고르제예브까 산성 북벽 단면도
(Семениченко Л.Е., 1981, 도면 3 재편집)

연해주 아누치노 지구의 노보고르제예브까 마을에서 북서쪽으로 5km 거리의 아르세니예브까 강 우안의 홀로 솟아있는 산에 위치한다. 남북 최대 거리 230m, 동서 최대 거리 190m, 면적 약 3.25헥타르이다. 성벽에 대한 조사는 1970년대 초에 북벽에 대해

그리고 1987년에 서벽에 대해 각각 실시되었다.

북벽 중간쯤의 성벽 단면은 성벽이 단번에 축조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다(도면 16). 이곳의 성벽 높이는 3.5m이다. 가장 아래의 생토층 위로 부식토층이 전체적으로 분포하고 있고, 그 위로 성벽의 외측에 큰 강돌층과 석립 포함 사질점토층 그리고 큰 강돌층이 위치하고 있다. 이 적석층은 초축 성벽으로 파악되었는데 높이가 1m를 넘지 않는다. 다음 그 위로 성벽의 가운데 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매장 표토’와 석립 포함 점토층이 반복적으로 쌓여져 있다. ‘매장 표토’의 반복적인 존재로 인해 처음에 두 번, 다시 두 번의 증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⁴³⁾ E.V.샤브꾸노프 등은 이 성벽이 두 번은 중세 초기에, 두 번은 12~13세기의 여진시기에 각각 축조 및 증축된 것으로 판단하였고,⁴⁴⁾ N.G.아르제미예바는 돌을 쌓은 부분이 초축 성벽일 것으로 파악은 하였으나⁴⁵⁾ 그 문화적 귀속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

41) Галактионов О.С., Шавкунов Э.В., Археологическая разведка на территории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в 1971 году // Отчет об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ях на территории Приморского и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ев в 1971 году // Архив ИИАЭ ДВО РА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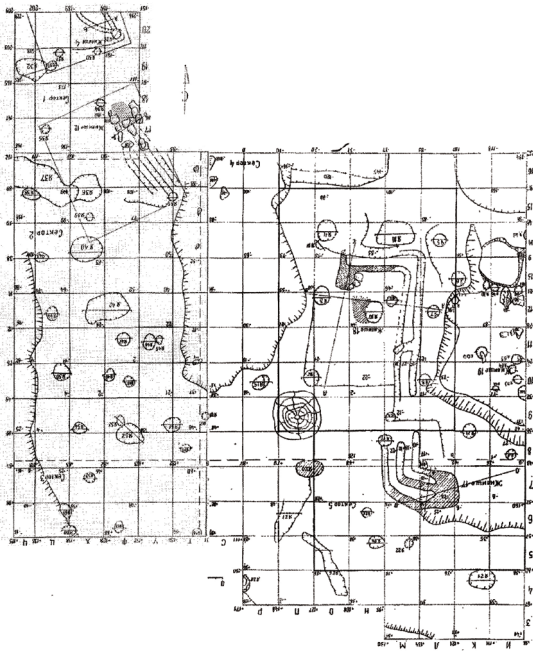
42) Ивлиев А.Л., Болдин В.И., Никитин Ю.Г., Новые сведения о фортификации бохайских городищ // Археология и этнолог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Владивосток, 1998, 155쪽.

43) Семениченко Л.Е., Материальная культура населения Приморья в период государства Бохай (VIII-X вв.), Диссертация на соискание ученой степени кандидата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Владивосток, 1981 г., 26~27쪽.

44) Артемьева Н.Г., Чжурчжэньские валы // Средневековые древности Приморья, Владивосток, Выпуск 1, 2012, 32~35쪽.

45) Артемьева Н.Г., Чжурчжэньские валы // Средневековые древности Приморья, Владивосток, Выпуск 1, 2012, 15쪽.

하지만 단면도를 보면 성벽 바깥쪽의 석축 부분 위로 반복적으로 나있는 이 소위 ‘매장 표토’층은 가장 위의 동일 층과 서로 구분이 되지 않고, 또한 체성부의 ‘매장 표토’와 석립 포함 점토층이 너무나 일률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실은 이 층들이 각각 시기를 달리하여 증축된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증축되었음을 말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성벽은 2번에 걸쳐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산성 내에서 안콤포스끼-리도브까 문화, 크로우노브까 문화, 올가 문화, 발해, 그리고 여진의 문화층이 확인되었고, 그 외에도 초기 철기시대 안콤포스끼-리도브까 문화보다 더 이른 시기의 유물도 발견되었다.⁴⁶⁾ 따라서 초축 성벽의 축조 시기는 발해일 수도 있지만 또한 그보다 더 이른 시기였을 수도 있다. 서벽 북쪽 부분의 성벽 양상은 주거지 조사와 함께 확인되었다(도면 17).



도면 17. 노보고르제예브까 산성 서벽 북쪽 부분 목책 및 주거지 평면도(Болдин В.И., 1987, 도면 47과 48 재편집)

제13구역의 18호 발해 주거지에서 서쪽 5m 거리의 생토에서 12~13세기의 토축 성벽에 의해 일부가 덮인 성벽의 흔적이 확인되었는데 바로 2열의 기둥구멍들이다. 외측 열은 낭떠러지의 가장자리를 따라, 내측 열은 외측 열과 60~110cm의 거리를 두고 각각 나있었다. 외측 열은 직경 30~45cm, 깊이 21~40cm인 8개의 원형 기둥구멍으로서 간격은 110~150cm다. 내측 열은 7개의 기둥구멍인데 그 중 4개는 크기가 90~140 60~75cm인 타원형의 큰 구멍이었고, 나머지 3개는 크기가 직경 22~30cm, 깊이 13~30cm인 작은 구멍이었다. 내측 열 기둥구멍들 간의 간격은 100~140cm이다. 여기에서 기둥구멍의 깊이가 낮은 것은 여진 시기 토축 성벽 조성 시에 생토면이 훼손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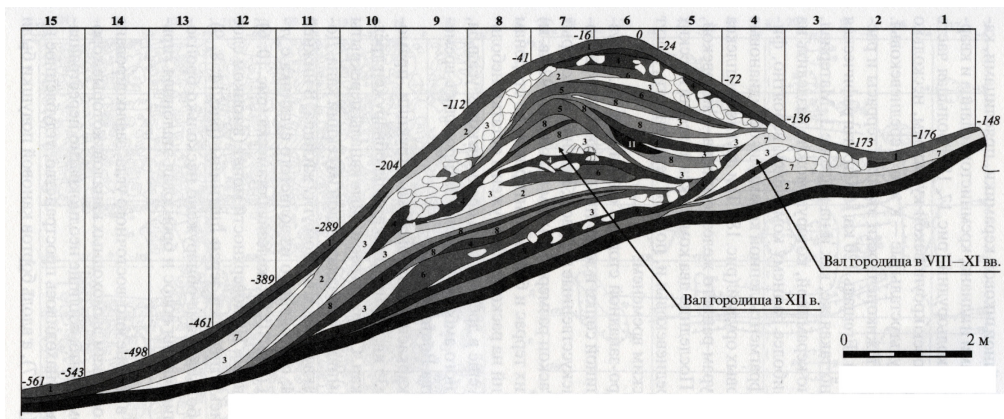
한편 발해 성벽의 흔적은 성의 서쪽 가장자리 부분에 설정한 제11구역의 여진 주거지 아래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고 한다.⁴⁷⁾

46) Болдин В.И., Ивлиев А.Л., Многослойный памятник Новогордеевское городище - материалы раскопок 1986-1987 годов // Труды ИИАЭ народ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ДВО РАН, Том XI, Акту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археологии, Владивосток, 2002, 46~58쪽.

47) Болдин В.И., Отчет о раскопках на Константиновском I селище и Новогордеевском городище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в 1987 году // Архив ИИАЭ ДВО РАН, 101

전체적으로 발해시기 성벽은 양측 면을 목재로 외판을 한 너비 1m의 토축 성벽이었을 것으로,⁴⁸⁾ 혹은 목책일 것으로⁴⁹⁾ 추정되었다. 최근 남한지역의 고구려 보루들과 남성골 산성 등의 성벽축조방식에 대한 연구결과⁵⁰⁾를 통해 볼 때에 두 의견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기둥구멍들 외에는 석축이나 토축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성골 산성의 경우와 같이 목책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된다.

13) 이즈베스뜨꼬바야 소뽀까 산성



도면 18. 이즈베스뜨꼬바야 소뽀까 산성 내성 남벽 단면도(Никитин Ю.Г., 2015, 도면 6 재편집)

연해주 쉬꼬또보 지구의 쉬뜨이꼬보 마을에서 북동쪽으로 5.6km 떨어진 아르찌모브까 강의 옛 하상의 우안 골루비나 산에 위치한다. 동쪽과 남쪽은 절벽이고 서쪽은 가파른 경사면으로서 성벽은 서쪽과 북쪽 부분에 축조되었다. 성 내부는 채석장으로 사용되어 대부분 훼손되었다. 성의 평면도는 1968년에 발표된 것이 있고,⁵¹⁾ 또 1991년에 새로이 작성된 것⁵²⁾이 있는데 서로 차이를 보인다. 서쪽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3줄의 성벽이 확인되었다. 가장 외측의 서벽은 남북 방향으로 난 부분이 길이 240m이고 치가 4개 남아있다. 외측 서벽 밖에는 해자가 있다. 외측 서벽의 남쪽에서 남벽이 동쪽으로 이어지다가 복잡한 구조의 옹성

쪽. Болдин В.И., Итоги изучения бохайского слоя на Новогордеевском городище в 1987 году // Новые материалы по средневековой археологи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ССР, Владивосток, 1989, 89쪽.
 48) Болдин В.И., Ивлиев А.Л., Многослойный памятник Новогордеевское городище - материалы раскопок 1986-1987 годов // Труды ИИАЭ народ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ДВО РАН, Том XI, Акту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археологии, Владивосток, 2002, 52쪽. Болдин В.И., Итоги изучения бохайского слоя на Новогордеевском городище в 1987 году // Новые материалы по средневековой археологи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ССР, Владивосток, 1989, 89쪽.
 49) 에. 웨.샤브쿠노프 엮음 / 송기호 · 정석배 옮김, 『러시아 연해주와 발해 역사』, 민음사, 1996, 97쪽.
 50) 심광주, 「고구려 성곽 발굴조사 성과와 축성기법」, 『아차산 일대 보루군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방안』, 한강문화재연구원, 2014.
 51) Никитин Ю.Г.,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й городища Известковая Сопка // Средневековые древности Приморья, Выпуск 3, Владивосток, 2015, 162쪽 도면 2 참조.
 52) Никитин Ю.Г.,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й городища Известковая Сопка // Средневековые древности Приморья, Выпуск 3, Владивосток, 2015.

문지에서 중단된다. 중간 서벽과 안쪽 서벽은 서로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 성의 북쪽 경계를 따라서는 높이 약 0.3~0.4m, 너비 약 1m의 상징적인 성벽이 가파른 낭떠러지 위를 따라 약 120m 길이로 나있었다. 성벽 단면조사는 웅성 문지 동쪽에 위치하는 이중의 동서 방향 남북 중에서 안쪽의 일직선 성벽(내성 남북)의 동쪽 끝 도로에 의해 절단된 부분에 대해 실시하였다(도면 18).⁵³⁾

단면조사 지점의 성벽은 높이가 밖에서 5m, 안에서 1.8m, 밑변 너비가 13m이다. 성벽은 단단한 적갈색 사질점토 생토 상면을 정지한 다음에 그 위로 쌓았는데 두 단계에 걸쳐 축조가 되었다. 성벽의 안쪽부분에는 단면도에서 볼 때에 생토 위로 나지막하게 토축 성벽이 하나 형성되어 있다. 이 성벽은 석립이 섞인 '너저분한' 황색 사질점토, 회색 사질점토, 암회색 사질점토, 단단한 적색 생토 사질점토, 회색 사질점토를 차례로 올려 쌓아 축조하였는데 안쪽에 덩이 돌들이 섞여 있다. 단면도에 보면 이 초축 성벽의 밑에는 생토를 계단모양으로 정지한 것이 확인된다. 이 초축 성벽은 성벽의 내부와 밖의 덮은 토양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통해 8~11세기 발해국 및 그 이후의 시기로 편년되었다. 그 위로 대체로 여러 가지 색깔의 사질점토층과 단단한 암갈색 점토층이 교대로 쌓여 있고, 위 부분에는 바깥쪽과 안쪽 모두에 층석이 되어 있다. 이 중축 성벽은 금대인 12세기로 편년되었다. 이 유적에서는 안팎스끼 문화, 꼬로우노브카 문화, 빨쨌-올가 문화, 그리고 말갈의 토기, 발해문화층, 여진문화층이 확인되었다.⁵⁴⁾

14) 지기또브까(꾸날레이까) 성

연해주 켈르네이 지구의 지기또브까 강을 건너는 다리에서 북쪽으로 3km 거리의 빨라스똌-켈르네이 도로의 왼편에 위치한다. 성의 평면 모양은 방형이고, 성벽의 전체 둘레길이는 957m이다. 성벽의 높이는 남북과 동벽은 1~1.5m, 서벽은 0.5m이다. 성벽 밑변의 너비는 2~2.5m이다. 문지는 남북과 북벽에 위치한다. 치나 웅성은 없다. 성 가운데에 높이 0.5m까지의 토루로 둘러싸인 13 15m 크기의 방형 '내성'이 있다. 성벽 단면조사는 남북의 문지 동편과 남북의 서쪽 서벽과 인접한 지점에 대해 각각 실시되었다(도면 19).⁵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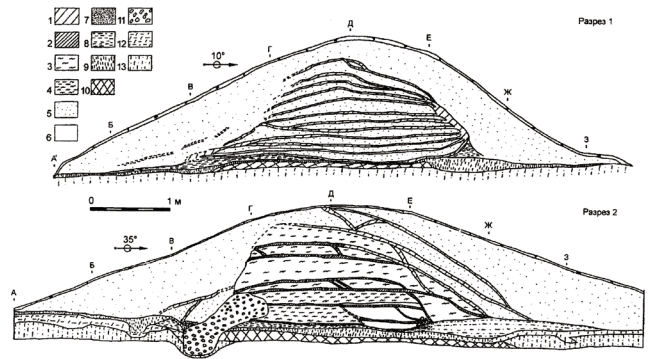
두 지점의 성벽 토층은 양상이 약간 차이를 보이지만 축성 방식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두 곳 모두 생토(잔자같이 섞인 명갈색 사질점토) 위로 2겹의 토층으로 기초를 다지고, 그

53) Никитин Ю.Г.,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й городища Известковая Сопка // Средневековые древности Приморья, Выпуск 3, Владивосток, 2015.

54) Никитин Ю.Г.,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й городища Известковая Сопка // Средневековые древности Приморья, Выпуск 3, Владивосток, 2015, 165~168쪽.

55) Бдякова О.В., Военное зодчество Центрального Сихотэ-Алиня, Москва, 2009, 72-77쪽.

위는 다시 불로 달구어 토층을 매우 단단하게 하였고(8층), 그 다음에야 위로 서로 다른 토양들을 번갈아 쌓아 성벽의 중심부를 조성하였다. 또한 그 위로는 안쪽과 바깥쪽을 모두 포함하게 성토다짐을 함으로써 성벽을 마무리하였다. 다만 제1지점에서는 생토 상면을 편평하게 정지하여 성벽을 쌓아 올렸고, 제2지점에서는 생토면 아래로 얇게 굴착을 하여



도면 19. 지기또브까 성 남벽 문지 동편(위)과 남벽 서쪽 부분(아래) 단면도(Дьякова О.В., 2009, 도면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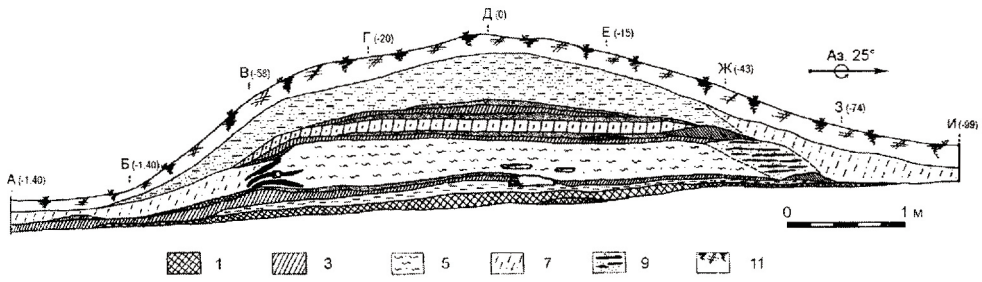
기초를 시작하였다. 제1지점에는 성벽의 중심부를 부식토 얼룩이 드물게 포함되어 있는 갈색의 얇은 사질점토층(1층)과 잔자갈이 15% 이하로 섞인 무른 적색 음영의 상대적으로 두꺼운 갈색 사질점토층(5층)을 번갈아 쌓아(제1지점) 조성하였다. 이에 비해 제2지점에는 성벽 중심부를 잔자갈이 섞인 갈색의 얇은 사질점토층(2층)과 잔자갈이 섞인 상대적으로 두꺼운 황갈색의 사질점토층(4층)을 번갈아 쌓아 올리다가, 더 위와 안쪽으로는 부식토 얼룩이 드물게 포함되어 있는 갈색의 얇은 사질점토층(1층)과 잔자갈이 섞인 혼합된 황갈색의 단단한 사질점토층(3층)을 번갈아 올려 쌓아 조성하였다. 제2지점의 성벽 바깥쪽에는 구덩이를 파서 자갈돌과 사질점토를 채워 넣어 성벽의 외측 기저부분을 튼튼하게 하였다.

성 내의 발굴조사에서 수제의 말갈 토기와 윤제의 발해 토기 그리고 뽀꼬로브까 문화에 특징적인 도장무늬 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이 유적을 조사한 O.V. 디야꼬바는 이 성이 발해국 시기에 말갈문화 공동체의 주민들에 의해 축조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15) 프라스노예 오제로 성

연해주 켄트네이 지구의 지기또브까 강 좌안에 이 강의 하구에서 2km 거리에 위치한다. 평면상 장방형이며, 크기는 65×55m이고, 성벽의 높이는 1.0~2.0m, 밀변 너비는 6~7m이다. 남벽 가운데에 문지가 있다. 북벽과 서벽 밖에는 너비 1.5~1.7m의 해자가 있다. 성벽 단면조사는 남벽에 길이 8m, 너비 1m의 트렌치를 넣어 실시하였다(도면 20).⁵⁶⁾

56) Дьякова О.В., Военное зодчество Центрального Сихотэ-Алиня, Москва, 2009, 88-92쪽.



도면 20. 그라스노예 오제로 성 남벽 단면도(Дьякова О.В., 2009, 도면 53)

조사지점의 성벽은 높이가 1.40m, 밑변 너비가 6m이다. 성벽은 편평하게 정지한 생토 상면 위로 판축다짐을 하여 쌓았는데 생토 상면은 불에 달구었고, 그 위에는 황갈색 사질토층(1층)을 깔은 다음에 모닥불을 피워 단단하게 하여 성벽의 기초로 삼았다. 그 위로는 밝은 토양과 짙은 토양을 번갈아 쌓아 올려 성벽의 중심부를 조성하였는데 위 부분은 토층들의 두께가 5~7cm이다. 중심부 바로 좌우 측면에는 단단한 갈색(안쪽, 9층) 혹은 흑색(바깥쪽, 8층)의 얇은 사질점토층들로 보강하였고, 더 바깥으로는 내·외 모두 갈색 사질토(7층)로서 측면을 보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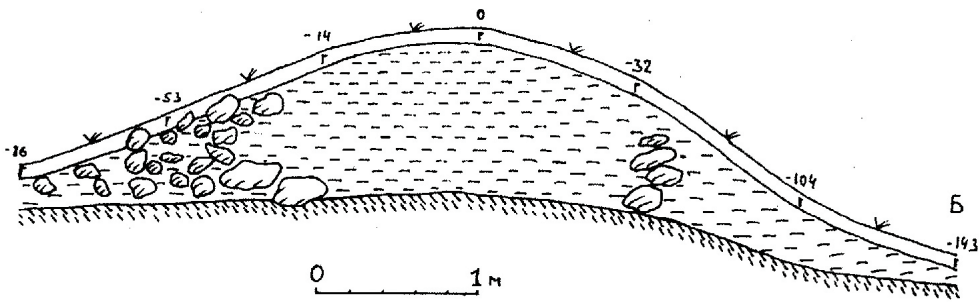
성 내의 발굴조사에서 말갈 수제 토기, 발해 운제 토기, 뽀끄로브카 문화에 특징적인 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이 유적을 조사한 O.V. 디야꼬바는 이 성을 발해국(698~927년)이 축조하였을 것으로, 그리고 유물에 뽀끄로브카 문화의 영향도 보인다고 생각하였다.

16) 스몰노예 성

아누치노 지구 스몰노예 마을에서 남동쪽으로 2km 거리의 아르세니예브카 강 우안에 위치한다. 1997년에 발견되었는데 성의 서쪽 부분이 강에 의해 이미 유실된 상태였다. 전체가 남아있는 동벽은 길이가 65m이다. 평면상 장방형이었다. 성의 면적은 약 0.6헥타르로 추정되었다. 문지는 남벽에 위치하였다. 성 내의 문화층은 2개인데 상층은 격자문 토기를 수반하는 ‘스몰노예 문화’ 층이고, 하층은 크로우노브카 문화층이다. 성 내에서 2기의 구들 주거지와 1기의 우물이 조사되었고, 그 외에도 다른 우물 1기의 흔적이 확인되었다.⁵⁷⁾

57) Шавкунов В.Э., Памятники Смольнинской культуры Приморья (по материалам раскопок городищ Смольнинское и Шайга-Редут) //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ий регион: Археология, этнография, история, Выпуск 4, Владивосток, 2015. 쪽.

성벽 단면조사는 남벽의 단절된 부분에 대해 실시되었다(도면 21). 성벽의 층위는 매우 단순한데 표토, 명갈색 사질점토 성토층, 생토로 구분되었다. 가장 아래의 생토는 암갈색 사질점토로서 성 내의 크로우노브까 문화층의 토양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성벽의 성토층을 이루고 있는 명갈색 사질점토는 성 내의 상층 토양과 동일한 흙이며 성 내에서 출토된 것과 동일한 윤제 토기편들이 섞여 있었다. 성벽의 안과 밖에는 돌들을 쌓아 성벽을 보강하였다.⁵⁸⁾ 여기에서 성벽의 주축을 이루는 중심부의 토층을 따로 구분하지 못한 것은 이 성벽이 단순한 성토다짐을 통해 축조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도면 21. 스몰노예 성 남벽 단면도(Шавкунов В.Э., 2001, 도면 5)

이 유적을 발굴한 V.E.샤브꾸노프는 처음에는 이 유적의 상층을 11~12세기 초로 편년하였으나,⁵⁹⁾ 나중에는 발해 멸망 전인 10세기 초부터 11세기 말까지로 파악하면서 ‘스몰노예 유형’ 토기는 연해주 지역에 9세기 초·중엽 이전에 이미 출현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다.⁶⁰⁾ 하지만 최근에는 스몰노예 문화 유물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본원적인 발해유적 출토 유물과의 유사성 및 ‘발해유적’과의 중복적 분포 상태가 보이지 않음을 근거로 스몰노예 성이 이미 9세기 중엽 경에는 축조되었을 것으로 그리고 스몰노예 문화 자체는 8~11세기로 편년될 것으로 판단하였다.⁶¹⁾ 이 유적에서는 금대 여진의 유물은 전혀 출토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성은 V.E.샤브꾸노프의 의견을 따르면 발해시기에 축성된 것이 분명할 것이다. V.E.샤브꾸노프는 스몰노예 문화를 발해와 이웃한 그렇지만 발해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문

58) Шавкунов В.Э., Обследование на Смольнинском городище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е результаты) // Россия и АТР, № 1, Владивосток, 2001, 35쪽.

59) Шавкунов В.Э., Обследование на Смольнинском городище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е результаты) // Россия и АТР, № 1, Владивосток, 2001, 36쪽.

60) Шавкунов В.Э., О датировке Смольнинского городища // Россия и АТР, № 1, Владивосток, 2007, 66쪽.

61) Шавкунов В.Э., Памятники Смольнинской культуры Приморья (по материалам раскопок городищ Смольнинское и Шайга-Редут) //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ий регион: Археология, этнография, история, Выпуск 4, Владивосток, 2015.

화로 판단하고 있지만,⁶²⁾ 사실 이 지역은 발해 영역의 일부였다.⁶³⁾ 따라서 이 성은 발해의 유적으로서 금 건국 이전까지 발해 멸망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용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발해 성벽축조의 특징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발해 때에 초축 혹은 증축한 발해의 성은 주요 축성 재료를 기준으로 할 때에 크게 (전체) 토축성벽, 토축즙석성벽, 토·석축성벽, 토심석축성벽, (전체) 석축성벽, 그리고 목책성벽으로 구분이 된다. 그 외에 발굴조사가 된 것은 아니지만 사이사이에 크고 작은 돌들을 넣은 토층들로 된 토석판축다짐성벽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토축성벽과 토축즙석성벽은 성벽의 본체를 모두 흙으로 쌓은 것은 동일하지만 성벽 본체의 내·외측과 위로 즙석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차이가 난다. 전체를 토축으로 쌓은 성벽은 서고성, 팔련성, 스파로레첸스꼬예 성 남문지 서편 성벽의 남쪽 부분, 지기또브까 성, 그리고 크라스노예 오제로 성에서 확인된다. 토축즙석성벽은 마리아노브까 성 초축성벽, 꼭샤로브까 1성 제1단계 성벽, 니폴라예브까 1성, 이즈베스트꼬바야 소쁘까 산성 초축성벽에서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마리아노브까 성 초축 성벽과 꼭샤로브까 1성 제1단계 성은 토축 본체의 내·외측과 위를 모두 즙석하였다. 니폴라예브까 1성 서벽에서는 즙석이 성벽의 내·외측에서만 확인되었지만 이곳 성벽이 다른 곳에 비해 높이가 낮기 때문에 상부가 유실된 결과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이즈베스트꼬바야 소쁘까 산성 초축 성벽에는 내측에만 즙석이 되어 있다.

전체 토축성벽과 토축즙석성벽의 토축부는 성벽을 얇은 토층으로 겹겹이 쌓아 올린 판축다짐성벽과 두꺼운 토층을 수 겹 다져 올린 성토다짐성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판축다짐은 발해의 도성이었던 서고성과 팔련성에서 적용되었다. 그 외에도 연해주의 동북해안지역에 위치하는 지기또브까 성과 크라스노예 오제로 성에서도 판축다짐의 예를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 두 성에서는 성벽 단면도를 통해 볼 때에 판축다짐과 성토다짐이 함께 적용되었다고 생각된다. 전체 토축성벽인 스파로레첸스꼬예 성의 남문지 서편 성벽의 남쪽 부분은 성토다

62) Шавкунов В.Э., Памятники Смольнинской культуры Приморья (по материалам раскопок городищ Смольнинское и Шайга-Редут) //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ий регион: Археология, этнография.

63) 정석배, 「발해의 북방경계에 대한 일고찰」, 『고구려발해연구』, 제54집, 2016.

짐으로 축조된 것으로 생각된다. 토축증석성벽은 대부분 토층구분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토다짐이었다고 생각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니콜라예브까 1성의 서벽을 들 수 있다. 토층구분이 되는 꼭샤로브까 1성의 남벽도 성벽 본체는 성토다짐으로 쌓았다고 생각된다.

그 외에도 발해 성들 중에서 동녕 대성자고성, 화전 소밀성과 훈춘 영의성 그리고 목단강시 용두산고성에서는 토축성벽의 단면이 노출된 곳이 확인된다.⁶⁴⁾ 다만 성토다짐인지 판축다짐인지의 여부는 노출단면에 대한 세밀한 정리조사 없이는 알 수가 없다. 꼭샤로브까 2성의 성벽⁶⁵⁾도 강에 의해 단면이 노출되어 있는데 토축증석성벽으로 생각된다.

발해 판축다짐성벽의 특징은, 서고성과 팔련성의 예를 통해 본다면, 동일한 혹은 비슷한 색깔과 성분의 토층들을 일정 높이까지 반복적으로 쌓아 올렸다는 점, 토층의 두께가 일정하지 못하다는 점, 토층이 양단까지 계속 이어진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다른 토층들로 대체되는 점 등이다. 이것은 요·금대의 판축다짐성벽과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징이다. 발해 토축성벽의 다른 한 특징은 두꺼운 토층들이 불과 몇 겹 되풀이된 성토다짐성벽이 많다는 점이다.

연해주의 금대 동하국의 유적으로 판단되고 있는 끄라스노야르 성, 빠르띠잔스크 니콜라예브까 성, 유즈노-우우리스크 성,⁶⁶⁾ 내몽골 파림좌기의 요 상경성(상경 임황부), 하얼빈 부근 아성의 금 상경성(상경 회령부), 왕청 나자구고성, 임구현 삼도통고성 등⁶⁷⁾의 성벽은 발해의 판축다짐성벽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다른 색깔과 성분의 일정 두께 토층들을 시루떡과 같이 반복적으로 쌓아 올렸다. 이 중에서 금 상경성의 경우에는 흙벽돌을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토·석축성벽의 예는 스파로레친스꼬예 성의 남문지 서편 성벽의 북쪽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잔돌이 섞인 사질토양과 모래가 섞인 자갈을 번갈아 쌓아 올려 성벽을 축조하였다. 그 외에 오희라인까 성도 토·석축성벽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인데 아래는 토축, 위는 석축이다.

발해의 성들 중에는 돌들이 개별 층을 이



도면 22. 하룡고성 동벽 모습

64) 이 성들의 성벽 단면은 직접 확인하였다.

65) 이 성의 성벽 단면은 직접 확인하였다.

66) Артемьева Н.Г., Чжурчжэнские валы // Средневековые древности Приморья, Выпуск 1, Владивосток, 2012.

67) 이병건, 「연변지구 내 추정 요금시기 평지성의 조영과 성곽시설 고찰」, 『고구려발해연구』, 제56집, 2016. (이 성들의 성벽 단면은 직접 확인하였다.)

루면서 성벽에 들어간 토·석축성벽과는 달리 크고 작은 돌들을 토층들의 사이사이에 넣은 토석판축다짐성벽도 있다. 바로 연결 하룡고성 성벽이다(도면 22). 하룡고성에 대해서는 발해 때에 처음 축조되었다가 요·금 때에 사용되었다는 의견⁶⁸⁾과 고구려시기에 축조되어 발해 이후까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⁶⁹⁾이 있다. 그런데 하룡고성의 성벽에서는 발해에 특징적인 윤제 광택무늬 토기편들과 하단면에 꽃무늬가 연속적으로 배치된 발해 암키와편이 발견된 반면에 발해 이후의 유물은 확인되지 않기⁷⁰⁾ 때문에 발해시기에 축조한 성벽이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토심석축성벽은 내·외측에 석축을 하고 속에는 성토다짐을 한 토심내외석축성벽과 외측에만 석축을 하고 속은 성토다짐을 한 토심외측석축성벽으로 구분이 된다. 토심내외석축성벽의 예는 끄라스끼노 성과 니폴라예브카 2성에서, 토심외측석축성벽의 예는 시넬니꼬보 1산성에서 각각 찾을 수 있다. 다만 니폴라예브카 2성의 경우에는 도면을 통해 볼 때에 석축이 수축의 결과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 외에 스몰노예 성은 토심의 내·외측에 돌을 쌓기는 하였으나 면을 맞추지 않은 유사 토심석축성벽의 예를 보인다.

토심석축성벽의 예는 고르바뜨카 성도 해당된다고 지적된 바 있다.⁷¹⁾

전체 석축성벽은 상경성 궁성 성벽에서 찾을 수 있다. 토심석축 성벽도 외견상 석축성벽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내·외측과 속 모두를 돌로 쌓은 성벽은 발해의 성들 중에서는 현재 상경성 궁성 한 곳에서만 확인된다. 다만 상경성 궁성의 석축 성벽에는 하단부 안팎에는 성토다짐으로 측면보호벽을 쌓았다.

목책성벽은 노보고르제예브카 산성에서만 확인되었다. 다만 시넬니꼬보 1산성의 토심외측석축성벽의 위로 일정구간에 목책이 시설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벽 위가 아닌 지면에 바로 목책을 시설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발해의 성벽축조방법과 관련해서는 축성의 재료뿐만 아니라 성벽을 이루는 몸체의 구성요소라는 측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발해의 성벽은 기본적으로 조정지면(調整地面), 기초부, 중심부, 측면보호벽으로 구분이 된다.

조정지면은 기초 흙을 판 경우, 지면을 편평하게 정지한 경우, 그리고 지면을 계단식으로 만든 경우로 각각 구분된다. 깊이 0.5~1m의 기초 흙을 판 경우는 상경성, 서고성, 팔련

68) 吉林省文物志編委會 主編, 『延吉市文物志』, 1985, 55~58쪽.

69) 양시은, 「연변 지역 고구려 유적의 현황과 과제」, 『동북아역사논총』, 38호, 2012, 115~116쪽.

70) 직접 확인하였다.

71) Ивлиев А.Л., Болдин В.И., Никитин Ю.Г., Новые сведения о фортификации бохайских городищ // Археология и этнолог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Владивосток, 1998, 155쪽.

성에서만 확인되었는데 모두 발해의 도성이었던 유적이다. 지면을 편평하게 정지한 경우는 마리아노브까 성, 스파로레첸스꼬예 성, 오끄라인까 성, 스펠노예 성, 지기또브까 성, 끄라스노예 오제로 성이 있는데 모두 강안 평지성이다. 다만 오끄라인까 성과 지기또브까 성 남북 끝 부분은 원 지면을 조금 파고 내려간 흔적이 확인되었지만 기초 흙은 아니다. 지면을 계단식으로 만든 경우는 니콜라예브까 2성, 꼭샤로브까 1성, 시넬니꼬보 1산성, 이즈베스트꼬바야 소쁘까 산성이 있다. 니콜라예브까 2성과 꼭샤로브까 1성은 평지성인데 평지성에서 성벽 아래 지면을 계단식으로 사전 준비한 것은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된다.

기초부는 기초 흙을 판 경우에는 속에 강돌층+판축다짐층(상경성 궁성, 서고성) 혹은 판축다짐층(팔련성)을 교대로 쌓아 기초를 튼튼히 하였다. 지면을 편평하게 정지한 오끄라인까 성에서는 정지한 지면 위로 성벽의 기초부를 위의 성벽 중심부의 너비와 비슷하게 상당히 두껍게 쌓아 올렸다. 지기또브까 성과 끄라스노예 오제로 성에서는 정지한 지면 위로 성벽 중심부보다 약간 더 넓게 기초부를 쌓고 그 표면은 불에 달구어 단단하게 하였다. 지면을 계단식으로 만든 시넬니꼬보 1산성과 꼭샤로브까 1성의 경우에는 이전의 토축 성벽(시넬니꼬보 1산성) 혹은 이전의 문화층(꼭샤로브까 1성)을 기초부로 삼았는데 이것이 일종의 토제(土堤)⁷²⁾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즈베스트꼬바야 소쁘까 산성에서는 중심 성벽보다 더 넓게 기초부를 쌓았다.

성벽의 중심부와 측면보호벽은 토축성벽, 토축즙석성벽, 석축성벽, 그리고 토·석축성벽에서 확인된다. 토축성벽에는 기본적으로 중심부 안팎으로 비스듬하게 측면보호벽을 쌓아 성벽을 보호하였다(서고성, 팔련성). 다만 내·외측면과 위 부분도 함께 보호벽을 쌓은 경우도 관찰된다(지기또브까 성, 끄라스노예 오제로 성). 토축즙석성벽은 원칙상 토축부는 중심부,즙석부는(측면) 보호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마리아노브까 성, 꼭샤로브까 1성, 니콜라예브까 1성, 이즈베스트꼬바야 소쁘까 산성). 석축성벽인 상경성 궁성은 석축성벽 자체는 중심부에 해당되고, 성벽 하단부의 안팎으로 비스듬하게 쌓은 토층들은 측면보호벽에 해당된다. 오끄라인까 성의 토·석축성벽에는 중심부 안팎으로 비스듬하게 측면보호벽을 쌓았다.

72) '토제'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이혁희, 『백제토성 축조기법의 특징과 변천』, 『유리건판으로 보는 백제의 성곽』, 국립중앙박물관, 2016).

4. 맺음말

지금까지 성벽단면조사가 실시되고 그 내용이 보고된 성들을 중심으로 발해 성벽의 축조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성벽의 단면조사 내용이 알려져 있는 16개소의 발해성은 발해 이전에 축조되어 발해 때에 증축되고 발해 이후에는 사용되지 않은 것(시넬니꼬보 1산성), 발해 때에 축조되어 발해 때에만 사용된 것(상경성, 서고성, 팔련성, 니콜라예브까 1성, 니콜라예브까 2성, 스파로레첸스꼬예 성), 발해 때에 축조되어 주로 요·금대 이전까지 사용된 것(꼭샤로브까 1성, 오끄라인까 성, 스펴노예 성), 발해시기 말갈계통 부족들이 축조한 것(연해주 동북해안지역의 지기또브까 성과 끄라스노예 오제로 성), 그리고 발해 때에 초축되고 금대에 증축된 것(마리아노브까 성, 노보고르제예브까 성, 이즈베스트꼬바야 소쁘까 성)으로 구분된다.

그 외에도 성벽단면조사가 실시된 것은 아니지만 성벽의 단면이 노출되어 있는 동녕 대성자고성, 화전 소밀성, 훈춘 영의성, 목단강시 용두산고성, 연길 하룽고성, 연해주 꼭샤로브까 2성 등에서도 성벽의 양상이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

발해 때에 축조한 혹은 증축한, 다시 말해서 발해 때에 쌓은 성벽은 축조재료와 세부구성 양상에 따라 (전체) 토축성벽, 토축즙석성벽, 토·석축성벽, 토심석축성벽, (전체) 석축성벽, 목책성벽, 토석판축다짐성벽으로 구분하였다. 토축성벽은 서고성과 팔련성, 그리고 지기또브까 성과 끄라스노예 오제로 성에서 확인된다. 서고성과 팔련성은 판축다짐성벽이고, 나머지 둘은 판축다짐과 성토다짐을 병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대성자고성, 소밀성, 영의성, 그리고 용두산고성도 성벽을 토축으로 쌓았다. 토축즙석성벽은 니콜라예브까 1성, 마리아노브까 성 초축 성벽, 꼭샤로브까 1성 초축 성벽, 이즈베스트꼬바야 소쁘까 산성 초축 성벽에서 각각 찾아볼 수 있다.즙석 아래의 토축 부분은 모두 성토다짐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토·석축성벽의 예는 스파로레첸스꼬예 성 남문지 서편 성벽의 북쪽 부분과 오끄라인까 성에서 서로 다른 양상으로 확인되었다. 토심석축성벽은 끄라스끼노 성의 성벽과 같은 토심내외석축성벽과 시넬니꼬보 1산성 성벽과 같은 토심외측석축성벽으로 구분된다. 토심외측석축성벽은 고르바뜨까 성과 꼭샤로브까 2성에서도 확인되었다. 내·외 겹면뿐만 아니라 속까지 돌을 채운 전체 석축성벽은 상경성 궁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목책성벽은 노보고르제예브까 산성에서 보고된 것이 있다. 토석판축다짐성벽은 하룽고성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스파로레첸스꼬 성에서는 토·석축성벽과 토축성벽이 구간을 달리하여 확인되어 동일 성벽에서 서로 다른 축조방법이 적용된 경우도 있음을 보여 주었다.

요·금대의 성벽은 대부분이 전체 토축성벽이며, 매우 드물게 석축성벽도 있기는 하나 산 경사면에 편축한 것이다. 따라서 발해의 토축즙석성벽, 토심석축성벽, 토·석축성벽, (전체) 석축성벽, 목책성벽, 토석판축다짐성벽은 요·금대에는 비특징적인 성벽이라고 말할 수 있다. 토축성벽의 경우 판축다짐은 요·금대에 널리 적용되었다. 하지만 발해의 판축다짐성벽은 서로 다른 색깔과 성분의 토층을 거의 매번 되풀이하여 시루떡모양으로 정연하게 쌓은 요·금대의 것과는 달리 동일한 혹은 비슷한 색깔과 성분의 토층들을 일정 높이 반복적으로 쌓아 올렸다는 점, 토층의 두께가 일정하지 못하다는 점, 토층이 양단까지 계속 이어진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다른 토층들로 대체된다는 점 등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다음으로 발해의 성벽을 조정지면, 기초부, 중심부, 측면보호벽으로 구분하여 검토해 보았다. 조정지면은 기초 흙을 판 경우, 지면을 편평하게 정지한 경우, 그리고 지면을 계단식으로 만든 경우가 구분되었다. 기초 흙을 파고 기초를 다진 것은 상경성, 서고성, 팔련성 등 발해의 도성유적에서만 확인되었다. 기초부는 기초 흙을 다져 조성한 경우, 정지한 지면 위로 상당히 높게 성토다짐하여 기초부를 조성한 경우, 정지한 지면 위로 성벽 중심부보다 더 넓게 기초부를 조성하고 불에 달구어 단단하게 한 경우, 이전의 성벽이나 문화층을 기초로 삼은 경우 등이 확인되었다. 중심부와 측면보호벽은 토축성벽, 토축즙석성벽, 석축성벽, 그리고 토·석축성벽에서 구분되었다. 토축성벽에서는 중심부를 쌓고 그 안팎에 경사지게 측면보호벽을 쌓았고, 토축즙석성벽의 즙석은 기본적으로 (측면) 보호벽이라고 할 수 있다. 상경성 궁성의 석축성벽에서도 하단부는 안팎으로 성토다짐을 하여 측면보호벽을 만들어 놓았다.

따라서 발해 성들의 성벽 축조방법은 요·금대 성들의 것과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본고에서는 논의하지 않았지만 성벽부속시설도 발해와 요·금대 성들은 많은 차이를 보인다. 지금까지의 발해 성곽연구에 요·금대의 성들이 포함되곤 하였는데 앞으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토론문〉

발해의 성벽 축조방식에 대해

안성현 (고려문화재연구원)

성곽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는 해석적 담론이나 지방지배, 관방체계 및 교통로, 주변유적과의 관계 등을 다루는 거시적 관점과 성곽의 부속시설 및 성벽의 구조, 수·개축흔, 그리고 시기적 경관 등을 파악하는 미시적 관점을 통한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미시적 관점에 대한 분석이 선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사적 해석은 많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¹⁾ 따라서 성곽유적을 고고학적으로 접근할 경우 한 지역내 성곽을 시기별로 구분하는 작업과 성벽 및 부속시설 역시 시기별로 나눈 후 각 유적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순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토론자는 파주 덕진산성과 흥련봉 1·2보를 분석한 결과 당연하지만 현재 잔존하는 성벽과 내부시설은 유구가 폐기되는 시점에 완성되었으며, 생활면-구지표-은 지속적으로 높아졌음을 밝힌 바 있다.²⁾

이러한 관점에서 이 발표문의 내용 역시 토론자가 주장하는 것과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큰 이견은 없다. 다만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발표문의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이 드는 것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1. 발표자는 발해 성곽의 주요 축성 재료를 기준으로 할 때에 크게 토축성벽, 토축즙석성벽, 토·석축성벽, 토심석축성벽, 석축성벽, 그리고 목책성벽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성벽의 내·외벽부의 석축벽을 공정상의 차이로 보고 있는듯하다. 이에 대해 토론자는 남한지역 토

1) 안성현, 2016a, 「남한지역 토성벽에 잔존하는 석축부에 대한 연구」, 『아외고고학』 제25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8쪽.

2) 안성현, 2015, 「덕진산성의 축조 연대와 의미」, 『파주 덕진산성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 및 활용 방안』, 중부고고학연구소, 63~9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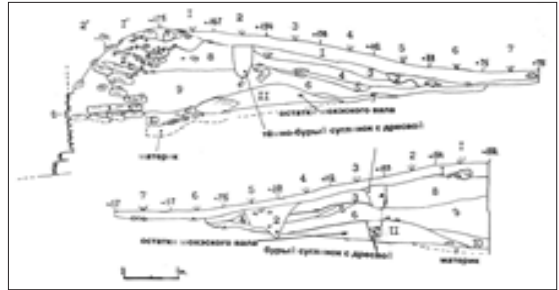
———, 2016년b, 「흥련봉 1·2보루의 축조방식과 구조에 대한 연구」, 『백제연구』 제55집, 115~134쪽.

성을 분석한 결과 성벽 내·외벽부의 석축은 동시에 축조된 것과 후대에 수·개축이 이루어지면서 부가된 것으로 나누어지지만 후자가 다수임을 밝힌바 있다.³⁾ 따라서 발해 성곽에서는 보이는 석축 역시 후대에 개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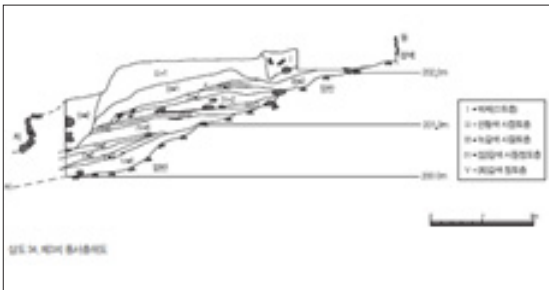
끄라스끼노 성 서벽의 경우 내벽쪽에서 수축흔이 확인하며, 시넬니꼬보 산성 문지 서쪽 성벽의 단면도를 살펴보면 석축부가 동시기에 축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끄라스끼노 성 서벽



세넬니꼬보 산성 문지 서쪽 성벽



시루봉보루 치 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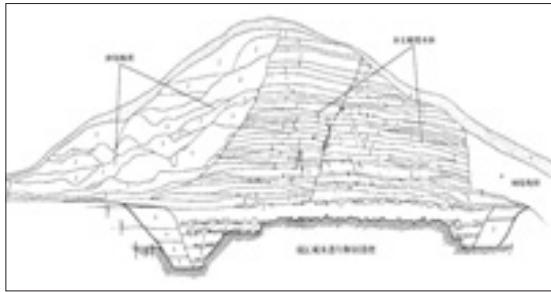


파주 덕진산성 외벽 토층

그림 1 성벽 입·단면

2. 토성의 수·개축에 관한 것으로 서고성 외성 남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잔존부의 성벽을 공정상의 차이로 보고 있는 듯 하지만 그렇게 보기 힘들다고 생각된다. 즉 외성 남벽 중앙부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데 반해 남벽은 수직에 가깝다. 따라서 이 부분은 수축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대한 발표자의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안성현, 2016, 「경남지역 통일신라시대 토성에 대한 재검토」, 『慶南研究』11, 경남발전연구원, 105-108쪽.



서고성 외성 남벽



서고성 외성 남벽

그림 2 서고성 성벽 단면

3. 생활면에 관한 것으로 이 발표문의 분석 대상 중 구지표의 변화양상이 비교적 명확하게 보이는 것으로 상경성과 서고성, 팔련성 내성 남벽, 끄라스끼노 성, 스타로레첸스꼬예 성, 꼭샤로브까 1성 남벽 등이다. 이중 상경성의 경우 발표자와 다른 해석이 가능한데 토론자가 분석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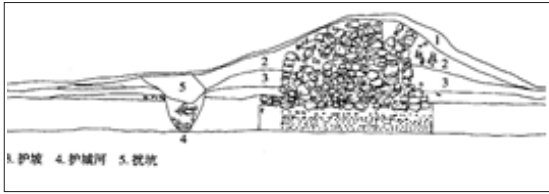
토층은 12개 층으로 나누어지며. 이중 1층은 표토층이다. 2~5층은 성벽 붕괴층 및 후대 층인데, 이중 3층은 성벽 붕괴층을 굴착하고 조성되었으므로 성벽 축조와 관련이 없어 보인다. 7층은 약간 애매하지만 성벽 남쪽의 단면 형태가 호상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9층과 다른 층으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경우 초축 성벽 이후 층이 되며, 북쪽도 동일한 양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7층은 수축 성벽의 기저부 보강층이 되며, 두께로 보아 여러 층으로 나누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8층은 보고서에서는 해자, 발표자는 배수로로 본 것인데, 단면도 상에서 9층을 굴착하고 조성하였다. 따라서 7층보다는 선대였을 가능성이 있다.⁴⁾ 9층은 발표자가 말한 성벽 기저부 보강층 중 하나이며, 남쪽으로 갈수록 얇아져 자연스럽게 성벽 이전층과 연결되므로 북쪽 역시 이와 유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9층 상면을 초축 성벽의 생활면으로 볼 수밖에 없다. 10-11층은 기저부조성층으로 이견의 여지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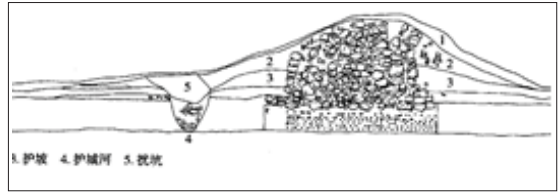
따라서 상경성 궁성 남벽의 경우 생활면이 높아졌음을 시사하며, 최근에 조사된 아차산성 북서쪽 성우, 청주 부모산성, 영월 정양산성, 장원 진원성, 함안 성산산성 동벽 및 남문지 등이다. 이중 정양산성은 초축 이후 삼국시대부터 고려·조선시대까지 지속적으로 퇴적이 이루어져 각 시기별로 생활면이 차이를 보인다.

4) 물론 단면도 작성 시 오류가 있어 7층을 굴착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도면에서는 9층을 절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발해 성곽 중 생활면의 변화가 확연한 것이 있는지, 있으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경성 궁성남벽(보고서)



상경성 궁성남벽(수정)



정양산성 내성 서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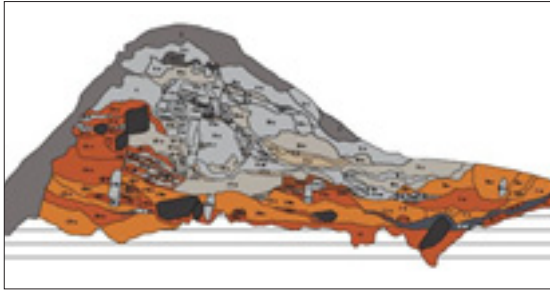
장성 진원

그림 3. 성곽내부 생활면(구지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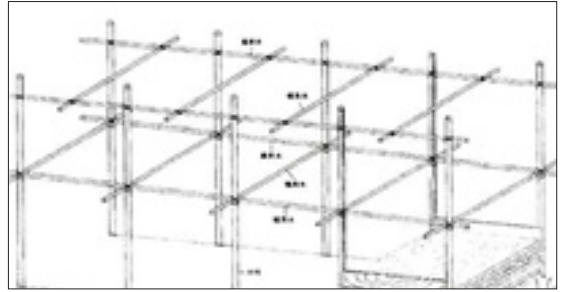
4. 판축토성과 성토토성은 전혀 다른 축조수법이며 사전적의미로 성토는 “주변의 흙을 이용해 일정 높이까지 쌓아 다음 마감 높이에서 두들겨 일정한 성벽 형태는 유지하는 방법”이므로 다양한 성토재가 사용되어 진다. 이에 반해 판축의 “판(版)”은 성벽이나 담장 등을 쌓을 때 흙의 양쪽에 대고 쌓는 판자(牆版)를 의미하고, ‘축(築)’은 흙을 다지는 방망이(杵, 공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성벽, 담장, 건물의 기단, 단상의 지형조성 등을 위한 판으로 틀을 만든 후 가운데를 흙이나 모래 등을 층상으로 넣어 방망이로 짚어서 단단하게 하고 차례로 높게 흙을 쌓아 올리는 기법, 또는 그 쌓아 올린 흙 자체⁵⁾를 가리키며, 발굴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영정주와 횡장목 및 종장목이 확인된다.

하지만 발표문에서는 양자를 구분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독자들에게 오해를 줄 소지가 있으므로 발표자가 판축과 성토토성으로 나눈 근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5) 國立文化財研究所, 2011, 『韓國考古學專門事典』.



고양 벽절산유적(성토토성)



판축토성 모식도

그림 4. 성토토성 및 판축토성 성벽